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편



신앙계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성시화운동을 소개하는 이 책의 제목입니다. '생명체가 아닌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에 거듭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 의미에서 도시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들의 문화적 산물로서 만들어가는 도시라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21세기 대안선교운동인 성시화운동은 총체적 도시선교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춘천이라는 평범한 도시에 성시화에 대한 꿈을 주셨고, 20여 년 동안 그 일을 이루어오셨습니다. 작고 소박한 사람들 가운데서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 '성시화' 도시가 거듭나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표지그림 : 김정희 교수
(춘천교육대학교교수, 춘천성시화 기독미술인회회장)

증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

SINCE 1988





▶ 춘천시민복음화 선교대회(일시: 1988. 6. 27-29 장소:춘천실내체육관)



▶ '94 복음과 춘천집회(일시: 1994. 9. 8-9 장소:춘천제일장로교회)

SINCE



1994



▶ '94 복음과 춘천집회-성시토론회(일시: 1994. 9. 8 장소:춘천제일장로교회)

SINCE 1996



▶ 춘천성시화추진목회자간담회
(일시:1996. 8. 30 장소:세종호텔)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예배(일시:1996. 9. 19 장소:소양성결교회)





▶ 춘천성시화주간-성시토론회(일시:1996. 9. 30 장소:순복음춘천교회)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현판식(일시:1996. 9.30 장소: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성시화' - 성시화운동의 차세대 일꾼들



▶ 춘천성시화주간-성시기도회(일시: 1996. 10. 1-2 장소: 백령문화관)



▶ 춘천성시화주간-성시연합예배(일시 : 1996. 10. 4
장소 : 백령문화관 강사 : 김준곤목사)



▶ 성탄츄리점등식(일시 : 1996. 12. 19
장소 : 춘천조각공원 주최 : 춘천기독교연합회)

▶ 춘천성시화주간-성시연합예배
(일시 : 1996. 10. 4 장소 : 백령문화관)



SINCE 1997



▶ 말씀을 통한 영어공부-영어영성세미나
(일시: 1997. 2. 27-31 장소: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이한수박사)



▶ 청소년을 위한 찬양콘서트, 박종호씨의 찬양
(일시:1997. 2. 15 장소:백령문화관))



▶ 춘천지역 청년, 대학생 복음화를 위한 음악과 강연의 밤
(일시:1997. 3. 20 장소:강원대 백령문화관)



▶ 춘천성시화, 건강한 삶을 위한 수련회

(일시: 1997. 4. 4-5
장소: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주최:춘천홀리클럽)







▶ 비상시국 구국기도회(일시:1997. 5. 21 장소:공지천 야외음악당)



▶ 춘천시민초청대성회시 말씀전하는 조용기목사



▶ '춘천시민 모두에게 주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 -춘천시민초청대성회
(일시: 1997. 9. 9-10 장소: 공지천야외음악당 강사: 조용기목사)



▶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모임-강원청소년선교회 창립총회
(일시: 1997. 9. 4 장소:강원대학교 회장:최상필도의회의장)



▶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 성적 순결을 지킬것을 서약합니다' -약속하는 청소년들



▶ 춘천 기독의료인회 창립예배(일시: 1997. 8. 25 장소: 세종호텔)



▶ 직장선교연합회 7주년 감사예배-특송하는 기관장모임(일시: 1997. 7 3 장소: 광장감리교회)

사진자료제공: 김영명 집사(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발 간 사

임택창 목사

하나님께서 춘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큰 사명,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된지 25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춘천성시화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꾸준한 기도와, 교회간의 지속적인 연합과,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차제에 춘천 성시화 운동의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문서로 묶어 책으로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귀한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 역사의 자료가 읽는 분들에게 성시화의 불길이 일어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도시에서 우리와 비슷한 성시화를 꿈꾸는 분들에게도 복음 운동의 귀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택창 목사님은 현재 석사감리교회를 시무하고 계시며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바쁘게 뛰고 계십니다)

추 천 사

김준곤 목사

70년대는 한국 민족 근대사에 있어서 엄청난 시련과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민족복음화 운동의 비전이 전 교인들에게 의식화된 시기였습니다. 여호와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삼고(시 33:12)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의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우리 민족의 신앙과 윤리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의 가슴마다 피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에서 역사적 차원으로 대형 집회를 개최하여 시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예수혁명 성령폭발" 구호도 도처에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동안 우리가 품었던 여러 비전들 중 가장 꿈같은 운동은 춘천성시화운동이었습니다.

21세기의 제네바가 그 모델이었습니다. 뿌리째 송두리째 복음화될 민족의 축소판과 모델인 춘천이기를 기도했습니다.

호반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

깨끗한 도시,

거룩한 도시 춘천,

완전 복음화된 춘천,

세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처럼 신앙이 살아 숨쉬고 성시 관광이 줄을 잇는 꿈을 꾸는 춘천.....

남북통일의 모델도 이곳에서 꽃피울 것을 빕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총재로 지난 70년대부터 춘천성시화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으며, 춘천성시화운동의 태동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머 리 말

조남진 장로

요한은 다가올 거룩한 도시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도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을 내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도시의 큰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열방을 치유할 잎사귀들이 있었습니다. (계 22:1,2 NIV 한역)"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이 생명강을 이루어 도시의 한복판에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생명강의 공급을 받아 비옥해져 있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었습니다. 일 년 열두 달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문화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온 세계 민족들을 치유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있었습니다. 생명강과 생명나무로 풍요로운 도시! 온 세계를 섬기는 도시! 성경은 이렇게 거룩한 도시의 환상을 줌으로써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기나긴 구속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는 성서의 결론이자 역사의 결론입니다. 거룩한 도시는 성서를 읽는 사람마다 부딪혀야 할 절대적 소명입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도시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춘천을 하나님의 주권이 생명강처럼 흐르는 도시, 생명나무의 문화적 결실이 풍요로운 도시, 열방을 자유하는 섬김의 도시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96년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이래 1주년을 맞이한 이즈음 우리는 한가지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서에서는 이토록 중요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룩한 도시의 비전이 춘천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서의 의도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운동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매체의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매체가 없이 성시화운동을 몇몇의 가슴 속에서만 작게 메아리치는 보잘 것 없는 운동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2년에 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이래 중요한 문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건들은 대중에 성시화운동의 이념과 목표 및 방법론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 쓰여지고 있는 글들과 함께 이러한 글들을 한곳에 모아 대중에 책으로 공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뜻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자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받침틀이 필요하듯이 성시화운동이 계속 발전되기 위해서는 바탕이 될 기초적 문헌정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문자가 창조되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교육되어지지 않은 문맹의 사회에 가보면 발전에 있어서 문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자가 없으면 지식이 제대로 소통될 수도 축적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文化는 결코 文字를 배제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자가 너무도 당연시되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문자의 중요성을 오히려 간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文字化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대명제는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성시화운동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이 반드시 문자로 표현되어야 하며, 문자로 소

통 되어야 하고, 문자로 축적되어야 하며, 문자로 확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운동은 문서 매체를 꼭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에서 「도시,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거룩한 도시의 꿈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더욱 생생하게 자리잡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이 책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시화운동을 다루는 책자들을 많이 출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거룩한 도시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도시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겔 43:35)

"The name of the city from that time on will be;
THE LORD IS THERE."

목차

발간사 / 임택창 목사
추천사 / 김준곤 목사
머리말 / 조남진 장로

1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 / 김준곤 목사 • 29
도시를 복음 위에 / 김진홍 목사 • 34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 한 균 목사 • 38

2부 사람의 도시, 예수의 도시

세상을 바꿀 대안사회, 대안도시 / 이영길 선교사 • 46
총체적 선교로서의 성시화 운동 / 로날더 사이더(Ronald Sider) • 58
성시화 운동의 과제와 전망 / 허문영 박사 • 77
춘천성시화 운동노우트 / 김준곤 목사 • 105
요한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과 성시화운동 / 정재호 강도사 • 115
성시 / 우리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 138

3부 도시 거듭나기

나의 희망 나의 소원, 춘천성시화! / 문선재 목사 • 142
21세기를 향한 도전, 성시(聖市)춘천 / 조남진 장로 • 147

기도 -세계복음화, 도시복음화를 위한 영적 전투 / 조은제 장로 • 165
성시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 편집부 • 177
성시화운동과 복음전도, 교회갱신 그리고 사회개혁 / 춘천성시화 운동본부 • 183

4부 꿈꾸는 사람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 김준곤 목사 • 188
세상을 향해 띄운 배 / 전용태 장로 • 192
또다시 꾸는 꿈 / 김주환 목사 • 196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되어 / 이학규 장로 • 199
역사 속의 성시화 운동 / 조충환 목사 • 202
거룩한 도시로의 비전 / 최상도 전도사 • 208

5부 모든 도시가 함께

성시화운동을 시작하려는 도시들에게 / 차성도 교수 • 219
성시화와 학원선교 / 이갑용 간사 • 233
크리스천과 직업 / 방선기 목사 • 237
춘천성시화와 어린이 전도 / 이무종 전도사 • 243

6부 춘천의 꿈, 거룩한 도시

성시 / 빛이 잠시 있는 동안 / 김홍주 • 250

영혼의 도시, 춘천 / 김춘배 • 253

춘천성시화, 역사의 흐름앞에서 / 조남진 장로 • 264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출범과 전개 / 편집부 • 280

춘천의 영적지도자 33인에 대한 성시화 운동의식 설문조사 • 291

춘천의 영적전투지도 / 예수전도단 WSB TEAM • 297

춘천성시화운동 선언문 • 329

부록

예수, 성서,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는 도시(1)
/ '94 복음과 춘천 토론회 지상중계 • 344

예수, 성서,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는 도시(2)
/ '96 복음과 춘천 토론회 지상중계 • 365

춘천의 개관 • 398

성시화 관련 도서 목록 • 413

1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

김준곤 목사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군사 용어였습니다. 헬라 로마 시대 패전국의 백성은 생존권과 소유권이 전쟁에 이긴 나라에 속하게 되어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곤 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 지면 큰일이었기에 온 국민이 전쟁의 결과에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는 전령이 온 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승리다!'라고 외쳤고, 소식을 들은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감사의 축제를 벌였는데 그것을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상의 복된 소식이 없을 정도의 굉장히 기쁜 소식, 엄청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몸 돌보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회사 일, 국가 일, 가족 일, 굉장히 급한 일, 중요한 일, 필요한 일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천국이 들어 있고 죄사함을 받는 속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는 가정이 평화롭게 잘 살고, 이 땅에서 도시가 천국처럼 범죄도 없고 깨끗한 곳으로 될 수 있는 비결도 들어 있습니다.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는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민족, 풍요롭고 잘 사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는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 조그마한 호반의 도시 제네바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법안을 제정한 제네바는 지금 전 세계의 평화를 논하고 인류의 운명을 논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물론 종교의 거룩한 도시지만 제네바는 종교 개혁을 했던 존 칼빈이 한 도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성시화의 모델 도시입니다.

세계 도시 중 십자가가 많은 곳을 꼽으라면 당연 서울을 말합니다. 서울은 1970년대에 기독교 인구가 25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무려 400%나 성장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씩 모이는 집회를 너댓번이나 치르고, 춘천에서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진 것도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갔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말로, 전도로, 생활로, 물질의 나눔으로, 글로 -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도시 전체를 거룩한 도시, 성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 50% 이상이 되면 '정신적 인프라 기본 구조'(예수를

주라고 불러 본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 30% 이상 되어 정신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부흥은 경제 부흥도, 민주화도, 근대화도 가능케 하는 바탕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시범 도시, 샘플 도시가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춘천성시화의 열정을 품었던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젊은이들은 지금 춘천 시내 각 교회의 지도급 목사님들과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춘천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시의회에서도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 120명의 기독의원들이 제네바 특별법처럼 춘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춘천은 중.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거품 없는 유통 구조로 상품 구매의 신용을 높이고, 농촌. 도시간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과대 선전을 안해도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범죄가 추방되고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거룩하고 깨끗한 도시 춘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바탕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불길같이 번져 갈 것입니다.

1904년경에 일어난 웨일즈의 부흥은 영적 부흥인 동시에 거대한 정신적. 도덕적 부흥이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은 신학교를 나온 목사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탄광에서 일하는 이반 가보트라는 평범한 신앙인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반 가보트가 웨일즈의 죄악이 소돔, 고모라와 같이 만연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겠다고 생각하여 뜻을 함께 하는 20-30명의 친구들과 함께 몇 달을 웨일즈 도성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순절 같은 다락방의 성령의 극적인 강림이 기도하는 무리에 임하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시민들에게 회개와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이반 가보트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은 영국인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영국이 쓰여져야 한다는 환상과 비전을 가지게 했습니다. 한사람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들어가면 성령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지기 마련입니다. 영국 전체를 복음화하자 윌리암 벨므스라는 영국 하원 의원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예수를 믿은 후 아브라함 링컨처럼 영국 의회에 노예 해방법과 연소자들의 불법 노동도 폐지시켰으며,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후에 회심하여 이웃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살아간 사람으로는 존 웨슬레, 무디, 잔 마트(후에 노벨평화상을 받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잔 마트가 일으킨 학생선교운동은 총 20,600명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선교사로 헌신케 하여 세계 선교 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이반 가보트, 존 웨슬레, 무디, 잔 마트에게로 불어 위대한 신앙의 부흥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춘천 시내의 기독교인이 모두 연합하기만 하면 이곳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모든 범죄를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속임수도 없으며, 폭력을 찾아볼 수 없는 도시, 환경과 거리가 청결하며 누구나 풍요롭게 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사람의 회개로 시작하는 성령의 바람이 춘천 도성을 감싸게 될 때 이곳의 모든 시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춘천이 성령의 전폭적인 다스림을 받는 도시,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표본이 되는 도시, 교육의 모범 도시, 찬양의 도시, 전도의 도시, 기도의 도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춘천에서 시작한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와 전세계로 불어 이 도시로 비롯한 축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총재로 지난 70년대부터 춘천성시화의 비전을 지니고 계셨으며 춘천성시화운동의 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글은 96년 10월 성시화집회시의 특강을 요약했습니다.

도시를 복음위에

김진홍 목사

저의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활빈교회가 71년 10월 3일에 서울 청계천 빈민촌에서 빈민선교를 시작한지 금년이 꼭 23년째가 됩니다. 20여년간 활빈교회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글로써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71년에 빈민선교로 시작한 우리들의 선교운동은 70년대는 빈민선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는 남양만에 이주하여 갯벌에서 살아남은 농촌선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90년에 들어선 후로 두레마을을 이루어 공동체 선교에 임하게 되는 두레시대라 하겠습니다. 70년대의 빈민선교 시대가 도시 빈민들의 가난을 가슴에 안고 몸으로 부딪혔던 시대였고 80년대 농촌선교 시대가 갯벌 땅에 도전하여 농민들의 애환을 몸으로 체득하였던 시대였다면 90년대의 두레시대는 빈민만도 아닌, 농민만도 아닌 민족공동체 전체를 포용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녘의 자본주의도 아닌 공동체주의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도 공산주의도 우리 백성들이 바르게 이끌어 나갈 도리가 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만으로는 안된다, 더더구나 공산주의로는 안된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음(福音), 참다운 복음주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님들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이른바 '두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웠던 두레 정신은 외래 문화가 밀려들면서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 조상 본래 삶의 모습이었던 두레정신이 시들어지면서 한반도에서의 삶은 점점 고단하여졌습니다. 다툼과 시비가 날로 더하여가는 세월을 쌓아왔습니다. 이런 세월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무엇으로 고쳐야겠습니까? 복음이 그 해답입니다. 성경이 그 해답입니다. 성경으로 백성들의 심성을 고치고 삶의 원리를 세우고 성경이 보여주는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이루어왔던 공동체를 오늘에 되살려야 합니다.

첫째가 예수공동체의 형성입니다. 근간에 민족통일에 관한 논의가 그 어느때 보다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에 안팎으로 막혀 있던 나라 사정이 풀어지기 시작하여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민족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통일입니다. 저는 하도 시류(時流)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통일에 대한 원칙과 방법론이 다양하고 분분하기에 어느 통일론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민족통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실제 통일은 뒤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서

먼저 하나가 됩니다. 두 막대기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에서 갈라졌던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국가가 되는 환상이 임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비전에서, 기도에서, 삶 속에서 분단 조국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 통일이 뒤따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합니다. 우리 민족의 활로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한국의 희망이자 유일한 대안(代案)입니다. 예수 안에서 공산주의도 넘어서고 자본주의도 넘어선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길, 진리, 생명을 기본으로 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한 새 공동체를 예수공동체라 부릅니다. 예수공동체에는 남이 만들어주는 기성품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걸고 이루어 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섬길 때에 첫째는 이 민족에 속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것이고, 둘째가 이 민족 전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 되는 민족 공동체 즉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가 기독교 문화의 창조입니다. 문화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각의 내용, 그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창작물, 그리고 삶의 방식 전체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가 백성들의 삶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체입니다. 건전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행복할 것이고, 저질의 문화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한 사회가 발전하고 그 세대의 백성들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건강한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문화가 건강한 시대를 만드는 요건입니다. 그러면 문화의 핵

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백성들을 잘 섬기려면 기독교문화가 한국 문화의 중심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이 바른 생각, 바른 사상,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전체에 복음의 문화, 예수의 문화, 성서의 올바른 문화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복음위에 올려놓으려면 각 지역 지역이 복음위에 서야 합니다. 이를 소위 성시화 운동과 관련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춘천은 성시화 운동의 시초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춘천은 예수공동체 설립과 기독교 문화의 모델 도시, 대안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델을 우리는 칼빈 선생의 제네바 개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죤 낙스의 스코틀랜드를 향한 기도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2000년대가 불과 몇 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2000년대의 도전입니다. 2000년대에 우리의 삶이 이 민족과 역사 앞에 도전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욥기서의 한 말씀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김진홍 목사님은 활빈교회와 두레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모인 1994년 '복음과 춘천' 집회시에는 주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 균 목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 분부를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최대의 약속과 명령을 접하게 된다.

첫째, 여기에 위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이 얼마나 황당한 분부인가! 당시의 그들이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치고는 너무 거창하지 않은가,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그들은 과연 그 시대를 변화시킨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는 성령의 약속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 그리고 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하셨다.

선교에서의 승리! 이 어두움의 권세를 뚫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바로 주님의 약속인 이 말씀에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의 위대한 승리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가능하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선교전략을 세우기 이전에, 선교 프로그램을 짜기 이전에, 선교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전파를 위한 막을 수 없는 헌신, 도전하는 용기, 독수리처럼 솟구쳐 올라가는 힘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주셔서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 그 때 우리는 가슴에 비전을 지니고 겁 없이 나아가게 되고, 창조적 아이디어와 선교적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

성령을 받자. 그 길만이 복음전파에 있어서 유일한 승리의 길이다. 성령 없이 사람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 성령 없는 전도는 헛된 것으로 끝나든지, 인본주의적으로 사회학적 변화만을 가져와 또 다시 복

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과제를 남기게 된다.

오순절 이후 성령님은 그 이전과는 달리 손님처럼 왔다가 사역을 마친 후에는 돌아가는 잠정적 사역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안에" 임할 뿐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하신 것이다. 선교의 승리, 복음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할 때 열사람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물리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민 14:9)라고 외쳤던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복음 전도는 승리가 보장된 길이다!

둘째, 여기에 위대한 주님의 권능이 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능력이다.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그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사랑의 근본이다. 성령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다. 성령은 겁쟁이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한 용사가 되게 하고 그의 학문 없는 무식한 소리로도 하루에 3천 명이 회개케 한 구원의 능력이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능력으로 가득차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없이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은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다. 이 능력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 전선에 뛰어들면 백전백패요, 이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고 하셨

다.

성령의 권능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큰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거룩하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만일 우리가 이 권능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 안에 그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지녔지만 실상은 죽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라오디게아 교인들 처럼 떠드나 실상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 먼 것을 모르는 교인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이 악한 시대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하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모양과 형식은 있으되 숨이 끊어진 시체이다. 성령으로 살아 일어나야 한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듯 우리도 살아 일어나야 한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길과 우리의 길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7번 맞았다고 했다. 몇 날 며칠을 자지 못했고 며칠 동안 햇볕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고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었다. 쇠사슬에 묶인 그를 심문하던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감히 권했던 그 영적 자존심! 그 모두가 성령님의 강한 역사였다.

셋째, 기도만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길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고자 하면 그저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연구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1:4-5)고 하셨다. 이 주님의 말씀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무엇을 기다리라 하셨는가? 그것은 성령이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분부이셨다.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기 위해 인내로써 기도해야 한다. 조급하게 날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사람이 천 년을 애써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은 하루에도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여야 한다. 자기의 무력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필요함을 알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만이 성령을 받게 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은 인간의 힘을 폐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선교현장, 복음의 전선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은 성령의 권능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능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복음의 승리가 있으리라.

춘천 성시화란 거대한 사역은 사람의 수단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여리고를 치는 이스라엘과 같이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싸움이다.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아주 쉽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불신의 춘천이 무너져 내리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자, 믿음을 갖자, 그리고 절박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승리는 보장되었다. 할렐루야!

한균 목사님은 평화감리교회를 시무하고 계시며, 샘솟는 선교의 열정을 지니고 계십니다.

2부

사람의 도시, 예수의 도시

세상을 바꿀 대안사회, 대안도시

—구약의 역사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해 주는 뜻—

이영길 선교사

구약 역사의 조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 소명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그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졌기 때문일 뿐,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이해했기 때문은 아닌 경우가 많다.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의 첫째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 부분은 아브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건의 중요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창세기의 초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창조된 세계의 아름다움이다.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그런데 이러한 낙원 속에 죄가

등장하게 되고 이렇듯 아름다운 조화는 깨어지고 만다. 사람들의 죄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하나님을 버린 탈신(脫神)문명이 바벨탑 사건에 와서 극에 이른다. 이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위 구절이 보여주는 것 처럼 아브라함의 선택은 땅의 모든 족속을 의식하고 이루어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한 민족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죄에 빠진 인류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한 사회의 모델을 필요로 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이렇듯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대하여 잃어버린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모델사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회복된 사회의 참 모습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야 했다.

출애굽, 율법, 그리고 새로운 사회

창조 섭리가 회복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서 잘 표현되어 나타난다. 이집트에서 400년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사회의 성격과

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억압과 학정으로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탄압자에 대한 증오를 키우기 보다는 그러한 탄압자의 지배를 대체할 수 있는 신사회의 건설을 힘차게 내다 보았던 것이다. 모세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신사회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모세란 이름의 뜻은 '건져냄을 받은 자'이다. 모세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부패한 한 사회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신사회를 시작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한 사회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은 한 사회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다짐한 것이었다.

새사회의 성격은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 율법 속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킨 장본인이며, 이스라엘은 그러한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계약공동체였다. 이러한 사상은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 나라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는 사회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준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대표적으로 요약하는 십계명 중 그 제1계명은 새롭게 건국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성격을 분명히 해 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을 맺게 되는데, 계약의 주체인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해방의 하나님인 것이다. 제1계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다. 이집트에는 라(ra)라는 태양신, 아툼(atum)이라는 창조신, 호루스(horus)라는 파라오로 현현되는 신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는 마르둑(marduk)신, 아누(anu)라는 하

늘신이 있었으며, 가나안의 만신전에는 풍요와 폭풍의 신인 바알(baal)신, 그의 배우자 아나트(anath)신, 아세라신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은 모두 그들을 억누르던 통치자의 편에서 그 통치자들의 안전과 번영과 권리를 보장해 주던 신이었지 노예로 고통 당하던 사람들을 돌보아 준 신은 아니었다. 제1계명은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섬겨야 할 신은 노예를 해방시킨 해방의 하나님 야훼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십계명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 준다. 예를 들어 제6계명,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든가 제7계명,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가르침들은 죽은 한 명의 무덤을 건축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노예가 동원되어 가축처럼 여김을 받고 그 노예들의 생명이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겨진 상황, 노예의 아내는 아리땁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없이 끌려가 겁탈을 당해야 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 파괴, 가정 파괴의 현장을 몸으로 겪어 온 하층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이자" "우리도 간음하자"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자" "절대로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 죽이는 사회를 만들지 말자"고 다짐했던 것이다. 그들은 부패한 사회를 거듭 악순환 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를 초월하는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가졌다.

모세 오경의 법정신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이집트에서 가난한 자, 극빈자,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대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보인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이것은 땅에 관한 법인 안식년법과 희년법에서 잘 나타난다.

땅에 관한 이스라엘의 법은 모든 땅이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

님의 소유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레위기 25:23)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소유한 땅을 공정하게 분배받아 관리하고 사용할 뿐이다.(창2:8,15) 따라서 누구도 땅을 독점할 수 없고(민26:52-56), 그 땅으로부터 나온 소출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26:53, 신3:28).

안식년은 땅과 가축을 휴식시키고 땅의 소출을 약한 자들의 몫이 되게 하는 법이다. 희년은 7년이 일곱 번 지나고 난 후 다음 해, 즉 50년 되는 해를 말하는데, 이 희년에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들은 석방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직후 받은 율법은 이렇듯 새로운 이상사회의 이념을 나타내 주었던 것이었다.

새로운 사회의 부패 : 종속, 세계관의 혼란, 분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전쟁이 잦아지자, 이스라엘은 느슨한 부족연맹을 가지고서는 자신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새로운 제도인 왕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왕정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떠한 필연적인 모순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사무엘상 8:11-18참조). 사울에 의해서 시작되고, 다윗에 의해서 정착되며, 솔로몬에 의해서 번영을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정은 이러한 모순이 어떻게 극대화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왕정의 모순은 두 가지 즉, 신앙적인 모순과 사회적인 모순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끊임없이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의 신들을 끌어 들이는 죄를 범한다. 이방 나라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한 후에는 그들의 신을 섬기고, 신당을 건축하며, 그들의 종교 형태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종교적 타락은 종교적 혼합주의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이었다.

당시의 국제 관계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국가들간의 계약이 지니고 있었던 종교적 의미에 주목하게 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종속국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종속국은 종주국의 신을 섬기고, 그 신이 규정하는 사회제도와 윤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이라는 개념 속에는 개인과 사회를 포함한 총체적인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였던 사건 속에는 단순한 종교적 관용 이상의 또 다른 의미 즉 이스라엘 사회의 세계관적 혼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해방자 하나님(야훼)의 추종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 표방하였던 야훼이즘의 숭고한 원리들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의 행태를 본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모순들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나붓의 포도원 강탈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왕상21장).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대규모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역으로 수많은 민중들을 희생시켰다.

이러한 모순의 심화는 마침내 분단이라는 비극을 낳게 된다. 왕국이 분단되고 난 후라도, 북왕국이 남왕국의 종교, 사회적 모순을 척결하고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였더라면 이스라엘사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북왕국(이스라엘)은 남왕국(유다)과 별다르지 않게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어 갔다. 부패할대로 부패한 두 분열왕국은 외세에 의해 마침내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 열왕기하 17장은 왕국멸망의 원인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야훼께서 자기들의 면전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풍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멋대로 만들어 낸 규례를 따라 살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께 해서는 안될 일을 하였다. 감시망대에서 요새화 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든지 신당을 세웠고, 모든 높은 언덕 위와 우거진 나무 아래에 석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 그래도 야훼께서는 당신의 모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을 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렇게 엄하게 일러 주셨다. '너희들은 그 악습을 버리고 돌아와 그대로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 그들은 야훼께서 저희 선조들과 계약을 맺으시며 주신 규정과 엄히 일러주신 훈령을 업신여겼다" (왕하17:7-15).

부패한 사회의 개혁파

왕정기와 포로기의 암흑 시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는 한 부류의 개혁파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선지자들이다. 최초의 선지자는 왕정의 성립 직전에 왕정의 본질적 모순을 예언한 사무엘이다. 그는 당시의 타락한 제사장인 엘리를 배경으로 성장한다. 제사장 엘리의 타락한 모습은 역으로 사무엘의 시대적 사명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당시의 사회상과 그러한 사회상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갈구하는 민중의 염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사무엘은 왕정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그 성립을 경고했고, 성립된 후에는 왕정의 모순을 예리하게 공격했다. 선지자들은 모순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선한 세력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준다. 선지자들은 부정의를 일체 용납하지 않았다. 물론 선지자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그들은 정권에 영합하고 율법을 왜곡했지만, 참된 선지자들은 기득권 층의 안락에 머물러 부정의를 용

납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했다. 오늘날의 개인 구원이니 하는 이원론은 그들의 사고구조 속에서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선지자 이사야의 발언은 이 점을 잘 나타내 준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 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만군의 야훼께서 내 귀에 대고 맹세하신다. '많은 집들이 흉가가 되어 제 아무리 크고 좋아도 인기척이 없게 되리라 ……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새벽부터 독한 술을 찾아 나서고 밤늦게까지 술독에 빠져 있는 자들아!" (이사야5:8-11)

이사야에 있어서 개인적 죄와 사회적 죄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중한 것이었다. 날마다 술취하며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나 땅과 집을 불의하게 축재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였던 것이다.

아모스는 악을 사회화시키는 법률에 대해 과감히 도전한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아모스5:10-15)

이스라엘의 재판이 성문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선지자는 법률 제도에 있어서의 정의를 가리키고 있다. 선지자들은 압제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입법가들이 부당한 법을 제정하고 그 불의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저항했다.

예루살렘 자치구 : 모델사회의 한 원형

바벨론의 아닥사스다왕 20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

다지역에서 자치권을 허용 받는다. 이 때 유대인들을 이끌고 간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이다. 우리는 이 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정확한 자기진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느헤미야 9장을 보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해 온 것에 대해 회개하며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 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 분 이외의 누구도 섬기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야훼에 대한 신앙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총체적인 세계관이 야훼신앙으로 재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추진되는 자치구의 개혁 속에서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야훼신앙이 견고히 다져진다. 비록 제국하에서 허용된 자치구였지만, 그들은 미래의 이상을 그곳에 가시화하고 싶었다. 마치 광주의 항쟁 지도부가 광주항쟁 당시 며칠 동안의 자치를 모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싶었다든지, 일제하 만주를 중심으로 활약하던 항일 투쟁 집단들이 그들의 유격 근거지에서 미래를 가시화하는 개혁을 추진한 것을 상상하면 된다.(물론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당시 제국과 결탁해 있던 유대인 관리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본격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한다. 세금을 개혁하고 유대인들을 다수 지도부에 기용한다. 필요한 것 외에는 유대 민중에게 부당히 요구하지 않았으며, 자신 스스로 예루살렘의 성벽의 건축에 참여하기도 했다. 에스라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언약의 율법을 새롭게 풀어서 가르치고, 그 율법이 그들의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인식시켰다.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던 율법이 자치구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그 중 안식년의 실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이 시대에 이르러 정확한 역사 인식을 하게 되고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질서 있게 통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다. 그들은 야훼신앙의 포괄적 비전을 회복하고 싶었다.

유대인들의 새로워진 역사 인식은 확실히 주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을 것이다. 그들은 율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을 대망하게 된다. 이사야는 포로 전에 이미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의 희망찬 모습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었다.

"장차 어느날엔가 야훼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멧부리 위에 우뚝 서고 모든 언덕 위에 드높이 솟아 만국이 그리고 물밀 듯이 밀려들리라. 그 때 수많은 민중이 모여 와서 말하리라. '자, 올라가자, 야훼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신 전으로!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 가자.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니.' 그가 민족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가문이여, 야훼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이사야2:2-5)

대안사회로서의 신앙공동체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구약의 역사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이스라엘의 존재이유는 어디까지나 죄로 인해 파괴된 창조의 아름다움을 총체적으로 회복하는 모델 사회의 확립에 있었다. 그 민족의 빛을 받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사회의 모습을 깨달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다.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녔던 역할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은 교회에 대하여 많은 암시를 주고 있다. 교회는 새언약에 기초한 새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우선 신앙공동체는 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모델 사회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안식년이나 희년법이 보여 주는 바, 성경이 극단적인 부와 가난을 배격하고 있다면, 공동체는 성경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어야 한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의 머리 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는 커녕 영적 공동체조차도 제대로 이루어 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영적인 것임과 동시, 생활 공동체요, 경제 공동체인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사회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 원리가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고 있어야 한다. 신앙공동체는 제국 내의 자치구와 같은 것이다. 유대의 자치구가 제국주의 질서를 뒤엎는 새로운 사회 형태를 모색했고, 이스라엘의 건국이 억압의 땅 이집트의 사회질서를 대체하는 新사회를 의도하였던 것처럼 신앙공동체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 총체적 대안 사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안 사회는 그 존재 자체로 저항적 의미를 지닌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주도된 유대 자치구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스스로 대안적 체제를 확립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들은 무력보다도 더욱 강력한 저항의 방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사회운동의 문제는 사회의 불의와 악에 대한 항거는 있었지만, 그 항거를 뒷받침 할 그들 스스로의 삶의 모델이 없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살아 내고 있는 생활 공동체는 사회 전체를 향하여 자신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안 제시는 저항, 정책 제안, 참여 등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 교회는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한 공동체는 아니다. 그 사회는 전체 사회에

대한 애정과 부담을 안고 있는 사회인 것이다. 전체 사회가 신앙공동체의 존재로 인해 모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스라엘의 엣센파(신약 당시 사회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사해 부근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던 종파)와 같은 고립된 집단 이외의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다. 선지자들의 참여는 교회에 많은 암시를 던져 준다. 신앙공동체가 사회 행동에 전체를 걸어 버릴 수는 없을 지라도, 적어도 교회의 한 기능은 이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앙공동체는 구체적인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기독교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복음주의 사회 행동 연합(Evangelical for Social Action)은 이러한 도전에 응답하는 좋은 예이다. 워싱턴(Wahington D.C)에서 여러 기독교 기구들이 정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Joint Baptist Committee, Bread for the World, Association for Public Justice 등등이 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볼 때 바로 이 두가지 면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본다. 교회의 사회 참여는 참신한 저항 세력을 형성하였지만, 기실 사회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여야 할 교회는 사분오열되고 그 안에 확고한 생활 공동체의 확립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편 보수 교회는 신앙의 개인성과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불의에 대해 너무도 소극적인 면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암시해 주는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영길 선교사님은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활동하셨으며, 현재 인도선교사로 파송되어 비하주 파트나 시에서 사역 중입니다.

총체적 선교로서의 성시화 운동

로날드 사이더(Ronald Sider)

"참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全人(whole person)을 사랑한다."

카산드라는 시카고의 가장 가난한 이웃들이 받게 되는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것에 관해 두려워하는 미혼모였다. 그녀의 의사가 그녀에게 다시 임신을 했다고 말했을 때, 다시금 낙태를 해야하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의사는 크리스천 의료클리닉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全人치유 센터와 연결된 교회의 목사들 중 한사람과 이야기하도록 주선하였다.

카산드라는 열변을 토해낼 엄격한 설교자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친구와 같이 온유한 목사였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고, 교회로 초청하여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주었다. 수주 후에 그녀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자 새로운 평화와 기쁨이 그녀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러한 현상을 의심스럽게 여겼다. 그녀가 예수님과 그랜트 목사에 관하여 말할 때 남자친구인 쇼웬은 질투심이 생겼지만, 그의 여자친구에게 뭔가 아름다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어느 주일 그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다. 그랜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쇼웬 역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 이러한 일은 쉽게 일어났다. 그런데 이들이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까지는 4년이라는 갈등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쇼웬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였지만, 그 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폴 그랜트 목사님과 론다 사모님은 이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기도했다. 이들은 결혼을 결정할 때까지 서서히 성장했고,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유일한 기독교인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결혼이 얼마나 좋은지를 친척들에게 증거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 중 몇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오늘날 쇼웬과 카산드라는 복지혜택에 의존하여 살고 있지 않다. 카산드라는 도시선교사역(Circle Urban Ministries)에서 전임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사역에서는 매년 수억 달러의 돈을 치유교육, 레크레이션, 건강증진, 직업훈련, 소규모 사업개발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쇼웬은 도시선교사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의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통해 쇼웬은 그의 천부적인 자질을 개발할 수 있었다. 1993년에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12명의 직원들이 일하게 되었고, 5만 달러의 순수익을 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어떻게? 이들이 다녔던 놀라운 교회와 그들에게 전인(全人)복음을 나누었던 공동체센터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만약 카산드라와 쇼웬이 전형적인 교회에서 방황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다. 많은 자유주의적인 교인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건강을 돌봐주고,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마음과 삶의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구세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말했겠지만 의사나 직업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사회복음'의 기미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함을 즐기기 위해서 쇼웬과 카산드라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육체와 영혼을 함께 돌보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는 반석교회와 도시선교사역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처럼 그들은 전인(육체와 영혼)을 돌보았다. 카산드라와 쇼웬에게 나타난 결과는 그들의 친척들에게까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정도로 완전하고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예수님처럼 전인을 돌보는 것은 기적을 일으킨다. 균형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이 이야기는 현대교회의 약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를 지적하고 있다. 문제들의 뿌리는 복합적이지만 20세기 초기에 일어난 '사회복음'이라는 지류는 사회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커다란 그룹인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전파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서로를 비방하였다.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성경전체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

요를 채워주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그들은 옳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과 성경에 기반하여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한다. 그들 역시 옳다. 비극적이고도 어리석게도 각 그룹은 상대방이 소홀히 여기는 부분만을 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그 결과 균형을 잃어버린 비효과적인 교회들이 되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과 행위가 온전한 조화를 이루신 그분을 무시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전인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치유하셨다. 그는 병든 마음과 병든 육체를 만족케 하셨다. 마태는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35).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전인 자체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수차례에 걸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했다고 말한다(마 14:14; 15:32; 20:34; 막 1:41).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 향한 그의 애정 어린 관심은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눅 7:13). 예수님께서는 외로워 슬피 울고 있는 과부를 보고 그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 소년을 일으키셨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상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

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다 얻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막 8:34-38). 창조주는 우리가 그분과 영원토록 사는 것을 갈망하셨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이러한 관계를 위협할만한 가치는 없다.

비극적으로도 기독교인은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왜곡시킨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마가복음 8장 34-38절은 오직 복음전파 한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이다. 그리고 병든 육체와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분의 행동은 이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예수님께서는 그 분의 시간 전부를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데 보낼 수도 있었다. 그 분은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인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전파를 하는데 시간을 보낸 만큼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신 참된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모델이 되신다. 그분께서 전인을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께 불순종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인을 돌보셨다. 그분은 우리가 육체로만 또는 영혼으로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다. 모든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공존한다.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거나 서로를 배타적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다. 우리는 물질

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세계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 물질적인 부, 성(性), 정치적인 권력들은 결국 우리에게 부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 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초대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경제발전이나 정치를 통한 구조적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의 몸은 단순한 우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로 만드셨다. 바울은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육체적인 부활- 창조주에 의해 의도된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된 전인적인 부활을 주장했다(고후5:1-4, 고전15:35). 만일 우리의 육체가 선하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접근은 명백하게 이단적이다.

흑인 전도자이며 사회운동가였던 존 퍼킨스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백인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을 때, 종종 백인들이 이렇게 말했다. '존,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인종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갈등이 없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다. 퍼킨스의 답변은 심오하게도 성경적이다. "나의 영혼은 흑인이라는 몸 속에 있다. 만일 당신이 나의 영혼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나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다뤄야 할 것이다."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 그리고 성경의 관점은 왜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모든 시간과 힘을 전도하는데 사용하기를 거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뒷받침해준다. 성경의 하나님은 가

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신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은 다른 기독교인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이며, 신음하는 피조물들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며, 열방의 영광은 새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육체적인 일과 인간의 삶,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좋은 땅에 살도록 만들어졌고 오랫동안 이 땅의 아름다움을 즐기도록 만들어졌다. 록키산맥의 놀라운 아름다움, 사랑에 빠진 부부의 환희, 모차르트와 미켈란젤로의 아름다운 작품들은 모두 무한하고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의 빼어난 선물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창조주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그 분의 반영들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분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된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며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즐기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갖는 구원하는 관계보다 더 가치 있지 않다.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거룩하신 분에게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복음전파와 사회적인 변화라는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잘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세주를 증거 하는 것이 당황스러운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인가! 또한 사회불의를 바로잡고 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거룩한 품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말할 시간도 갖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인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기도와 삶 가운데 전도에 대한 열정을 양성한다.

복음전파와 사회변화 사이의 비극적인 분리가 이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모임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행을 하는 것은 서로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전에는 복음전파에만 주력하였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제 사회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다. 또한 복음전파에 주저하였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의 삶을 위탁하기로 재확인하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음적인 사회활동이 놀랄만한 성장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라. 선명회(World Vision)는 한국의 고아들을 위한 사역으로 작게 시작했지만 한해 3억 4천달러의 예산(1994년도)을 집행할 정도로 백여개국에서 광범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월드 릴리프(World Relief)와 월드 컨선(World Concern)과 같은 구제사역 단체들은 매년 수억 달러를 사용해서 주린 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다가오는 20년 안에는 지난 100년 동안에 비해 말씀과 행위가 더 잘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음전파와 사회적인 관심을 연합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록/써클과 갈보리 침례교회 등과 같은 수백 개의 성숙한 전인사역의 모델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공적으로 양자 사이의 균형을 이룬 이들은 새로운 전인사역을 하려는 자들에게 고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만 개의 록/써클과 같은 단체들

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하고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와 같이 21세기를 꿈꾼다. 나는 수많은 개교회들이 전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비전에 붙들리게 되는 것을 소망한다. 나는 전 세계에 있는 수천 개의 기독교 대학과 성경학교들과, 신학대학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수만 명의 훈련되고 열정적인 지도자들을 보내서 성경적으로 균형이 잡힌 교회에서 사역할 것을 보고 있다. 나는 수천 권의 책들과 주일학교 교육과 신학대학원의 훈련이 평신도들을 복음전파와 사회적인 열정을 결합하도록 도울 것을 상상한다.

나는 복음전파나 사회정의를 소홀히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외적인 현상으로 여길 날을 꿈꾼다. 나는 모임 중에 있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매 달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소식을 듣는 그 날을 고대한다. 나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모든 편견을 버리고 깨어진 공동체를 치유하러 나가기를 열망한다.

나는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할 그 날을 고대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교회 안에 있는 실속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할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해질 것이며, 천사들은 기뻐할 것이고, 세상은 새로워 질 것이다.

Genuine Christianity
Chapter 6

Loving Both Body and Soul

Cassandra was a frightened single mom on welfare in one of Chicago's poorest neighborhoods. When her doctor told her she was pregnant again, she agonized over the possibility of an abortion. Fortunately, her doctor worked at a Christian medical clinic and suggested that she talk to one of the pastors of the church connected with this holistic community center.

Cassandra expected a stern preacher to give her a fire-and-brimstone sermon. Instead she found a gentle friend. He listened, invited her to church, and told her about Jesus' love for her. When she accepted Christ a few weeks later, a new peace and joy began to flow through her life.

Her boyfriend, however, was suspicious. All her talk about Jesus and Pastor Grant made Showen jealous, but

he could not deny that something beautiful was beginning to happen to his girlfriend. One Sunday, he decided to cheek things out for himself after Pastor Grant's sermon, Showen too accepted Christ.

That was the easy part. It took Cassandra and Showen four more years of struggle to learn what it really means to follow Christ. "I had accepted Christ into my heart," Showen reports, Grant and his wife Du Rhonda walked and prayed with Cassandra and Showen, who slowly grew in Christ until they decided to marry-the first Christian marriage in either of their immediate families! They asked God to use their marriage as a witness to their relatives about the goodness of Christ-centered marriage. God has answered their prayer. Several of Showen's close relatives have also become Christians.

Shown and Cassandra are not no welfare today. Cassandra works full time at Circle Urban Ministries(CUM), a multimillion-dollar-a-year complex of programs in remedial education, recreation, health services, job training,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Showen is now the General Manager of CUM's most successful small business. On-the-job training developed Showen's natural gifts. In 1993, the company he manges employed twelve people full time and cleared a net profit of fifty thousand dollars.

God dramatically transformed Showen and Cassandra

Franklin. How? Through Christians at this wonderful church and community center sharing the whole Gospel with them and then walking arm-in-arm as God transformed them into whole persons.

I wonder what would have happened if Cassandra and Showen had wandered into a typical church. Many theologically liberal congregations would have gladly given them food baskets, health care, and job training. Tragically, however, they would probably never gotten around to telling them that they could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Savior who longs to change their hearts and habits. Many theologically conservative churches would have told them about Christ, but they might never have offered a doctor or a job, because that smacks of the "Social Gospel."

But Showen and Cassandra needed both in order to experience the wholeness God wants them to enjoy. Fortunately, God led them to Rock Church and Circle Urban Ministries, where faithful Christians care about the body and the soul — together, Like Jesus, they care about the whole person, The result for Showen and Cassandra was sweeping, lasting transformation that continues to ripple through a large extended family. Caring for the whole person, like Jesus, works miracles, lopsided Christianity cannot.

This story points to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the weakness of the modern church. The roots of the problem are complex, but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one branch of Christianity-the "Social Gospel" branch-realized the need to focus on social action. At the same time, another large group-the evangelicals-felt called to focus on evangelism. For decades they criticized each other. Social Gospel people claimed that Jesus and the rest of the Bible compel us to care about the physical needs of people. And they were right. Evangelical folk insisted that according to Jesus and the Scriptures, nothing is as important as a living relationship with God in Christ. And they too were right. Tragically, foolishly, each side used the other side's sinful neglect of one half of Christian mission to justify their own stubborn neglect of the other half. The result has been lopsided, ineffective churches.

How could people who confess Jesus as both true God and true man reject Jesus' example? How could people who worship Christ as the Eternal Word become flesh ignore his perfect combination of word and deed?

Jesus' tender concern for the whole person-soul and body-is clear in every Gospel. He preached and healed. He satisfied sick hearts and sick bodies. Matthew says it pointedly. "Jesus went through all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Matt. 9:35)

Why? Because he loved people-whole people. Again and again, the Gospels say Jesus healed people because he and compassion for them(Matt 14:14; 15:32; 20:34; Mark 1:41). His tender concern for the widow who had just lost her son still moves us across twenty centuries: "When the Lord saw her, his heart went out to her, and he said, 'Don't cry'" (Luke 7:13).Jesus raised the boy because his heart ached for this lonely, weeping widow.

The Gospels clearly demonstrate that Jesus spent a lot of time healing physical brokenness. But it was not because he thought life here on earth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Explicitly, pointedly, Jesus taught that even if one gained absolutely everything in this world, it would not be worth losing one's relationship with God (Mark 8:34-38). The Creator designed us to live forever with him. Absolutely nothing in the world- not even everything in the world!-is worth jeopardizing that relationship.

Tragically, Christians often distort this important teaching. Some Christians conclude from Mark 8:34-38 that evangelism is the only thing that really matters. Saving souls is our central concern. Healing sick bodies and broken societies is unimportant.

Jesus never said that. His actions prove exactly the opposite. Jesus could have spent all of his time preaching and urging people to repent. After all, he knew better than anybody else how important it is to come to personal

faith in the living God. But a careful look at the Gospels shows that Jesus spent about as much time ministering to people's physical needs as he did preaching. If Jesus is truly God in the flesh, then he is our perfect model. Since he cared for the whole person, so should we. If we don't, we disobey the One we worship.

Jesus cared about whole persons because he was the Creator. He knew we have been created, not merely as bodies and not merely as souls. Every person is a "body-soul-in-community."

Any view that reduces us primarily or exclusively to mere bodies or souls is simply unbiblical. Since we are not merely material beings, nothing in the material world can finally satisfy us. Material wealth, sex, political power are all finally inadequate. We are made for a relationship with God, and we are invited to love forever in God's presence. Therefore, any solution to the human problem that focuses primarily on economic development or structural change via politics is bound to fail.

On the other hand, our bodies are not a mere accident. The Creator made us body-soul unities. Even when Paul longed to leave the body and be with the Lord, he insisted that God's final plan for us is bodily resurrection-that wholeness of body-soul unity intended by the Creator (2 Cor. 5:1-4; 1 Cor. 15:35ff). If the body is so good that the Creator became flesh, rose bodily, and promises to restore

the whole created order including our bodies, then any approach to human need that ignores or neglects physical needs is flatly heretical.

Black evangelist social activist John Perkins underlines this point. As he worked in the midst of white racism, often said, "John, I love your soul." They wanted to lead him to Christ without struggling against racial and economic oppression. Perkins' answer is profoundly biblical: "My soul is in a black body. If you really want to get to my soul, you're first going to have to deal with this body."

Jesus' teaching and example and the Bible's view of persons are just two of many biblical reasons why genuine Christians refuse to spend all their time and energy on evangelism. The God of the Bible has people to share his concern.

Furthermore, Christ is Lord of all of life, including economics and politics. Being one in Christ means caring about the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of other believers. And when Christ returns, believers will be resurrected bodily, the groaning creation will be restored to wholeness, and the glory of the nations will enter the new Jerusalem. If the Bible is true, then physical work, human life, and history matter a lot to God.

People are made to live on this good earth and enjoy its wonders for "three score years and ten." The splendor of soaring Rockies, the ecstasy of a couple in love, and the

beauty of Mozart and Michelangelo are all astounding gifts from a boundless, loving Creator. But they are not the Creator. They are rings from our Beloved, not the Beloved Himself.

But we are also made to live and reign forever with the Risen Lord in a restored world. Life then will be different from history as we now experience it. Nothing in the world we now enjoy is worth as much as a saving relationship with Christ who gives eternal life. If we keep our hearts fixed on the Divine Lover as we treasure and delight in his gorgeous gifts, we will be also to keep a biblical balance between evangelism and social transformation.

What a tragedy that some Christians today are embarrassed to tell their friends about this wonderful Savior! What a tragedy that some Christians are so preoccupied with correcting injustice and restoring the environment that they never find time to tell dying persons that God invites them to eternal joy in the divine embrace!

Nothing is more important for every Christian today than sharing Jesus with those who do not yet know him. Faithful Christians nurture a passion for evangelism at the center of their prayers and action.

There is good reason to think that the tragic separation of evangelism and social transformation is coming to an end. At its international congress in Manila in 1989, the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insisted that

"good news and good works are inseparable." Evangelicals who had formerly majored almost exclusively on evangelism are now increasingly also doing social ministry. Other Christians who had been hesitant about evangelism have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spread the Gospel.

Think of the phenomenal growth of evangelical, social ministries in the last few decades. World Vision exploded from a tiny ministry to Korean orphans to vast ministries in one hundred countries with an annual budgets of $340 million (1994). Many other ministries like Compassion, World Relief, and World Concern rais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each year to feed the hungry and empower the poor.

As the next two decades unfold, we could enjoy a better marriage of word and deed than at any time in the previous one hundred years. There are hundreds of mature holistic models like Rock/Circle where evangelism and social concern walk hand in hand, transforming broken people and desperate neighborhoods. Their biblical balance and obvious success is inspiring thousands of newer ministers to imitate them as they have imitated Christ. We should pray and expect that God will raise up tens of thousands of ministries like Rock/Circle all around the world. In fact, would not a million please Jesus even more?

That's how I dream about twenty-first century. I hope for a time when vast numbers of local churches have caught Jesus' vision of love for the whole person. I see

thousands of Christian colleges, Bible Schools, and seminaries all around the world captured by Jesus' model, sending out tens of thousands of skilled, enthusiastic leaders every year to pastor biblically balanced churches. I imagine scores of books, Sunday School lessons, and seminars training the laity to combine evangelism and social passion

I dream of the day when the congregation that neglects evangelism or justice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I long for the time when most Christians are in congregations where each month they experience the joy of hearing about new people who have just begun to taste the goodness of salvation. I yearn for the day when most Christians are in congregations that walk with the needy, say no to all forms of prejudice, and reach out to heal broken communities.

I long for the day when the church truly obeys Jesus' last command: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John 20:21). If even a substantial minority in the church ever dares to do it his way, strongholds of Satan will fall, the angels will rejoice, and the world will be renewed.

성시화운동과 도시 신학을 연구하시는 로날드 사이더(Ronald Sider)교수님은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The 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이 글은 "Genuine Christianity"(한국 기독학생회출판부에서 출간예정중 일부를 저자와의 합의하에 옮겼습니다.)

성시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허문영 박사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성시화운동의 성격
1. '성시화'와 '성시화운동'의 개념
2. 성시화운동의 5대특성
3. 성서적 측면
Ⅲ.성시화운동의 역사적 의의
1. 칼빈의 제네바 개혁
2. 1972년의 춘천 성시화운동
3. 1972-1996년의 성시화운동
Ⅳ.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과제와 전망

Ⅰ. 들어가면서

춘천은 본격적 의미에서 전국 처음으로 '성시화운동'이 일어난 도시이다.[1] 주지하다시피 지금부터 만 24년전인 1972년 가을,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후원을 받아 지역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의 연합으로 열린 춘천성시화운동은 그 이후에 많은 타 도시에 영향을 주어 전국의 지역 복음화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2] 그 후 개교회, 춘천지역 교회 연합 집회 춘천 성시화를 향한 열망과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1992년 여름에는 춘천성시화운동이 일어난지 20년 만에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3]가 주관한 성시화 집회[4]가 열리기도 하였다. 또한 춘천지역 기독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기독기관장 금요기도모임'이 결성되어 성시화를 위한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4년에는 보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과 춘천94"집회[5]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1996년에는 춘천성시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초교파적 연합중보기도회가 보다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비전 126 성시화 기도모임"[6]이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다. 아울러 최근 춘천지역 기독교운동을 대표하는 춘천기독교연합회가 결성[7]되었다.

더욱이 올해는 춘천 수부 100년을 기리는 해, 성경적으로는 2번의 희년을 맞는 해인 이 때에 성시화 문제를 전담하는 '춘천성시화

---

1) 김성영, "111기도운동과 성시화운동", 「빛과 소금」, 1993. 2. pp. 60-63.
2) Ibid.
3)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창립 1990. 4. 17. 동부장로교회
4) 춘천성시화를 위한 연합예배. 주강사:정근모 전 장관. 1992년. 8. 2. 춘천제일감리교회
5) "복음과 춘천 94 집회", 춘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의 공동주관. 주강사:김진홍 목사. 1994. 9. 8-9.
6) 중앙성결교회. 강사: 이종윤 목사. 1996. 7. 12.
7) 춘천기독교연합회창립예배, 1996. 9. 12. 석사감리교회.

운동본부 (이하 성시본부)'가 출범하게 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시본부는 오랫동안 성시화운동을 꿈꾸어 온 1세대 선진들의 꿈과 소망을 담는 그릇으로서, 차세대 운동의 나침반으로서, 춘천성시화운동의 기본 성격과 과제를 새롭게 검토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성시화운동은 70년대초 춘천이라는 시공간과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전개된 도시 복음화 운동에 그 뿌리를 둔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성숙해가는 신앙인들의 의식이 "춘천 성시화"라는 개념과 만나 오늘의 운동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8]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할 논의는 성시화운동 전개의 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성시화운동을 확산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론화하여 후세대에게 전수할 것인가, 이 가운데 성시화운동본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본 글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가지게 된 이런 기본적인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Ⅱ. 성시화운동의 성격

1. '성시화'와 '성시화운동'의 개념

'성시화'와 '성시화운동'이란 말은 공동의 열망으로서 공감대를 얻어가야 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개념 정의 그 자체가 필요하다. 가끔 성시화운동에 대하여 논의하다 보면 그 근본 개념이 달라 같이

8) 이영길, "춘천성시화운동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예수가족」 9호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1994).

참여할 수 있는 공통의 방향이 쉽게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9] 더욱이 '성시화'와 '성시화운동' 개념은 지금까지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운동본부의 김성영 교수(성결교 신학대학, 21세기 운동본부 기획실장)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의 사회적 실천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성시화는 봉사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10] 또한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의 조충환 장로는 "춘천성시화운동은 스위스 제네바의 거룩한 도시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보편화된 지역을 만들자는 것"[11]이라고 하였다. 두레 연구원 2기 생인 최상도 전도사는 "성시화운동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의 정신과 복음의 원리가 통용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소박한 꿈"이라고 언급하였다.[12] 김준곤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 총재)는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의 목적과 목표를 밝히는 1, 2항에서 춘천성시화운동을 "모든 심령마다 그리스도화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 춘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도시)"[13] 언급하였다.

---

9) 춘천성시화운동이라고 할 때, '성시화'라는 개념은 '복음화'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운동을 담는데 있어서 보다 유용한 개념이다. 성시화라는 개념은 복음화의 개념과 비교하여 지역성의 측면을 부각시킨다.

10) 김성영, "111기도운동과 성시화운동" 〔빛과 소금〕 1993. 9. p. 62.

11) 조충환, 「그리스도인의 손거울」 (서울:에벤에셀), 1994). p. 182.

12) 최상도, "두레 정신을 토대로 한 성시화 운동 전략" 「두레 사상」 1994. 가을호, p.47.

13) 김준곤,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 p. 1. 그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완전 그리스도화된 도시를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에 이식시키기 위하여, 제2의 기독교문화의 발상지,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종교개혁도시 제네바화를 위하여, 한 상징적인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2의 그리스도문화), 민족 복음화의 전략도시화를 위하여, 입체적인 전인복음화와 5색의 도시화 (공부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 체육의 도시, 기술의 도시, 거룩한 도시), 춘천시의 모든 것을 시범화하기 위하여."

'성시화' 및 '성시화운동' 개념에 대한 이같은 선행 정의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측면을 제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위의 견해들은 '성시화' 개념이라기 보다는 '성시화운동' 의 개념에 가깝다. 그러므로 성시화운동의 개념을 규정짓기 전에 성시화 개념을 새로 규정짓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성시화(Holycitization)[14]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도시에 충만한 상태로서, 이는 그 도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상태"라고 규정짓고 싶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할 때, '성시화운동' 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도시에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는 운동' 이다.

그러면 한 세대의 성시화운동 유산을 검토하고 새 시대의 성시화운동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시화운동은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인가?

2. '성시화운동' 의 5대 특성

춘천성시화운동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성을 갖는다.

가. 운동의 주체:동역자성

'성시화운동' 은 하나님으로부터 문화창조의 소명(창1:28)을 부여받은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이다. 동시에 '성시화' 는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이루어 가는 사역이다.

나. 운동의 범위:총체성

도시란 문화의 유기적 결정체로서 모든 문화적 측면-정치, 경제,

14) Hoycitization: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신조어.

학술, 예술, 매스콤, 교육 등등-이 같이 조화되어 있는 실체이다. '성시화운동'은 영혼의 구원과 함께 삶의 전 영역과 사회의 전 영역을 복음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 운동의 터전:지역성

'성시화운동'은 복음화 운동의 대상을 현재 실재하는 한 '도시'(city)로 설정함으로서 운동의 목표 지역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라. 운동의 방법:평화성

'성시화운동'은 중세의 십자군 운동과 같은 한 도시의 무력강점이 아니다. 다원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전파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평화적인 섬김의 운동이다.

마. 운동의 시한:연속성

'성시화'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시대의 과제가 아니다. 이 운동은 세대를 통하여 이어지는 것이며, 주님이 오심으로서만 완성될 수 있는 과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 까지의 기간은 그의 왕국이 성령으로 '이미(already)' 이곳에 임한 기간인 동시 '아직 임해야 할(not yet)'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형태의 거룩한 도시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갖지 않는다. 오히려 거룩한 도시는 세속도시의 한 가운데서 누룩처럼, 소금처럼 영향을 미치는 생명력과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시화운동의 성서적 측면을 살펴보자.

3. 성시화운동의 성서적 측면

가. 춘천성시화운동의 성서적 모델: 예루살렘과 새예루살렘

우리는 성시 춘천의 모델을 성서의 예루살렘에서 찾을 수 있다. 신구약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주제인 예루살렘의 신학은 우리가 추구하는 성시화운동이 근거하여 할 성서적 기초이다.[15] 성서에서 줄곧 나타나는 "Holy City"(거룩한 성)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하나로 엮는 중심 주제 중의 하나이다. 성경의 성시신학(Theology of the Holy City)을 간단히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에덴의 동편에 에녹이라는 도시를 세운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반신문명이 노아의 홍수로 종말을 맞은 후 사람들은 또 하나의 반신문명을 건축하는데 그 도시[16]는 시날에 자리잡았었다. 이 시날이라는 도시는 바벨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통제하려 하였던 인본주의 도시였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하여 탑이라는 상징과 집중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도시를 건축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본주의적 도시를 파멸하신 후 새롭게 세운 도시는 약속의 땅에 자리잡은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도시였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

15) 이영길, "춘천성시화운동구상", 「예수가족」, 1996.

16) 한국어 번역은 도시를 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도시가 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어 번역(NIV)은 성을 City로 번역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시'는 성경의 '거룩한 성'이며 영어로는 'Holy City'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성시의 관점에서 다시 읽으면 '성시의 신학'이 구약과 신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새삼 놀라게 될 것이다. 춘천 성시화 운동을 뒷받침할 '성시신학 (Theology of the City)' 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한 중요한 과제이다.

시는 도시, 그래서 순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였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체험하며 성전의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축제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도시, 순례의 도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축제의 도시였다.

이러한 예루살렘이 강도의 소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여 종교적 위선과 불신앙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은 말세에 임할 새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말세의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 자리잡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임하는 도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백성들이 누리는 거룩한 도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 승천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이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마다 거룩한 도시 새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셨던 것이다.[17] 새예루살렘이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교회는 공동체적 새예루살렘이다. 이 새예루살렘에는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산 제사가 날마다 드려진다. 이 새예루살렘 공동체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는 평화의 공동체이다. 그곳에서는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는 신령한 축제가 베풀어진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새예루살렘 밖의 사람들은 새예루살렘을 바라

17)요한 계시록에서는 말세에 새예루살렘이 하늘로서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확실히 새예루살렘의 도래는 앞으로 닥칠 미래의 사건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그 미래의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삶속에 이미 임한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미래가 현재 속에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임할 것이라는 (already, not yet) 역설은 성경의 한 중심 주제가 되어 있다. 성시화의 신학에 있어 미래와 현재의 문제는 앞으로 발전될 성시화 신학 연구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개관한 성시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성시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한 성격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성시화운동은 춘천이라는 도시를 하나의 성역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령으로 임한 새 시대에는 어디에도 성역(sacred space)은 없다. 그리스도만이 성역이며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어디나 성역이다. 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춘천을, 마치 구약의 예루살렘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여겨졌던 지역이었던 것 처럼, 한국의 여타 도시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역으로 구분하고자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춘천성시화운동이란, 춘천이라는 지역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운동일 뿐, 춘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닌 의미는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사람이 사는 어디에서든지 -시골에서도-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야만 하는 운동인 것이다. 춘천이 성시화운동의 대상으로 삼아진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춘천이라는 도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 도시를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도시로 가꾸어가고 싶기 때문이다.

성경의 성시신학(Theology of the Holy City)에서 모델을 찾는 춘천성시화운동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나. 춘천성시화운동의 세 가지 지향점

1) 전도운동

춘천성시화운동은 춘천이라는 도시 속에 거룩한 새예루살렘을 임하게 하는 운동인데 그 운동은 일차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인격적인 운동이다. 성서의 새예루살렘은 인격속에 임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춘천의 성시화운동은 먼저 춘천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임하게 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춘천성시화운동은 일차적으로 춘천 시민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운동인 것이다.

2) 교회 갱신 운동

새예루살렘이 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거룩한 새예루살렘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하는 곳이다. 새예루살렘에서 주님은 구속받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춘천의 성시화운동은 새예루살렘 공동체인 교회 속에 주님의 임재와 참된 주권이 올바로 실현되도록 하는 교회 갱신 운동이다. 이 운동이 회개운동을 일으켜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3) 사회 개혁 운동

인격 속에 임한 거룩한 도시는 세속도시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과 거룩한 교회가 살아있는 도시는 점차로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다. 세속도시의 구석 구석에서 거룩한 도시는 빛을 발하게 되며 세속도시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춘천성시화운동은 세속도시에서 빛을 발하는 사회개혁운동이다.

III. 춘천성시화운동의 역사와 의의

1. 역사의 한 예: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16세기)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이래 춘천과 가장 가깝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잡게 된 도시는 아마도 칼빈의 종교개혁도시 제네바일 것

이다. 춘천성시화운동이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이 즈음 우리는 최소한 제네바 개혁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그 현대적 의미를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18]

가. 칼빈의 시대적 상황

칼빈이 살았던 16세기는 거대한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붕괴되는 전환점이었다. 이 전환의 과도기 시대는 중세 교회의 연속선 상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칼빈은 중세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 만약 현재의 상황에서 칼빈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칼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칼빈의 제네바 개혁을 종종 신정정치라고 부른다.[19] 그러나 이것이 중세와 다른 것은 제네바 시의 정치가 적어도 성직자 정치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정치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교회의 다스림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교회와 성직자를 통하여 국가와 정치의 통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한다.[20] 그는 교회와 정치 영역 간의 구별을 인식하였고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적법한 정치적 방법을 통하여 제네바시를 개혁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당시의 제네바 개혁운동의 첫 출발점은 교회 개혁에 기초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제네바시의 시민 구성은 대부분 기독교를 각 개인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점이 오늘날과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18) 정재호,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미 고찰" 「춘천크리스챤저널」, 1994.3.
19) 존 맥닐, 「칼빈주의의 역사와 성격」(서울: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0), p. 185.
20) Ibid., p. 212.

나마 칼빈의 제네바 개혁을 살펴보기로 하자.

나.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과 평가

칼빈이 개혁을 단행하기 전 제네바는 거리마다 오물이 쌓여 있었으며, 개인 주택의 하수가 거리로 마구 흘러나왔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술통이 즐비하였고, 불량배들이 득실대는 전형적인 당시의 도시였다.[21] 칼빈이 1536년 7월에 제네바에 들른 이 후 칼빈은 많은 반대자들에 의해 때로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제네바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의 공헌이라면 첫째로,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당시 교회의 개혁이었다. 그는 교회법을 제정하여 성경적 원리로 운영되는 교회로 갱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둘째로, 현대적 의미의 학교 건립이다. 주로 신학 교수들에 의해 주도된 교육이기는 하였으나 미신으로부터 자유한 인문과학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공헌하였다.[22] 칼빈은 가능한 한 세부적 사항까지 두어 법에 의해 집행되도록 힘썼는데, 교사가 어린 학생을 구타하면 해고되는 법 조항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 대책을 위하여 건축 시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제네바 개혁에 공헌하였다.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교의 이상과 그리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로 몰려들게 된다. 또한 칼빈의 생전과 사후에 칼빈주의 신앙이 가장 뿌리깊게 내리고 국민적 생활을 가장 깊게 침투시켰던 나라들-스위스, 화란, 라인강 지역의 독일, 스코틀랜드, 영국, 웨일즈-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23] 칼빈의 제네바 개혁은 춘천성시화운동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지닌다. 한

21) 프래드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p. 35-36.
22) Ibid. p. 221.
23) A. 맬빈 데이비스, 「칼빈주의의 사상과 자유 사상」 (서울:기독교문화협회, 1989), p. 22.

도시 제네바를 운동의 한 단위로 인식한 것, 교회 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교육의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한 것 등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법률 속에서 성서적 가치를 추구한 것은 오늘날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의 공공정책 형성과정에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일단 문제의식은 던져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의 제네바 개혁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일 뿐 만 아니라 위험성 마저도 내포하고 있다. 칼빈의 제네바 개혁이 대부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몇 사람에 의해 독단적으로 만들어진 법들은 도덕과 신앙의 회복이란 미명아래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 잦은 사형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었다. 모든 제네바인의 생활은 항상 '종교 법원'의 엄한 감시를 받았다든지, '사치금지법'의 적용등은 개인 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예들이다.[24] 더욱이 현대의 우리는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란 강제되어질 성격이 아니다. 더욱이 제네바 시민이 되려면 강제적인 기독교 신앙고백 등을 하게 했던 칼빈의 법 적용이 오늘날 성시화운동에도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더 극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치달을 것이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종교전쟁, 종교분쟁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2. 1972년의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은 1972년에 일어난 것으로 국내 최초의 성시화운동이었다.[25] 70년대 초 춘천에 있는 몇몇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모여서 춘천을 스위스 제네바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

24) W.워커, 「세계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p. 301.

로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춘천성시화운동 위원회(위원장:김연호 목사, 작고)를 발족시켰다.[26] 아울러 당시 전국적으로 민족복음화운동을 주도하며 전도운동을 벌려왔던 한국대학생선교회 (총재:김준곤 목사)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하여, 72년 민족복음화운동대회 겸 춘천성시화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5천여 명의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전국의 기독교 전도 요원이 춘천에서 모여 춘천에 있는 온 교회와 협력하였던 바 춘천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등 춘천성시화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심령마다 그리스도화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운동), '춘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도시운동)라는 구호로 시작된 이 운동은 그 후 전국적으로 번져 나갔으며 지금도 그 불씨가 살아 있어서 여러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27]

김준곤 목사에 의해서 작성된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는 당시 성시화운동의 열기와 조직성, 치밀성을 엿보게 한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직이 이루어져 있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칠 단계의 훈련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 칠 단계 훈련 계획은 소수의 정예 인물들을 육성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범위를 넓혀 훈련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마침내는 10월의 춘천 총동원, 총집중 전도로 이어지게 하자는 구상이다. 이것을 위해 8월 10,000명의 훈련 강습회 안과 춘천시 총동원 총집중 전도안이 마련되어졌다. 이 계획안은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위한 항목 속에는 30명 시민대표인사

---

25) 김성영, "111기도운동과 성시화운동", 「빛과 소금」, 1993. 2. p. 62
: 김영철, 「한국기독청년학생운동사」 (서울: IVP. 19930. p. 119.
26)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성시화추진위원회, 「춘천성시화운동」, 1995, p. 21.
27) 김준곤,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 「김준곤 문설집1」
(서울: 순 출판사, 1984), pp. 476-484.

명단작성과 인적사항의 파악, 기관 및 사회단체조사, 춘천시 현황 파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춘천시 총동원 총집중 전도안은 말 그대로 춘천과 한국의 기독교가 동원할 수 있는 총력을 총동원하여 춘천이라는 도시 속에 총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총동원, 총집중 전도의 효과를 내다보며 (1)어떻게 전국적으로 최대한의 참여를 시킬 것인가? (2)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성시화운동의 구체적인 결과는 10,000개의 순(작은 신앙 모임)이 생겨나며, 성회 이후와 이전이 A.D와 B.C만큼 달라지는 것이다.

위의 구상은 1972년 최대한 실천되었으며 실제로 1972년 이전과 이후는 춘천의 역사에 획을 긋게 된다. 우리는 선배들에 의해 이미 시도되어 온 1972 춘천성시화운동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72년과 96년이 시대는 다르지만 운동의 보편적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의 의의는 현대사적으로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의 운동이었다는 점과 복음주의의 오랜 전통인 복음전도에 우선순위를 둔 성시화운동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72년의 성시화운동은 몇 가지 점에서 검토의 소지가 있다. 한 가지는 우선 '성시'의 개념에 너무 '구별성'을 둔 나머지 춘천을 타도시와 구별되는 '성역'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점은 김준곤 목사의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의 7조 8항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나타난다.

"시민은 신자가 되느냐 이주하느냐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것이다."[28]

이러한 입장은 실제로 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성시화운동을 밖에서 볼 때, "그럼 이젠 우린 춘천을 떠나야 하겠네!"라고 한탄한

28) 김준곤,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 p. 8.

다면 우리의 성시화운동은 아주 큰 오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 그대로, 빛처럼 누룩처럼 세속 도시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도시를 기독교의 신정 도시국가로 점령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1972년 성시화운동의 대 전제 중에서 복음전도와 사회 개혁에 대한 부분이다.

"사람이 예수로 새로워지면 가정과 사회와 도시와 국가가 새로워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29]

약 한 세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전제의 타당성을 물을 때가 되었다고 본다. 신자가 많이 늘어나 교회가 성장한 사실(A)은 사회개혁(B)을 유발했는가? A는 B를 자동적으로 유발한다는 전제는 무조건 받아들여져야만 하는가? 아니면 A와 함께 B는 동시에 추구되어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는 반드시 이상적인 사회가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비율 그 자체가 과연 사회개혁의 척도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의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도 운동과 교회 갱신, 사회 개혁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동시에 추구되어져야 한다.

3. 1972~1996년 성시화운동

1972년 성시화운동 이후 교회 및 학생들의 동참열의 미약으로 운동은 잠재기에 들어가게 되었다.[30]

아마도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을 내어 놓은 지도력이 춘천에서

---

29) Ibid., p. 9.

30)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성시화추진위원회, 「춘천성시화운동」 1995. 10. p. 17.

자생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계획안이 표방하는 비전과 방법론, 목표는 순식간에 춘천을 뒤흔들었지만, 그 이후 72년의 계획안과 비교하면 아주 미력한 수준에서만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개교회, 춘천 지역 교회 연합 집회 시 춘천성시화를 향한 열망과 중보기도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으며, 1991년 8월에는 춘천에 있는 주요 기관장 중심의 성서 연구 모임이 만들어져 성경을 연구해 오던 중, 70년대 초에 있었던 춘천성시화운동을 재현시켜 보자는 의견이 나와 다시금 구체적 움직임이 전개되어, 강원 지방 검찰청에 부임한 전용태 장로 등 기독기관장들을 중심으로하여 성시화운동이 재논의되기 시작했고,[31] 1992년 여름에는 춘천성시화운동이 일어난 지 20년 만에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32]가 주관한 성시화 집회[33]가 열리기에 이르렀다. 이 집회에서는 성시화운동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예수평화대행진"을 시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실시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성시화운동을 알리고 성시화의 열기를 높여주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994년 보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과 춘천 94" 집회[34]가 열렸으며, "춘천성시화운동의 진로 모색"이란 제목으로 성시 토론회[35]가 열리기도 하였다. 또한 춘천지역 기독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기독 기관장 금요기도모임'이 결성되어 성시화를 위한

31) Ibid., p. 17.

32)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창립 1990. 4. 17. 동부장로교회.

33) 춘천성시화를 위한 연합예배. 주강사: 정근모 장관. 1992. 8. 2. 춘천제일감리교회.

34) "복음과 춘천 94 집회", 춘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가 공동주관. 주강사:김진홍 목사. 1994. 9. 8-9.

35) 문선재(강원대 전총장) 목사를 비롯하여 안동규 교수, 윤태호 목사, 장근성 목사, 조남진 장로, 피종호 목사, 한균 목사 등이 '춘천성시화운동과 기독인의 윤리의식, 세계선교모델로서의 춘천, 교회와 협력모델로서의 춘천, 민족복음화의 모델로서의 춘천'이란 제목의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으며, 또한 1996년 7월에는 춘천성시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초교파적 연합중보기도회가 보다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비전 126 성시화 기도회"[36]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다. 아울러 최근 춘천지역 기독교운동을 대표하는 "춘천기독교연합회"가 결성[37]되었다.

이 시기는 외양적으로는 성시화운동의 열기가 줄어든 듯 보였으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춘천 지역 기독인들을 중심으로 성시화 의식이 확산되어갔으며, 이로 말미암아 자생적인 조직과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동안 성시화를 추진할 구심점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1972년 성시화운동 이후 많은 결신자가 생기고, 성시화에 대한 꿈이 생겨났으나 그 후 교회들의 불참으로 운동은 의욕을 잃고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1972년 성시화 대회 후 춘천성시화운동 위원회는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교회가 부흥되고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성시화가 된다는 전제 아래 상설기구인 성시화운동 위원회를 해체하였기 때문이다.[38] 그러나 성시화운동의 구심점은 꼭 필요한 것이다. 성시화를 지원할 복음적 교회, 선교 단체, 개인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이 일만을 위해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하고 준비해 갈 기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두들 복음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의 교회는 교회대로,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본래 고유의 목적이 있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6) 중앙성결교회. 강사:이종윤 목사. 96. 7. 12.
37) 춘천기독교연합회 창립예배. 1996. 9. 12. 석사감리교회.
38)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 p. 17.

Ⅳ. 춘천성시화운동 본부의 과제와 전망

춘천성시화운동의 구심점 마련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띄고 성시 본부가 마침내 출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성시 본부는 어떠한 계획들을 구상해야 하며 어떠한 구조로 일하여야 하는가?

1. 과거로부터 배움

성시 본부는 72년 최초의 성시화운동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72년의 성시화운동은 비록 그 운동이 그 후의 과정으로 줄기차게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구상안 속에 상당히 포괄적인 비전과 철학,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39] 시대를 넘어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 있다. 다음은 72년 운동 계획안 노트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다.

- 분명한 전제, 미래상
- 평가 가능한 구체적 목표의 수립
-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조직
-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훈련
-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론
- 대상 지역의 연구

2. 현재의 춘천 기독교 총력을 총동원함: 춘천의 현황 조사

---

39)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는 72년 소책자로 엮어져 나온바 있고, 그 후에는 김준곤 문설집의 1권(서울: 순출판사, 1984)에 실려있으며,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의 성시화추진위원회가 펴낸 성시화 자료집인 「춘천성시화운동」(1995. 10)에도 실려있다.

72년의 운동이 이미 그랬던 것 처럼, 운동은 확고한 전제와 미래상, 목표가 필요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과 훈련 및 방법론의 수립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연구란 현학적인 과시가 아님에는 분명하다. 운동의 방향과 자원을 제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춘천 기독교의 총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 기독교 일반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총 도시 인구의 어느 정도가 기독교인인가? 그리고 총 교회와 단체의 수는 어느 정도되는가? 교회 및 단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성격과 내용들인가? 기독교 계통의 특성 그룹들은 어느 정도되는가? 중요 기관의 기관장 및 중요 인사들은 어느 정도가 기독교인인가? 교회 및 선교단체는 춘천의 지역별로 어떻게 배치되어있는가? 그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춘천 일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72년 성시화 운동 계획안 노트는 이미 이러한 조사의 내용까지 밝히고 있다: (1)지리적 조건과 자연환경, 풍속 (2)행정 조직 (3)인구 실태 (4)경제 (5)교육 (6)종교 (7)사회 단체 (8)문화. 72년 경 이러한 조사들이 이미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데이터(시정부나 연구 기관들의 자료들)를 기초로 우리는 현실의 필요에 맞는 아주 일목요연한 현황 조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자료는 데이터 베이스로 처리하여 향후 여러 목적에 따라 수시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용이한 검색과 시간 변화에 따른 자료의 개정이 쉽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는 기독교 역량의 측정과, 활용을 위해서, 그리고 비복음화 영역의 확인과 전략 수립을 위해서 긴요하다.

3. 미래를 계획함

지난 92년 9-10월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춘천성시화추진계획(구상)[40]이 잘 수립되었다. 그 안에는 연도별 추진계획(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과 사업별 추진계획이 소개되어있다.[41] 이러한 계획들은 성시본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며, 본 발제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춘천성시화운동이 택할 수 있는 운동의 방법론 중에서 다음의 네 가지는 아주 중요한 골격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기도(prayer); 연구(research); 훈련(empowering); 참여(participation). 이 네 가지의 방법론에 따라 구상될 수 있는 몇 가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기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운동의 참여자와 교회, 단체를 중심으로 춘천 성시화를 향한 기도 릴레이가 필요하다. 최근 초교파적으로 성시화만을 위한 '비전 126성시화 기도회'가 조직되었는데 이는 매우 기념비적인 일이요,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아울러 보다 더 다양한 기도 모임들 및 연합 기도 모임들이 격려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기도 소식지 및 기도 세미나도 필요하다.

나. 연구: 특성 그룹 및 춘천학

또한 앞으로는 특성 그룹들이 많이 생겨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

40)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 참조.
이 실무위원회는 92. 9. 1 - 10. 28에 걸쳐 조남진, 이학규, 김홍규, 조충환, 김동열, 조정일, 김남철, 최일수 등 목회자와 장로 8명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였다.

41) 그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직장 복음화 운동; 영, 육 생명보호 운동 (내집앞 청소/시가지 오물줍기/유원지 계곡 오물 수거); 성시화 시민 축제 (성시백일장, 성시 찬양 축제, 시가 행진, 성시화 운동회, 성시화 대성회); 성시화 소식지 발행; 성시화 광장, 동산 조성 운영; 법인 설립; 성시화 선교 대학 개설; 선진 교통질서 운동; 차세대 교육 (초, 중, 고, 대학생).

특성 그룹이란 특별한 분야를 책임지고 연구하며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룹이다. 즉 보편적인 관심으로 모여지는 신앙의 모임을 넘어선 어떤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모여지는 그룹이다. 지역 정치, 지역 경제, 가정, 법률, 학원, 예술, 언론, 선교 등의 모든 도시 영역에서 영감있는 특성 그룹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성시화의 신학을 위한 성서 연구 모임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룹들은 어떤 교회나 단체에 일률적으로 속할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공통의 관심으로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도 좋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연구 분위기는 중앙 중심 혹은 보편적 관심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구들도 대부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추상적이거나 보편적인 혹은 한국적인 연구들이 많았던 것 같다. 우리는 이제 춘천을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연구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춘천의 일반 역사는 물론, 춘천의 기독교사가 정리되어야 하고, 춘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가 없이 효과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춘천에 대한 연구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춘천학파도 나올 필요가 있다. 춘천학 연구라는 연구 잡지도 구상해볼 만하다. 해마다 주제를 바꾸어가며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여 춘천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가고 춘천성시화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적 작업도 중요할 것이다.

다. 훈련: 성시화를 위한 제자학교

성시화운동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시화운동을 위한 참신한 일꾼들을 끊임없이 배출해내는 것이다. 신학보다도 실제적이면서 신앙인의 핵심적인 면들을 다루는 강의와 적용 훈련을

내용으로 하는 제자훈련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커리큘럼을 효과적으로 구상하면 유능한 강사들을 춘천 내외에서 초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일주일 단위의 개별 강의들을 다섯 개 혹은 열 개정도 모아 한 학기를 구상하면 일 주일만 헌신하면 되므로 춘천 내, 외의 강사들이 자유롭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자훈련학교는 성시본부의 네트워크적 기능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 즉, 각 교회와 단체가 보유한 강사, 교육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이 학교 안으로 모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에겐 효과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하고 새로워진 일꾼들을 많이 배출할 필요가 있다.

라. 참여

1)성시화를 위한 종합 잡지

운동은 반드시 매체를 필요로 한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운동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매체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매체는 성시화운동의 움직임을 다양한 모습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이 지닌 뜻의 소통과 확산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문자 매체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성시화운동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전달할 수 있는 종합 잡지가 필요하다. 춘천 성시화의 현황을 전달하는 뉴스 보도와 춘천의 상황에 대한 기독교적 여론 형성,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한 매체로서 종합잡지는 성시화운동에 있어서 아주 긴요한 한 영역을 차지함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2) 지원

성시화운동이 총체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성시본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일은 기존의 단체 및 교회의 사역들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각 지역 교회들을 돕는 일, 전도와 제자도를 실천하는 학원선교단체들, 각자의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진행하는 사회 단체들이 든든히 서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현재 성시화 의식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은 더욱 격려되어야 하며 보다 큰 춘천성시화운동 속에서 확실한 부분들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춘천 성시화운동을 중보기도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전 126성시화기도모임'이 결성된 일,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에서 성시화추진위원회를 따로 조직한 일, 초창기부터 춘천성시화운동에 깊이 관여하였고 그동안 대중집회와 성시화의 전략을 간직해온 단체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시급하다 하겠다.

3) 성시화 집회

그동안의 성시화운동 사역을 일정 기간을 두고 재평가하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 집회가 필요하다. 각 교회,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갖는 복음운동, 성시화운동 외에 함께 연합하여 준비되는 집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운동은 단순한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된다. 세계적 복음주의 모임이었던 1974년 로잔대회를 준비했던 레이튼 포드 박사가 말한대로 성시화 집회는 "하나의 행사(event)라기 보다는 과정(process)으로 계획되고,"[42] 그 준비와 연구 및 행사는 계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운동의 총체성과 네트워크적 측면을 나타내는 행사로서 년 1회 일주일 정도는 춘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양 운동을 소개하고,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한 대형집회가 필요하다. (성시화주간 설정). 인형극제나 한국마임페스티벌처럼 축제 이름을 붙이고 한 주간 전체를 복음 전도와 대사회 섬김의 행사로 바친다. 가능한 한 기독사업체들

42) 조종남, 「세계복음화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IVP, 1990), p. 9.

과 단체들은 집회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 전 업소가 오전만 근무를 하고 문을 닫는다. 육체도 쉬고, 영혼도 쉬는 기간을 갖는다. 2년 1회 정도는 전국, 혹은 전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 회합을 갖고 각자의 지역에서 성시화운동을 일으키도록 격려하는 성시화운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4.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조직 구조

엄밀히 말하자면 성시화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성시화운동은 계속되고 있었다. 비록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개교회와 단체들 사이에서 복음전도활동과 총체적 복음화를 위한 노력은 벌써부터 있어 왔다. 성시본부는 이런 노력들을 더욱 고무하고 혹은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기 위해 어떠한 성격의 조직을 가져야 하는가?

가. 하향적 관료 조직이 아닌 네트워크의 조정자

성시본부는 또 하나의 조직이라기 보다는 존재하는 교회와 단체들을 보다 큰 비전으로 묶는 네크워크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리더쉽의 핵심이 '섬김'에 있다면, 성시본부는 하향적인 관료조직이 아니라 평등한 개별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묶는 네트워크의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시본부는 개별적인 단체들을 수직적인 도표상의 하급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동역자 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평적인 단체들 가운데 자발과 연합의 원칙이 견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각 협력 단체들의 활동은 극대화하고, 본부의 조정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조직이 아닌 실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

할 수 있는 구조

불필요하고 번잡한 직위 및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일이 이루어질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구조의 구상이 필요하다. 실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들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5. 성시화운동의 확산

춘천의 성시화운동은 춘천 만의 것으로만 머무르는 운동이 아닌 춘천을 못자리판으로하여 번져가야만 하는 운동이다. 성시화운동은 새로운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즉, 성시화운동은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의 한 예로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선교의 바람직한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모여지기만 하면 엄청난 도시 전체의 선교 에너지를 모아 우리의 운동을 다른 곳에 이식시키는 것이다. 각 분야의 신앙적인 인력이 선교지의 각 분야를 책임지며 선교지를 총체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한 도시 전체가 다른 도시 전체를 섬기는 운동을 말한다. 우리는 세계의 도시들을 도시 차원에서 섬김으로 그 곳에서 성시화운동이 일어나도록 돕는 못자리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춘천성시화운동을 통해 배출되는 선교사들을 도시 전체의 후원을 입어 도시 전체를 선교하는 총체적 선교의 모델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성시화운동은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성시화운동본부와 기독교연합회와의 관계', '성시화의 모델인 춘천과 다른 지역 성시화운동체와의 연계문제', '성시신학의 연구문제'는 지면의 부족과 시간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다. 이것들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춘천이 온 세계를 섬기는 새예루살렘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허문영 박사님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세계적 통일문제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논문은 96년 성시화집회시의 성시화토론회 발제문입니다.

참 고 문 헌

김성영, "111 기도운동과 성시화운동," 「빛과 소금」 1993. 2.

김준곤,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 1972; 「김준곤 문설집」 서울: 순출판사:1984.

문선재, "복음과 춘천 94 발제문," 1996. 9. 9.

엑스폴로 '74 훈련본부, 「엑스폴로 74 훈련교재」 서울: 한국대학생선교회, 1974.

이영길, "춘천성시화운동에 대한 몇가지 생각," 「예수가족」 춘천: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1994.

이영길, "춘천성시화운동구상," 「예수가족」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1996.

정재호, "제네바 개혁" 「춘천크리스챤저널」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1994.

정재호, "사회개혁자로서의 요한 칼빈" 「두레사상」 1996. 봄호.

조종남, 「세계복음화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IVP, 1992.

조충환, 「하나님의 손거울」 서울: 에벤에셀. 1994.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 1995. 10.

최상도, "Holy 춘천의 꿈" 「춘천크리스챤저널」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1994.

최상도, "두레정신을 토대로 한 성시화운동 전략" 서울: 「두레사상」 1994 가을 창간호.

허문영, 「춘천크리스챤저널」 춘천: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1994.

허문영, 「21세기를 위한 기독인의 사명」 서울: 1996.

춘천성시화 운동노우트

김준곤 목사

1. 목표와 목적

(1) 심령마다 그리스도화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

(2) 춘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도시)

(3) 완전 그리스도화 된 도시를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에 이식시키기 위하여

(4) 제2의 기독 문화의 발상지,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종교개혁 도시 제네바화를 위하여, 한 상징적인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2의 그리스도 문화)

(5) 민족복음화의 전략 도시를 위하여

(6) 입체적 전인복음화와 5색의 도시화

가) 공부하는 도시 (전시민 학도화)

ㄱ. 지성인의 도시 ㄴ. 진리의 도시 ㄷ. 교육의 도시

ㄹ. 자유의 도시 ㅁ. 생각하는 도시

나) 아름다운 도시 (전시민 예술인화)

ㄱ. 예술인의 도시 ㄴ. 음악의 도시 ㄷ. 문예 도시

ㄹ. 미의 도시 ㅁ. 호반의 도시

다) 체육의 도시 (전시민 체육인화)

ㄱ. 건강한 도시 ㄴ. 밝은 도시 ㄷ. 강한 도시

ㄹ. 협심하는 도시

라) 기술의 도시 (전시민 기술자화)

ㄱ. 일하는 도시 ㄴ. 생산의 도시 ㄷ. 중요의 도시

ㄹ. 창조의 도시 ㅁ. 정밀기계의 도시

마) 거룩한 도시 (전시민 신자화)

ㄱ. 사랑의 도시 ㄴ. 소망의 도시 ㄷ. 믿음의 도시

ㄹ. 기도의 도시 ㅁ. 성서의 도시

(7) 춘천시의 모든 것을 시범화 하기 위하여

가)시범교회 나)시범학교 다)시범관청

라)시범상점 마)시범소비조합, 협동조합

바)시범단체 사)시범가정 아)시범식당

자)시범환경 미화 차)시범풍속

2. 조직

(1) 주 최

가) 춘천시 교회들의 자율적 운동

나) 춘천 CCC 후원

(2) 성시화운동 위원회

구성 - 각 교회 성직자, 평신도, 지도자

가) 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나) 실행위원회

다) 총 무 라) 간 사

마) 각부서 : 전도부, 교육부, 부녀부, 음악부, 섭외부, 문서 운동부, 기도부, 훈련부, 섭외홍보부

(3) 성시화운동 자문위원회

구성 : 기관장, 유지들로 필요에 따라 구성함

3. 7단계 훈련 및 행사

(1) 교직자 훈련을 4월 10일부터 4박 5일간 'CCC 훈련원'에서 받음

(2) 요원훈련을 교인 20명에 한사람씩 4월 중순에 받음

(3) 5월 초에 각 교회에서 2,000명 요원이 CCC본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훈련받음

(4) 2,000명이 평균 5명씩 전도대상자를 책임지고 8월까지 전도, 8월 1,000명 모임에 등록케하는 동원요원이 됨

(5) 8월 1일부터 5일까지 10,000명 집중 합숙 훈련

(6) 10월에 춘천 총동원, 총집중전도

4. 8월 10,000명 훈련강습회안

5. 실태조사와 세부 계획안

(1) 30명 시민대표인사 명단 작성과 인적사항 파악

(2) 기관 및 사회단체 침투방안 모색

(3) 춘천시 현황 파악

가) 지리적 조건과 자연환경 풍속 나) 행정조직 다) 인구실태 라) 경제 마) 교육 바) 종교 사) 사회단체 아) 문화

6. 춘천시 총동원 총집중 전도안

(1) 10월 중순, 5일간을 택하여 전 춘천시 기독화와 한국기독교가 동원할 수 있는 총력을 총동원하여 춘천시에 총집중하여 춘천복음화 운동을 돕는 일이다. 그것은 체육제전과 흡사한 기독교가 베푸는 성시화 제전이다.

(2) 총동원 총집중 전도의 효과

가) 그 기간동안 그리스도가 전 시민의 화제와 관심의 중심이 된다

나) 전도와 육성의 집중효과가 나타난다

다) 단합된 기독교의 힘을 과시한다

라) 교회에는 전도의 붐, 세상에는 예수의 붐을 일으키고, 성시의 비전을 시민과 교인들에게 심는다.

마) 이 물결은 전국 도시마다 일으킬 수 있다

바) 전쟁을 치른 나라가 비록 패전하더라도 전쟁을 위해 동원했던 그 힘을 전후 산업건설에 전화시켰을 때 다시 경제부흥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이 때 총동원 된 힘의 여세를 몰아 춘천시 복음화 뿐 아니라 민족복음화의 물결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사) 교인들에게 예수 혁명의 주체의식과 실감과 비전을 키울 수 있다.

아) 아직까지 교회연합과 일치는 구호와 연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중심으로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이 휘말려 드는 동안 복음을 중심으로 일치화가 이루어진다.

자) 이 행사는 오직 순수 전도다. 불신자는 예수 영접을, 신자는 성령 충만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축복을 받는다. 다른 것은 부산물로 얻어지게 될 것이다.

차) '춘천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다', '가슴마다 그리스도는

왔다'가 실현될 것이다.

(3) 어떻게 전국적으로 최대한의 참여를 시킬 것인가?

가) 각 교파와 각 기독교 기관지부는 소속교단과 기관본부의 협력을 얻는데 책임을 진다.

1)감리교 2)장로교(통합파, 합동파, 고려파, 기장파)
3)구세군 4)성결교 5)오순절교파 6)나사렛교파
7)침례교 8)각 선교부 9)문서선교회 10)각 선교회
11)시청각선교회 12)어린이선교회 13)YFC
14)IVF 15)KSCM 16)YMCA 17)YWCA
18)의료선교단 19)각 기독학교 (특히 대학)
20)기독교병원 의사 21)각 기독학교(특히 대학)
22)부인단체 23)청년단체(교단별) 24)기독교 국회의원
25)기독교 교수단 26)기독교 실업인
27)기독교 언론기관 (TV, RADIO, 신문, 잡지)
28)저명기독교 총장들, 인사들 29)기독장교
30)외국인기관 31)국제적인 초청(유명선교단 본부에서)
32)각 성가대, 음악단체

나) 각 직능별, 지역별, 교파별, 계층별 최대한 참여를 호소한다.

다) 이 참여를 위하여 각 교계적 PR을 6월 경부터 시작한다.

라) CCC에서 전개시키고 있는 약 200 시범교회가 PR 협력을 하고 복음화 요원들이 동원될 수 있다.

마) 대 언론기관의 후원을 받는다.

바) 각 기관, 각 선교부, 각 교파는 자기 예산 자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힘을 투입할 수 있다.

사) 최대한의 실리가 있는 민족단위 행사를 유치한다.

아) ㄱ. 기독교 체육대전 ㄴ. 기독교 성가 콩쿨 대회
ㄷ. 세미나 ㄹ. 국제수준의 강사초빙 사역회
ㅁ.부흥회 ㅂ. 청년학생 신앙 웅변대회
ㅅ.사상강좌 ㅇ. 수련회 ㅈ. 각 기관대회 등을 유치한다

자) 각 교회, 각 교파, 각 기관, 각 단체가 자기 기관 이름으로 예수행진, 즉 성시퍼레이드에 참여시킨다. 3,000명 깃발 밑에 행진.

차) 성시합창단 1,000명 코러스를 성시퍼레이드때와 하룻밤 동원해 본다.

카) 1만명 정도 민박을 시킨다.
민박한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물론 성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 펜팔전도를 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육성함으로 참여자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4)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가) 성시 찬가를 만들어 미리 부르게 한다.

차) 성시, 성회참가 페넌트를 만든다

다) 2,000 전도요원 가정중심으로 기도 세포망을 만들어 6월경부터 기도한다

라) 성시성회 뉴스를 전국적으로 방송한다

마) 춘천시 불신자 전원의 주소, 명단, 생일 등을 입수하여 교회별로 현 교회 새력 비례로 분담하여 이웃 완전 복음화 전략을 따라 전도활동을 시작한다.

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ㄱ. 전 교우 예수행진 ㄴ. 예수표어 부착 캠페인
ㄷ. 한끼 굶기 운동, 사랑의 밥 한그릇 운동 ㄹ. 포스터

붙이기 운동

ㅁ. 의료 봉사 운동 ㅂ. 경노회

ㅅ. 불우가정돕기, 바자회, 사랑의 씨일 판매 운동

사) CCC는 강원대학, 간호대, 교육대학, 몇 개의 중고등부를 완전 복음화 한다는 운동을 벌이어 그 자원으로 춘천성시화에 집중 투입하게 한다.

아) 춘천 현지 언론기관의 협조를 구한다

자) 전원 신자화, 전원 전도요원화 시킨다.

차) 준비위원회 부서는 아래와 같다.

ㄱ. 준비위원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3명 총무

ㄴ. 실행위원회

ㄷ. 부 서

1)기획 2)전도훈련 3)재정 4)대학생부

5)유년주일학교 6)중고등학생부 7)섭외홍보 8)음악부

9)교회협력부 10)기도부 11)시설준비부

카) 무슨 행사를 하게 되는가?

ㄱ. 최소한 2만 명의 전도요원이 4박 5일간 전도활동을 하게 된다.

ㄴ. 2만 명은 불신자 5명씩을 책임전도 한다

ㄷ. 각 교회별로 각종 성회가 있다

ㄹ. 노방 전도

ㅁ. 전도문서 배부

ㅂ. 5일간 언론을 총동원

ㅅ. 각종 조찬 기도회

*실업인 조찬 기도회 *관공서 조찬 기도회 *교육자 조찬

기도회

*각급 학교 신앙 강좌 *종교영화 무료 상영 *크리스천 체육대회

*전국 기독교 의료기관과 의사들로 된 의료 봉사

*전국 기독교인 참가자의 1인 1점 구제 활동

*개인전도 *크리스천 음악콩쿨대회 *대 예수행진

*오전과 저녁 대 옥외집회 *예수 표어, 포스터 부착 캠페인

*어린이 행사 *기독교 부인 단체가 베푸는 행사

*각 교파가 베푸는 각종 기독교 제전들

*축호 전도

*공중비행기 전도, 전단 뿌리기

타) 민박은 동회의 협력을 받아 신청에 의해서 하되, 유료로 한다.

기독교측은 전도 목적으로 함.

(5) 결 과

가) 10,000개의 순이 생기기를 위한다.

나) 성회 이후와 이전이 AD와 BC만큼 달라질 것이다.

7. 춘천성시화의 미래상 투시도

(1) 성시 성회가 연중무휴로 열리고, 세계적 명물로 등장할 것이다.

(2) 풍치 관광보다 성시 관광이 유명해진다.

(3) 성시 이주자가 전국에서 모여들 것이다.

(4) 성역화 된 춘천에는 술집, 거지, 도둑, 뇌물, 부정부패, 퇴폐풍조, 불신풍조, 매음, 폭행 등 일체의 사회악이 자취를 감춘다.

(5) 초,중,고,대,신학교,의과대학 등 세계수준의 특수학교가 즐

비할 것이다.

(6) 도시환경은 완전히 상록수와 화초로 단장되어 푸른 도시, 꽃의 도시가 될 것이다.

(7) 각종 시민 복지 시설은 물론 이상적인 신용조합, 소비조합,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시민생활은 어느 곳보다 편리해질 것이다.

(8) 시민은 신자가 되느냐 이주하느냐 양자 택일을 하게 될 것이다.

(9) 학교는 주일학교화되고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화되고 학구는 곧 교구가 되며 춘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와 성서와 성령에 의해 다스려 진다.

(10) 비로소 하나된 교회가 생길 것이다.

(11) 진정한 제2의 예루살렘 세계의 성도가 될 것이다.

(12) 국내 뿐 아니라 국제행정 시찰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13) 스위스보다 더 특수전자공업 같은 것이 발전할 것이다.

(14) 종교도서 출판, 성구 수출사업 등이 발달할 것이다.

(15) 국제 기독교 재단들의 원조와 특수기업 육성을 통한 투자 등이 빈번할 것이다.

(16) 성시특별보호법안 같은 것이 국회에 통과되어 시정은 장로급 인사가 영도하는 시민회의에서 다스려지고 관공서의 수가 반감될 것이다.

(17) 시 예산의 십일조는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쓰여질 것이다.

(18) 춘천시는 20세기 후반기의 인류의 신화로 각광을 받게 된다.

(19) (가)성시성회를 비롯해서 (나)성시 합창단 (다)성시오페라 (라)성시교향악단 (마)성시 전도단 (바)성시학회 (사)성시

체육제전 (아)성시 예수제가 유명해 지고 (자)성시에 유행된 미니스타일, 의상스타일, 화장스타일 등이 유명해 질 것이다. (차)성시퍼레이드는 가장 유명한 제전이 될 것이다.

(20) 완전 자유시가 될 것이다.

(21)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GNP가 3배쯤 높아질 것이다.

(22) 성시 마크가 붙은 상품은 세계 시장의 총아로 등장한다.

(23) 세계 최고의 신학교와 간호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음악대학, 체육대학, 성서대학, 교육대학 등이 생긴다.

(24) 한국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 복지센터, 요양원, 별장지대가 생기고 교양있고 품위 있는 부유한 크리스천의 은퇴 도시이기도 할 것이다.

(25) 성시 봉사단이 생긴다

(26) 제네바 등에 있는 국제기독교기관이 머지 않아 춘천으로 본부를 옮기거나 작아도 지부를 두게 된다.

(27) 새 도시계획에 의한 신시가가 생긴다.

8. 성시운동의 대전제

(1) 사도행전운동으로 성령, 전도, 말씀, 기도, 믿음, 사랑으로 시종 일관한다.

(2) 이 운동은 근본적으로 복음화 운동이다. 사람이 예수로 새로워지며 가정과 사회와 도시와 국가가 새로워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본 자료는 1972년 당시, 김준곤 목사님의 춘천성시화 추진 계획과 비전을 수록한 노트입니다

요한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과 성시화운동

—사회 개혁에 미친 諸要因들을 중심으로—

정재호 강도사(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머리말

본 고는 제네바시를 변화시킨 개혁자로서의 요한 칼빈의 모습과 그를 사회개혁으로 이끌어낸 제 요소들을 고찰하고, 성시화운동의 타당성을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조명하여 보편적·총체적인 도시선교모델로서의 성시화운동의 의의와 원리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칼빈은 세속적인 관심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여러가지 문제—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칼빈의 이러한 입장과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쉽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본 소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과 방대한 언급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주제들을 구체적이고 깊게 탐구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입장들의 상호연관 관계 속에서 칼빈을 사회개혁자로서 살게 만든 분명한 관점들을 이해하여 보편적·총체적인 도시선교모델로서 성시화운동의 현대적

의미와 원리들을 살펴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이 소고의 목적은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크게 6가지의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성시모델로서의 제네바시 성시화운동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1. 인간 사회에 대한 칼빈의 이해 2. 교회에 대한 칼빈의 이해 3. 국가에 대한 칼빈의 이해 4.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운동 5. 칼빈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6. 칼빈의 성시화 운동이 현재에 주는 의미이다.

1. 인간 사회에 대한 칼빈의 이해

칼빈은 인간의 타락과 구속은 인간들간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칼빈이 인간을 이해할 때 고립된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사회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 개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다 뚜렷한 증거는 그가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게 된다.[1)]

칼빈에게 있어서 한 인간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 개인의 탐욕은 그 한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며, 나아가서는 인간 사회의 질서와 결속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구속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 개인의 탐욕이 사회 전체에게 미치듯이 또한 한 개인의 구속의 역사 또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러한 칼빈의 이해는 사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

1) J.칼빈, 「기독교강요(Inst. 1559)」, 2.2.13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각 개인 안에 회복되어진다. 칼빈은 개인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인간 사회에도 적용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확증되어진다.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대해서 경의와 사랑을 표시하라고 한다. 그러나 특히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갈 6:10),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중생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2]

칼빈의 관심은 각 사람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새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인간사회에 대한 이러한 칼빈의 기본적인 이해는 칼빈이 사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인간 사회는 각 개인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로 결속된 인간의 모임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 사회에서 떠나 사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 사회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3] 그 모든 것은 신자나 불신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이웃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4]

2. 교회에 대한 칼빈의 이해

칼빈에게 있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한 부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

---

2) Inst. 3.7.6
3) 프레드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P. 73.
4))Ibid.,75

하게 취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현재 실현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실현될 하나님 나라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면과 미래면을 가진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은 칼빈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칼빈이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이 세대에 드러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입장이 본 소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칼빈과 그의 제네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는데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는 다분히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과 삶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양식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전망속에서 교회가 이해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명백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통치이고, 어디까지가 교회의 영역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거짓된 통치를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 축복과 삶을 한 개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임으로 확대하는 전망 속에서 교회를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교회를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영역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과 영적 축복들을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칼빈의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오류 없는 참된 교회만을 연상하게 됨으로써 종종 하나님나라와 교회를 추상적인 관념 속에 머물게 한다. 그러나 칼빈은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완전한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소로서 보이는 교회를 강조한다.

"우리는 성경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말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이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아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산재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때가 많다 … 이런 교회안에는 이름과 외형만 있고 그리스도는 전연 없는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 있다. 야심과 탐욕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 또 중상하는 사람들이 심히 많고 아주 불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간 있다 … 그러므로 앞서 말한 교회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고 믿어야 한다. 그와같이 우리는 나중 말한 것, 즉 사람들과 관련한 교회를 중히 여기며 그 교회와의 교통을 계속해야 한다."[5]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의 교회에 대한 현실적인 입장을 보게 된다. 완전한 교회에 대한 고백은 가견적인 지상교회를 중히 여기는 것으로 칼빈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적 축복과 삶이 가견적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실현되어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가견적 교회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설명 속에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교회만이 하나님나라의 단 유일한 표현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교회

5) Inst. 4.1.7.

가 하나님나라의 단 하나의 유일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향적 교회성[6]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교회가 하나님나라의 단 유일한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의 내향적 경향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할 것이다. 교회의 내향적 경향에 대하여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손꼽을 수 있다. 물론 칼빈 자신은 카이퍼에 의해서 제시된 "영역-주권"(sphere-sovereignty)즉 삶에 있어서의 주권[7]의 이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 국가, 학문, 예술의 영역에서의 활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에 응해야 하며 그의 주권적 의지는 모든 것을 포함할 것이며 그의 섭리는 인간 경험의 모든 세목까지 확대된다고 하여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칼빈이 성령의 역사를 구원론과 교회론의 틀안에서만 다루지 않고, 창조적, 세계사적 지평에서 다루었다는 주장에 의해서 더욱 확증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발전시킨 영역-주권개념은 영적 통치권과 문화대명령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위임된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칼빈의 고백이 한 개인의 삶 속에 용해되어지는 삶의 원리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의 교회개혁과 사회변혁이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가견적인 교회안에서의 삶속에서 찾는 것이고, 둘째, 일반은총과 문화 대명령

6) 원종천, 「칼빈의 하나님 나라 개념」, 성경과 신학: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집 14권 (서울:기독지혜사, 1993), P.91.
7) 아브라함 카이퍼,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서문강 역 (서울:새순출판사, 1897), P. 96.
8) 이수영, 「깔뱅의 성령론」, 「신학정론」 12권 1호 (수원:합동신학교, 1994), P. 158.

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서 살아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3. 국가에 대한 칼빈의 이해

칼빈에게 있어서 국가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그는 국가 질서가 영원히 지속되거나 태초부터 있어 왔다고 믿지 않았다.[9] 그러나 또한 칼빈은 국가 통치의 기원으로 타락을 그 원인으로 찾지도 않는다.[10] 그러면서도 칼빈은 국가 기원의 결정적인 원인을 부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돌리고 있다. 칼빈의 국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국가의 기능을 절대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국가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이러한 국가통치의 한계성과 함께 국가통치를 부정하는 견해를 강도 높게 비난한다.

"현재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현세 생활을 일소한다면, 나는 이 모든 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조국을 갈구하는 한편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생활에는 이런 보조 수단들이 필요하다면, 사람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은 바로 그에게서 인간성을 빼앗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논적들은 하나님 교회는 완전해야 하며 교회의 통치만 있으면 다른 법률을 대신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사회에서 결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미련한 공상을 한다. 극도로 엄격한 법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완강하고 거만한 악인들이 만일 어떤

---

9) 크리스토프 융겐,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김형익 · 이승미 공역 (서울:실로암, 1989), P. 25.
10) Ibid., P. 26.

악한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짓을 할까? 악행을 억제하는 권력이 전혀 없을 경우 그런 악인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11]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칼빈의 입장은 국가의 존재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해하였다. 정치권력은 기독교인들이 금기시해야 할 어쩔 수 없이 타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선의 도모와 하나님의 계명을 이룩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것이 칼빈이 그토록 정치적 방법으로 제네바 교회와 제네바시에 영향을 주는 모든 타락한 생활을 개선코자 한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교회와 성직자를 통하여 국가와 정치의 통치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칼빈은 히틀러나 스탈린 혹은 중세의 교황처럼 법위에 군림하면서 비밀경찰, 무장 경호원들이나 떠들썩한 대중의 환호를 동반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적법한 정치적 절차와 수단들을 사용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였으며, 관원들에게 의존하였다.[12]

칼빈은 관원들의 성스러운 소명을 믿었으며, 민주정치를 인정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칼빈을 살펴볼때 그의 제네바시 개혁은 단순히 제네바를 교회화 내지 교회의 거대한 공동체화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칼빈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문제는 교회와 국가의 구별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정치영역 간의 구별인 것이다.[13] 이것은 급진적인 종교개혁운동의 하나였던 재세례파들이 성급하게 넘어섰던 문제였다.[14] 재세례파의 정치와 교회를 분리

11) Inst. 4.20.2.
12) J.T.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 · 양낙흥 공역 (서울: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1), P. 212.
13) J.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P. 211.
14))로버트 E. 웨버,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옮김 (서울:엠마오, 1993), P. 92.

시킨 시각은 매우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국가 안에서 신앙과 정치영역 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별을 의식하지 못한데 비극이 있었다. 칼빈은 이것을 인식하였고 그는 조화를 이룩하려고 하였다. 교회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적 방법을 통하여 제네바시를 개혁하려고 한 칼빈의 탁월한 노력은 충분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칼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정치적인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제네바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의 놀라운 열정은 관원들을 압도하여 제네바 시에 "교회 법령"에 의한 개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4. 칼빈의 성시화운동

지금까지 우리는 칼빈이 사회개혁을 통해 제네바시를 개혁하여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칼빈이 일생동안 개혁하기를 원했던 교회와 제네바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교회개혁

칼빈의 제네바 개혁운동의 첫 출발점은 교회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첫번째로 행한 시도에서 뚜렷히 찾아볼 수 있다. 칼빈은 제네바 개혁의 계획을 문서형태로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문서는 후에 "제네바 교회의 법령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15] 그의 제네바 개혁운동은 참된 교회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 교회 법령에 의한 훈련의 목적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개인을

15) J. 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P. 185.

바르게 하며, 징계 대상자를 훈계하여 그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며 교회가 죄를 경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긴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인적 충고로 하고 공지의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징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회 의회에 부쳐서 처분한다".[16]

교회개혁의 기초된 제네바 법령들은 교회에서의 삶 전체를 위한 법 제정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법령들은 주로 목회적 기능의 견지에서 작성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서정연한 교회는 목사, 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의 4가지 직분의 감독을 받는다. 교회의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며, 고통당하는 자를 보살피는 것이다. 넓게 보면 비록 이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각각의 임무는 위의 4가지 직분의 각각에 속한다."[17] 이 법령에는 교회예배의 실제적인 세부지침도 결정되어, 예배와 요리문답 공부 그리고 교구의 경계선 등을 정하였다. 특히 평신도인 장로는 권징(勸懲)의 실행을 맡았다. 그 수는 12명으로 소의회에서 2명, 60인의회에서 4명, 200인의회에서 6명으로 모두가 의회에서 선출되었다. 장로들과 목사들은 권징을 책임지는 종교법원을 구성했다. 평신도가 목사보다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원장은 선출된 행정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법원은 교회법원이었지 시민법정은 아니었다. 또한 목사들은 세속재판권이 없었으며 치리법원은 정부의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했다.[18]

칼빈은 이 법령에 기초하여 성도들의 도덕적 훈련을 감행하였다.

---

16)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 엠마오, 1993) p. 20
17) T.H.L.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3), P. 173.
18))Ibid., P. 175.

주로 장로들이 중요한 역활을 감당해야 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생활을 살피고 규모가 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훈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법원에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과오를 범한 자들의 교정(矯正)을 위해 형제로서의 조처를 취해야 했다.[19] 그러나 우리는 칼빈이 권징의 실시와 실행을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했다는 실수를 범하면 안된다. 권징은 해결책의 일부에 불과했다. 칼빈의 말처럼 권징은 고후2:7에 따라 엄격함이 항상 온유함에 의해 조절되어야 했다. 그는 권징이 교회의 순결의 보호와 회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20] 또한 엄격히 말하면 권징은 그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권징은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을 실제적이며 개인적으로 효과있게 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21] 그러므로 제네바의 종교법원이 폭군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것은 부당하다.

2)제네바시 개혁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개혁과 제네바시의 개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과 시민이 된다는 것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당파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기독교 공동체는 시민공동체의 사람들과 동일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22] 그러므로 교회개혁의 문제는 시의회와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속적인 재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나 통과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칼빈의 교회

19) J.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P. 188.
20) Ibid., P. 188.
21) T.H.L. 파커, 「죤칼빈의 생애와 업적」, P. 176.
22) J.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P. 190.

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은 시의회와 선거를 통해서 칼빈보다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하여 교회 개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특히 방종파는 그들의 부나 지위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집행되는 권징의 굴레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자 노골적으로 칼빈을 비난하고 적대시했다. 칼빈은 때로는 위협과 절망에 사로잡히면서도 관원들이나 시민들이 올바로 세워지고 진정으로 개혁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싸웠다. 그가 제네바 시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기까지는 14년의 풍파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했다.[23]

칼빈은 환경이 성격과 습관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덕적 비행의 원천들을 일소하는데 박차를 가했다.[24] 그 당시 제네바는 사실상 철저한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중세의 제네바는,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방탕한 쾌락의 중심지였다. 제네바의 명랑함은 종종 무절제, 외설, 그리고 방종함과 관련되어 있었다. 칼빈과 당국자들은 수많은 술집과 사창굴을 제거하기 위해 강제적인 조처를 호소했다.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은 비단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 집사의 직분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듯이 칼빈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지지한다고 선포했던 부유한 계층들을 결코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그의 회중들 가운데 섞여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오류는 정죄받고 버림받는 고통들로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수수방관하는 일이다 …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번영의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23) Ibid., P. 184.
24) Ibid., P. 190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을 찬양하며, 그들이 말하듯이 운명이 미소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보낸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비참한 사람들과 궁핍한 자들을 경멸적으로 모욕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어리석게 공상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아주 많은 관용을 베푸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하에 그들은 그렇게 처신한다. 내가 말하는 오류는 … 세상의 모든 세대들에 만연되어 있는 오류이다."[25]

더 나아가서 그는 재산을 우상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비난을 한다.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의 태양조차도 독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자연의 전체 질서도 바꾸고 말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무슨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인가! 그래,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기를 원한다면 그럴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26]

칼빈 자신은 제네바로 몰려오는 난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의 봉급과 집을 항상 난민들과 함께 써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 밖에도 칼빈은 고리대금을 금하였고, 노동자와 주인 모두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였다.

칼빈의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제네바는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556년 12월에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존 낙스가 그의 영국 친구 안나 로크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칼빈의 도시를 극찬한 내용은 이러한 개혁의 결과를 잘 말해주고 있다.

---

25) 프레드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P. 92.
26) Ibid., P. 95.

"이곳은 감히 그리고 떳떳이 말할 수 있지만, 사도 시대 이후로 지상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의 학교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파하지만 생활과 종교가 그처럼 신실하게 개혁된 곳을 나는 아직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습니다."[27]

5. 칼빈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몬터(Monter)는 "제네바 역사에서 모든 길은 결국 칼빈으로 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칼빈의 지도하에 있었던 제네바는 그리 자비로운 국가는 못되었다.[28] 칼빈 자신은 제네바 사회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범죄자에 대하여 더 가혹한 편이었다.[29] 칼빈의 종교적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제한된 시대를 살았던 칼빈의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

1) 16세기 제네바의 시민들

제네바가 칼빈의 개혁을 받아들였을 때, 제네바 총회는 "하나님의 복음과 거룩한 복음의 법 안에서 살 것을 다짐했다"[30] 그러나 약속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칼빈은 요시아와 아사의 치하에 있는 이스

---

27) J.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P. 204.

28))프레드 그래함, 「교회와 사회」,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칼빈총서9」 (서울:기독교문화협회, 1986), P. 314.

29) Ibid., P. 313. 그 중요한 예가 1563년에 일어난 다음의 사건이다. 쟈끄 드 모르띠에는 절도와 횡령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실토하지 않으려 했다. 시의회는 그 사건에 칼빈을 포함하여 다섯 명의 판사를 배정했다. 칼빈의 임무는 죄를 밝히는데 있지 않고 행정적 사법적으로 부과한 형벌안에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칼빈을 제외한 다른 4명의 판사들은 그 범법자를 채찍으로 때릴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칼빈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문제로 논란을 거듭했던 시의회는 비록 그가 실토하지 않았지만 기중기로 고통을 준 후 석방하였다. 칼빈은 증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쟈끄의 범죄를 확신했고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라엘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회상하고는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모든 시민이 하기를" 군주들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신앙고백을 거부하는 사람은 신앙고백으로 형성된 크리스챤 공동체로부터 제거되어야만 한다. 칼빈이 군주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시민의 자격과 교회에서의 교인 자격이 동등하게 취급되었던 사회" 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의 이상이 곧 제네바의 이상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교회와 국가를 동일시 했기 때문이 아니다. 교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세속권력과 오랜 투쟁은 칼빈이 교회와 국가를 분명하게 구별짓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가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적 기원과 목적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수호자로서 공중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었으므로 교회를 전 삶에 관계된 것으로 보았다.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성례들로만 본 루터와는 달리 참된 교회의 제3의 표지로 구속되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실한 징계를 덧붙인 칼빈은 신실한 징계의 모든 사회에 적용했던 것이다. 이것이 칼빈의 제네바 신정정치(theocracy)가 가지는 의미이다.

칼빈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 그 중요한 점의 하나는 오늘날 사회는 기독교인들만으로 시민이 구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시민의 자격은 기독교인의 특권이 아니며, 다양한 종교와 신념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속되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실한 징계를 전 사회구성원들에게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공동체적인 인간의 연대 의식

30) 월커, 「칼빈과 교회」,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칼빈총서 9」 (서울:기독교문화협회, 1986), P. 230.

두 번째의 중요한 차이점은 인간연대의식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점이다. 칼빈의 신학에서 부분적으로 재구성된 인간의 삶은 공동체를 사랑함에 그 생명이 있다고 만찬논쟁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31]

"우리는 만일 다음과 같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영향을 미친다면 성례에서 많은 은혜를 입을 것이다. 형제들 중 누구도 감정을 상케 아니하며, 경멸받지 아니하며, 저주받지 아니하고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 의해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우리가 행한 잘못에 의해 그리스도를 저주함과 경멸함과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함이 없이는 동시에 우리 형제들과 일치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루듯이 우리 형제들의 몸을 똑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것(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다른 지체의 고통을 이내 감지하듯이 우리는 형제를 동정함으로 접촉됨이 없이도 어떤 악에 의해서도 침범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32]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순수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몸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맺어졌을지라도 내적인 징계가 시행되어야 한다. 칼빈은 아주 작고 은밀한 죄를 위해 은밀한 훈계를, 소문난 죄를 위해 공개적인 경고를, 그리고 포악하고 파렴치한 죄를 위해서 파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칼빈의 이러한 생각은 많은 죄인들에 대한 문제가 의회에 의해 부가되어진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들과 의회원들로 구성된 장로법원이 교회적인 책망을 직접하게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시민에 대한 징계의 권한은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적 책망과 세상의 검(檢)은 극도로 밀착되었던 것

31) 프레드 그래함, 「교회와 사회」, P. 307.
32) Ibid., PP. 307-308.

이다. 명예적으로 치안 판사의 의무를 갖고 있었던 칼빈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그의 생각을 잘 볼 수 있다. [33] 실제로 자주 일어난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표현되고 있던 공동체적인 인간의 연대의식이, 제네바에서 개인의 권리가 무시된 상태에서 추구되고 지지되었다는 사실이다.[34] 일반적으로 교회의 공공복리의 추구의 형태는 자선이었다. 그러나 종종 개인의 사생활은 방해되었고, 가혹한 행위가 증가되었는데도 교회와 시민의 일치라는 이름 하에 받아들여졌다. 제네바에서 이러한 긴장은 개인을 죽게 하고 개인에게 공포심을 조성했다.

물론 16세기 제네바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었고, 보편적으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은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회이다. 공동체적인 시민의 연대의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 시민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교회가 감행할 수 없다.

6. 칼빈의 성시화운동이 현재에 주는 의미

현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종교와 신념, 가치관을 비판할 수 없는 진리의 하나로서 권위를 부여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 칼빈이 살았던 제네바를 볼때 제네바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구태의연한 종교맹신자들의 독재정치만을 보게 될 것이다. 칼빈이 얼마나 관용이 없었으며, 그의 반대자들을 얼마나 강렬히, 그리고 미련하게 박해했는가를 볼 뿐이

33) Ibid., P. 308.
34) Ibid., P. 309.

다. 그러나 이것이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일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마치 이것은 제네바에 숨겨있던 값진 진주는 보지 못하고 진주를 덮고 있는 황폐한 흙더미만을 보는 것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제네바 개혁에 대한 이러한 표면적 왜곡의 이해와는 상반되는 역사적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의 하나는 칼빈주의 신앙이 가장 강한 뿌리를 내리고 국민적 생활을 가장 깊게 침투시켰던 나라들—스위스, 화란, 라인강 지역의 독일, 스코틀랜드, 영국, 웨일즈— 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35] 이것은 칼빈과 칼빈의 제네바개혁이 인간의 종교적 자유를 억누르거나 정치영역을 교회가 정복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나타내 준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교회가 국민 생활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칼빈의 생각이 제네바 개혁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루터파 교회나 성공회와는 달리 경건의 훈련이 전체 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네바에 있어서 실제로 "신정정치"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다.[36] 이것은 현시대에 있어서조차도 전혀 생소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현대의 국가도 공익을 위태롭게 한다면 간음, 간통, 처자 불법 유기 및 여타 "종교 법원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징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모든 사회가 유지해야 하는 통상적인 법률이 있다면 이것은 참된 경건의 훈련에 의해서도 지배받을 수 있게 교회에 의한 훈련은 국가의 정치 권력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회에 의한 경건의 훈련을 통한 제네바 개

35) A. 멜빈 데이비스, 「칼빈주의 사상과 자유사상」,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서울:기독교문화협회, 1989), P. 22.
36) 프레드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P. 247.

혁에 대한 칼빈의 순수성은 다음과 같은 인종 및 종교 우월주의에 대한 생각과 사회개혁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1)인종적 종교적 우월주의는 칼빈주의의 교리와는 상반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본다 … 비록 그들이 완전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말이다"(갈6:9-11에 관한 설교에서). 무어인(Moor)이나 바바리아인까지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이웃이다."[37]

2)칼빈은 복음이 우리의 참된 지체인 이방인[38]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막연하게 믿지 않았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복음이 세상의 정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세속 국가에 속한 법률을 만들지 않는다. 왕, 군주 및 행정 장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구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39]

3)칼빈의 제네바 개혁은 헌법하에서 투표와 법률에 의한 개혁이었다. 시장은 선출된 관리였으며, 시민들은 투표제도에 의해 투표하였다. 우리의 기준에 비추여 보면 법률은 엄하였으나, 그것은 엄연한 법률이었지 칙령이나 포고가 아니었다. 개인들은 그 법률하에 심한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계급에 의한 차별은 없었다. 그 통치는 동등하게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졌던 것이다. 이 통치는 인

37) J. 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P. 267.
38) 올리버 바클리,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P. 81.
39) 프레드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P. 242.

간사회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40]

그러나 우리가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개혁은 항상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칼빈은 법률에 의한 사회의 개혁 한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의 왕이나 위정자들이 법률을 제정할 때, 그들의 방식이 하나님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그것을 제정하는 목적은 인간 개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게 하고, 각자의 여러가지 권리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인간 상호간에 화평과 협력을 도모하게 한다는 외적인 사회적 질서와 관련하여, 인간을 다스려 나가는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법을 만드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입법의 뜻을 거기에 한정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죽어 없어질 인간인 동시에, 그들의 힘으로는 사람의 숨겨진 내적 감정을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40]

맺는 말

세상과 문화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원리로는 개선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방법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살 수 없는 구조적으로 악한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모든 사회와

---

40) A.멜빈 데이비스, 「칼빈주의 사상과 자유사상」, P. 51.

41) J. 칼빈, 「칼빈의 십계명 설교」, 벤자민 팔리 편역/박희석 옮김 (서울:성광문화사, 1991), P. 281.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원리와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태도를 로버트 E. 웨버는 동일시 모델, 분리모델, 변혁모델로써 설명한다. 사회와 국가및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세가지 입장은 항상 공존하면서도 매 세대마다 한 가지 입장이 다른 입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다. 이 세가지 입장 가운데 변혁모델은 민주화 운동이 가장 격렬하던 80년대 중,후반에 신앙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던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과격 운동권주의자들처럼 세상적인 원리만을 가지고 직접적인 사회적 참여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씀과 기도만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만을 올바른 태도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제3의 길이 있음을 굳게 믿었다. 때로는 기회주의자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의심스러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1990년 이후 민간정부가 수립된 지금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군사정권으로 민주화 운동은 종식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는 물질과 향락만을 추구함으로써 부모를 죽이는 패륜아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들만을 아는 부자들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으로 대규모 살인계획을 세우는 지존파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지라고 가르치지 세상과 분리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한 개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세상에 대한 분리적이거나 동일시하는 태도가 한 공동체 혹은 그 이상의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로버트 E. 웨버는 그의 책 「기독교 문화관」에서 자신이 제

시한 세가지 모델을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느 한 모델에 대한 지나친 강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서는 하나를 강조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콘스탄틴 이전 시대에 교회가 분리를 아주 강조했다는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때의 문화는 거짓 신들에 대한 경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콘스탄틴 시대에는 갑자기 교회는 이전에는 자신들을 핍박하던 정부의 후원하에서 이교사회를 정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삶의 구조와 동일시하여 공식적인 로마제국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동일시 모델의 결과로서 선교방식이 대결적이라기 보다는 변혁적이 되었다 …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사명 문제에 이것이 던진 복합성과 함께 이 세 가지 고려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그 어떤 모델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와의 관계를 적절히 묘사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 각 모델들은 각각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러면에서의 통찰을 제공해 준다."[42]

우리는 웨버의 이러한 통찰력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델을 선택하여야만 한다. 칼빈과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운동은 오늘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사회, 교회, 국가에 대한 칼빈의 균형잡힌 이해는 자신이 속한 제네바에서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는 교회와 사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의회와 대적자들에게 도전하고 투쟁하였다.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있는 한국 기독교가 사회속에서 하

42) 로버트 E. 웨버,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옮김 (서울:엠마오, 1993), PP. 194-195.

나님의 말씀을 구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칼빈이 사회에 대한 자신의 개혁원리를 실천했던 16세기의 제네바시를 살펴보았다. 제네바시는 짧은 한 세대만에 중세의 유산이었던 영적, 도덕적 부패를 벗어버린 최고의 도시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교회와 사회를 삼켜버린 결과였다. 16세기의 제네바시는 이제 어디서고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영원한 개혁에 대한 모델로서 칼빈과 제네바시는 교회와 사회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정재호 강도사님은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과 춘천성시화운동을 연계하여 연구하시는 젊은 성시신학연구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도시, 복음도시, 성서도시의 꿈입니다

최초의 춘천성시화운동 - 1972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도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도시를 꿈꾸어 봅니다.

사랑과 섬김, 공의가 제일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도시
주님으로 인하여 예술과 문화, 과학이 꽃피는 도시
낮은자, 약한자가 경시되지 않는 도시
세계를 섬기는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되는 도시
정처없이 유랑하는 나그네들도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도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얻듯,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함께 복에 참여하는 도시
성서적 희년(禧年)의 의미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동안 실천된 기독교적 유산의 모든 장점들을 이 한 도시에 쏟아 붓고 싶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것도, 빛바랜 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주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부

도시 거듭나기

나의 희망 나의 소원, 춘천성시화!

문선재 목사

제네바에 이은 제2의 종교개혁의 도시,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20여년 전 춘천 성시화의 비전이었습니다. 호수와 안개에 둘러싸인 벽지촌, 높은 산과 가파른 언덕길 척박한 땅 산간지 제네바를 부유하고 평화스러운 세계의 낙원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곳 사람들의 신앙과 신념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근면을 심은 사람이 파렐과 칼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 선각자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던 복음입니다. 가난한 안개의 도시 춘천에도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복음 심기, 복음 가르치기, 믿음 실천하기 운동이 꾸준히 어떤 역경에도 굴하거나 실망치 않고 전개되어야 합니다. 24년전 제가 호반의 도시 춘천에 와서 시작한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당시 서울 춘천간 도로는 2차선이고 아스팔트도 아닌 자갈길 신작로였습니다. 의암댐 입구에는 군인이 보초를 서고 의암교를 버스로 건너 춘천으로 들어오려면 가파른 절벽 아래 검푸른 호수가 안개와 함께 시야에 들어왔습니

다. 참으로 가난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수려한 경관 뿐인 폐쇄의 도시였습니다. 춘천의 교계에서 활동하시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춘천 평신도 성경 문학부는 이 기도를 춘천의 모든 교회에 퍼져 나가게 했으며 72년에는 춘천 실내 체육관에서 춘천 성시화 운동의 이름으로 1만 명 집회를 C.C.C의 도움을 받아 치렀습니다. 이것이 22년 전의 일입니다. 초창기 평신도 성경 문학부 회원들은 지금 춘천에 살아 계시는 분들이 댓사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조 장로님이 계십니다. 초창기 이런 성시화의 꿈을 가졌던 사람들 중의 한 분입니다. 그때에 춘천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하는 하나의 꿈을 그려봤는데 그것이 바로 공부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 체육의 도시, 기술의 도시, 거룩한 도시 등 오색의 도시화입니다.

공부하는 도시란 오늘날의 평생교육이란 개념과 같습니다. 모든 시민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에 걸쳐서 공부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듦으로써 지성인의 도시, 진리의 도시, 교육의 도시, 자유의 도시, 생각하는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이었고, 아름다운 도시란 모든 사람들이 예술인화 되어 예술의 도시, 문예의 도시, 미의 도시,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을 만들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기술의 도시란 춘천에 소위 첨단 기술과 생산하는 도시, 풍요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데, 그때 당시 정밀기계기술을 춘천에 도입해서 춘천을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거룩한 도시란 전 시민을 신자화해서 신앙의 도시, 기도의 도시, 성서의 도시, 믿음의 도시, 성서를 연구하는 도시로 만들자는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20여년 전에 꿈꾸던 것이 이 세대에도 하나의 지표로 우리에게 일깨우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변천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이 비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많은

비전을 첨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의 대전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운동으로 성령, 전도, 말씀, 전도, 믿음, 사랑으로 실천 일관하자, 두 번째 이 운동은 근본적으로 복음화 운동이어야 한다, 사람이 예수로 새로워지면 가정과 도시와 국가가 새로워진다는 전제로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꿈꾸며 모아 둔 미래상의 투시도는 27가지였는데,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시 집회가 연중무휴로 열리고 세계적인 명물로 등장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음악회, 세미나, 등 여러 행사와 성시를 토론하고 선전하는 모임을 위해 구체적인 회의가 열리는 도시가 될 것이다. 경치 관광보다는 성시 관광이 유명해진다. 성시 이주자(聖市移住者)가 전국에서 모여들 것이다. 춘천이 성시화가 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춘천 가서 살자고 할 것이다. 성역화 된 춘천에는 술집, 거지, 도둑, 뇌물, 부정 부패, 퇴폐 풍조, 불신 풍조, 매음, 폭행 등 일체의 사회악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각종 시민 복지시설은 물론 이상적 신용조합, 소비조합,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시민 생활은 어느 곳보다 편리해질 것이다. 시민은 신자가 되느냐 춘천을 떠나느냐 하는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는 주일학교화 되고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화 되고 학군은 곧 교구가 되며 춘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와 성서와 성령에 의해 다스려진다. 비로소 하나 된 교회가 생길 것이다. 모든 교회를 초월해서 춘천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로 통일이 될 것이다. 진정한 제2의 예루살렘, 세계의 성도(聖都)가 될 것이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 행정 시찰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스위스보다 더 특수 전자 공업이 발전할 것이다. (그때 이미 춘천에 믿음의 1세대들은 춘천을 특수 전자 공업 기술을 도입하는 도시로 꿈꿨습니다.) 또 성구 수출 산업 등이 발달할 것이다. 국제 기독교 재단들의

원조와 특수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빈번할 것이다. 성시 특별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서 시정은 장로급 인사가 연구하는 시민 회의에서 다스려질 것이다. 시예산의 십일조는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쓰여질 것이다. 춘천시는 20세기 후반에 인류의 신화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완전 자유시가 될 것이다.(기독교 특구가 춘천이 될 것이다.)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GNP가 3배만큼 높아질 것이다. 세계 최고의 신학교와 간호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체육대학, 음악대학, 성서대학, 교육대학이 생길 것이다. 한국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 복지 센터, 요양원, 별장 지대가 생기고 교양 있고 부유한 크리스천의 은퇴 도시이기도 할 것이다. 성시봉사단이 생길 것이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 기독교 기관이 춘천으로 본부를 옮기거나 지부를 두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도시 계획에 의한 신시가지가 생길 것이다.

이런 꿈들을 그때 꾸었습니다. 이런 꿈들은 20여 년 전에 춘천에 신앙 1세대들이 꾸었고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춘천은 부유한 도시도 아니고 오히려 타시도에 비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푸대접 무대접의 정서로 가득찬 원망과 좌절과 절망에 가까운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새 소망의 싹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0여 년 전 실내 체육관 집회에 참석하여 춘천성시화의 꿈을 꾸고 함께 말씀을 듣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자라서 신앙 2세대로 오늘의 이 대회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춘천 성시화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꿈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서를 인용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13입니다. 이 꿈은 이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믿음을 계속 심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곤경에도 이런 꿈을 제 2세대로, 3세대로 전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 수평선에서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천국이 맞닿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 총장 허망한 꿈을 꿔서 요새 고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과 대학은 원래 성시화 꿈의 하나였습니다. 정보통신연구소가 10월말에 준공이 되는데 그것도 전자 기술을 춘천에 도입하려는 춘천성시화의 꿈의 일단이었습니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대학 천만평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곳에 틀림없이 노인 복지 센터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을 확신하고 요즘도 그 꿈을 꾸고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기관에서 이 꿈을 달성하겠다고 기도하고 성실히 믿음을 심을 때 춘천이 성시화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도전이 대단합니다. 어디 되는가 보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선재 박사님은 前 강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으며, 춘천성시화운동의 1세대로 지금까지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글은 지난 94년 "복음과 춘천" 집회시의 발제문을 옮겼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도전, 성시(聖市) 춘천

조남진 장로

요한이 본 환상 -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1.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으로 밧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요한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온갖 종류의 조롱과 불명예를 안고 죽음에 직면해야 하고, 온갖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외딴 섬에 갇혀 있던 요한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두터운 철문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도요한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위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새로운 생명이 충만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 보배로운 어린양의 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는 도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도시, 요한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성경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 성시특구를 이루려는 꿈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새 예루살렘을 신앙 고백하는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2.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도시에 대한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들이 복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를 소홀히 취급해서 도시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에 대한 성경적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동산에서 시작하지만 도시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지은 도시로 시작하지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도시로 끝나는 것입니다. 도래하실 메시아의 사역도 도시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시69:35).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소리를 높여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사 40:9-10). 성경은 최종적인 도시의 승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만국의 도시들이 무너집니다(계16:19). 부도덕한 도시와 세상의 가증한 것들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몰락합니다(계17:5). 한 순간에 권력의 도시가 멸망합니다(계18:10). 그리고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인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시에 들어옵니다(계21:24).

3.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땅을 만

드시는 것입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에게 땅에 충만히 거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을 성경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창6:5), 또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창6:11)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성에 머물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을 흩으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땅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도시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땅에 거하게 됩니다.

4.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문화였던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인 레위기는 지성소와 성막의 삶에서부터 사회생활에 관한 모든 생활의 규례로 그 초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형식과 의식 중심의 예식적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예식적 삶의 모범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성 생활, 경제윤리, 노예해방, 땅을 안식하는 문제 등 모든 사회 생활 영역에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사회생활과 분리될 수 없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든 도시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19:6)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경건한 문화적 삶의 양식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이 경건한 문화적 삶의 양식을 통해서 나타날 때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시로 가는 길

5. 세계가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1900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 가운데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9퍼센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50년에 이르러 그 수치가 29퍼센트로 증가하더니, 급기야 1990년에 가서는 45퍼센트에 도달했습니다. 또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0년에 이르러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 인구의 50퍼센트 이상(약 32억)이 도시 지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2025년에는 그 수치가 65퍼센트에 육박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도시 거주자들의 수는 8억이 증가할 것이며, 2025년에 가서는 1990년보다 31억이 증가한 55억의 인구가 도시 지역에서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도시화의 추세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선교적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선교가 있을 수 없으며, 또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비전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새로워져야 하고, 시각은 충분히 넓혀져

야 합니다. 물론 선교 전략에 있어 도시의 중요성은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감으로써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확산을 시도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으로서의 도시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도시에 주목해야 하는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6. 거룩한 도시로 향하는 길은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세상과의 싸움이 없는 값싼 복음을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피하여 경건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은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아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의 생명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새 존재를 통하여 그가 사는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가 받아들인 복음은 이미 생명을 떠난 왜곡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세상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 안에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세상은 복음을 통해서만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한 인격의 변화나 사회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환상인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길입니다. 거룩한 도시를

향한 꿈은 복음의 싸움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투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물리적 힘을 필요로 하지만 복음은 사랑의 방법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검의 방법을 필요로 하지만, 복음은 자기 희생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영광의 길을 추구하지만 복음의 방법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거룩한 도시를 향한 도전은 영광스러운 비전만큼이나 그 방법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감으로써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도시에 대한 총체적인 사역에 대한 비전이 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나 "우리는 전에 이와 같은 일을 한일이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레이 바키는 교회들의 편협함과 고지식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1] (통탄스럽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도시들에 복음을 전하는 데 한 가지 전략만을 사용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을 대표하는 전도자들은 세계의 도시화에 다양하게 반응을 해야 할 필요를 깨닫지 못합니다. 기독교 사역의 전략과 책임이 분명히 복음 전도로 시작을 하지만, 정녕 거기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시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도시에 대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도시들은 엄청난 세계 문제들과 다른 곳에서 낙오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도시 전체의 생활을 갱신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관심과 목표로 장식될 때 복음 전도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그 당시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미국

1) 한화룡, 「도시선교」, p.85.

과 영국의 대도시들에 복음을 전하면서, 도시의 엄청난 필요들과 함께 복음 전파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도시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매주일 강단에 올라서는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도시의 한 복판에 고아원과 빈민 구호 센터들을 세우고 또 무디 성경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도시를 휘저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온 나라를 휘저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체적인 도시 선교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도시를 향하여

8. 복음 전도

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사람의 영혼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모든 고도의 물질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과학기술의 계획된 조작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와 섬김의 힘씀이 있어야 하며, 복음의 전파라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 도시에 사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원적인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은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도시 안에 복음의 초청을 받지 못한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9. 교회 갱신

교회의 갱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의 백성들로 만들어진 교회를 건설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말함으로써, 교회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교회로의 회복은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 온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통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많은 복음의 초청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지 못한 인격이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대안은 강력한 교회 갱신의 변화입니다.

10. 교회 갱신에 있어서 중요한 면은 교회 연합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아무 선한 것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서로 나뉘어진 모습으로 교회는 세상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고 말한 주님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대안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다양한 사역의 조화를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다양한 사역과 은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독선과 편견 그리고 아집을 버리는 것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교회는 그 모든 것을 허비하는 데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일은 교회의 연합된 힘이 시민을 향한 복음 전도와 복지, 그리고 건전한 문화의 정착에 사용되도록 요구합니다.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성전된 무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마음이 열린 온 시민과 도시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11. 기독교 운동의 활성화

거룩한 도시를 향한 도전은 기독교 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한 교단이, 한 종교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양하듯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양한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다양한 은사가 온전하게 발휘되는 일에서부터 그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을 섬기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완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양한 은사와 완전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합니다.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은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가 최고로 발휘되도록 격려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최고로 발휘되어진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아름다운 영적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주는 유익이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축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도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온 도시를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저 멸망 받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발휘되고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가 총체적으로 한 도시에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12.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이 무질서하게 나아가지 않도록 섭리로써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십니다. 성경의 법은 옳은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이 질서 있는 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시고,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랑의 방법들 위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와

사회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것은 정치적인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한 모든 역량을 사회와 세상을 향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제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한 다스림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영역은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영역이지, 죄악된 영역으로 버려두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타내는 강력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대부분 물리적인 힘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누가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느냐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이 사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이 막중한 책임을 주님의 섭리하에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 정치적 영향력은 꼭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죄악된 세상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된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분별하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복음적인 영향력을 형성, 발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도

시를 향한 도전은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주어진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케 함으로서 빠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4.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위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도시는 그 어느 곳보다도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시골에서부터 몰려오고, 수많은 공장에서는 이름 모를 유해 물질들을 물과 공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절도와 폭력 및 살인들이 새로운 충격 없이 매스컴에서 보도되어지고 있으며, 공직자와 정치 지도자들의 부도덕이 보도되고 있으며, 토지, 주택, 금융, 교통 등의 수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는 강하고 매력적인 사회 윤리 때문에 그리스와 로마의 도시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즉 그들의 입술과 삶으로 말하는 "사랑과 자선의 복음"을 갖고 로마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의 양심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사는 도시는 마치 혼과 몸의 관계와도 같았습니다. 성시특구를 향한 도전은 제도를 통해 나타나는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건전한 정치적 영향력은 선한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성시특구의 이상

15. 오늘 우리 사회에 기독교의 원리가 보편적으로 다스려지는 성시특구가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

시특구를 만들자는 생각은 오늘의 시점에서 새롭게 대두된 문제는 아닙니다. 성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셨고, 역사상에서 실행해 오셨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성시가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서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작은 모델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 성시가 가지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성시특구는 그 개념 자체 속에 이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타락하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이자, 또한 모델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거울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16. 기독교 자치구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기 전에 사람들은 작은 지역 단위로 모여 공동의 삶을 영위하면서 혹독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생존을 도모하는 일을 다른 누구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확대되어 국가가 이루어지면서 작은 지역은 넓은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 속에 흡수되었습니다. 현대의 국가는 이러한 과정을 밟아 거대한 집단 혹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거대한 국가 혹은 중앙 정부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어 대다수 국가들이 작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지역(또는 구역)을 바탕으로 한 지방 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에 따라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또는 자치

기관을 통하여 자치 사무를 자치 재원으로써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오늘 우리 사회의 경향은 성시특구로 향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감을 보여 줍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민의 뜻과 자치기관 그리고 자치 재원의 확보입니다".[2]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로 뽑은 공직자들이 국가권력의 특별한 위임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며, 동시에 주민자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기독교특구는 기독교적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가능성의 여부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면에서 특별한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의 50%이상이 기독교적인 자치를 원해야만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로 뽑을 수 있는 대부분의 공직에 건전한 기독교적 자치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온전한 분별력을 가진 다양한 은사를 가진 기독교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독교의 지역 정당에서 추천될 수 있으며, 교회는 이들을 연합하여 후원해야 합니다. 주민의 절대적인 의사에 지지 받은 공직자들이 자치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중앙 정부는 건전한 견제하에서 성시특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정치적 권력의 방향과 성격을 중앙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자치권을 실현할 수

2) 지방자치의 6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이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정부의 힘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다.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법적 능력들을 갖는 주민들의 총체이다. 셋째, 자치권이다. 주민의 총체인 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일정한 전형적 업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넷째, 자치기관이다. 주민의 뜻을 표현하고 실현할 기구를 말한다. 다섯째, 자치 사무이다. 지방자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한다. 여섯째, 자치 재원이다. 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성시특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으로 초청을 받을 수 있지만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건전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물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 진정한 회심은 사랑과 희생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시특구를 통한 복음 전파의 방법은 총체적인 선교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가 발휘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은 급속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8. 기독교 산업의 진흥

성시특구의 성공 여부는 성시특구에 적합한 산업을 진흥시켜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는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연단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부의 창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한 도시는 영적, 육적, 물리적인 모든 필요가 충분하게 공급되는 도시이어야 합니다. 잠시의 연단을 위해서 혹은 시대적인 보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것을 예비하심으로써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청정 산업 및 첨단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건전하게 일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터를 창조해 나아가야 합니다. 춘천은 잘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일찍부터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이러한 자연 환경

과 문화적인 여건을 통해서 삶의 쾌적함과 질을 중시하는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세기의 정보화와 지식산업의 중핵이 될 멀티미디어 영상 산업, 생물 환경 신 기술 혁신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매체 산업을 개발 육성하며, 문화 예술 도시 및 환경모범도시로 위상을 정립을 통해 세계 속의 춘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진흥개발정책은 성시특구에 적합한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춘천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됩니다.

19. 관광산업으로서의 문화도시

성시특구는 기독교 관광지로서 춘천을 문화도시로 만들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장사꾼의 마당으로 변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지나친 상업주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와 진리에 대한 관심의 부흥을 위해서 건전한 기독교적 관광산업으로서의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성시특구가 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역사상 멸망했던 예루살렘의 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 놓은 유산의 모든 장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 등을 모델화 함으로써 기독교 정신의 정수를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20. 희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성시특구는 그 무엇보다도 희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안에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죄인들이 도피성에 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인 예수를 믿는 도시인

성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쉴 곳 없는 나그네들이 머물면서 영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자신의 존재와 존귀함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도시가 되어야함 합니다.

대안 도시 모델로서의 성시특구의 이상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가리켜 한 외국 학자는 "강제 성장"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주도한 인위적 성장으로 수치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보여 빨리 성장했지만 내실이 무척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성수 대교와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를 보고 외국 언론들이 "고도 경제 성장의 후유증"이라고 진단한 것도 그간 한국 경제를 바라보던 외국의 일반적인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표피적인 양적 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적 성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이 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심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심어 갈 때야 비로소 복음은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총체적인 도시 선교 모델로서 성시특구의 이상은 복음으로 이 사회의 모든 삶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성시특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는 불가능한 꿈을 가능케 합니다. 성시특구는 모든 사회 모든 도시의 모델 도시가 될 것이다. 복잡 다양한 현대의 모든 문제들을 성경의 원

리와 믿음으로 극복한 성시를 보며, 세계의 모든 도시는 성시를 배우러 오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땅끝에서 스바여왕이 왔듯이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지혜를 배우러 성시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성시 춘천이 총체적인 선교 모델로서 세계의 곳곳에 수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을 전파하는 강력한 선교의 통로가 될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조남진 장로님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며, 지난 70년부터 춘천성시화의 꿈을 품었던 성시1세대로서 현재 강원일보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기 도

—세계복음화 · 도시복음화를 위한 영적 전투—

조은제 장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의 NEWS 및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 들어온 소식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늦은 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 교회의 성장이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 한국과는 달리 남미에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유럽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당하는 아프리카에서조차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부흥의 소식은 지금도 계속 들려 오고 있습니다.

남미의 부흥

1990년에 개신교인이 불과 5만 명에 불과하던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그 부흥의 불길이 칠레, 브라질 등으로 번져 나가면서 1990년들어 개신교인 4,000만 명에 육박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만 명이 운집한 집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

여 구원받았다든지 불과 수년 사이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로 급성장한 교회들의 예를 몇 개이고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화해와 갱신의 물결

미국에서는 화해 (reconciliaton)와 갱신 (renewal)으로 특징 지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흑백간의 용서와 화해, 아메리카 인디언과의 화해, 기존 교회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성도들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헌신과 거룩함에 대한 열심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예정에 없던 "세족식"을 하면서 흑인 목사님들의 발을 씻기던 백인 목사님들이 함께 부둥켜안고 울며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95년 3월에는 휘튼대학 채플에서, 한 침례 대학생의 간증을 통해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 통로에 줄을 서서 차례대로 마이크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울며 함께 기도하였는데 주로 동성연애, 간음 등 음란죄에 대한 고백이었던 이 회개의 행렬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회개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은 휘튼 대학생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명씩 짝을 지어 미국 전역의 대학을 방문하면서 이처럼 회개와 거룩함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C.C.C. 창시자이며 국제 총재이신 미국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1994년 7월 당시 7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하심에 의해 40일 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금식기간중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음란죄, 특히 헐리우드 문화를 통해 전세계에 이 음란한 문화를 퍼뜨린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때 하나의 vision을 허락 받았는데, 서기 2000년까지 미국에서 20만 명의 성도가 40일 금식을 하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The Coming Revival : America's Call to Fast, Pray and Seek God's Face (다가오는 부흥: 금식과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미국을 부르심)" 이라는 책을 쓰시고 이 책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금식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해 가을 템플턴 상 수상자로 결정되어 100만 불의 상금이 이 운동에 쓰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빌 목사님은 1995년, 1996년 계속 40일 금식을 하셨고, 지금은 빌 목사님의 도전에 힘입어 미국의 목회자들, 선교단체 간사들 안에 3일, 7일, 10일, 40일 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또 Ronnie Floyd 목사님은 사모님이 금식 기도 후 암을 치유 받은 것에 도전을 받아서 최근 40일 금식기도 후, 그가 속한 미국 남침례교단의 1,500만 성도들에게 금식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 지금 수만 개의 침례교회 내에서 금식과 기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0-40 창문을 향한 금식 기도 운동

미국의 Dick Eastman 목사의 보고에 의하면 1993년, 1995년 'Praying Through the Window 라는 '10-40 창문을 위한 기도' 캠페인 때 전세계에서 2,200만의 크리스천들이 금식과 기도로 동참하였는데 1993년 이 기도가 시작된 이후 인도에서의 교회 성장률은 3배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10-40 창문 지역' 특히 중동, 북아프리카 등의 모슬렘 지역에서는 환상과 꿈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거나 또 갖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스스로 그 권능을

드러내셔서 수많은 모슬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수천 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1997년 10월에 있을 '10-40 창문 지역을 위한 기도' 3차 캠페인 때에는 전세계에서 5,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금식과 기도에 동참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성령의 역사

영국에서도 5,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갱신되고 있고 한때 기독교 국가임을 천명하였으나 지금은 텅빈 교회들만이 남아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고목에 싹이 나듯이 다시 한 번 부흥의 기운이 움트며 뜨겁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대한 이해와 참여

이처럼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각성과 부흥 운동의 배후에는 1990년대 들어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실행되고 있는 영적 전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선교 단체의 선교사 훈련 과정에서, 선교사가 어떤 지역으로 나아가려 할 때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지역 귀신 (Territorial Sprits)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분별해 낼 것인가, 그에 대한 영적 전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영적 전투의 강의가 거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국제 C.C.C.가 최근 시작한 마케도니아 프로젝트는 10-40 창문 지역의 미전도 족속 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서 한국 C.C.C.에서도 40여명이 선발되어 미국에서 6개월간의 훈련이 있었는데 그 강의의 30%가 영적 전투에 할애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

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고 하였고, 존 도우슨의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구하라」 나, 피터 와그너의 「기도는 전투다」, 신디 제이콥스의 「대적의 문을 취하라」 라는 책에서 보듯이 이제는 어떤 지역 특히 어떤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들에 대하여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여 전투적 기도를 행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형태이자 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72년 춘천 성시화의 Vision을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 받은 후 끊임없이 그 기도가 이루어져 왔고 바야흐로 그 Vision의 성취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영적 전투의 기도-에 충성함으로써 춘천시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올려 드릴뿐만 아니라, 당면한 세계 복음화의 과제에 있어서 '도시 선교' 의 모델이 되고, 그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춘천에서 행해진 영적 전투의 기도

춘천에서는 1995년 5월 예수전도단 간사들 10여 명이 약 10일간 매일 아침 봉의산에 올라가 춘천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이 춘천시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묶고, 떠날 것을 명령하고, 또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1995년 10월, 일단의 그리스도인들 10여 명이 매일 밤 모여 캘커타시와 춘천시에 대해 영적 전투의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었기에 여기 소개합니다.

캘커타를 위한 영적 전투의 기도

캘커타란 도시는 그 이름부터가 '칼리' 라는 힌두교 여신의 이름

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거대한 빈민가, 매연, 공해, 쓰레기, 더위 등으로 그 당시 UN의 환경 보고서에서는 세계 최악의 도시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1,200만의 시민 중 60% 이상이 절대 빈민으로서 이들은 도시 곳곳에 자리잡은 슬럼가에서 수도나 하수도 화장실도 없는 환경 가운데 비참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또 켈커타에서는 매년 10월초 약 10일간 '칼리' 축제가 벌어져 모든 직장, 학교가 문을 닫고 시민 전체가 밤낮으로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날 전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방신 축제는, 처음 그 도시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세워지도록 허용하였던 조상들과 세상 신과의 계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식이 되는 것으로서, 결국 그 도시를 오랜 세월 동안 마귀의 권세 아래 두게 되는,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목적을 허용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95년 10월 이 '칼리' 축제 기간 중 이곳 춘천에서는 매일 캘커타를 위한 영적 전투의 기도가 행해졌으며 공해, 쓰레기, 더위에 대해서도 대적하고 변화를 간구했습니다. 이 때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으로써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를 마광한 화살같이 만드사' 영적 전투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용사로 세우셨음을 알려주셨고, 또 49장 24절, 25절 말씀을 응답으로 주셔서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우리가 담대히 영적 전투를 시작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포로 되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1996년 10월의 '칼리' 축제 기간에는 5명의 기도팀이 켈커타를

방문하여 그 땅을 밟으며 선포하고 전투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응답이 점점 가시화 되어 '97년 1월부터는 켈커타에서 눈에 띠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행정당국의 매연차량단속,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계몽 및 감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하수도 정리 및 공원과 거리에서의 쓰레기 청소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여 '97년 3월의 '뉴스위크' 지에는 '캘커타가 변하고 있다' 는 소제목을 달고 'New Calcutta' 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가 소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는 건기임에도 이상하게도 비가 자주 오고 바람이 불어서 40°를 웃돌던 살인적인 더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캘커타를 위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95년 10월부터 일단의 춘천 성도들에 의해 시작된 영적 전투의 기도가 효과적으로 응답된 실례였는데, 지금도 매주 한 번씩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행해지고 있는 캘커타 도시를 향한 영적 전투의 기도를 통해 그 땅을 덮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되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춘천을 위한 영적 전투의 기도

'95년 10월 캘커타를 향한 영적 전투와 함께 춘천을 위한 기도도 병행되었습니다. 그때, 단군 교주 였다가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신 김해경씨의 간증 가운데 춘천 봉의산이 역술인, 무당들 사이에는 전국에서 두세 번째 가는 '영산' 으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봉의산 골짜기 곳곳에 자리잡은 점술가들, 봉의산 기슭과 그 아래 소양로, 교동, 요선동 일대에 밀집해 있는 점집, 술집, 사창가 등을 염두에 두고 봉의산에 자리잡은 '견고한 진' 을 향하여 영적전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춘천시의 동, 서, 남.북을

향하여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명령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 놓을지어다. 시민들의 심령을 혼미케하여, 복음을 들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더러운 영들은 이 춘천시에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있다. 너희들은 이 춘천 땅에 대해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선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묶는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최근에 예수전도단 소속 '영적전투와 중보기도 학교' 학생들이 춘천에 와서 춘천의 역사 행정구역, 교회 분포 및 사찰. 점집. 유흥가의 분포 등을 조사하고 기도하면서 이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지역귀신의 정체와 '견고한 진'의 위치 및 정체를 규명하는 소위 '영적도해 (Spiritual Mapping)'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며 정확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영적전투의 기도가 병행된다면 춘천 성시화는 속히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반석교회를 세우신 래리.리 목사님은 어느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미국 하늘을 뒤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영의 눈으로 보고 깜짝 놀라 탄식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미국인 2억 5천만 명에 대해 3십만 명의 중보기도 용사들이 일어나 손을 들고 기도하니 그 손끝에서 빛이 나와 흑암의 구름을 뚫어 없애 버리는 환상을 보고, 지금까지 수많은 중보기도 그룹을 조직하셨다고 합니다. 그 간증에 힌트를 얻어 춘천에서도 25만 명의 시민에 대해 300명의 기드온 용사와 같은 기도 용사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었는데 놀랍게도 1996년 6월 '춘천성시화를 위한 vision 126 기도모임'이 초교파적으로 시작되어 300명의 기도 용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확히 순종하고 있는 우리 춘천에 성시화의 큰 vision이 속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요청함

영적전투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요청하여 우리 자신을 덮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자에 들어 인간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특히 문화의 영역에서 마귀의 세력이 더욱 노출되고 그 기세를 더해 가고 있는데,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영적 공격이 더욱 노출되고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가정이 부부 사이의 갈등, 자녀들의 문제로 깨어지고 있고, 교통사고, 질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며, 선교사들간에 미움, 분노, 분열의 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미전도지역 , '10-40 창문지역' 이 거의 다 모슬렘, 힌두, 뉴 에이지 운동의 "견고한 진"이 자리잡고 있는, 그래서 더욱 강력한 영적 전투가 요구되는 곳임을 생각할 때, 전투적 기도의 용사들이 공격받는 일이 많이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전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문설주, 인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해치 못하고 지나갔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요청하고 존중하며,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 재산. 소유물 등을 예수의 피로 덮었을 때 ,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외아들이 짊어지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외면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길이 5-6㎝의 가시로 인해 찢어진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예수의 얼굴을 뒤덮고, 두손과 발, 옆구리의 창상에서 흘리신 피가 예수의 온몸을 뒤덮으셨을

때 그 "어린 양" 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해 내셨으며 마귀는 자신의 영원한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 들어가야 할 용사임을 밝히고 , 1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라 하시면서 대적(공격)한 후, 마귀의 반격을 받아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싸우고 끝낼 용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찬송가 401장의 '……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는 가사처럼, 계속하여 전진하며 사탄의 '견고한 진' 을 파해 나가야 할 용사들인 것입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부림

요즘 선교 현지에서 천사들에 의하여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든지, 천사의 방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모슬렘들의 간증 등 천사의 활동에 관한 간증이 많이 늘고 있는데, 믿음의 후사인 우리 성도들이 부리라고 보내신 영-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의 권세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휼을 말하지 말고"(베드로 전서 3장 10절). 신경정신과 외래환자의 대부분이 미움,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는 어린 시절 혹은 결혼하여 사랑 받기를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말로써 상처를 받아, 그 상처를 기반으로 들어온 미움의 영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잡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한편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또한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입술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 우리는 이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 악한 마귀를 묶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놓아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입술의 권세를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결 론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 춘천에 위임하신 거룩한 과제- 춘천 성시화를 효과적으로 빨리 달성하기 위하여 영적 전투의 기도를 제안하였습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지 마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 전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사명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 효과적인 전략이 영적 전투라고 생각되고, 또 실제로 이러한 영적 전투를 통해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간증이 있기에, 여기에 소개했고, 그러한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사격의 기도도 좋지만, 악한 영의 활동이 더욱 노출되고 강해진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상 과제가 아직 성취되지 못한 반면, 생명 공학을 통한 하나님 모독의 죄악이 관영할까 심히 두려운 이 마지막 때에, 좀 더 효과적이고 적중하는 미사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식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리라' 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금식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재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소식인데.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수십 명의 목사님들과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함께 40일 금식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겸손으로 아뢰고 성결에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포로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이 구속의 물결이 속한 시일 내에 춘천, 강원도, 대한민국, 전세계에 충만케 되어 우리 당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아멘 !

조은제 장로님은 베드로정형외과 원장이며, '비전126춘천성시화 기도모임'의 총무위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성시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편집부

본 좌담회는 94년과 96년 성시토론회와 같은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성시화운동을 위해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좌담회는 1997년 5월 24일(토) 강원일보사 사장실에서 열렸으며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남진(강원일보사 사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임택창(석사감리교회 목사, 기독교연합회 회장), 문선재(前 강원대학교 총장), 양인평(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전용태(청주지검 검사장, 前 춘천지검 검사장), 차성도(강원대학교 교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획실장), 이영길(선교사,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기획위원), 정재호(강도사,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기획위원). 좌담회의 전체를 받아 지면에 소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972년에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은 20년 후인 1992년 새롭게 시작된 이래 1996년에 이르러 운동 본부의 발족을 보기에까지 이르렀다. 분부가 창립된 이래 매달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감사한 것은 공식 기구를 발족시키고 움직여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금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고 있다. 몇몇 교회가 주동이 되어 지원하고 있고 많은 개인 후원자들이 있어서 현재 운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부담이 없다. 한 달에 3-4백만 원씩의 고정적인 후원이 있다. 간사들의 생활비 및 긴급한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성시화의 비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네바와 벤쿠버 같은 세계의 좋은 도시들이 있는데 춘천도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확고한 외부적인 장치를 두었다는 것은 운동이 2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춘천성시화운동은 5색의 도시에 대한 비전을 안고 시작되었다. 예술의 도시, 건강의 도시, 무공해 첨단 기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50% 이상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복음화의 템포는 느린 것이다.

전도와 구제가 같이 병행하는 운동으로 반전해야 한다. 72년에 운동이 시작된 이래 성시화운동은 집회 중심의 성격을 띄었다.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하며 전도 운동과 함께 구제 사역도 강조되어야 한다. 5색의 도시의 비전을 보며 성시화운동과 지역사회 개발또 연관되어야 한다. 춘천의 공공 정책 형성 과정에서 성시화운동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성서적 복음주의와 사회적 복음주의가 통합되어야 한다. 지난번

강원대에서 있었던 일본 목사의 간증 설교 같은 복음화에 긴요한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시화운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운동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그들을 복음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의 영역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1)정치, 행정, 법 (2)경제, (3)교육, 학문 (4) 가정 (5)매스컴 (6)예술,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뿌리 박혀야 한다. 성서적 세계관을 통해 모든 영역에 접근해야 한다. 기독교 대학의 비전을 품을 필요가 있다. 교회가 연합하여 세울 수 있다면 영향력 있는 기관이 될 것이다. 석사과정과 단기 연수 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운동의 이론적 바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의 전수를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성시화운동이 리더쉽을 계속 배출해 내기 위해서는 성시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목회자들이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성시화운동의 차원에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지도자가 배출되지 않으면 운동은 막연한 것이 된다. 운동을 할 젊은이들을 일으켜야 한다.

성시화운동은 명확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성시화는 춘천의 모든 분야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비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변화도 주지해야 한다. 시장이나 의회의 의장을 선출할 때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기독교 인구 50%로는 부족하다. 성시화는 춘천 전체를 하나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성시화운동은 전도 운동과 생활 운동의 결합이다.

성시화운동은 원래 교파 연합 운동이었다. 당시에는 교파가 4,5개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15-20개가 된다. 교회 연합이 필요하다.

성시화운동 본부의 성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교회도 아니고

선교 단체도 아닌 연합 운동체로서의 본부는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 각 나라가 있고 국가 연합인 UN이 필요한 것과 같이 기독교 연합이 필요하다. 마귀는 보이는데 UN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성시화운동 본부가 발족되게 된 것이다. 각자도 잘 되어야 하지만 연합 운동이 잘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독교 연합 운동이 이 도시에 없었다. 기독교 100년사에서 UN군이 없었다. 결의 기구가 없었다. 역시 목사님들은 개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다. 평신도에 의한 기독교 연합 활동이 성시 본부의 특징이다. 성시 본부가 하는 일이 개별 교회나 개별 선교 단체가 하는 일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 말 그대로 본부의 기능을 해야 한다. 가정 생활 세미나 법률 상담, 결혼 상담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생활의 변화를 시도하는 연중 무휴의 프로그램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 선교, 음악 선교, 환경문제, 헌혈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기독교 연합회는 교회 중심의 운동이고 성시 본부는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다. 성시 본부는 교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기획 과정에서부터 연합회와 의논했으면 한다.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성시화운동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교역자들 사이에는 성시화의 용어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있다. 실패한 제네바 개혁을 왜 들고 나오느냐는 식의 의식도 있고 성시화를 복음화로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도 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회원 교회로 되어 있지 않다. 후원금을 내는 교회는 극소수이다.

춘천의 기독교 기관장 모임이 성시 본부의 산파 역할을 했다. 기관장들 모임을 할 때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복음화와 성시화는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했다.

춘천 기독교 학문 연구회의 연구가 최근 성시화운동에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다. 기학연은 성서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춘천성시화운동의 꿈을 가져오면서부터 복음화와 성시화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복음화는 영혼 구원에 강조점이 있다면, 성시화는 문화의 소산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기학연은 삶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94년 복음과 춘천 집회를 치르면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성시본부 출범에 관한 이야기가 구체화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본부의 출범이 불가능할 줄로 생각했으나 교역자 연합회가 성시화운동을 제대로 못해 온 것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일어나 본부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성시화운동을 올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능을 담당할 분과가 필요하다. 성시 연구소가 필요하다. 장소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과 사람이 필요하다. 운동 중에서 40대 초반의 학자들이 비어 있다. 없어서가 아니라 묶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성서 신학교 성서 사관이 꽃 피울 수 있기 위해서도 연구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저널도 필요하다. 성서 연구소를 시작하자.

선교와 관련해서는 선교 지역을 나누어 교회들이 역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선교회, 서남아시아 선교회, 북방 선교회 등등으로 나누면서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선교 지원을 조직적으로 기획,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시화운동이 시작된 1972년에서부터 성시본부가 발족된 1996년까지가 25년이고 199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가 25년이다. 두 번째 25년은 성시화운동이 꽃 피고 열매맺는 시기이다.

가톨릭과의 만남도 의미가 있다. 신, 구교가 시국 문제나 대안 사회 문제들을 놓고 같이 협력할 수 있다.

이상의 토론 내용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번 좌담회에서는 성시

본부의 활동, 현재 재정 상황, 총체적 도시 선교의 비전, 성시화운동의 성격, 기독교 대학, 조직과 리더쉽, 성시본부의 기능 및 프로그램, 성시 연구소의 설립, 해외 선교, 신,구교의 만남 등 중요한 문제들이 다루어 졌다. 위의 가 항목들은 반드시 참석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성시화운동이 올바로 진행되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고의 소재들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성시화운동과 복음전도, 교회갱신 그리고 사회개혁

춘천성시화 운동본부

성시화운동이란 도시복음화운동의 또다른 이름으로, 그 도시의 모든 영혼,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되어 한 도시 전체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지도록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총체적 복음화운동입니다.

2000년전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가의 소외받은 땅. 힘없고 천대받던 식민지 빈민들이 살았던 곳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소외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곳마다 예수님은 자주 그곳 이름을 빌어 '갈릴리예수'로 불리었습니다. 500년전 스위스 호수의 도시 제네바. 전 유럽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를 때, 죤 칼빈은 제네바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고귀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 복음으로 말미암지않고는 의미없던 이곳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꿈과 소망이 새롭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춘천 성시화운동은 1972년 여름, 춘천지역의 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의 연합, 한국대학생선교회의 후원으로 전개된 한국 최초의 성시화운동이었습니다. '심령마다 그리스도화되기 위하여', '춘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되기 위하여'라는 꿈을 지니고 시작한 춘천 성시화운동은 이후 전국 각지에 영향을 주어 지역 복음화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다음의 개념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성시화운동은 복음전도운동입니다

영혼구원의 노력 없이는 어떠한 도시도 참된 의미에서 복음의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며, 영혼구원이 도시선교의 중심축이 됩니다. 한 도시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전, 사회적 제도나 운영이 기독교적이라 해서 온전히 성시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도시민(都市民)은 종교와 생각의 차이를 넘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구원은 오직 거짓 신과 우상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과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를 통한 영혼구원이야말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여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성시화운동은 근본적으로 복음전도운동입니다.

성시화운동은 교회공동체 회복운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성된 거룩한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적(Sign)이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나라의 선취(先取)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성화적 삶의 노력은 교회갱신의 사역으로 이어져야 하며, 교회갱신의 불꽃은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역교회는 한 주님, 한 성령, 한 아버지를 모신 한 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불충성과 무관심, 상호비방으로 인해 자주 갈라졌으며,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교회는 회개와 아울러 성시화란 한 목표, 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성시화를 목적으로 교파와 지역교회들이 온전히 연합하여 전개되는 성시화운동은 근본적으로 교회공동체 회복운동입니다.

사회개혁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명령과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회적 문화적 책임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회와 도시를 보면서 분노하며, 슬퍼합니다. 세계의 많은 사회가 범죄자 가인의 도성처럼 변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은 성경을 통해 다가올 새 예루살렘으로 규정하셨으며, 우리는 이를 표준으로 삼아 사회가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불합리와 문화의 왜곡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님의 주권아래 굴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정치, 거듭난, 경제, 거듭난 문화를 낳기 때문입니다. 성시화운동은 타락한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총체적 사회개혁운동입니다.

4부

꿈꾸는 사람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김준곤 목사

21세기에 과연 우리 나라가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인격성, 도덕성, 인간성, 사회질서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일등 국가가 될 수 있을까? 7,000만 통일된 복음 민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주로 삼으며,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십계명을 민족의 윤리 강령으로 삼으며,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이 될 수는 없을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사업가든 "당신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를 매일하며, 세계인들이 정직하고 신앙을 가진 한국인을 인정하고 믿어 주는 그런 민족이 되고, 거룩한 코리아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오순절처럼 뜨거운 성령의 나라가 될 수 없을까? 세계에서 '한국을 보자. 한국처럼 된다면 무엇이라도 배우자.'는 흠모의 나라가 될 수 없을까? 잠재적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을 들어 옮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전능자, 전지자이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꿈을 꾸면서 앞선 물음에 답을 던져 봅니다. 코리아는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가운데서 미꾸라지로 추락하고 있고, 별의 별 사고가 다 나는 사고 왕국, 붕괴 왕국이라는 위기의식 속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민족의 주인, 미래의 주인입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GCOWE '95 때 타임지 부사장 에이크만은 이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잘 못 믿더라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30퍼센트만 되면 민주주의도 되고, 현대화도 가능하고, 한국이 미래의 리더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레미야나 이사야 때에는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그 거리를 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믿음의 의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만도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할 줄 아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일등 국가가 되기 위해, 민족복음화를 위해 제일 먼저 건너야 할 홍해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면 역사와 전통이, 기도와 믿음과 성령이, 경험이, 능력이, 모임이 없습니까? 이 교회가 가지는 힘은 무한한 것입니다. 힘이란 뭉치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을 합쳐 기도하고 캠페인을 하면 입체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민족의 운명이 변하고, 세계가 바뀌고 인류의 운명이 변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Can Do Spirit'만으로도 세상을 혁명할 수 있다 하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힘은 엄청난 신앙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삼대 명령은 '전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

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겠는데, 이 부흥의 원형은 사도행전 부흥. 그것은 인격적 변화와 복음 전도와 기도와 성령과 사랑과 교회 부흥의 폭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하는 회개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두 모여서 사랑의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네로 황제 때 베스베띠만 친위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40명의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변장에 일이 있어서 꽁꽁 언 호수 곁에 진을 치고 있는데, 네로 황제에게서 전언이 오기를, 소문에 이 친위대에 예수쟁이가 있다고 하니 조사해서 다 잡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위 대장이 앞에 서서 정직과 성실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는 이 친위대에 예수쟁이가 있으면 나오라 했더니 39명이 모두 나왔습니다. 모두 발가벗고 호수로 걸어가며 얼어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발가벗고 네로 황제 찬가의 '황제' 대신에 '예수'를 넣어 부르며 걸어갔습니다. 친위 대장이 그 모습을 모며 "부하들은 생명을 초개같이 내버리고 가는데 나는 대체 무엇이냐."라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 한 명이 "난 예수쟁이 안해도 좋다며 죽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장이 실망을 하고는 "그럼, 내가 대신 죽지."하며 발가벗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위한 태풍의 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처럼 세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성령의 태풍을 일으키십시다. 그리고 민족복음화 운동일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오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69년에는 한국 기독교인이 250만 명 이었는데 엑스폴로(Explo) '74를 치르고서는 '82년에 1천만, 그후 10년이 지나서는 1,200만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성기가 지난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입니다. 어쩌면 구라파 교회들처럼 노령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배가 운동을 하고 더 힘을 내어서 기독교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토가 하나가 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시대에는 광복만 되면 다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한 선교지의 개신교 총회에서 우리 나라 선교사 추방이 결의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너무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는 종교식민전쟁이 벌어집니다. 전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교파 경쟁을 중단하고 미리 합의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친운동을 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를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지 않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학생층이 통일봉사단으로 북한에 가서 섬겨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선교를 계속해야겠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 수만큼 그 나라가 커집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와 인적 재정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00년을 앞두고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건너갑시다. 환상과 꿈을 보고 밀알 하나의 죽는 용기를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골리앗 앞의 다윗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띄운 배

전용태 장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이웃이, 자신의 도시가, 더 나아가 자기 민족이 복음화 되기를 열망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시화란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 도시가 성시화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시화는 한 도시가 상당히 복음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민족복음화의 기초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1996년 9월 19일 발족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이하 성시본부)의 생성 과정을 잠시 회상해 봅니다. 건너갈 강도 많았고 넘어갈 산도 많았습니다. 춘천 복음화가 맞느냐, 춘천 성시화가 맞느냐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성서적이냐, 아니냐, 또한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하느냐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아니 세계에서 최초로 춘천성시본부의 발족

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춘천 기독교 역사 100년 이래 오늘날까지 명실상부한 기독교연합회가 없었지만 성시 본부 창립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를 공식적으로 논하기 위한 결의 기관으로서의 춘천 기독교연합회가 1996년 9월 12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1970년대 초부터 일찍이 춘천성시화의 꿈과 운동이 시작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춘천의 각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에 언제나 그런 이상이 간직되어 왔고 하나님께서는 현재 성시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조남진 장로님(現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장님들을 예수 믿는 분들로서 채워 주셨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였습니다. 양인평 법원장님, 이범찬 강원지부장님, 문선재 前 강원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각급 도단위 기관장님과 언론.방송 사장님 등 영향력 있는 모든 분들이 신실하신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많은 기독기관장님들은 매주 금요일 또는 목요일 저녁에 관사에서 혹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춘천 성시화를 위한 뜨거운 기도를 드려 왔습니다.

셋째는 춘천 성시의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시본부 운영 기금을 물질로 돕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독교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시본부라는 한국 초유의 배가 물위에 떴습니다. 구속사의 세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이런 배를 띄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나라는 기독교 역사상 100년도 안되어 25퍼센트라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화되는 기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상에는 22억이라는 인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성도는 25퍼센트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도리어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슬픈 소식도 들립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25퍼센트의 벽을 허물고 민족 복음화가 진행되기 위하여 이 시대가 감당하여야 할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교회가 교파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각 교회와 교파 중심의 복음 활동과 더불어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할 분야가 있습니다. 군복음화, 세계선교, 성시화의 분야가 그것입니다. 25퍼센트의 벽을 허물기 위한 한국교회의 할 일은 좀더 적극적인 복음의 협력 시대를 열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가 파트타임(Part Time) 사역자라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성도가 어떤 종류의 사회적인 직업을 갖게 되면 자신은 그 직업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여야 하는 풀타임(Full Time)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명감에 불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두려운 25퍼센트의 벽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을 현대 평신도들의 다양한 복음 사역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평신도 중심의 성시 운동을 활성화 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모든 성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 의사들은 주중 어느 한날 한시간을 떼어 가지고 그 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의료 상담을 하고 싶어합니다. 기독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각각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기독실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시본부는 바로 이러한 성스러운 욕구를 채워 주고 채워받는 만

남의 광장입니다. 그 외에도 각 교회가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성시 활동을 연중무휴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족의 복음화와 함께 생활의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가정생활세미나, 직장생활세미나, 자녀양육세미나 등 한 도시를 성시화하기 위한 일들이 많습니다. 성시본부는 96년 9월 19일 창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9개월 동안 이러한 많은 일들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에 힘쓰는 사역들의 수고와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뜻이 춘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용태 장로님은 현재 청주지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시며,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재임시 춘천성시화운동의 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다시 꾸는 꿈

김주환 목사

지금으로부터 만 25년 전 4월. 저는 효자1동 동사무소 앞 어느 초라한 건물의 2층 18평을 빌려서 "순복음 춘천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어느 성도 가정을 심방가고 있었는데, 수많은 대학생들이 춘천성시화라는 피켓을 들고 시가지를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춘천성시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성시화가 무엇인가 궁금하여 그곳에서 만든 팜플렛을 구해 읽어보니 꿈같은 이야기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너무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 - 거지가 없는 도시, 술집이 없는 도시, 도적이 없는 도시, 스위스의 제네바와 같은 도시 등등……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꿈은 꿈으로 세월은 흘러, 간간이 연합 집회 때마다 "춘천을 성시화 해주십시오"라는 무력한 몇 마디의 메아리 없는 기도와

함께 20년의 세월이 꿈과 같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춘천시의 각 기관장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춘천성시화의 꿈을 또다시 새롭게 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꿈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어 보아야 역시 꿈으로 끝날 터인데, 바쁜 세상에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구령 운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목사로서는 매우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 "기적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라"라는 주제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여건을 들어 광야의 기적을 이루는 일에 반대자가 된 빌립과 방관자의 태도를 취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찾음으로 드림으로 주님의 기적에 참여한 자가 된 안드레와 한 소년의 이야기를 전하던 중 저 자신에게도 깊은 깨달음이 있어졌습니다.

"춘천성시화라는 기적도, 광야의 기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보자. 어디 광야의 기적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했다! 그렇다면 춘천성시화도 주님의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성의 판단에 의해 반대자가 된 빌립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찾음으로, 드림으로 참여자의 반열에 설 것인가?"

해답은 너무나 쉽게 내려졌습니다. 참여자가 되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참여자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안드레 방법입니다. 안드레는 찾음으로 참여자가 되었습

니다. 찾음이란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춘천에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사 교회 교회마다 갑절의 부흥을 주시고 시민 50%이상 예수님 믿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는 이름없는 무명 소년의 드림의 방법입니다. 무명의 소년은 자신이 먹을 양식인 오병이어를 드렸으며 주님은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광야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물질을 드려 후원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96년 성도들에게 천만원이 필요하니 연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만원이 넘게 연보가 채워졌습니다. 그 연보는 성시화운동본부에 발족에 맞추어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월 50만원의 후원금을 책정하여 매월 드리고 있으며 수요예배시 헌금 제도를 신설하여 수요헌금 전액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춘천성시화의 꿈을 이루는 참여자의 길을 걷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과 순종과 찾음과 드림을 선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꿈은 꾸기 위해 필요합니다. 꿈 같은 일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 꿈이 현실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주환 목사님은 순복음춘천교회 당회장으로 시무하고 계시며, 성시화운동에 남다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되어

이학규 장로

춘천평신도성경구락부는 70년대 당시 조남진(강원일보사), 문선재(강원고 교감), 박재현(캠페이지보좌관), 윤수길(춘천C.C.C간사), 김형목(화재보험지사장), 이원봉(시청계장), 이학규(도교육위원비서실장), 정길연(시교육청장하사), 박태준(시청계장) 등의 의해서 성경원리를 배우고 개인의 신앙 성장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신앙 간증도 하던 이 운동체의 맴버들에 의해 72년도 최초의 성시화운동이 시작되었으니 평신도성경구락부는 춘천성시화운동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성시화운동이 주춤했을 때에도 평신도성경구락부는 매주 목요일마다 10여 명에서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시민복음화와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 운동을 계속함으로 꺼지지 않는 성시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식당이나 회원의 가정에서 모였던 이 모임은 회가 거듭됨에 따라 고정된 장소의 필요성이 도출되어 보험회사 사무실, YMCA회관, C.C.C회관, 석사교회교육관, 순복음춘천교회교육관, 베드로병원 등 장소를 옮겨가며 꾸준히 모였습니다.

회원들의 구성도 초창기에는 창립 멤버들이 모였으나 타지방 이동, 하늘나라에 소천 직장의 변화와 개인적인 사정들이 생김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회원들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으며 운영의 성격도 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과 말씀을 배우는 쪽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성시화운동 사무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성시화의 열기가 식어 갈 때에도 평신도성경구락부는 성시화의 불을 붙이고자 1974년도에 조용기 목사를 특별 강사로 초청하여 춘천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를 춘천실내 체육관에서 초교파연합회로 개최하였으며, 예수원 토레이 신부, 조병호 목사, 중앙대 최재선 박사 등 성령 운동을 뜨겁게 일으키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은혜를 받고 성시화의 길을 찾기에 힘썼습니다.

1978년 '김세창 목사 초청 초교파 연합선교대회(당시 대신신학교 학장)'와 1988년 '전가화 목사초청 88시민복음화선교대회'도 평신도성경구락부가 배후에서 기도하고 주선한 춘천성시화를 이루고자 하는 평신도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정기 모임에서는 처음에는 시내의 관심 있는 목회자가 교대로 말씀을 전해 주었으나 75년 9월부터는 이학규 장로가 "성령의 열매" 교재를 가지고 은혜를 끼쳤고, 85년부터 약 6년 동안은 변충구 목사를 통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모인 시기였습니다. 한때는 문선재 박사가 인도하였으며 94년부터 95년까지는 김동성 목사가 뜨겁게 인도하다가 미국 유학 길에 올랐습니다.

성경구락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었으며 주께서는 성경구락부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불치의 위궤양병 진단을 받은 여교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매 앓았던 흔적도 없이 새로운 위장으로 치유해 주셨으며 귀의 고막이 터져서 못 듣던 학생이 고막 재생의 완치의 기적을 체험했고, 척추 디스크로 움직이지 못하던 환자가 완치되는 기적을, 각색 신경 질환과 귀신들린 자들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회원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의 봉사 생활을, 섬기는 교회에는 충성스럽게 봉사할 것을 목표로 기도와 전도의 운동이었습니다.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지난 25년간 꾸준히 모여서 기도해 온 춘천평신도성경구락부는 현재 '성시화를 위한 기관장기도모임'과 '춘천성시화를 위한 비전126기도모임'과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학규 장로님은 석사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현재 홍천 오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중이십니다.

역사 속의 성시화운동

—1992년 성시화집회를 돌아보며—

조충환 목사

춘천 성시화운동은 스위스 제네바의 거룩한 도시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보편화된 지역을 만들자는 것으로 예루살렘과 같은 성경적인 성시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정부 기관과 기업체 운영의 근저에 기독교 정신이 일반화되어 예배와 기도, 찬송으로부터 일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고,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는 운동입니다. 춘천 성시화의 태동은 1972년 10월 춘천 체육관에서 5,000여 명이 모인 전국 대학생 복음화 대회에 강사로 오신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총재인 김준곤 목사님이 아름답고 작은 호반 도시 춘천을 보고 '스위스 제네바'를 떠올리며 춘천이 한국에서 성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임연호 목사님이 대학생선교회와 손을 잡고 성시화운동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물론 많은 신앙인들이 참여하여 공중변소 청소등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약 2-3년 동안 미약하게 실시되었으나 교회들의 불참으로 의욕을 잃고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성시화 운동의 태동 당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40대 초반에 접어든 20년 후, 한 사람의 가슴속에서 불붙고 있던 성시화의 뜨거운 불꽃이 분화구를 이루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전용태(田容泰)란 이름을 가진 그 당시 서울대학생이었던 이로 대학생 복음화 대회시에 들은 '춘천성시화'란 단어의 의미를 20년 간이나 마음속에 꼭 간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1991년 8월 4일 춘천지방검찰청 차장 검사로 부임하여 춘천에서 생활하게 된 그의 가슴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성시화! 춘천을 성시화하라!" 춘천으로 발령 받은 것을 약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춘천으로 보내신 뜻을 그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각기관 단체 대표자 20여 명을 자신의 숙소에 모아 매 월 두 차례에 걸쳐 성경공부모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해 5월 춘천 성시화운동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냈으며 운동 주관은 춘천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에 맡기기로 하고, 6월 19일 성경 공부 모임 대표로 전용태 권사, 최일수 목사, 언론사 대표 조남진 장로, 춘천시 의회의장 왕정걸 장로, 직장 선교 연합회장인 필자와 함께 모임을 갖고 뜻을 모았습니다. 7월1일, 각 직장 선교회장, 기관장들이 모여 가진 조찬 기도회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조찬 모임, 선교 대회를 가졌는데 그 열기는 무척 뜨거웠습니다. 한 달 후인 8월 2일 춘천성시화 준비를 위한 연합 예배를 통하여 성시화의 뜻이 모든 교회와 성도,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성도들의 참여 열기는 뜨거운 여름 날을 더욱 뜨겁게 하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름만 남아 있던 성시

화 운동이 재점화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기적이었으며,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다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992년 8월 2일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낮에는 시가 행진이 있었고 밤에는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우리는 '예수평화대행진'이란 표어를 쓴 현수막을 앞세우고 시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목사, 평신도, 각기관 단체를 포함하여 약 7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한참 뜨거운 시간대인 오후 3시였기에 사람들은 좀처럼 그늘이 없는 광장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수차의 안내 방송 끝에 우리는 한 곳으로 모여 출발식을 가졌습니다. 너무 더워서 행진의 성패가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구름 기둥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된 잠시 후 뜨겁게 내리 쪼이던 태양이 구름 속으로 숨어 버리고 행진을 하는 동안 내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7시부터 시내 제일감리교회에서 연합예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 설교자는 前 과학기술처장관 정근모 장로였으며, 박인수 서울대 교수의 특별찬송, 연합 성가대 찬양, 문선재 강원대학교 총장의 성시화 필요성 강조, 조남진 장로의 성시화추진 경위 보고, 목사님들의 특별 기도가 있었고, 20년 전의 전국대학생 회장 등 1,500여 명의 교계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성시화 동참을 다짐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방침으로 그 교회 시설에 맞는 대형 에어컨을 구입하지 않아 삼복 더위가 큰 문제였기에 여러 교회의 선풍기를 동원 가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30분부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초청 인사 일행이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면서 예배당 지역에만 비가 내리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소낙비는 찜통일 수밖에 없는 교회당 내부의 더위를

식혀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필자는 한낮의 구름기둥과 저녁의 소낙비가 오늘날의 불과 구름 기둥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시화의 길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모든 교회의 협동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길은 개척의 길이요,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는 험난한 길입니다. 군중이 모여 캠페인을 벌이는 가시적인 운동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야 하는 길입니다. 먼저 교회들이 담장을 낮추고 내 교회 위주의 근시안적인 사고를 보다 넓혀 사역을 펼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시화와 복음화는 다른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성시화와 복음화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방법이나 형태의 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음화가 되면 성시화가 되는 것이며 성시화가 되는 것은 복음화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인을 만드는 일이며, 성시화는 복음화가 된 신자들이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마칠 때 예배, 기도 찬송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법 규정을 개정 적용하며,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를 정직하고 깨끗하며 질서 있고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신자와 비신자가 동참하여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보편화된 삶의 터전을 이룩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시화와 복음화는 떼어놓을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장 성시화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편만하게 하는 일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 교회가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불과 몇 세대의 교인으로밖에 성장하지 않고 있거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교회는 무능하거나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인 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지역의 성시화에 시선을 돌려 전 지역을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성시화의 수준은 주민의 약 70% 정도가 신앙을 가지고 지역의 공식 모임 행사가 기독교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하여 모든 생활의 모범을 보여 정직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사회,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면 머지않아 지역 성시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평안을 구하고 즐기는 것으로만 일관한다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교회로 전락하고 박해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마을 시, 군 지역이 복음화를 통하여 성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모든 교회와 직장의 기독인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성시화 운동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울 때 그것은 세인들에게 비난 거리와 조롱 거리가 될 뿐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교인이 그 입으로 세인들에게 전도한다고 할 때 누가 그 말을 믿으며 수용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먼저 세인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통합은 못한다고 하여도 모든 일에 합동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이 일치되고 그 지역 사회를 위하는 일에 모범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협조하게 될 것입니다. 성시화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분열된 교회는 개별 성장의 주력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까지의 부흥은 가능할 것이나,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큰 힘을 배제하는 오류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힘을 모아 이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통합 또는 일치를 통하여 지역을 성시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12:12,13)

조충환 목사님은 前 직장선교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으며 현재 정립장로교회를 시무하고 계십니다. 이 글은 「하나님의 손거울」(서울: 에벤에셀. 1994) 중에서 옮겼습니다

거룩한 도시로의 비전

최상도 전도사

1. 나의 어린 시절과 춘천의 소양로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춘천 토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자라나신 곳도 경상도이고, 제가 태어난 곳도 의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중 어느 누구도 춘천과 관계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누님은 인제 해안에서 나셨고, 작은 누님은 충북에서, 형님은 경기도에서 나셨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인연도 없었을 제가 왜 이처럼 춘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을까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춘천에 오게 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년전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그때 초등 학생이었고, 아버지께서 군인으로서의 생(生)을 오래 사셨기에 그 여파로 초등 학교만 3번을 옮겼는데, 세 번째 전학으로 옮겨온 곳이 바로 춘천이었습니다. 처음 춘천에서 살게 되었을 때 이곳에 대한 저의 이미지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

다. 일단 낯설었던 탓이 제일 컸고, 그 다음 이유는 우리 동네가 그리 깨끗한 동네가 아니었던 탓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인 소양로는 미군 부대가 가까웠고, 그 중에서도 소위 춘천의 588이라고 할 수 있는 "장미촌"이 근처였습니다. 아직 우리 동네가 춘천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미처 못 깨닫던 어느 날, 새 학년이 되자 마자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 환경 조사를 공개적으로 하실 때, '장미촌' 근처에 산다고 멋모르고 손을 들었다가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마음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춘천의 소양로는 미군 부대가 가깝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너무나 흔하게 미군들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 집앞에 커다란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그 그늘에 모여 미군들이 전축을 크게 틀어 놓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양색시"라는 여인들(우리들의 누님 뻘 쯤 된)이 함께 술을 먹고 놀거나, 흥과 더불어 알지 못할 설움이 지나쳤는지 동족 여인들끼리 머리를 쥐어뜯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모습들을 사흘이 멀다 하고 보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양색시들의 주된 고향은 피폐한 농촌이었고, 그래서 가난이 싫어 도망쳐 온 여인들, 부모님 때문에, 돈 때문에 몸팔러 온 여인들이 그들이었으니 어찌 한이 없었겠습니까! 또한 한반도 분단과 함께 진주한 미군의 출현이 우리 민족에게 항상 좋은 의미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학 온 관계로 동네 친구들과는 그리 깊이 사귀지는 못했지만 많은 동네 친구들, 형들이 형무소에 다녀오거나, 1980년초, 전두환 정권 아래 이름 높았던 삼청교육대에 잡혀갔다 오는 일들이 소양로에서는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유명한 깡패는 죄다 소양로 출신이다' 라는 자부심 아닌 자부심이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있었던 그 무렵, 아마도 춘천에서 동네별로 범죄율을 꼽는다면 시 당국

의 통계자료를 근거하지 않더라도 소양로가 한 몫을 단단히 했으리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2. 성서와 춘천의 소양로

나는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면서 춘천의 소양로가 2000년전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와 같지 않을까 여러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갈릴리는 침략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던 곳이었고, 혼혈아도 있었고, 그곳 사람들의 성격은 거칠었으며, 건달들, 깡패들이 많이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저히 나라의 인재가 배출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는 갈릴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마4:15)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칼하게도 우리들의 메시아가 자주 '갈릴리 예수'라 불리었는데 또 하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메시아의 제자중 왕초 격인 베드로와 그 외 많은 다른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였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자고 할 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추억과 손때가 묻은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어쩌면 중동의 조그마한 식민지 이스라엘 자체가 메시아의 출생을 담기에는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한 갈릴리랴!

3. 강원도와 춘천의 이면적 현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갈릴리가 소외 받고 소망이 없던 것처럼, 춘천에 대하여 소양로가 제2의 갈리리인 것처럼,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볼 때, 이제까지 춘천이 도청 소재지로 되어 있는 강원도는

발전으로부터 소외된 곳입니다. 또 하나의 갈릴리입니다. 소외 받은 땅, 황무지의 땅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한국 전체로는 강원도라는 이미지, 도청 소재지라는 춘천의 이미지는 너무나 왜소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수자원 보호와 산림 보호란 이름 아래 영서 지방은 높은 사람들의 입김에 눌려 제대로된 공장 하나 들어서지 못하고 침체 가운데 그 동안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고, 탄이나 캐고 낡은 고기잡이배에 의존하며 살던 영동 사람들은 경영 합리화로 인한 폐광 사태와 대량의 외국산 어류 앞에 넋잃고 앉아 있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마치 그저 하나밖에 없는 장난감마저도 빼앗겨 버린 어린아이처럼 해지는 저녁 노을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춘천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느 기자가 쓴 칼럼을 보니 '춘천은 핑계 거리가 없어서 못 내려올 뿐이지 언제나 머물고 싶은 곳'이라고 극찬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춘천은 그리 환상적인 도시만은 아닙니다. 춘천은 예술과 아름다운 호수, 낭만만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춘천에 좋은 것만 있기에 춘천을 예수 도시화하자는 것은 슬로건의 함정입니다. 지금도 소양로 뒷골목을 가 보십시오. 퇴계동 철거 지역을, 공지천 밑바닥을 뒤져보십시오. 대충 치장된 곳이 아닌 그 치부를 보십시오. 설사 춘천이란 동네가 다 소양로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양로를, 이스라엘의 갈릴리를 부둥켜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미군 부대를, 양키 시장을, 오래 전부터 민초들의 애환을 담았던 중앙 시장의 날품팔이 우리들의 어머니들을, 풍물 시장, 번개시장, 근화동의 연탄 공장을 품에 안고 한동안은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도시가 또 하나의 춘천입니다. 춘천의 발전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살아 있

다고 말할 만한 청년회는 얼마나 됩니까? 춘천의 실질적 복음화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10%가 조금 넘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춘천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춘천은 더욱 아름다워 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도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잊은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춘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이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복음과 연관되어서만이 그러합니다. 춘천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춘천은 현대사적 의미에 있어서 전국 최초의 성시화운동의 꿈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굳이 이름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곳 출신의 믿음의 영웅들이 춘천에는 많습니다. 내게 있어서도 춘천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비록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곳은 아니나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더욱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1979년 가을에 조그만 교회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춘천의 갈릴리인 소양로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비로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춘천에 빚을 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5. 춘천성시화

춘천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있어서 주입식 교육과 보충 수업, 야간 자율 학습의 숨막히는 학업 현장에서 유일하게 숨통을 터주는 통로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 고등학생들의 대표적인 초교파연합모임이라면 대학생 선교회(C.C.C)의 고등학생 모임인 하이 씨씨씨(H-

C.C.C)를 들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모여지는 성경공부(일명 순모임)인원을 제외하고 매 주 모이는 예배 인원이 100-150여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이야 IVF, JDM, 한사랑선교회 등의 고등학생 모임들이 있지만 그 당시로는 타 모임의 고등학생 모임이 결성되기 훨씬 전이었고, 있어 봐야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 모임은 거의 독보적인 모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작은 누님이 일찍부터 대학생선교회의 회원이었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H-C.C.C회원이 되었는데, 2학년 때에는 학생 대표 격인 '총순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순장으로서의 나의 역할은 한 마디로 고교선교 사역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사역을 마이너스로 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준 낮은 리더쉽, 나 자신조차도 정돈 안된 신앙 가치관의 혼돈, 부족한 인격, 여러 가지 것들이 뒤엉켜 H-C.C.C의 선교 사역은 점차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개를 못들 정도의 죄스러움과 마음의 부담감을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유유히 흘러 내려와 나의 정신과 영의 세계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친 고귀한 유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춘천성시화"였습니다. 누구로부터 왜 내게까지 이어졌는지는 그 당시로서 알 수 없었지만 우리 또래의 리더급 형제자매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도 "춘천성시화"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의 춘천 시내 중추적인 교회의 몇몇 회장들이 모여 성시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춘천성시화의 연도를 정하고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몰핀 주사보다도 더 황홀해지는

체험을 순간 순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기록을 뒤져보면 중앙감리교회, 동원감리교회, 중앙성결교회, 소양성결교회, 제일감리교회, 한빛교회, 동부장로교회, 우두교회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후배들이 각기 개별적, 자생적으로 춘천성시화를 위해 연합 모임을 조직하고, 찬양팀을 조직하는 것을 보면 춘천성시화의 꿈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닌, 하늘의 뜻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나는 얼마전 전국 공동체연합모임에 갔다가 현재 강원대 총장으로 계시는 문선재 총장님의 안부를 묻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복음적 입장, 견지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분으로 말하자면 강원대 평교수 시절부터 춘천복음화, 성시화운동에 깊이 관여해 오셨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춘천 시장으로 계시다가 현재는 강원도 부지사로 계시는 모 부지사님도 내가 알기로는 춘천 성시화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예 도시 전체를 고대 이스라엘 유적지처럼 만들고 싶은 꿈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시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이쯤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나는 또 김진홍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시는 두레연구원에서 공부하면서 김목사님을 비롯한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강원도와 춘천, 우리 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호의를 베풀어주시는 것에 여러 번 고무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흔하디 흔해 평범한 말처럼

들릴 '한 도시 전체를 그리스도께'라는 슬로우건을 그들은 매우 흥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니 말입니다.

성시화의 꿈을 간직했던 도시가 춘천만이 유일무이한 것은 분명코 아니겠지만 춘천만이 거의 유일하게 성시화의 불씨가 계속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불씨는 꺼질 듯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교회의 일개 부흥회도 의례히 '춘천성시화를 위한 0000'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예사입니다.

6. 성시 춘천의 꿈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문제 많은 이스라엘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갈릴리 예수라 불리게 하셨을까?'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에게 있어서는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어진 보물이신 예수그리스도 자체가 더욱 소중함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 주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메시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강한 로마에서 자라나신 것이 아니라 별볼일 없는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별볼일없는 제2의 갈릴리 춘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그리스도께 일생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터에서 사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 가실까 생각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처럼 자신들의 뼈를 묻어 모델 도시, 시범 도시, 종합 도시, 예수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잘 안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려진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은 주님이 이

미 우리 모두에게 알려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굳이 타고르의 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누에고치에서 찬연히 빛나며 변화되어 하늘을 날아가는 한 마리의 나비처럼, 마법에 걸린 개구리가 다시 찬연한 왕자로 변화되듯, 누구의 시적인 표현처럼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어나듯, 예수님이 아니라면 별볼일 없는 나사렛이 예수님의 추억을 가장 많이 담은 영광스러운 동리가 되었듯 춘천에서 이러한 꿈을 실현하려 애를 쓰는 것, 이러한 꿈만이라도 잃지 않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상도 전도사님은 사암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글은 「춘천크리스챤저널」 '춘천 기학연' 1994년 봄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5부

모든 도시가 함께

성시화운동을 시작하려는 도시들에게

차성도 교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동안 우리 도시에 보여주셨던 성시화의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성시화의 비전을 다른 도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며, 아울러 주께서 우리 도시에 허락하셨던 넘치는 은혜와 꿈을 여러분의 도시에 더욱 넘치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성시화운동이 춘천에서 시작된지 25년 정도가 흘렀지만 그 비전과 전략을 다른 도시에 내놓기에는 아직까지 모든 것이 미흡하고 초보적이며 실험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동안의 진행 과정을 통해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몇 가지 지혜와 바람직한 원칙들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도시를 총체적으로 선교하려는 꿈을 다른 도시와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이 책에 실린 구체적인 자료들을 참조하기 바라며, 다음은 성시화운동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깨워 주신 몇 가지 원리들입니다.

도시의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십시오.

성시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해야 하는 주님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천지와 천지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며(창1:28),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도시와 그 문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인간의 자의적인 부패성과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극도로 오염이 되었고 창조 질서가 철저히 왜곡되어 왔음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마귀가 득세하고,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처럼 변모해 간다 하더라도, 모든 도시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하였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지 도시 전체를 돌보는 일은 우선적 사명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총체적 회복사역이었으며, 우리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사회 구조와 문화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에만 매달리는 순수 복음주의나 사회 구원을 주로 주장하는 사회 복음주의라는 인간적 발상으로 나온 무슨무슨주의를 떨쳐버리고 총체적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새포도주(생명,

복음)는 새부대(구조, 사회)에 넣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성시화를 주님이 다시 오셔야 가능한 일이지 그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회의론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왔으며 또한 완전히 임하고야 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셋째는 성시화 운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칼뱅의 제네바시 개혁에 대한 부정적 입장, 그리고 성시화의 개념을 십자군적 발상으로 오해하여 그리스도인에 의한 도시의 강점(强占)이라는 인상을 풍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며, 성시화는 도시의 총체적 거듭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누리는 도시로의 회복운동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들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적인 비판이므로 철저히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소산들을 통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록 쉽지 않은 작업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도시 전체를 총체적으로 거룩하게 하자는 성시화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이 운동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확신하여야 하며, 이 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불붙어야 합니다(렘20:9).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시에는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성시화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성시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가장 연약한 일처럼 보이면서도 가장 능력 있는 일입니다. 저희 도시에서는 성시화운동을 담당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되기 이전부터 수많은 기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1972년 성시화운동이 일어나고,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라는 공식적 단체가 출범하기까지는 사실상 25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적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 기간은 기도가 쌓여 가면서 주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교회와 기독단체들은 모일 때마다 눈물어린 기도와 무릎꿇음의 중보기도를 드렸음을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도시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 지기를 바라는 총체적 구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울부짖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춘천 지역의 기독기관장들의 중보기도모임인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독기관장 기도모임'으로 매주 모여 무릎꿇고 전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수년 간 계속하여 왔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연합행사 때마다 '춘천성시화'의 기도 제목이 빠진 적이 없었고, 어린이로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춘천성시화'는 춘천기독인들의 자연스런 구호와 소망이 되어 왔었습니다. 더욱이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출범하기 수 개월 전 기도 운동만을 담당할 '비전126 춘천성시화 기도모임'이 먼저 탄생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춘천성시화 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 기도 모임이 탄생한 이후 지지부진하던 성시화운동이 급진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시화운동이 철저하게 기도 운동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이 지역을 묶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이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도시가 원래 소유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단히 놀라운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혁명은 기도로부터 태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십시오.

모든 운동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원대한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회의와 현실을 바라보기에 앞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춘천성시화운동의 큰 그림과 전략은 25년 전 김준곤 목사(한국C.C.C총재)가 꿈꾸었던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우트(1972년)'를 토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목사님의 비전과 계획은 워낙 원대했기에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의미 있는 비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25년 전에 그 비전이 선포될 때의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춘천은 황무지였고, 이름뿐인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그 비전은 의미 있었고, 조금씩 성취 되어감에 우리 모두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우트'를 보면 '5색(色)의 도시화'에 관한 비전이 있으며, 성시 춘천의 미래상을 투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풍치 관광보다는 성시 관광으로 유명해질 것이다. 도시 환경은 완전히 상록수와 화초로 단장되어 푸른 도시, 꽃의 도시가 될 것이다. 성역화된 춘천에는 술집, 거지, 도둑, 부정 부패, 폭행 등 일체의 사회악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신학교, 의과대학등 세계 수준의 특수학교가 즐비해질 것이다" 등입니다.

춘천이 최근 몇 년 전부터 국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마임 도시, 인형극 도시, 만화 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최근 춘천이

서귀포를 제외하고 내륙 도시로는 한반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조선일보, 동아일보. 1997)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에 젖습니다. 성시화운동이 일어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성시화에 대한 원대한 비전과 함께 방향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성시화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갈 사역의 플랜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부 구성 초기부터 산하에 기획실을 두고 구체적인 사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서 세울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은 다를 것이므로 당연히 각 처지와 형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기도로서 준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각 도시에게 귀중한 이상(理想)을 주실 것입니다.

운동의 깃발이 되려는 사람들이 먼저 거룩하여 지십시오.

바람직한 성시화운동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먼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도시도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운동의 진정한 힘은 성시화라는 구호와 가시적 행사에 있다기보다는 운동의 참여자들이 먼저 거룩해지려는 지속적인 깊은 영성에의 추구에 달려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와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드러날 때만, 운동의 진실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춘천은 각 기관의 책임을 맡은 분들 중에 기독인들이 많고 이 분들이 대부분 성시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영적으로 열심이실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분들이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신망이 높은 분들이기에 짧은 시간에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시화운동은 일시적인 사회운동이 아니라 지속되는 영적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은 우리의 사고, 방법, 경험, 그

리고 전통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자라고야 맙니다. 따라서 성시화운동은 각 영혼에게 심기운 영적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인 개인의 성화와 인격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은 도시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시화의 꿈을 부여잡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을 맡길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성시화운동이 진행되면서 자주 여러 가지 저항을 접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성시화라는 개념이 생소하다, 또는 기존의 사역들과 상충된다, 또는 나와 이해관계 없는 일이거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인해 성시화운동은 어려움을 받곤 합니다. 사실 어떤 사역이든지 새로이 시작되는 사역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동의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입니다.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어떠한 비바람이 치고 요동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이 확신을 밀고 나아갈 일련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려운 환경이나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인해 변경시킨다던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민주주의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까지도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곤 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만족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상합할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원한다는 이유로 종종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사역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성시화운동을 해나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운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인가를 철저히 반복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는 핵심그룹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소명으로 무장된 주님의 동역자들이 계속적으로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의 연합, 기독단체와의 연합 운동이 되게 하십시오.

한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성시화운동은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운동의 핵(核)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지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년 가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출범한 이래 기도의 지원과 함께 재정적인 후원을 하겠다고 나선 지원자와 단체가 많습니다. 물론 이들은 각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교회 그리고 기독 단체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시화운동과 지역교회, 기독단체와의 연합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춘천은 지역 교회들의 협조가 원활한 것으로 유명한데,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발족된 이래로 지역 교회와 기독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춘천기독교연합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성시 본부는 기독선교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이 하려는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교회와 연결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즉 이들 기독단체들이 성시화의 꿈을 품고 각자에게 허락된 달란트와 특성에 맞게 성시화사역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릴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시화운동은 총체적인 도시 선교이기 때문에 교회나 기독 단체

들이 해오던 기존의 사역들과 겹쳐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성시본부는 가급적 기존의 사역들을 피하여 본부만이 잘 해낼 수 있는 사역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시본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또 하나의 기독 단체로 남기보다는 교회와 기독 단체들의 사역을 돕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를 들어 청소년, 직장신우회, 예술, 문화, 구제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의 사역이 미치지 못하는 사역에 관심을 갖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시본부는 교회와 기독 단체를 우선적으로 섬김으로써 성시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달란트 대로 섬길수 있는 특성 그룹들을 많이 육성하십시오.

성시화운동이 총체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특성 그룹들이 많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한 도시의 모든 구조와 문화가 총체적으로 변화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적어도 50개 이상의 특성 그룹이 나와야 합니다. 이 단위 그룹들의 활성화를 전제하지 않고 성시화를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시화운동의 핵심 사역의 하나가 바로 이 개별적 특성 그룹들의 탄생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각 그룹들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각 영역에서의 적용을 알려 드리고, 모임으로 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모임이 지속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이 때, 이 그룹들이 성시본부의 조직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생명력은 조직이 아니라 서로 도움으로써 생존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각 도시에는 그 지역 상황에 맞는 특성 그룹이 많이 생겨야 합

니다. 예컨대 성서적 토지관을 연구하는 그룹이라든지, 성서적 건강학을 연구하는 그룹, 호수와 수자원이 많은 춘천은 환경문제나 물문제를 연구하는 그룹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에는 대부분의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활성화된 기독교수회, 연합이 잘된 기독신우회, 생활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미술을 추구하는 춘천성시화 기독미술인회, 성시화를 연구하는 기독교학문연구회, 성경적 교회를 연구하는 성경적 교회 회복을 위한 모임 등 의욕적으로 일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성시화운동은 총체적 도시 선교이자 영적 전면전입니다. 전쟁터와 적군이 따로 없으며 모든 곳이 전투가 치열한 최전방입니다. 사탄의 지시를 받아 구축된 모든 구조와 문화가 우리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면전에는 각종 병과의 군인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적진 깊숙히 침투할 특공대, 무차별 포격을 가할 수 있는 포병도, 부상당한 군인을 치유할 의무병,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음식을 공급하는 취사병을 비롯해 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연락할 무전병 등 모든 병과의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기만 기다리는 모든 평신도들이 깨어나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원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사탄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땅에 묻었던 주님이 허락하신 무기를 들고 모든 주님의 군사들이 나서야만 합니다.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십자가로 승리를 선언하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비기독인들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성시화를 통해 한 도시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진다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시화운동은 기독교인들끼리의 운동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운동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사회 개혁과 봉사의 차원에서 빛과 소금된 모습을 보여 줄 때, 더욱 위력적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컨대 저희 도시의 경우 지난 해 10월 첫주간을 성시화주간(9.30-10.6)으로 선포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서 성시토론회, 성시연합집회, 성시기도회, 성시특강 등 기독인들에게 성시화의 비전과 소명을 심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봉사 프로그램이 더욱 다채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각 기독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한 주간 내내 무료 급식이 이루어졌으며, 헌혈 운동, 저소득 주민과 영세 장애인을 위한 무료 한방 진료와 물리 치료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세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종합진단이 있었으며, 기독미용협회가 주관한 무료 이발 및 미용 프로그램, 선명회에서 주관하여 생활 보호 대상자를 위한 무료 이불세탁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섬기는 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목적 때문에 사울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된 것은 순전히 이방인 덕택이라는 의미로 자신은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때, 자신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산과 땅까지도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빛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비추셨습니다. 따라서 성시화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잃어버린 이웃을 섬김으로써 이루어짐은 자명합니다.

각 세대별 세대전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시화의 꿈은 세대를 통해 이루어져 내려가야 합니다. 각 세대별로 세대전수가 이루어지도록 차세대를 키우십시오. 종교개혁이 불붙었던 유럽 교회와 우리 나라를 선교한 미국 교회는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들만 모여 교회사적으로 황혼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은 성시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1972년 성시화운동을 주도하였던 1세대 그룹(당시 30-40대)과 당시 중· 고등학생이었던 세대들이 선진들의 기도와 전수 속에 지금 40-50대의 견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 2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시본부는 이 1, 2세대의 경이로운 조화에 의해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1972년 당시 직접 성시화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꿈을 지속적으로 지켜온 1세대의 완숙된 경륜과 이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현재의 지위, 그리고 학생시절 성시화의 시작을 보면서 그 꿈을 키워온 2세대들의 꺾이지 않는 비전과 이룰 수 있다는 확신 및 활기찬 생동력이 성시본부를 탄생케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는 3세대를 키우는 일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춘천성시화본부의 경우, 지도위원과 본부장은 1세대, 사무국장과 기획실장은 2세대, 그리고 사역간사들은 젊은 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고 하였는데, 우리들 역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충성된 3세대, 4세대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주요 계획으로는 '성시화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기획 단계에 있는 이 프로젝트는 한 학기 혹은 1년으로 구성되어 성시화운동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주말 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출신의 기독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선발하여 성시화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여 일꾼을 키우는 형식의 '성시연구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시화운동이 지속되려면 지속시킬 차세대 일꾼을 지속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단기전(短期戰)이 아니라 계속전(繼續戰)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시화운동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되어야할 운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도시를 지배하려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므로, 성시화운동은 사탄과의 단기전(短期戰)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만이 완전히 끝이 날 계속전(繼續戰)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성시화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묻기도 하고, "복음화이지 왠 성시화냐?"라며 성시화라는 용어를 문제삼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목표와 완성으로서의 성시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정으로서의 성시화운동만을 주장할 뿐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도시를 주님의 도시라고 부르짖어 선포해야 하고, 무너진 도성을 재건해야 하며, 거룩하게 하는 전장에서 싸워 나가야 하는 의미가 있음을 밝혀 둘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 교회와 기독단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고백되어야 하며, 이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구조와 문화도 모두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단기간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며,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으려는 사고는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급할수록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는 사역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사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붙는 중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복음은 총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1:20)라는 말씀에서 십자가의 사역은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뿐 아니라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2:12-14)의 말씀처럼 인간적 불의로 세운 도성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회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성시화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원리들은 지금도 춘천에서 실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춘천은 다른 도시들의 격려와 함께 동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모든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차성도 교수님은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며, 한국창조과학회 강원지부장과 춘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공동실행대표를 맡고 있으며 성시본부 기획실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시화와 학원선교

이갑용 간사

1970년대초 안개로 둘러싸여 조용하기만 하던 호반의 도시 춘천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복음화라는 개념과 성시화란 단어조차 생소하게 들리던 그때 대학생들과 평신도성경연구구락부가 주축이 되고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윤수길 간사(現 태국 선교사)와 김준곤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 총재)가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한 도시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려 보자는 지역 복음화 운동(1972년 7월 31일-8월 4일)을 열게 된 것입니다. 약 1만명 이상이 모여 춘천 체육관에서 LTC(기초 신앙 강습회)를 통해 전도 훈련을 받고 춘천시 전역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시작한 복음전도운동이 춘천 성시화 운동의 기폭점이 되어 춘천을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제네바로 만들자는 성시화의 꿈이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들어온 장발, 히피, 미니스커트 등의 사회 문화 분위기에서 이 민족이 살 길은 복음밖에 없음을 각성하면서 시작된 성시화 운동은 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민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고 땀을 흘리며 새마을 운동에 한창이던 그 때 김준곤 목사께서 기독교 인구가 불과 7% 미만이었던 척박한 토양 위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외치던 민족복음화 운동에 젊은 대학생들이 핵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이렇게 학원 복음화 운동에서 출발했습니다.

캠퍼스는 전략적으로 미래 지도자들의 못자리판이며 인간과 사회의 온갖 진리와 자유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절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원에서 성서적인 세계관을 기준으로 신앙과 인격을 훈련시키는 것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에는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학원 복음화 운동의 성패는 춘천 성시화와 민족 복음화, 나아가 세계 선교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전 유럽을 싣고 갔다는 토인비의 비유를 절감하면서 현재의 로마라고 할 수 있는 이 학원을 어떻게 복음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공동의 과제이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60-70년대, 사회와 국가에 대한 문제 앞에 고민하며 최루탄과 분신으로 자기를 대변하던 세대는 의식을 지니고 젊은이다운 돌파구 속에서 만난 예수의 진리 앞에 전폭으로 헌신할 줄 아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캠퍼스의 분위기는 달라져 경제성장으로 인한 풍요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공주병, 왕자병 환자들이 캠퍼스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못견뎌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오늘의 캠퍼스 운동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된 것입니다.

X세대, 오렌지족, 신세대.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그들에게는 일회적인 복음 제시만으로는 개인의 변화를 기대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선교 단체 멤버들은 공동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일회적인 전도를 넘어선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정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제자화해야 그들은 변화합니다.

학기초 이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신입생들을 데리고 그들을 제자화하고 그들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면 학원복음화와 성시화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비기독교 학생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소그룹을 통한 공동생활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함으로 사회에 나와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입체적으로 성시화에 기여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야겠습니다.

헤게모니가 이데올로기에서 쾌락적인 문화로 변화하면서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세대, 비디오와 TV, 영화, PC통신에 길들여져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따르는 그들의 기호에 맞도록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연구 과제입니다.

영화, 연극, TV를 보고 그저 재미있다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주고 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시각화 하는 방법과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학생들 각자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구멍가게식의 각개 전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교 단체와 모든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캠퍼스에 충격을 주고 한 목소리로 복음화를

외쳐야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은 지체이면서 깊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선교 단체와 교직원 신우회, 교회가 연합해서 96년부터 시작한 '음악과 강연의 밤'과 같은 전도 집회가 조직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 단체가 협력해서 전도 집회, 창조 과학 세미나, 신앙 강좌, 간증 집회, 찬양 집회, 목사 교수 학생 리더들의 만남을 주선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급격히 변화되고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세계화(Globalization) 되어 가고 있는 캠퍼스 환경에 맞는 선교 전략과 학원 전담 지도자 육성 자원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며 살아보고 자라 온 리더만이 이 일을 효과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20년 가까이 학원 사역을 해 온 저의 경험입니다. 이 특수한 학원 사역을 위해 헌신된 잠재적인 인력을 학원에서 발굴하고 이들이 전문적으로 학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와 재정으로 적극 후원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원 선교의 모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모든 운동의 배후에는 소수의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갑용 간사님은 80년대 중반부터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춘천지역 대표간사로 섬기며 강원지역과 춘천지역의 학생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과 직업

방선기 목사

월요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나십니까? 혹시 직장에 출근할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랜드 그룹에서 월요일 아침이 신나고 즐거운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했더니 손을 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월요일날 아침에 신이 나서 직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왜 직장에 출근을 하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대답은 "먹고 살아야지요"였습니다. 짐작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일 밖에 모르는 일 중독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서도 집에서도 일생각,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프로젝트 생각, 보고서 쓸 생각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빨리 가서 보고서 써야 되는데' 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업에 있어 일 중독자와 일 기피자의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처음에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특권이고 축복이었으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일은 고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일그러뜨렸으며 우리들이 지금도 일하는 것을 힘들게 느끼는 것은 결국 죄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사해지고 이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할 때 그 일을 고통스럽게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특권, 사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일에 대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에 대해 힘들게 생각하고 그것을 돈벌이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생각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봉사만 주님께 하듯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직장에서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직장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멋진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직업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성속(聖俗)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직업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하기 보다는 일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하냐에 따라 그 직업이 거룩한 직업이 될 수

도 있고 속된 직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의 선택에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 일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정말 주께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성공이 그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공으로 세상에 미칠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여 고지를 점령하라!" 아주 멋진 말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면 싸움을 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을 더 흘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계할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에도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다가 점차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니나 출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중심이 예수님에서 출세로 옮겨간 경우가 그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을 섬기듯 섬겨서는 안됩니다. 성공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의 직장생활에 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한 크리스천들은 직장생활에 적응은 해야 하지만 직장의 어

긋난 문화에 동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화가 되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구별된 생활을 하려는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격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견지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적응과 구별입니다. 동화와 격리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납니다. 적응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가 되어 교회서는 크리스천이지만 직장에서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직장생활에서 적응을 하되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때론 직장생활에서 직업과 관련한 윤리문제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처럼 일을 하면 할수록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바른 직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은 그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하고 일하는 과정도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성수대교 참사, 삼풍백화점의 붕괴, 한보 사태 등의 오늘날 사회 비리의 대부분은 직업인이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직장비리입니다. 물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어쩔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비리를 거절하고 정직할 수만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경리로 취업을 했을때 그곳에서 장부를 두 개 쓰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장(부정)과 싸우다가 나올 것을 제안합니다.

크리스천이 직장속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사회전체가 정직해진다는 이야기와도 상통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리 가운데는 직장 비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장 비리가 사

회의 비리를 낳게 된 것입니다.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크리스천이 비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비리의 25%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은 사회에 대하여 굉장히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 선교에 앞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직장 내에서 충실히 일을 함으로써 성공해야 하고, 직장내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더불어 직장내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직장선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선교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신앙의 바탕이 성숙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직장생활을 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복음전파 때문입니다.

신우회는 종교클럽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신우회는 전도하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우회를 통하여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몸 담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직장 속에 신우회를 주신 목적이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곳에서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신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교회에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신우회는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꾸미기를 제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 들어와서 예수를 알고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많이 침체되어 있습

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동한 교인이지 안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벽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직장에서는 개인이 통로가 되고 공동체적으로 신우회가 복음의 통로가 될 때 직장 선교회의 열매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함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도 크리스천의 경건한 구별된 모습과 일에 있어서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동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전도의 지상 명령을 직장 속에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직장 선교사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직장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선기 목사님은 직장생활연구소장으로 사역하셨고 현재 캐나다에서 안식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1997년 4월 29일 직장선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직장인을 위한 콘서트와 세미나" 중 방선기 목사의 특강을 옮겼습니다.

춘천 성시화와 어린이 전도

이무종 전도사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18:14)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선교 분야가 있다면 어린이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벌써 밭은 희어졌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어린이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의 머리로 영적인 진리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있으며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성시화에 있어서 먼저 교회(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와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전도에 있을 것이다. 전도는 땅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할 첫째 사명이요, 교회 존재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

교회 성장과 성시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전도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다음의 세대를 돌보지 않으면 현재의 종교적 부흥은 당대로 끝나 버릴 것이다" 라는 요한 웨슬레

의 말처럼 오늘의 부흥과 현재의 성장을 내일로 이어지게 하고, 물려받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성장이 그 전성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속시킬 방법을 함께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방안이 곧 어린이 복음화요 전도인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어린이는 곧 내일의 어른이 되기 때문이다. 어린이 전도 이것은 교회 성장에서나 춘천 성시화에 있어서 결코 제외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 놀라운 전략을 말씀을 통해 고찰해 보고, 136개국에서 60여년간 실시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본회에서 실시하고 추진중인 몇 전략을 제시한다.

A. 성경은 어린이 전도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 어릴 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6)고 어린이 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고,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에 또한 신명기의 여러 곳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신명기 31장 12절에 보면 절기때 "남녀와 유치"를 모아 가르칠 것을 명령하신 것도 찾아볼 수 있다. 구약에는 주로 가정을 중심한 어린이 교육에 많은 언급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7)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엄중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앞날은 시대의 어린 자녀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3. 예수님의 가르치심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이들은 좋은 성품을 갖고 있으며, 겸손하

여 잘 배운다(마18:3-4)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도 믿을 수 있다(마18:5,14). 어린이도 찬송 할 수 있고(마21:16), 성경을 읽을 수 있고(딤후3:15), 헌신도 할 수 있다(요6:9). 어린 영혼 하나의 가치는 매우 크다(마18:5,6,10,14) 어린이를 실족케 하는 일은 큰 손해이다 (마18:6-9)

4. 초대 교회의 가르침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무이다(엡 6:4).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가 책임지고 전도하여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생활의 80 % 이상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얼마든지 양육할 수가 있다. 세상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그들의 백지와 같은 심정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득 그려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초대 교회에서는 어린이들도 성도로 인정했다 (엡1:1, 6:1).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1:1)"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6:1절에도 직접 "자녀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초대 교회에서 어린이들도 성도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어린이 전도가 일상적으로 늘 있는 일이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B. 성시회에서의 어린이 전도 중요성

1. 인구 적인 측면과 결신율에 꼭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세계 약 60억 인구 중 약 40%가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고, 춘천 인구의 30% 이상이 이들이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복음만 제시되면 90% 이상이 결신을 하는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옥토 밭'이

다.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결실을 볼 수 있다. 마이어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이 때부터 받아야만 될 것이다"고 했다.

2. 교회 양적 부흥과 어린이를 통한 성인 전도 열쇠이다.

현 교회 수적 성장의 대부분이 기존 신자의 이동이지만, 여름성경학교나 어린이 초청 집회의 상당수는 불신자의 자녀이고, 이들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다. 또한 부모의 본성인 자식 사랑 때문에 어린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다.

C. 성시화를 위한 어린이 전도 전략

1. 개인전도(111.100일 운동)

111.100일 작전이란? 본회에서 제공하는 복음 제시용 글없는 책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1성도가 매일 야외에서 한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제시 회심할 수 있도록 100일 동안 드려지는 어린이 전도이다(이 운동을 위해 본회에서는 글없는 책 제공과 전도 훈련 실시) 목표/100명의 전도자 1만명 어린이 전도

2. 클럽 전도(3일 클럽)

클럽 전도란? 훈련된 교사 3-4명이 한 조가 되어 일정한 장소(놀이터, 골목, 나무 밑, 넓은 방 등)에서 일정한 시간에 1시간 정도의 어린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결신 시켜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는 야외 클럽 전도(클럽 전도를 위해 본회에서 1년 2차씩 집중 훈련 실시 중)

3. 기지 전도(새소식반)

불신자와 담을 헐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매주 한 번씩 주변의 어린이를 초청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속 양육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이끄는 가정 성경반이다.(이 기지

전도를 위해 매주 화요일 본회에서 기지 전도자 강습을 실시함)

4. 기타 어린이 전도를 위해 본회는 교사 훈련, 교재 제공, 어린이 초청 집회, 어린이 부흥회, 캠프, 인형극 등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복음 들고 갈 준비 완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가슴 치며 슬피 울면서 그를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28) 고 하여 닥쳐올 어두운 날들을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날들은 그 당시보다 더 어둡고 어두운 때이다. 이런 현실 속에 어린이들은 아무 방비 없이 노출되어 있고, TV를 통해 쉽게 어른들의 무분별한 깊은 세계를 알게 되어 쉽게 죄악에 물들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경제적 성장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갈을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망한 예루살렘 거리의 여기 저기에 굶어 죽어 가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애2:11)"라고 애통했다. 이것이 어찌 양식이 없음만을 위한 애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암8:11)"도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 하는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누가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인가? 누가 예레미야와 같이 이들을 위해 애통할 것인가?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

지어다"(애2:19)

오늘의 그리스도 밖에 잃어진 어린이!
그들에게 주의 양식을 우리가 나눠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춘천 성시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샬롬!

이무종 전도사님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의 총무로 섬기고 계십니다.

6부

춘천의 꿈, 거룩한 도시

빛이 잠시 있는 동안

김 홍 주

아직 어둠이 멀리 있다고 느꼈습니다
거울을 향해 다가서는 내 모습이 너무 작아
눈에 잘 띄지도 않았습니다

서쪽을 향해 길게 비친 내 그림자는
지난 시간의 허물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아직 어둠이 멀다고 위로했습니다

어느날 눈 앞의 그림자가 짧아지고 그리고
한 점이 되고 비로소 주변을 살핍니다
불혹이 되도록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던
삶의 여정.

여기저기 어둠이 깃들이어 있고
그늘에 움푹 패어 축축이 젖어 가는 내 영혼
다행히 아직 빛이 머리 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등 뒤 그림자가 지금은 짧지만
태양과 하늘이 점점 다가서는 느낌과
응시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살아온 날 만큼의 용서가 남아 있습니다
앞사람의 그림자를 밟으며
내 그림자도 등 뒤 사람에게 밟힐 것입니다

위험에 처하면 저 태양은 우리를 위해
하루를 머물지라도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빛이 잠시 있는 동안 나는
당신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시인, 춘천 성수고등학교 교사)

영혼의 도시, 춘천

김 춘 배

나는 이 고장 춘천의 토박이이자 붙박이이다. 말하자면 이곳 춘천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지금까지 다른 지방에서 일정기간 생활해 본 적 없이 계속 지내왔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약관의 이십대초부터 춘천을 떠나려고 몇번 시도는 했다. 춘천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애정의 표현이 나타내는 여러 양상 때문일 것이다. 즉 사랑하는 대상에서 한 번은 떠나 있어 봐야 그 사랑스러움과 소중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는 경우 말이다. 또 남자로서 타향에서 고생하면서 때론 뜻을 이루어 귀향하는 기쁨(금의환향?)도 맛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처세적 감정도 작용했던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춘천을 사랑했다. 서울등 다른 대도시에서 거대한 인간군상들의 찰거머리 같은 삶의 여러 행태에 질리다가 춘천으로 돌아오면 정말 숨통이 다 틔었다. 안온함과 여유로움으로 내가 나고 자라며 생활하고 있는 곳의 천혜적인 환경이 주는 강물같은 평화의 흐름이 있었다. 주변을 온통 두르고 있는 산과 강, 호수와 댐으로 둘러쌓여 안개 속의 풍경이 곧잘

펼쳐지고 그곳에서 영혼도 기관지염을 앓으며 시와 산문들이 흘러넘치는 곳,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감성적인 시인, 소설가 중 춘천 출신이 많은 게 무리가 아니다.

내가 이 춘천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눌러 있던 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가 아니었다. 이 도시의 보이지 않는 팔이 내 발목을 그렇게 붙잡았는지도 모른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모든 정황이 나의 타향살이를 번번이 가로막았던 것이다. 솔직히 고인 물처럼 썩는 기분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선가 그런 의미에서 붙박이생활로서의 당위성도 없지 않았다. 비록 40대를 넘어서까지 제대로 내세울만한 성취는커녕 가정도 만들지 못하고 떠돌이마냥 허송한 듯한 세월이었지만 그 당위성은 요즘들어 부쩍 굳어지고 있다.

어디든 한 곳에 그냥 붙박혀 있어도 그 숨가쁜 흐름이 감지될 정도로 6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세상의 변화는 참으로 어리둥절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급격한 최근의 물결은 세상견문이 없어도 그 흐름에 따라 내 주변을 무섭게 변화시키고 변질시켜 가고 있었다.

춘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징후는 좀 엉뚱하지만 시정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이 도시의 주변을 새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싹텄던 것 같다. 대학시절 팔호광장에서 강원대 후문에 까지 줄지어 서 있던 오래되고 울창한 가로수가 잔뜩 뽑혀나가는 것을 보고 분개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그 거리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성치 못한 내 다리로 걸어서 오가도 지치지 않던 싱그러움 속에 사색의 잎사귀들이 향기롭게 살랑이곤 했다. 머언 옛날 그리이스에 있었던 소요학파라는 철학자들의 그런 소요를 가끔 연상하며 그 거리를 얼마나 즐겼던가! 어느 날 무참히 뿌리채 뽑히고 잘리운 나무들을 본 그 때의 참혹스

런 기분이란! 그 후 그 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던가? 압구정동 빰치는 문명의 구정물로 넘쳐흐르고 있지 않던가! 몇번이고 걸어다녀도 피곤을 모르던 거리가 차량으로 가득 메워져 오히려 차를 타도 더 멀게만 느껴지게 된 것이다.

항의나 투쟁 같은 적극적인 참여는 못했지만 행정과 당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하여 내 반골기질은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내어뻗는 향락적 상업주의의 손길과 지독히도 편협한 도시행정 덕분에 빠른 속도로 망가져가는 도시를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은 현실의 급속하고 다양한 흐름에 내 생을 적응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다. 몇 년 전 붕어섬의 아름다운 천연수림들이 향락문화를 위해 깡그리 사라진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안타까움 속에 분통을 터뜨렸는지! 봉의산 밑의 아파트로 인해 그 호반 도로쪽을 흐르는 선의 자연스러움을 싹둑 끊어버리는 무지몽매는 분명 특혜의 구린내가 풍기는 작태가 틀림없다.

이야기가 감정의 격앙된 흐름으로 인해 그 취지에서 잠깐 벗어나고 있는 것이 우려되지만 언젠가는 피력해야 할 사항이었기에 이 기회에 조금 언급 안할 수 없었다. 더우기 미래의 춘천보다는 되찾아야 할 춘천이라는 점에서 어쩔수 없이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감정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비판이다. 성격상 비판만큼은 평소에 자제하는 편이지만 살리기 보다는 죽이는 방향으로만 숨가쁘게 펼쳐지는 도시행정과 도시문화의 생리에 관한 한 그 비판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다. 지난 달에는 15년동안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영혼을 적시는 고전음악(특히 종교음악)의 선율이 넘치고 안온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던 '바라'라는 다실마저 철거당했다. 건물주인 건축사협회 측의 사무실 사용을 위한 비정한 편의주의 조치 때문이다. 춘천의

내노라하는 문화계 종교계 언론계 인사들과 단골들의 두 달 동안 일개 다방으로서는 유례없는 거센 항의와 살리기운동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깊은 뜻을 가진 이름을 내걸고 신앙심 깊은 여사가(지금은 열렬한 전도사님으로 활동 중) 세운 이래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힐끗이나마 엿보고 맛보게 해 주던 그곳이 서너번 주인이 바뀌며 춘천의 명물로 아니 유산으로까지 자리잡아 온 터에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진 것이다. 춘천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 무엇이며 춘천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거나 제대로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춘천에도 갖다놓을 수 있는 것만 무분별하게 도입해대는 향락 지향적이며 편의만을 추구하는 발상과 행정의 결과가 낳은 비극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춘천은 미리 진술했듯이 감성의 도시이다. 경춘선의 종착지인 춘천역에서부터 배어나는 그리움과 기억의 머언 여정의 정감을 맛보며 또 다시 미지를 향해 떠나고 싶은 동경의 눈길로 철길을 바라보며 기다림도 배우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분명 누군가의 품에 안긴 모습으로 젖과 꿀을 빨고 있는 듯 강물을 두르고 산들에 감싸여 평화롭게 잠드는 어린 아기 같은 도시이다. 어느 길로 춘천으로 들어와도 분지(盆地)라는 지질학적 특성 때문인지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즉 대부분의 다른 도시로 들어가면 이정표가 아니면 경계도 못알아보고 한참 들어간 후 번화한 거리가 나타나고서야 그 도시로 들어선 것을 깨닫게 되는 데 비해 꼬불꼬불 몇 개의 산자락을 넘은 끝에 고개마루 쯤에서부터 아래로 활짝 펼쳐지는 도시의 전경을 안온한 정감의 설레임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춘천만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 같이 보인다. 산 사이에 강물을 두르고 분명한 윤곽으로 나타나 발견하는 기쁨도 주는 춘천. 밤이면 야경들조차 깊은

어둠을 더듬은 끝에 마침내 발견하는 불빛들에 대한 눈물겨운 반가움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최초로 항공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는 린드버그가 긴 비행 끝에 마침내 당도하면서 떠오르는 불빛들을 보고 "안나여, 저것이 런던의 불빛이다!"라고 한 유명한 넋두리가 가슴을 울리는 듯한 감격마저 주는 것이다. 이것 역시 춘천만이 주는 고유한 정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팔을 벌려 반기는 도시 춘천은 개발 지상주의적 문명의 무차별 횡포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과 온전함에 있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속엔 듯 여전히 그 감성과 영혼으로서의 숨결은 잊지 않고 있으니 또한 은혜의 도시이기도 하리라. 95년도엔 전국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며칠 전 모 일간지의 조사자료에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로 서귀포에 이어 두 번째로 랭킹 되었다는 게 차라리 서럽지만 제주도라는 섬을 제외한 내륙에 관한 한 전국 제일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셈이 되지 않나 싶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접한 세상의 기회주의자들이 앞다퉈 달려들어 진짜로 망가뜨리는 계기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 공연한 우려가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이 틀림없을 이 도시에 전국 유일의 성시화운동이 무려 25년 전에 태동되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다는 것인데 한심스럽게도 필자는 작년에야 이 운동에 접할 수 있었으며 그것도 윤곽과 역사를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춘천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낀다는 자가 고교시절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아 오면서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의 운동을 눈치채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다는 것은 분명 나의 모자람의 극치에 다름아닌 자기모순의 모습이며 상당히 빈약한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 같아 극심한 부끄러움에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 도시는 분명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름다운 곳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지나친 애향심과 지역감정의 발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전국적으로 많은 크리스천 인사들이 모델도시로서, 대안공동체로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며 지원해 왔다는 연력을 살펴보건대 무리가 아닌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스럽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운동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내가 어떻게 최근에서야나마 나도 모르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가 하는 의문이 새삼 들기 시작한다.

이 춘천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서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며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무능으로 인한 현실적인 생활고와 위기감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춘천을 떠나려 했던 1~2년전 사이의 겨울에 내 발목을 붙잡은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은 인생선배이자 중국 선교를 꿈꾸며 총신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욱렬 전도사와 인도 선교를 앞두고 귀국해 있던 이영길 선교사였다. 특히 이영길 선교사로 인해 기학연 지체들을 만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들의 도움으로 석사동에 정착된 작업생활이 가능해져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 춘천에 대해 내가 해야 할 뭔가 계획된 것이 있음에 틀림없으리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춘천에 이렇게 남아있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이던가?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분명한 확신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점 기도가 좀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은혜는 계속되어 성시화운동 기독미술인 연합전과 내 생애 첫개인전을 우연히도 같은 기간에 개최할 수 있는 등 성시화와 관련된 모든 것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개입되어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책자발간, 기학연과의 끊임없는 연계와 모임을 통한 교제 …… 내 사랑 춘천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영적 충만이 아니었을까하는 다소 무거운 책임의식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

다. 모임을 통하여 내 영적 무장과 함께 이 도시의 성시화운동이 구체적 실제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성격상, 능력과 조건, 지위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쉽게 떨칠 수 없다. 스스로 온전치 못하고 세상적 죄성에 깊이 절인 나로서는 무리한 책임이라는 생각에 아직까지 두려운 심정일 수 밖에 없다. 성시화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한 그 당위성과 방향을 가까스로 피력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 공감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긴 마찬가지이다.

그 당위성이란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지리학적 천혜의 조건과 그 속에 흐르는 영혼과 감성의 도시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임엔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흐르는 영혼의 물줄기를 성령의 불로 덥혀서 영적 흐름으로 끓여올릴 수 있느냐 하는데는 방법적인 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 성시화에 대해서 낭만적 구호와 관념론에 빠져 성취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모성 운동이 될 위험이 없지 않다하는데 대해서는 그동안의 성시화 관련의 글에서도 누차 언급되고 자성적 노력도 없지 않으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음을 보아서도 반증될 수 있는 우려일 것이다. 만연된 현대사회의 상업성과 향락주의 개인주의등 복합적인 시민의식의 총체를 바꾸어 영적인 도시로 만드는 곧 성시화를 한다는 건 인간적 능력과 관점에서 볼 때 솔직히 무모한 바램 같이 보였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여러 사도와 바울의 노력들이 모여 오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를 보였듯이 이 모든 작은 노력과 실천의 성취들의 결집으로 반드시 터져나갈 영적 혁명이 일어나리라는 믿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성경에 보면 은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들은 반드시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선포로 인한 영적 사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나의 니느웨, 등) 즉 영적 혁명은 영적 사건의

도화선에서 폭발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며 이 도시에 특별한 영적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천혜의 지리적 조건 , 춘천 사랑, 여러 교회와 지체들의 집회와 기도 및 합심으로 조직화되고 프로젝트화 되는 운동, 그것을 위한 학문적 정립과 노력, 여러 지혜에서 나온 아이디어 및 아이템 등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영적 혁명의 좋은 밑거름이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이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바탕 위에 분명한 영적 사건이 일어나면 영적 혁명이 이루어지고 놀랄만한 양상으로 확산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사건이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 보내심을 입은 특정한 한 사람이나 교회 (건축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가 나타나 세속적이고 만성적인 영적 불감증에 빠진 인간적 문명과 사회 안에 안주하고 있는 대중에 일대 충격적인 요법을 가하여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바라보게 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 지식과 경험, 모든 방법론에 있어서 합리성과 실천성을 넘어서 단번에 일격을 가하는 채찍 같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진리의 선포와 사랑의 실천,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넘는 순종의 극치, 시대를 향한 준엄한 경고와 예언의 선각자로서 고정되고 일상화된 세속적 영혼과 정신의 기존질서에 잠시의 혼란을 주고,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혼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사건의 주동자는 불신자는 물론 많은 세속적 신앙인들에게도 배척받고 고난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예수님이 팔복에 대하여 설교하신 내용 중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먹고 핍박받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말씀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는 어쩌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타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일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아무리 성경적이라는 주장을 지식과 논리와 능력으로 보여준다 하여도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온전히 본받고 실천하는 희생과 고난 없이는 세속화 될 수 밖에 없으며, 아무리 진리이며 진실되다 하여도 울리는 꽹과리에 그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게 인간 사회의 특성이요 한계이기 때문이다.

대회 및 집회와 행사와 프로젝트 등 인간집단심리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 현대적 방법들도 효과적이고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혁명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진정한 결단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실로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진리와 윤리, 곧 모든 덕목은 두 가지에 의해서 그 생명력을 지니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나는 본다. 즉, 파괴와 순교가 그것이다. 어느 특정한 진리의 명제와 방향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과 사건의 두 가지 극단적인 양태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정체되고 고정된 진리와 명제들은 변질되기 쉬우므로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유동적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것을 둘러싸고 있을 일상화 세속화 형식화의 옷이나 껍질을 과감히 벗겨내는 파괴의 양태와, 어떤 유혹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상실하거나 포기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던지는 지극한 고통과 희생으로서의 결단, 곧 순교의 양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범의 극치를 보이신 분이 예수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강림사건, 스데반의 순교사건도 이에 들 수 있다. 아니 그 전에 세례자 요한을 먼저 드는 게 순서일 것이다. 또 인간 역사상에도 아씨씨의 프란체스코가 있는데 그의 행적은 실로 성경적이었으며 모든 교파를 초월한 사랑과 순종의 실천으로 전설적인 감동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믿는 자에

게 도전과 은혜를, 불신자에게도 영원한 감동의 충격으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요단강에 나타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소양강에도 나타나 다시 오시는 그 분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거룩한 순례지로서 성스러운 곳이 있는 춘천-성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른다. 영웅과 신화가 사라진 현대에 참으로 현실적으로 무리하고 막연한 대안이 아닐수 없으며 혹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 나타날지 모르고 또 상당히 무모하고 위험한 발상일지도 모르지만(진실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얼마나 긴장되고 위태한 길을 걸었던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도시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 속에 반드시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분별케 해 주시리라 믿는다.

지금까지의 여러 모든 운동과 노력과 정성,그리고 저마다의 지혜와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들의 토양 위에 언제 도적처럼 그 사건이 임하고 우리는 놀라움으로 돌이켜 보며 하나님을 모두 두려워하고 찬양하게 될른지 모른다. 그리하여 영혼의 도시, 거룩한 도시 춘천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이러한 운동을 시작하고 계획했다는 것에서부터 이 도시와 세계에 있어 영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 있을 것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놀라움이 되고 있을 거였다.

분위기는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 열매는 때가 이르매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마련이다. 거두시는 이는 그 분이시다. 요단강의 은혜로운 강줄기를 닮으려는듯한 소양강의 간절한 몸부림이 물살 위에 희망의 햇살을 받으며 부서진다. 안개와 강물과 깊은 산자락, 그리고 종착역-우리의 기다림이 마침내 기인 인생의 열차에 내리며 평온한 안식을 느낄수 있는 이 춘천에 새롭게 거는 거룩한 희망과 영혼

의 음성으로 인하여 감사드린다. 부족할 뿐인 이 사십 넘은 미천한 육신에 썩어 없어지는 씨앗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거듭 여쭈어보며 이 아름다운 봄내의 산과 강, 거리마다에 예수바람, 예수사랑이 하루속히 충만하게 넘치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김춘배님은 불혹의 나이에도 소년의 순수함을 잃지 않은 화가이며, 전원교회인 화목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춘천성시화, 역사의 흐름앞에서

조남진 장로

1. 성시화운동의 역사적 의의

20세기에 들어와 사상 유례가 없는 영적 대각성이 세계 교회사에 일어났다. 더욱이 20세기를 마감하는 지난 수십 년 간은 이러한 현상들이 크게 두드러진다.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이 운동을 우리는 성령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운동은 지나친 주관주의 및 신비주의화하는 경향이 있어 기독교를 건건한 사회윤리로 뿌리내리게 하는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면에서 춘천성시화운동의 태동은 기독교선교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수는 한 개인 혹은 교회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면에서 주인이시다. 이 신앙고백의 삶을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성시화운동이다. 교회가 양적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도 그 어느때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문화가 난무하는 이때에, 성시화운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운데에 이루고자하는 총체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물고기가 아무

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오염된 물에 있으면 부패하게 되듯이, 이 사회의 구조와 문화양식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기는 불가능하다.

춘천성시화운동은 한국 최초의 성시화운동이다. 성시운동이 시작된 이래 춘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성시 춘천에 대한 비전이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72년에 시작되어 맥을 이어 오던 운동이 92년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직장선교연합회)를 맞게 되고 그 후 94년 복음과 춘천 집회(강사:김진홍)를 통하여 더욱 활성화되어 96년의 성시화집회를 계기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조남진, 강원일보 사장)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성시화운동이 지닌 총체적 비전은 어떤 이에게는 긍정적인 것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지난 성시화운동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일해오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 일은 필연적이다.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시화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성시화운동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모색하여 21세기를 향한 하나님나라의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본 글에서는 춘천성시화운동의 발자취를 통해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춘천성시화의 역사에 나타난 다양한 성격을 정리 평가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과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성시화운동의 시작(1971년~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은 민족의 역사가 암울했던 시기에 일어났다. 군부독재의 통치가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철권으로 억누르고

있었던 암흑의 시기, 자유와 민주화에 대한 좌절의 늪에 민족의 앞날조차도 기약하지 못할 극도의 정치적 혼란가운데, 이 민족이 갈길 몰라 방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춘천성시화운동을 일으키셨다. 성시화운동이 태동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를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성시화운동은 이 민족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었다. 성시화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단의 평신도 그룹을 준비시키셨다. 70년 12월 31일 - 71년 1월 3일, 수원 서울대 농과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대학생선교회 주최 민족복음화운동 요원강습회에 평신도 몇 명이 참석, 춘천복음화의 꿈을 갖게 됐고 성경공부를 위한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초창기멤버:김형목, 박재헌, 윤수길, 조남진. 이후 문선재, 이학규등 사회활동을 하였던 20-30여명의 분들이 동참)를 결성(매주 화요일성경공부모임)하게 되었다. 그후 대학생선교회총재였던 김준곤 목사가 춘천지역의 소식을 듣고 춘천성시화운동을 구상하게 되었고 춘천기독교지도자들과 협의 민족복음운동대회 겸 춘천성시화대회를 열기로 함으로써 춘천성시화운동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1972년 4월에는 춘천지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하에 춘천성시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위원장: 김연호 목사 (중앙감리), 총무: 허걸 목사 (샘밭침례), 협동총무: 김홍규 장로 (YMCA 총무)]. 곧이어 72년 7월 31일 - 8월 4일에 춘천성시화대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강원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 5천여 명의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전국의 기독교 전도요원이 춘천에 모여 춘천에 있는 온 교회와 협력하여 춘천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등 춘천성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고 이 때 많은 결신자가 생겨났다. 대회 후 춘천성시화 운동 위원회는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 개교

회가 부흥되고 지역복음화가 이루어 질 때 성시화가 된다는 전제 아래 상설기구인 성시화운동위원회를 해체하였으며 각 교회가 성시화를 위한 기도와 전도에 힘쓰기로 하였다.

3. 성시화운동의 잠복성장기(1973년~1991년)

춘천성시화추진위원회가 해체되어 버리자 춘천지역 복음화에 대한 꿈을 가졌던 평신도 성경 구락부 회원을 중심으로 성시화 운동의 재추진이 결의되었다. 평신도성경구락부 회원들은 74년 4월 예수원 원장 토레이 신부님을 초청, 신앙강좌를 시발로 월1회 신앙 강좌 개최, 예수전도단 창설자인 로스 목사, 서울공대 교수 황희융 박사, 중앙대 최재선 박사 초청 신앙 강좌를 계속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평신도 성경구락부에 의해 계획된 춘천복음화 대전도대회가 같은해 10월 14일 - 17일에 강원체육관 에서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여 치루어졌다. 이 때 지사 등 기관장 초청 조찬 기도회, 군부대와 교도소 방문 집회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전단지 2만 매와 결신자 카드를 3천 매를 인쇄하여 각 교회의 전도를 도왔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6일, 13일) 신자들이 전도에 나서는 한편 대회기간중 교회별로 구역을 분담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구심점을 잃어버린 성시화운동은 74년 이후 각 개교회의 기도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대형 성시화집회 및 행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은 성시화운동의 정신이 기도운동 및 교회성장운동으로 더욱 기초가 다져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각 교단들은 전도집회 등을 대규모로 계획실행하면서, 지역교회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76년춘천기독교 교역자 연합회 회장의 인터뷰(교파마다 장점을 살려 이를 토대로 신도와 교역자의 총화와 복음화의 폭을 넓혀 보겠다고 말함)나 78년 교역자 연합회장이었던 윤철중 목사

님의 인터뷰(지역복음 전파에 주력)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각 교단 및 교회별로 전도집회, 심령부흥회 및 연합예배를 통하여 전도활동과 교회의 성장에 총력을 다하게 하였다.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은 성시화에 대한 기도를 통하여 성시화운동의 정신을 내면에 새기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춘천지구 기독교 교역자 연합회의 행사때마다 춘천성시화에 대한 기도는 끊임없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기도운동은 춘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시화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다가오는 세대를 준비하게 하였다.

70년대 중후반기의 이러한 내면적 성장은 그 후 8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성시화운동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80년대의 새해가 밝자, 초창기 성시화운동을 일으키는데 일조하였던 김연호 목사는 새해 기독교의 계획을 말하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의 결실을 맺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춘천성시화운동의 정신은 그리스도인만의 것이 아니라 춘천의 온 시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운동은 기독교인들의 구호만은 아닌상 싶다. 전 춘천시민의 구호가 되고 있다. 춘천을 양심의 도시, 풍요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서 한국과 세계의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운동으로 성시화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성시화운동을 미래지향적이며 열린 운동으로 소개하면서, 온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운동으로 소개하면서 강원도의 명예를 세우는 운동이며, 민족을 건설하는 정신운동이라는 소개하고 있다.)

이어 80년 1월 21일에 '80년대엔 춘천을 성시로'라는 기치아래, 채춘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여 80년대 춘천 복음화 운동위원회를

창립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같은해 7월 31일-8월 3일까지 '춘천 시민을 그리스도에게로, 춘천을 성시화하자' 라는 주제로 세계복음화 대회 준비위 주최 80년대 춘천복음화 위원회 (김연호 목사) 주관으로 체육관 전도대회 (강사: 김준곤 목사, 김세창 박사)를 가졌다. 춘천성시화운동이 외부적으로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로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이 시기는 춘천성시화운동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성장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격은 다음과 같다. 기도운동으로 성시화운동의 정신을 영혼과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었다. 이 시기에 성시화에 대한 각 교회의 열망은 주로 기도 제목으로 표출되었다. 춘천을 성시화해 주시옵소서! 성시화운동은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한 시간이 20여 년 동안 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성시화운동의 기초가 춘천지역의 그리스도인의 무릎으로 다져진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시기의 성시화운동은 복음전도를 통해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 성시화가 가능한 환경으로 성숙되어진 시기였다. 72년 성시화운동을 전후로 일어난 집회를 통해 이후 춘천지역의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왔다.

4. 성시화운동의 재정비기(1992년~1994년)

70-80년대를 통해서 춘천지역은 성시화운동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징후들은 춘천의 각 직장 신우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진다. 직장내의 신우회 활성화는 89년에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활기가 띠기 시작한 신우회는 신일상호신용금고, 제일병원,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이다. 특히 가장 활기를 띤 곳은 FMB 로 불리워지는 한

국은행춘천지점의 신우회이다. 신우회의 활성화는 1990년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마침내 1990년 4월 17일 춘천, 춘성지역 8개 직장 신우회가 함께한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창립(장소:동부장로교회)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직장선교연합회가 춘천성시화운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후로 직장선교회를 통한 춘천성시화운동을 전개하면서 각 직장마다 다투어 기독신우회를 조직하고 창립기념예배·각 직장신우회연합체육선교대회 등을 통하여 직장복음화에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직장신우회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은 주요 기관장 중심의 성경연구모임체였다. 91년 8월 기관장 중심의 성서연구모임(조직:전용태 차장검사)이 만들어져 모임을 거듭하여 오던 중 70년대초에 태동한 "춘천성시화운동"을 재현시켜보자는 의견이 모아져 기도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춘천에 있는 주요직장을 복음화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고 직장선교연합회를 통하여 각 직장신우회를 확장하고 춘천성시화운동의 흐름을 재정비, 본격적인 성시화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조충환 장로)는 창립 3주년째가 되는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께로"라는 표어 아래 구체적인 춘천성시화운동을 펼쳐나아갔다. 그 첫 번째 행사로 1992. 7. 14 "직장기독인선교대회"(장소:어린이회관), 두 번째 행사로 1992. 8. 2 "예수평화대행진과 연합성회"(장소:춘천시청광장에서부터 시가행진, 밤집회:제일감리교회), 세 번째 행사로 1992. 12. 8 "성시화를 위한 시와 찬양 간증의 밤"(장소:YMCA-파라다이스), 네 번째 행사로 1994. 10. 11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청년을 위한 오르간 연주회(표어:여호와를 찬양하라, 장소:제일장로교회)등 춘천성시화의 꿈을 펼쳐보였다.

특히 "예수평화대행진과 연합집회"(92. 8. 2)는 춘천성시화운동

을 춘천시민에게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성도들을 새롭게 일깨웠던 좋은기회가 되었다. 낮에는 "예수평화대행진"이란 표어를 쓴 현수막을 내건 시가 행진이 있었고 밤에는 전 과학기술처장관 정근모 장로를 초청하여 연합예배를 가졌다. 여기에서 문선재 강원대학교 총장의 성시화 필요성 강조· 조남진 장로의 성시화운동의 경과와 전망보고· 목사님들의 특별 기도·그리고 20년 전의 전국대학생 회장 등 1,500여 명의 교계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성시화 동참을 다짐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였다.[1] 이 후 1994년도에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는 33개 신우회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춘천성시화운동을 전개하는 넓은 영역을 제공하게 되었다.

성시화운동의 대중적 확산의 새로운 기운은 보다 젊은 세대들에게 성시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계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성시화운동을 지향하는 젊은 그룹들이 중심된 복음과 춘천 94 성시집회(기윤실,기학연 공동주관, 강사:김진홍 목사)는 성시화운동의 신선한 변화를 보여주며, 대중적인 성시집회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었다. 94년 9월 8일-9일, '춘천성시화 진로모색'이란 주제로 양일에 걸쳐 열린 집회는, 첫째날 김진홍 목사(두레마을 대표)의 말씀집회, 다음날 성시화 진로 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기조연설은 문선재 박사(전 강원대학교 총장)가 맡았고, 토론자로 한균 목사(평화감리), 피종호 목사 (나눔성결), 장근성 목사 (춘천 IVF), 안동규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춘천지부공동대표), 윤태호 목사 (예수제자운동대표), 조남진 장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강원일보 사장)가 참여하였다. 이 집회가 갖는 중요성 중 하나는 앞서간 신앙

1) 이 '예수평화대행진과 연합집회'를 계기로 직장선교연합회차원의 춘천성시화추진위원회 조직을 범기독교연합회차원의 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춘천성시화운동기구(안)을 마련 춘천교역자연합회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의 선배들처럼, 춘천이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준비하였던 자생적, 자발적 집회였다는 점이다. 또한 춘천지역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였던 성시토론회는 춘천성시화운동을 다양한 선교운동과 연결시킴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선교운동으로 발전 시키려는 구체적인 시도였다. 이 두 집회를 통하여 20여년간 잠복기에 들어갔던 성시화운동이 두터운 지면을 뚫고 그 싹을 내기 시작하였다. 성시화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함께 잠재적 동역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 집회들을 통해서 성시화운동은 재정비기를 맞이한 것이다.

70·80년대의 성장기를 거쳐 표면적 운동의 재 부상한 춘천성시화운동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군부독재의 통치가 마감되어가는 역사적 전기와 더불어 새로운 모습으로 춘천시민들앞에 나선 성시화운동은 어떤 면에서 이 민족의 가장 어두웠던 역사의 고난을 민중들과 함께 한 후에 새로이 단장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아닐까? 어찌되었거나 성시화운동은 성장한 교회를 배경으로 선교의 구체적인 터전을 향하여 발전되어갔다. 이 시기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뚜렷한 성격은 직장선교의 활성화와 함께 삶의 터전을 복음화 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성시화란 단순히 한 개인의 변화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성시화란 그리스도인이 딛고 사는 삶의 터전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총체적 선교모델이다. 따라서 평신도들의 선교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평신도들의 위대한 신앙적 도전의 삶이 없다면, 삶의 영역이 말씀으로 신실하게 변화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직장 신우회가 활성화되고, 성시화운동의 주체적인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교회의 성숙된 모습의 필연적 결과이며, 성숙된 지도력의 결과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보다 중요한 일은 성시화운동이 차세대로 전수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5. 성시화운동의 대 전환기(1995년~1996년)

95년부터 성시화운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95년 9월 이후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독교 기관장 기도모임이 새롭게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 기관장 기도모임(전용태 검사장, 양인평 법원장, 이범찬 안기부장, 문선재 총장, ○○○도의회의장, 배계섭 춘천시장, 조남진 강원일보 사장, 최종문 강원은행장, 조충환 장로, 기독교방송국 본부장, 유수열 MBC사장, 류근창 교수등과 선교단체)은 성시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성시화의식을 확산시켜나갔다. 이러한 성시화운동 의식의 확산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기관장기도모임에서는 먼저, 교통낙원춘천만들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건강한 가정만들기, 범죄없는 춘천만들기, 기독교연합회결성, 성시화운동기구구성, 기독교대학설립과 성시일꾼양성, 춘천성지순례코스:통곡의 벽 조성등 춘천시 문화행사의 기독문화화 등의 실천과제를 정하고, 성시화운동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5년 10월 17일 밤에는 기관장기도모임 일행 23명(문선재 총장, 전용태 검사장, 조남진 강원일보 사장, 최종문 강원은행장, 감형재 도의회 부의장, 이경준 선명회 부지부장, 이학규 장로, 조충환 장로, 허광웅 장로, 김남철 장로등 직장선교연합회 임원등)이 경기도 남양주군(태능 부근)소재 "천보산 민족기도원"을 찾아가 기도하였다. 성시화운동의 첫 번째 행사로 1995년 10월 26일, 직장선교연합회가 주최가 되고, 기관장 기도모임이 후원하는 "춘천성시화를 위한 직장인기도회"를 춘천어린이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춘천성시화의 비전"(조남진 장로), "춘천성시화의 실천방향"(전용태 장로), "교통낙원

춘천만들기"(기사선교회, 대표:정병석 장로)의 발표가 있었다. 한편 범죄없는 춘천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보낼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회복된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인식아래, "더 복된 가정생활세미나"(제1기:95년 12월-96년 2월)를 전개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의 확산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춘천기독교연합회"를 결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김준곤 목사 초청 만찬 간담회(일시:95, 11,9 장소:세종호텔), 각 교단 대표 목회자 초청 조찬 간담회(일시: 95. 11, 17 장소:세종호텔) 그리고 교역자 연합회 임원들과 계속된 협의와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실로 다음해에 기독교연합회가 창립되게 되었다.(창립예배, 일시:96년 9월 12일(목), 장소:석사감리교회) 이와 때를 같이하여 "비전 126 중보기도모임" 춘천지역모임체 결성을 위한 창립준비모임(일시:96년 5월 10일, 장소:춘천YMCA)을 갖고 같은해 7월에 창립예배를(96년 7월 12일 창립예배. 장소:중앙성결교회)드리게 되었다. 비전 126 중보기도모임은 시편 126편의 말씀 위에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안들을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중보기도모임이다. 춘천지역의 목사님과 영적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이 기도운동은 매월 정기적으로 각 교회를 순회하며 기도운동을 통한 교회의 연합과 성시화운동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복음과 춘천 94 집회" 이후 그동안의 춘천성시화운동의 모든 노력을 총 결산, 평가하고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집회가 96년 여름부터 추진되었다. 96년 집회는 성시화운동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그룹들의 협력이 처음부터 도모되었다. 복음과 춘천 96 집회를 준비중이었던 젊은그룹(기독교윤리실천운동, 춘천기독교

학문연구회)들은 기독교기관장모임(일시:96년 6월 28일 장소:강원대총장관저)에서 96 집회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 이후 일관적인 성시행사와 지속적인 성시화운동의 추진을 위한 상시적인 운동기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위해 본격적인 운동기구 구성을 논의하였다. "춘천성시화추진을 위한 목회자 간담회"(일시:96. 8. 30, 장소:세종호텔)와 교역자연합회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드디어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창립(일시:96. 9. 19 장소:소양성결교회 강사:김선도 목사)하기에 이르렀다. 약 7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던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창립(초대본부장:조남진 장로)은 실로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되고, 춘천성시화추진위원회가 해체된지 근 24년만에 이룩된 역사적인 일이라 할 수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10월 첫째주 한 주간을 성시주간으로 선포하고 대형집회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총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2)]

96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진 결실은 24년동안 춘천성시화운동이 춘천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심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며, 지난간 기간동안 무명의 성도들이 기도로 심은 씨앗이 새로운 차원의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를 것을 보여준다. 96년에 있었던 성시집회는 대형집회와 총체적인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서 성시화운동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였다.

6. 춘천성시화운동의 평가

---

2) 96년 성시주간행사중(96년 9월 30일-10월 6일)에 하나로 한국선명회 강원도지부 회관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 및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취임식(초대대표회장:임택창 목사, 석사감리교회)과 춘천기독교연합회 및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현판식이 있었다. 이때부터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를 통해 몇 가지로 그 성격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춘천성시화운동은 민족복음화운동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었다. 민족복음화운동은 민족을 사랑하는 운동이다. 복음으로서 민족을 건설하자는 운동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을 섬기는 운동이다. 민족을 향한 복음의 도전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천하자는 것이 성시화운동이다. 그러므로 춘천성시화운동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사랑을 민족과 백성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춘천성시화운동은 춘천지역 평신도들이 중심들이 된 자발적인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성시화운동은 민족복음화에 도전을 받은 일단의 평신도들이 춘천성시화에 대한 꿈을 갖게 됨으로써 시작된 운동이다. 외부 다른 단체의 적극적인 도움이나 계획이전에 무명의 평신도들이 스스로 복음을 체험하고 자각함으로써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복음의 진리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백성에게 실천하려고 했다. 이것은 춘천지역의 교회가 종교개혁전통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성숙된 교회였임을 나타낸다.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제사장주의를 주창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앞에 소명을 받았음을 명백하게 하였다. 종교개혁전까지 오직 가톨릭 사제에게만 사용되었던 소명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 모든 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성시화운동이 평신도들의 자각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춘천지역의 교회가 성숙된 지도력의 영향 아래에서 인도되고 있으며, 따라서 평신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나타내어 준다. 셋째로, 말씀중심의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춘천성시화의 꿈은 단순히 공상이나 이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들으며 영감을 얻었고, 말씀을 연구하며 믿음을 가졌던 운동이다. 춘천평신도성경구락부의 결성은 춘천성시화운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위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말씀중심의 전통은 초창기의 평신도성경구락부에서부터 최근의 기독교기관장기도모임에 이르기까지 계속이어져 내려왔다. 넷째로, 회개와 기도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성시화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춘천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로 준비시켰다. 각 교회와 선교단체들, 지도자와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하나님과 민족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기도로 태동되고, 기도로 성장되었고, 기도로 열매를 맺어간 운동이 성시화운동이었다. 성시화운동본부가 창설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시화를 위한 특별한 기도운동을 일으키심으로 성시화운동이 기도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다섯째로, 복음전도운동이었다. 태동기에 전국에서 5000여 명이 모여 집중적으로 전도함으로써 춘천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춘천성시화운동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여섯째로, 교회연합운동이었다. 춘천지역의 목사들과 교회들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소명을 자각했을 때, 적극적인 연합과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목사들과 교회들의 성숙된 지도력과 연합의식이 없었더라면 성시화운동은 태동될 수 도 없었을 것이다. 일곱째로,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되어 힘을 집중하는 총체적인 운동이었다. 성시화운동은 한 개인 혹은 몇몇 교회나 단체로서는 불가능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어 힘을 집중할때만이 가능한 운동이다. 태동기부터 성시화운동은 춘천의 기독교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총체적인 성시화운동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였다.

7. 앞으로의 과제

춘천성시화운동은 하나님께서 춘천과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운동이다. 도시화가 급속도록 진행되어가는 이때에, 복음과 진리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야만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요청받는 시대가 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모든 장점들을 한 도시에 실현시키는 총체적인 선교 전략으로 평가되어질 것이다. 순수한 지역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공간의 차이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극복된 이 시기에, 춘천성시화운동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도시선교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춘천성시화운동은 몇가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첫째는, 복음전도의 활성화이다. 한국기독교인구는 전국평균 25%이다. 춘천기독교인구는 17%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평균치수는 전국평균치수에도 못미친다. 또한 한국교회의 영적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70-80년의 높은 영적성장이 90년에 들어오면서 둔화되거나 감소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영적각성을 통한 총력전도운동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춘천성시화운동이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밖의 다른 영적사역도 전개하기에 어려운 형편이 될 것은 당연할 것이다. 둘째는, 교회연합을 통해서 성시화운동을 후원하고 새로운 차세대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시화운동에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인적 및 물적 후원들이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성시화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동참하는 젊은 세대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가고 있다. 한 도시를 말씀위에 세우는 성시화운동은 한 개인이나 몇몇 단체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한 사회에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온 교회가 연합하고 적극적인 후원을 보여줄때만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

회와 지역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일꾼들을 발견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철학, 문화, 예술 등의 모든 면을 교육시킴으로써, 다가오는 세기를 준비해야만 한다. 이일은 교회가 연합하여 인재를 발견하고, 재정을 후원해야만 가능하다. 셋째는, 춘천시민이 성시화운동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전략의 개발이다. 성시화운동은 신앙인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한 도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온 시민의 축제 및 대중적인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넷째는, 춘천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21세기 대안산업을 소개, 개발하는 일이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춘천지역이 그 어떤 도시보다도 살기좋은 환경과 높은 문화수준의 삶, 그리고 부요한 물질적 삶을 향유하도록 돕는 운동이다.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 실천의 노력을 통하여 다가오는 21세기 기독교선교운동으로 성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實事求是의 학문인 춘천학 형성을 통해 성시화신학 및 철학을 발전시켜나가고, 성시문명을 꽃피우도록 하는 일이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지역민들의 땀과 신앙으로 성숙된 운동이다. 춘천학은 춘천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지역교회, 춘천에서 운동하는 선교단체들, 기독교사회운동단체들, 학생, 교수, 관공서, 언론기관의 종사자들을 비롯해서 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형성시킬수 있다. 계속해서 성경말씀을 통해 올바른 성시화신학 및 철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경적인 성시문화 및 문명을 발전시켜 꽃 피우게 함으로써 이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김영명 집사, 직장선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출범과 전개
(1996 ~ 현재)

편집부

1. 96 성시주간 안내

1996년은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 수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年)로 성경적으로는 춘천이 맞이하는 두 번째의 희년이다. 희년은 성서적으로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해 즉 50년째 해를 의미한다. 희년은 노예가 해방되고 땅이 안식을 얻으며, 자연과 만물이 쉼을 얻고 불평등이 평등으로, 구속(拘束)이 자유로, 불완전이 완전으로 가는 축복의 해, 은혜의 해이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춘천 수부 100주년 희년의 기쁨을 그리스도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것임을 기억하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창립과 더불어 아래의 사역을 진행하였다.

성시토론회

춘천시내 3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구체적인 성시화

의 방안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 제일감리교회 발제자:허문영 박사(민족통일연구원) 토론자:전용태 前춘천지검검사장, 조남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김광국 목사(성광교회 당회장), 이갑용 간사(한국대학생선교회), 사회:이영길 선교사(춘천기학연, 인도선교사)

전체 집회 (둘째-셋째날)

저녁마다 800-1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말씀을 통한 깊은 은혜를 받고 함께 춘천성시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백령문화관 강사:홍정길 목사)

총력전도(넷째날)

춘천시민 모두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자는 강한 의지를 담고 각 기독교 기관장 및 선교단체 그리고 각 교회에서 헌신된 150여 명의 전도자들이 모여 춘천시내 가정방문 전도집회를 펼쳤다. (장소: 춘천시내 전역)

성시기도회 (다섯째날)

성시화의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이루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섯째날의 성시집회에서는 춘천성시화와 민족통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장소:백령문화관 강사:이영덕 前 총리)

청소년, 자녀교육 특강 (여섯째날)

올바른 자녀 교육과 청소년 문제의 해법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참석

한 청소년과 부모들의 고민들이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백령문화관 강사:오인숙, 김형모 선생)

총력전도, 전체특강 (일곱째 날)

오후 2시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을 준비하는 종합 운동장 주변에서 각 지역 선수단과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 활동을 펼쳤다. 저녁에는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1500여 명이 참석한 성시예배를 통하여 72년 성시화운동 1세대들은 새롭게 재도전의 의지를 불살랐고 20대, 30대의 성시화운동 2세대들은 성시화에 대한 꿈과 사명을 품는 시간을 가졌다.(장소:백령문화관 강사:김준곤 목사)

기타 사회봉사 프로그램

성시주간에는 신앙행사 뿐만 아니라 춘천의 각 지역에서 준법 주간 캠페인, 헌혈, 무료 순회 진료, 무료 이.미용, 바자회, 결연후원 프로그램, 무료 급식, 이불 세탁, 노인 대학 등 사회 봉사 프로그램과 기독서점 할인행사 기독교 방송 청취 독려, 사진 전시회, 크리스천 뮤직 비디오쇼 등 기독문화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은 사랑의 나눔으로 있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소중한 행사였다.

2. 96후반기 사역

선교헌신자를 세우기 위한 로렌 커닝햄 선교대회

로렌 커닝햄 목사는 한국의 발전과 한국 교회의 부흥은 21세기 세계 선교를 감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북한의 개방을 대비해 성경책과 선교헌신자들을 지금부터 잘 훈련시켜야 함을 역설하며 북한이 개방되었을 때 이단이나 타종교, 마약, 마피아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젊은이들에게 도전했다.

선교대회의 참석자들은 집회후에 선교결신카드를 제출하며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에 힘쓸 것을 서약하였다. (장소:평화감리교회, 강사:로렌 커닝햄 목사(국제예수전도단 총재) 주관:예수전도단,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춘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후원:춘천성시화운동본부)

행복한 가정생활세미나

오늘날 사회범죄의 대부분은 깨어진 가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때에 개최된 행복한 가정생활세미나는 가정의 문제를 성경에서 찾고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여 가정이 참여한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문제에 대한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장소:광성교회 수련원)

직장인을 위한 성탄축제

〈직장인을 위한 성탄축제〉는 연말을 맞이하여 직장인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마당 축제의 장을 열려는 취지에서 준비되었다. 전가화 목사님의 설교와 어린이들의 찬양, 혜만중창단의 연주와 찬양, 동부교회 청년부가 준비한 연극 등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은 사랑과 나눔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장소:춘천제일감리교회 주최:춘천직장선교연합회)

부부성경공부 모임

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청소년 범죄가 빈번하는 오늘날처럼 가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적은 없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가정에 있고 가정이 올바르게 설 때에야 사회의 문제가 줄어들고 청소년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러한 때에 진행되고 있는 부부성경공부 모임은 법조인, 교수, 변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회복에 중점을 두고 모임을 해 나가고 있다.

기독교기관장 모임

기독교기관장 모임은 매주 한 번씩 각 교회를 순회하거나 각 직장 신우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춘천시내 기독교 기관장 30여 명이 매주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춘천성시화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지켜가고 있다. 지금까지 춘천시내 주요교회, 2군단, 농협 및 도청신우회 등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관장들의 간증시간을 마련하여 그들의 삶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과 춘천성시화운동의 확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다.

3. 97 전반기 사역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사역

찬양콘서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온 박종호씨를 초청해 진행된 찬양콘서트는 춘천지역의 청소년과 참석한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준 시간이었다. 백령문화관을 가득채운 참석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집회는 춘천지역의 찬양선교사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도 의의를 둘 수 있다.

(정소:백령문화관 강사:박종호 찬양선교사 guest:이병희 집사, 유영호 집사)

영어영성세미나

영어영성세미나는 청소년과 일반인의 영어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영어를 통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이 세미나는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복음이 증거되어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장소:강원공무원교육원 강사:이한수 박사)

음악과 강연의 밤

3월초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의 세속적인 것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자는 취지에서 선교 단체 연합회에서 주관한 행사에 함께 참여하였다. 일본인 전도자인 아사 호란도 목사와 한동수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찬양선교사 '다윗과 요나단'이 초청되었다.

직장인을 위한 사역

직장인을 위한 콘서트와 세미나

춘천시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우회 회원들과 직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함께 참석한 〈직장인을 위한 콘서트와 세미나〉에서는 옹기장이 찬양단의 찬양과 방선기 목사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장소:동부장로교회 강사:방선기 목사 주관: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후원:춘천성시화운동본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사역

비상시국 구국기도회

총체적 위기로 사회가 흔들리던 5월은 전국적으로 회개와 간구의 기도가 드려졌다. 사회의 불의와 어지러움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잘못때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춘천지역에서는 기독교기관장 모임이 선봉이 되어 기도회를 준비하였고 기독교연합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드려졌다. (장소:공지천 시민공원)

4. 97 후반기 사역

춘천시민초청대성회

춘천을 그리스도께 속한 도성이 되게 하자는 목적으로 9월 9일-10일 양일간 펼쳐진 춘천시민초청대성회에는 연일 10,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듣고 춘천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는 말씀의 잔치가 벌어졌다. 시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 참석하여 시민들에게 전도지를 전달하며 복음을 소개하였고, 각 교회에서는 몇 달 전부터 춘천시민초청대성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일시:1997.9.9-10 장소:공지천야외음악당 강사: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관:춘천기독교연합회〕

5. 춘천성시화를 이루기 위한 은사별 사역 특성 그룹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이래 춘천에서는 성시화를 위한 은사별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다. 성시본부는 아래의 모든 사

역을 후원하며 돕고 있다.

(사단법인) 기독교 세진회 춘천지회

세진회는 기독교적으로 재소자 및 출소자, 소년원생,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 및 교화사업을 실시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춘천지역에는 양인평 장로(춘천지방법원장), 전용태 장로(現 청주지검장)의 부임으로 모임이 시작되었다. 현재 취지에 같이하는 33명의 헌신자들이 재소자와 출소자를 돕는 일에 힘쓰고 있다. (창립일시:1996.5.28 회장:윤철중 목사)

춘천애중회(기독법조인회)

애중회는 기독법조인 사이의 상호친목과 신앙 향상을 도모하고 각자의 지식과 직업을 통하여 사회 정의의 정립에 봉사하며,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현재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검찰청 내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및 직원의 참여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그간 침체되어 있던 모임은 양인평 장로(춘천지방법원장), 전용태 장로(現 청주지검장)의 부임으로 대성회를 치른 후에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현재 30-40여 명이 모여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창립일시:1996.5.6 회장:이태수 판사)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은 기독교운동을 통해 춘천을 거룩한 도시 - 범죄가 없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힘쓰고자 모인 사람들의 연합체이다.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처음 예수를 믿어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일 저녁에 모여 성경공부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창립일시:1996.6.8 회장:조남진 장로)

춘천성시화 기독미술인회

춘천성시화 기독미술인회는 춘천성시화 운동의 일환으로 춘천의 기독문화의 정착,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기독미술향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1997년 4월의 창립전을 필두로 하여 지속적으로 미술전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회원은 31명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라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창립일시:1997.4.1 회장:김정희 교수)

기독의료인회

약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모든 기독의료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의료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는 취지로 창립되어 현재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창립일시 :1997.8.25 회장:유영호 집사)

강원청소년선교회

청소년은 시대의 희망이며 나라와 민족의 기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탈선의 길로 빠져들고 있으며 이들을 돌보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이다. 강원청소년 선교회는 청소년의 성장에 관심이 있고 교회 안팎으로 청소년 선교에 비전을 가진 이들이 마음을 모아 시작되었다. 앞으로 청소년 찬양캠프, 대학새내기들을 위한 수련회, 영성훈련 등의 야심찬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립일시:1997.9.4 회장:최상필 강원도의회 의장)

춘천고등학교 기독동문회

춘천고등학교 기독동문회는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한 기독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되었다. 이미 대부분 사회에서 중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르고 합당하게 살 때 춘천성시화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 질 것임을 기억한다.

(창립일시:1997.9.25 회장:지희준 장로)

춘천만나선교회

만나선교회는 춘천시내 음식점을 경영하는 기독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앙성장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과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며 친절과 봉사생활에 힘써 지역사회와 이웃에 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5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창립일시:1997.10.10 회장:홍승찬 장로)

예수사람운동(Jesus's People Movement)

예수사람운동은 춘천지역의 청소년 복음화를 위한(중고등학생) 모임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사역은 춘천지역의 각 고등학교에 말씀으로 잘 훈련된 지도자를 간사로 파송하여 학교 안에서 자체적인 기독동아리를 만들어 내고 지도 교사와 함께 성경공부와 각양의 기독교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수사람 운동'을 통해 학원내에 새로운 기독교문화의 개발, 간사를 파송하여 이루는 학내 복음화, 청소년 찬양학교, 청소년 소그룹운동, 청소년 전도자 육성 등에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보직이동〉

춘천성시화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전용태 장로(춘천지검검사장)가 청주지검 검사장으로 전임하게 되어서 이범찬 집사 (국가안전기획부 강원도 지부장)가 기독교기관장모임을 대표하며 섬기게 되었다.

이후 초대 사무국장으로 사역을 감당한 이상표 목사가 충주 중앙경찰학교 경목실장으로 사역지를 이전하였다. 후임 사무국장으로는 선명회 강원도지부 춘천복지관 관장인 이경준 목사가 부임하였다.

춘천의 영적지도자 33인에 대한 성시화운동의식 설문조사

권오서, 길동휘, 김광국, 김영원, 김유식, 김은일, 김종만,
김주환, 김창수, 김창환, 노정관, 문선재, 박상호, 백승호,
사공정, 신재원, 신청웅, 오승룡, 윤철중, 윤학원, 이복규,
이원호, 임신영, 정상교, 정상문, 조영호, 조정일, 차관식,
최석원, 최운택, 최해수, 하기철, 한 균, 황영찬, (이상 34인)

질문1.

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운동의 3대목표로서 1)복음전도 2)교회갱신 3)사회개혁이 제창된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상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춘천성시화의 과제는 몇몇 기독교 지도자의 과제가 아닌 춘천의 전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임을 각인 시켜 주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시화운동에 대한 저변의 의식화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한 성시화에 관한 일선 목회자의 관심이 미미한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그 영향력은 크지 못할 것이다. 3대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기독운동의 구심점은 교회이다. 따라서 교회들이 개교회주의로 흘러 개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성시화운동은 미약할 것이다. 목회자들이 먼저, 폭넓은 마음과 사역 스타일을 개발하여 그리스도인만의 연합 집회를 넘어서서 불신자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 복음 전도도 활성화되고, 교회들도 연합하여 갱신되며, 사회개혁의 제반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성시화운동본부는 교회가 이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복음 전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마다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변화될 때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갱신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의식 개혁에 사활이 달려 있다.

의식 개혁을 이룬 목회자들이 지속적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자 교회를 제안한다(신재원). 목회자 교회는 목회자들이 월 2회정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일반 교회처럼 담임 목회자(원로목사님들을 중심으로)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심방할 수 있다. 팀목회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고, 교파간의 갈등이나 지역의 이단 시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므로 영성이 회복될 수 있다. 목회자들은 여러모로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 자칫 잘못하면 직업적이고, 권위적인 목회자가 되도록 유혹을 받기도 한다. 상처도 많이 받고,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아픔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목회자와 목회자가, 교회와 교회가 경쟁

관계가 아님을 인식하고 한가지 목적을 위해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질 때, 성시화운동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질문2.

도시의 영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정치, 행정, 법 2)경제 3)교육, 학문 4)가정 5)매스컴 6)예술, 이러한 도시의 영역에 복음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hristian Culture가 자연스럽게 함양될 때 도시의 형태, 행정, 교육, 제도, 법률, 문화, 예술의 활동 속에 직간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이 구현되어질 것이다(한균).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인력 자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들을 분야별로 연합 조직한 후 그 가운데 몇몇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각계 각층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해야 한다(김유식). 도시 안에는 그 도시의 각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들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그들을 모으고 훈련하고, 파송해야 한다. 성시화운동은 종합 네트워크를 통하여 가능한 운동이기에 교회 및 유관 기독 단체들과의 협력 작업을 통해 분과별 조직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이 분과별 조직이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닌 활동성이 있는 것이 되기 위하여 춘천 성시화란 큰 틀 안에다 각 교단별, 직능별, 연령별, 계층별 조직을 갖추어 성시화본부는 명목상의 것이고 모든 실질 권세를 분야별 지도자에게 주어 그들로 자발적 성시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일을 위해 기독교적 사고를 뿌리내릴 중심기관으로서의 "기

독 학술 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문선재). 가치관의 변혁이 모든 영역에 꾸준히 침투되어야 성시화의 비전이 가시화 될 것이다. 이일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를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육성해야 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야 한다. 이렇게 육성된 각 분야별 일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말씀으로 바꾸는 시도를 할 때, 춘천은 성시가 될 것이다.

질문3.

성시 춘천이 도시에 대한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시의 법적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가칭 "춘천성시화법안"이 기초되어 의회에 상정된다면 그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성시 춘천은 어떠한 법률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먼저 시의회 의원의 2/3이상이 성시화운동을 주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시정의 자치권을 획득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문선재). 성시 춘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한 예로, 주일 성수를 보장하는 도시법, 학생들의 신앙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춘천시 교육청 조례등을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춘천에 대한 섬김의 조항을 만들어 교회의 재정에서 100분의 1을 춘천을 가꾸는 선교 기금으로 납부하는 조항들을 신설할 수 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시화 전문가들의 합동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질문4.

성시화운동 과정에서 모두가 유념해야 할 영적, 도덕적 지침들은 어

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적 · 도덕적 지침으로 빌립보서 2:5-10절을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은 생각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변화될 때 생각하는 방법도 변화되는 것이다. 성시화운동은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방식으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직분이 서열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김창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만 한다.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성시화운동은 기도 운동이다(한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영적 운동은 하나도 없다. 모두 성령님의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끊임없는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사회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동참 호소를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질문5.

춘천성시화운동의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춘천성시화운동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CD방식(지역사회개발)보다는 유럽과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CO방식(주민 조직)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문선재). 성시화운동은 사람의 변화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춘천성시화운동은 지역교회연합체의 성격을 띄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종국에 가서는 교파를 초월한 하나의 지역 교회 공동체를 지향할 때 성시화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춘천성시화운동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는 춘천시의 장·단기 발전 계획과 접목시키는 일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 그리스도인에게 큰 호소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춘천성시화가 바로 춘천시 발전 계획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도록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춘천성시화운동은 온 시민이 동참하는 운동이 될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질문서를 개개인에게 발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내용은 성시본부 책자편집팀이 종합하였습니다. 공통된 견해는 제시자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의견제시자를 괄호로 표시하였습니다: 편집자註)

21세기에는 태평양 시대가 될 터인데, 태평양 시대의 중심은 동북 아시아가 될 것입니다. 동북 아시아에서의 거점 도시는 바로 춘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 아시아 복음화에 거점 도시가 되는 춘천을 만들겠다는 큰 안목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 큰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운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춘천의 영적전투지도

예수전도단 WSB TEAM

▣ 자연적인 조사

1. 이 도시에 대한 여러가지 지도를 찾도록 하라. 특히 오래된 지도를 찾도록 하라. 이 도시의 외형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1) 삼국시기로부터 북방세력의 남하기지, 서방세력의 동진기지, 남방세력의 북진기지로서 중요시 되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지리적인 조건 때문이다. 북방세력이 춘천을 장악할 경우 홍천, 횡성을 거쳐 원주 등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남방세력이 춘천을 장악할 경우 북한강 줄기를 따라 화천, 양구, 인제, 철원 등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서방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할 경우 춘천으로 부터의 서진을 막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上記의 兩지역으로 모두 진출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기에 언제나 춘천은 여러 세력들의 침입을 받았다. (95년

10호 특집 「춘주문화」)

2) 춘천시는 흔히 호반의 도시로 불린다. 그 말이 가리키듯이 이곳은 폭이 500미터 넘는 의암호를 서쪽에 끼고 삼악산, 국사봉, 안마산, 청평산, 우두산이 서로 꼬리를 물고 둘러싼 태백산맥 서쪽의 침식 분지에 물에 잠길 듯이 길게 누워 있다.

1967년 북한강을 막아서 그 주변의 홍수를 없애고 춘천지방과 경기도와 서울에 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댐이 의암댐이다. 의암 저수지가 생김으로써 춘천시가 호반의 도시가 되었다.

춘천의 댐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진 댐은 소양댐인데 춘천시에서 양구군이나 인제군으로 가는 찻길이 물속에 잠겨서 뱃길로 바뀌었고 마을과 농가가 많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제 집과 땅을 잃고 춘천시를 포함한 다른 지방으로 삶의 터를 옮겨가야 했다.

논밭과 마을이 물에 잠기고 땔나무를 하러 오르내리던 산중턱까지 물이 차오르자 더러는 저수지 가운데에 섬이 생기기도 했다. 소양댐 선착장에서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군축형 선착장까지 백륙십리 길을 배를 타고 가다보면 그런 섬이 띄엄띄엄 눈에 띄는데 그것들은 모두 그전에는 꼬리를 물고 늘어섰던 산이었다. (1983. 강원도 -「뿌리깊은 나무」)

2. 이 도시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의 처음 설계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의 종교와 사상(신조)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도시설립은 자연 발생적이다. 따라서 춘천도 설립자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 도우미 -

선사시대 이후 춘천 부근의 주요씨족이 주로 춘천 분지의 북쪽에서 먼저 촌락을 건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비옥한 충적지 이며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북부의 문화권인 이곳에는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종족의 하나인 예족이 있어 그의 풍속은 산천을 중시하고 산악을 숭배하던 전통이 있었음이 후한서〔後漢書〕에 기록되어 있다. (1992.2 강원문화연구)

3. 이 도시에 대한 원래의 설계도나 배치도에 어떤 의미있는 구조물이나 상징물이 첨가되어 있는가?

춘천은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설계도나 배치도는 없고 다만 춘천시의 진산인 봉의산은 그 모양이 내맥이 없이 하늘에서 봉황이 그대로 내려앉은 듯한 형국의 산으로 산명이 봉의라는 이름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춘천백년사」-123P)

4. 중요한 건축물들의 건축양식이나 장소나 위치적인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히 이 도시의 정치, 경제, 교육, 종교적인 세력들을 나타내주는 건축물들이 있는가?

도청: 조선 고종 25년 避難宮(피난궁)으로서 離宮(이궁)이 있던 자리였다.

정치 : 도청, 시청, 법원, 미군부대

경제 : 은행,

교육 :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 한림전문대학, 춘천교대

종교 : 춘천 향교

5. 이러한 건축물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있는 땅 중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처음에는 누가 그 땅을 소유했는가?

현재 도청이 있는 자리는 조선 고종 25년에 留守郡 (유수군)이 설치된 자리이다.

개항의 위협을 받던 시절 피난수도를 조성할 필요를 느낀 조정에서 避難宮(피난궁)으로 춘천 유수부를 중앙직할의 別都(별도)로 설치하였는데 그 離宮 (이궁)이 있던 자리가 지금의 도청자리이다.

6. 이 도시의 조각상과 기념탑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들 중에는 마귀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는가?

1) 충렬탑 : 한국전 동란시 순국한 도내 국민의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5년 당시 29사단의 주관으로 최헌길 강원도지사, 육3군단장 송요찬, 29사단 문교사회국장 성동준, 병사구 사령관 강이욱 대령등이 건립하였다.

2) 유인석 동상 : 왜군과 대항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1976년 10월 8일 기공식을 갖고 12월 22일 제막식을 가졌다.

(유인석 : 1842년(헌종8년) 춘천군 남면 가정리 출생. 8도 창의대장으로 추대되어 의병을 이끌다가 압록강을 건너 고구려 옛땅인 만주 줍안현으로 피신, 후세를 위해 교육을 시작하다. 1899년 중국의 의화단 사건으로 압록강을 건너 평안도 개천과 용천에서 다시 황해도의 평산과 은표에서 후세교육에 힘쓰다.)

3) 이디오피아 참전 기념비 : 한국전쟁시 우방국인 이디오피아군

의 참전을 기리고 자유 우방국의 승리를 상징하기 위하여 만들고 1968년 한.이 문화협정 체결차 방한한 이디오피아 황제인 히이레 셀라시에 1세 의하여 제막 되었다.

(한국 동난시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의 우방 16개국 중 주로 화천의 산양리, 인제의 문등리와 철원 김화 등지에서 253회의 전투를 치른 이디오피아군(1개대대)의 참전기념과 자유우방의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 유엔 한국참전국협회와 춘천시민이 건립을 주관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금융단이 헌납하였다)

4) 자유의 수호탑 : 6.25당시의 우세한 화력으로 공격 해오던 북한군을 맞서 소수의 병력으로 필사적인 공격을 3일간 지연한 호국연령을 기리며, 자유의 소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북괴 2사단, 12사단을 우리군 7연대의 소수병력으로 저지. 춘천시민의 건립을 주관, 각계의 성금으로 1975년6월25일착공 9월28일준공 - 春川文化大觀)

5) 국사봉 망제탑 : 고종의 국상때 춘천의 선비들이 태극기를 모셔놓고 고종의 망제를 지내던곳 또 춘천의 우국 지사들이 독립운동을 결행 하던 곳이기도 하다.(春川 文化 大觀 中)

6) 장승 : 마을의 수호신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데 특히 동산면 조양리 전치곡 마을은 "거리제"를 지내는 풍습으로 유명하다. 매년 나무를 깎아서 만든 장승을 마을 어귀에 세우고 삼월 삼짇날에 마을의 안녕을 위해 거리제를 지낸다.

7) 김유정 문학비 : 공지천 조각공원 내

7. 이 도시의 특징을 이루는 다른 예술품이 있는가? 특히 공공건물의 안팎이나 박물관 또는 극장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

- 이 도시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예술품으로는 춘천 옥을 들 수 있다. 춘천군 동면 월곡리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백옥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되었다.

8.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학살이나 전투나 살인을 통하여 피를 흘린 장소는 어디인가?

봉의산

1.거란족의 침입

2.몽골 항쟁 당시 봉의 산성을 중심으로 항거하다가 마을사람 전체가 몰살당했던 역사가 있었다.(몽골의 4차 침입) 「춘천의 역사와 문화」 (김영기 저 , 춘천 문화원 발간)

약사동 : 춘천 의병들의 학살이 있었다.

의암리 : 의암서 앞에서 일군과 의병들간의 전투가 있었다.(「춘주문화」-춘주 문화원)

방동리 : 1907년 춘천군 향리였던 지룡기(본명:홍민)는 의병활동을 하던 중 380명을 모아 방동리에 대장소를 설치하여 춘천으로의 진입을 위해 포진하던중 밀고를 받은 왜병들의 기습으로 지룡기를 비롯한 14명이 죽고 20명이 생포되었으며 일병들도 대장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죽었다.

증리 : 정미의병때 이강년의 부대가 1907년 12월 13일 도연합의병의 서울진격작전중 격전을 벌인 장소이다.

내평서앞 : 6.25전쟁의 발발 초기에 내평서의 경찰관들이 밀려오는 공산군에 맞서 싸우다 대부분 전사하였다.

춘천 우두벌 전투 : 6.25전쟁 초기 남침하는 적군에 대항하여 혈전을 벌이므로 국군이 군열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다.

(「강원도 비사」-강원일보사)

9. 나무, 언덕, 돌 또는 강의 위치가 외관상 의미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가?

1) 봉의산 : "춘천분지의 꽃봉오리"라고 불리운다.
봉황이 날아가는(혹은 내려앉은) 형세를 취하고 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2) 우두산 : 우수산, 소슬뫼, 소을뫼 라고도 불리운다.
하늘에서 내려와 앉아있는 소의 머리와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강원도-뿌리 깊은 나무 中)
3) 청평사의 오봉산(주봉) : 소가 누운 형상이라 하여 와우지형이라 하고 또는 서울-청평간 상공에서 바라보면 용이 구불거리다가 머리가 휘어지며 누운 지형이라 한다.
4) 붕어섬, 검봉, 바리산 등은 모양새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10. 이 도시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계표가 있는가?

팽우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우수주에 백성들이 팽우가 큰 산과 큰 물을 다스렸다는 표식비(기념비)의 뜻과 하나는 백성들이 그의 공로를 찬양 또는 추모하기 위하여 통도비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11.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리적 지점은 어디인가?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는 축조 되었는가?(권위자들의 진술을 들어라)

춘천 시내의 지리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은 봉의산으로 높이는 350m 이다. 남쪽으로는 도청이 있고 동남쪽에는 한림대가 위치하고 있다. 북쪽에는 소양강이 흐르고 있으며 동남쪽에는 신석기 시대의 혈거 유적이 있다. 또한 7부 능선에는 봉의산성이 있고 봉의사와 소양정이 명승지로 유명하다.

정상에는 봉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KBS, MBC의 송신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간의 체육시설이 있어서 시민들이 새벽 등산 코스로 이용하고 있다.

16. 이 도시의 어떤 지역이 자기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가? 이 도시에서 특유의 영적 환경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지역을 구분해 보아라.

- 천전리 경주 이씨 집성촌 (춘천의 어제와 오늘 중)
- 미군부대-춘천역-근화동을 중심으로 한 윤락문화
- 관공서 중심의 유흥가와 봉의산 중심의 사찰

▣ 역사적인 조사

I. 도시의 설립 이전의 역사

1.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 전설을 살핌 - 팽우 혹은 팽오라는 이름의 인물 추적

(1) 규원사화 - 북애(조선 숙종2(1675년)지음)의 기록

단군왕검의 충성스런 부하로 자연을 관장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 나라안의 큰 홍수가 났을때 이를 다스리어 이 땅을 사람 살만한 곳

으로 평정하였고 이후 이지역을 다스렸다고 전해진다.

(2) 동국역대총목의 기록

우수주 맥국터(쇠머리 고장)에 단군신하 팽오의 통도비를 세운 기록이 있다.

(3) 우수주를 개척한 팽우가 단군왕검의 신하가 아니라 부루 또는 부우의 변용일 가능성도 있다. 부루는 고조선의 역대 47대 임금중 제 2대 임금 〈춘천의 인맥 中 고대편 p.43~46〉

4. 일제의 왜곡사

일본은 일본인의 조상(스사노오미꼬도)이 고대 춘천지역에 살았다고 주장하며 소시모리라는 조상이 소슬뫼지역(현 우두산)에 실존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신사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설"이 아닌 "영유권 회복"에의 궤변을 주장하기 위한 왜곡된 주장으로 보여진다. 「춘천문화대전」「춘천의 역사와 문화」「강원도 선사문화」

2) 춘천의 형성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주요한 주장이 있다.

(1)중국 이주민설 : 중국 북부에서 출발한 "예맥"족의 춘천 정착설 「강원도선사문화」

(2) 한민족 통칭설 : 중국역사속의 동이족(東夷族-한민족)을 칭하는 보편적 특수 명칭으로 예,맥,예맥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춘천의 역사와 문화28」

- 도우미 -

고대사와 유적의 흔적 :

1. 천전리-발산리-삼악산의 유적과 기록에 근거-맥국의 춘천지역 건립설의 뒷

받침

2. 삼국사기의 기록

① 신라 유리니스금17년(40) 맥국의 추장과 연합기록

② 맥국의 추장의 사냥예물 헌납기록

③ 백제 책계왕13(297)의 전사(한과 맥의 침입)기록

3. 637년 신라편입전의 맥국(춘천지역)은 고구려에게 공물을 바치며 자주국을 지킴(예속화 안됨)

〈강원도 선사문화 p.92〉

2. 도시 설립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당시 지도자들의 철학이나 신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나? 도시의 대한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1) 전설

팽오의 자연 평정-단군의 자연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던 충직한 신하였던 팽오가 홍수를 다스려 사람 살 곳으로 터를 닦았다고 전해진다.

2) 고대사의 기록

삼의 권력팽창의 주요 지역으로 신라 예속 이후 군사주둔지 및 정치적 행정중심지의 성격을 가졌다. 이후 지리적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춘천문화대전」「강원도 선사문화」「춘천의 역사와 문화」

3.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어디에서 시작하였으며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름이 바뀐 적은 있는가? 이름이 무엇과 연관이 되었는가? 이름이 혹 마귀적이거나 주술적인 것이 연결되었는가? 이름이

축복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저주를 의미하는가?

1) 고대 : 맥 - 부족국가중심지(현 춘천군 신북면 지역)

2) 이후의 연혁 : 637 우수주(신라 선덕왕 6-삼국사기 37권 고구려지리지 기록)

757 삭주 (신라 경덕왕 16)

940 춘주(고려 태조 23)

1413 춘천국(조선 태종 13)-춘천이라 첫 명명

1946 춘천읍→춘천부 춘천군→춘성군

1949 춘천부→춘천시

1992 춘성군→춘천군

1995 춘천시 + 춘천군 통합

3) 기타

춘천을 지칭하던 고대의 지명으로는 우수주(牛首州) 수약주(首若州) 오근내(烏根乃) 조근내(鳥根乃) 수차약(首次若) 삭주(朔州) 광해주(光海州) 춘주(春州) 안양(安陽) 등이 있으며, 별칭으로 수춘(壽春), 봉산(鳳山)등으로 불리워졌다.

- 도우미 -

1. 우두지역의 명칭 - 고조선과의 연계성을 강조

우두는 백두산의 토칭으로 옛 춘천은 쇠머리고장으로 불림.

백두산은 으뜸산 혹은 頭嶽이라 부르며 마리산 머리산 마니산에서 유래됨.

머리산은 쇠머리산 소머리산 소슬뫼로 변하기도 함.(쇠머리산을 한자로 표기하면 우수, 우두)

따라서 춘천의 옛이름이 쇠머리고장이라 불렸던 것은 현 백두산, 마니산, 우두산을 같은 뜻, 같은 뿌리의 전통으로 보고 단군조선 시대부터 머리산의 신앙을 가진 백두산족, 백산족이 살던 고장임을 나타내는 것. 춘천에 단군조선 시대부터

의 역사가 잔존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현 우두산으로 단군 조선시대 이후 열국시대 때 춘천지방에는 맥국이 자리를 잡게되었음. 또한 춘천전체가 소머리 형상을 띔으로 유래되기도 함. 「춘천의 지명유래」서문 & p.27

2. 오근내 혹은 조근내라는 명칭은 옛사람들의 새 신앙을 나타내는 지명

3. 춘천이라는 이름의 연루 : 강의 흐름을 낀 삼각주의 화려한 봄의 지방색을 말함

4. 이땅의 지명은 그 유래가 소단위 부락적으로 자연적이거나 부락의 수호신, 숭배하는 산과 연결된 지명들이 대부분으로 「춘천의 지명유래」를 참고 할 것.

Ⅱ. 도시의 후기의 역사

1. 이 도시는 나라 전체의 생활, 특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

1) 삼국시대는 각국의 영역 확장 경쟁지역이었으며 한강유역에 근접하여 백제-고구려 - 신라순으로 각 나라에 영토가 유입되었다. 「강원도의 선사시대 91」

2) 통일신라: 삭주(朔州)의 중심지(12개 군, 27개 현의 치소(治所)

3) 고려시대 : 군사적 전략기지의 주요지점이자 교주도-행정중심지(도청소재지) 「춘천의 역사와 문화31」

4) 조선시대 : 태조 15년 군에서 도호부로 승격 (행정적 중요지) 〈춘천의 역사와 문화 37〉

(1) 유배지의 기능-사북면 신포리 살구골 옆의 깊숙한 골짜기가 유배지로 사용되었다. 원한으로 인한 귀신의 장난이 심하여 유배

지를 옮겨줄 것을 정부에 수차 진정하였으나 탄원되지 않아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 현재 지역골은 지옥골의 변천된 이름이다.

(2) 조선 고종 25년(1888) 춘천 이궁 건립

위급시에는 피난궁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화서학파의 근거지이며 척사위정의 강력한 고장이 원유가 됨) → 이후 이러한 지역적 배경은 강원도 도청소재지가 되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했다.(실제 천도는 안 이루어짐) 「춘천의 역사와 문화38」

5)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계획, 조성되어진 도시가 바로 춘천이다. 수도권의 이해 관계와 힘에 의해 정책이 좌우되었고 정부는 대규모 산업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춘천을 수도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 두면서 그 범위 내에서 수도권의 일일관광 휴양지 로 활용하려 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 20년간 '잠자는 도시'로 칭해지며 민의와 무관한 개발제한으로 1973년 이래 지역경제 저속성장. 89년 청평사 관광지 조성계획 이후 관광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으며 기타 지역 경제 및 문화 활성화 작업이 수행중이다. 「춘주문화」「월간 춘천」 96년 7월호 프리랜서 최종인의 글

2. 이 도시에서 특출한 지도자가 나왔는가? 이 도시에 대한 그의 비전은 무엇인가?

(지역 자체를 일으키기 위한 지도자는 아니나 지역성을 알 수 있는 지역인물을 살핌)

박 항 : 춘천 박씨의 원류. 주소지 :춘천 신북면 발산 2리.

박항은 학문진흥에 힘쓴 대표적 인물이다. 몽고군의 봉의산 함락시 부모시신을 찾지못하여 부모와 얼굴이 비슷한 300구의 시신을

장례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몽고 군과 몽고인의 횡포를 막는데 철저하였고, 조정내 부패척결에 앞장선 선각자이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샘밭 사랑마을 (박항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마을 사람들이 붙인 이름)에서 학문설파에 힘썼다.

유인석 : 1842(헌종8년)년 남면 가정리에서 출생. 호는 의암. 양평에서 유학을 섭렵.

내우외환으로 점철된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 의병봉기와 독립투쟁을 이끈 인물이다. 의병봉기를 대표하고 관서지방, 만주, 연해주까지 독립운동을 지도하였다. 1895년 을미의병으로 애국활동을 전개한 때로부터 1915년 만주 망명지에서 독립투쟁을 할 때까지 20여년 동안 의암의 일생은 독립과 중흥의 길로 설명할 수 있다. 고종31년 갑오경장이후 친일내각 적극 반대하였고 민비 시해사건 이후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팔도 의병대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1908년 연해주로 망명하여 독립조직체를 결성하여 지도함. 헤이그 밀사 이상설과 같이 성명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일하였고 세계만방에 조선독립 호소문을 전달하여 해외독립운동을 본 괘도에 올렸다.

유홍석 : 유학자, 의병장, 고병전가사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유홍석은 초기 위정척사파로 후기에는 독립사상가로 활동하였다. 춘천의 을미의병 발생시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정미의병을 일으키기도 했다. 1910년 한일합병이후 중국 요동 회인현으로 이주하여 유인석, 이소응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

윤희순 : 1860년 한양 출생. 의병장 유홍석의 며느리로 19C-20C 여성의병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을미의병, 정미의병, 만주에서 독립

운동가를 적극 도움. 남녀분별이 각별하던 시대에 구국전선에 여성이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의병가 말미에 조선 안사람으로 친일자에게 경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로 가사에도 탁월한 여인이었다. 여성사회참여의 선두적 인물.

김유정 : 1908년 1월 11일 신동면 증리(실레) 출생. 한국문학사의 새장을 일으키는데 일익을 담당한 그의 문학은 토속적인 소재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봄봄〉 〈소낙비〉 〈만무방〉 〈봄과 따라지〉 〈동백꽃〉 〈두꺼비〉 〈산골〉등의 토속적이고 고향의 정서가 가득한 작품을 후세에 남겼다.

김평묵 : 근세 춘천 학풍을 세우는데 큰 영향력을 준 기평묵은 이항로의 수제자이며 화서학파의 학통을 세웠다. 증리에 개설한 독서당은 춘천 유학발전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후에 제천의병, 춘천의병의 정신적 지주를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학자이다.

기타 영향력을 끼친 인물 : 신흠 (유학자. 유배시에 이 지역의 유교를 일으킴)
이항로 (화서학파의 대스승. 춘천유학자들을 가르킴)
「춘천의 역사와 문화」p.56-76 「춘천문화대관」 p.126-155

3. 이 도시의 정부나 정치적 지도층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는가?

고대부족국가 맥국의 신라 편입 이외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으로 전 국가가 몽고의 지배체제 아래에 들어가게 됨으로 영향을 받았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일제 침략기로 일본정부의 지배를 받았다.

6.25동란으로 도시내 지도부의 이동하에 지도체제 空洞과 혼란의 시기가 있었다.(공산권과 민주권)

4. 이 도시의 경제생활에서 의미심장하거나 갑작스런 변화들이 있었는가? 기근이나 경제공황이 있었는가? 기술혁신이나 천연자원이 개발된 적이 있었는가?

1) 전체적인 경제의 기반 : 씨족국가의 집단성의 영향 - 낮은 사회발전지수

2) 잦은 천재지변 : 2년주기의 기근과 재해로 세금 감면을 위한 상소를 올린 기록이 있고 기우제 또한 자주 열렸다. 근간의 기우제로는 1973년 7월 3일 가뭄시의 기우제가 있다.

3) 경제적 혁신

(1) 소양강 - 1967년 4월 17일 착공 ~ 73년 10월 15일 완공 춘천내륙수운시대 개막. 내수면 개발과 호수 관광의 원조.

신북면 천전리에서 소양강을 막아 만들어진 사력댐 (모래와 자갈로 쌓아올린)으로 소양댐 수력발전소 용량은(이십만킬로와트) 우리나라 수력발전 용량의 1/3을 차지한다.

(2) 의암댐 - 신영강의 삼악산 계곡을 막아 건설 1967년 12월 준공.

의암댐의 건설로 중도,위도가 섬이 되었고 의암호가 발생하였다. 신동면 의암리에 북한강을 막아 조성하였으며 발전용량은 사만오천 킬로와트.

(3) 춘천댐 - 1965년 신북면 용산리에서 자양강을 막은 댐.

용수량 일억오천만톤, 발전용량 57600킬로와트인 춘천 수력발전소이다.

4) 천연자원의 개발

춘천옥 - 옥석은 1970년 5월 춘천군 동면 월곡리 소재 김씨종중산에서 발견되었다.

70년이후 현대까지 월곡리에서 발견된 옥석은 백색, 청색, 황색, 갈색, 녹색, 검은색 등 다양한 빛깔이 있다. 품질과 경도가 높은 것은 백옥으로 세계적인 우수성이 익히 입증되었고 월곡리에 매장된 옥석의 양은 1만여 톤으로 추정된다.

「춘천문화 대관」 p.324-325

5) 경제적 손실과 관련 : 6.25로 인해 도시가 초토화 되었다.

6) 재건 : 1980년 소년전국체전 준비관계로 거리모습의 현대화가 추진되었다.

5. 이 도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주민들이 있었는가? 이주민들은 도시의 어떠한 영향을 끼쳐는가?

1961년 5.16이후 정부에서는 62년 3월 의암댐 춘천댐 건설을 시작하여 10여 년 간 많은 노무자들의 춘천 유입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춘천 전체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6.25이후 미군부대의 이동으로 3차 산업과 사창가 등의 저속 문화가 유입되었다.

미군 부대의 시내 이전으로 (대룡산에서 현재 근화동) 화전민 유입되었다.

6. 이주자들은 소수민족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민족이나 종족 집단들은 서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살아왔나? 인종차별을 합리화 시키는 법률이 있었는가?

이 지방의 일반적인 씨족은 다른 씨족의 이주시 오히려 이주민에 동화되는 특성이 있는데, 천전리의 경주 이씨 문중만은 외래씨족을 극단적으로 배타하여 이 마을의 경주이씨 외에 다른 씨족끼리 이웃사촌계를 만들기도 했다. 「춘천의 어제와 오늘」p.174-175

70년대 초 정부의 화전정리 정책 사업에 따라 산골 주민(사암 3리 지역의 경우)의 많은 수요가 생계수단을 바꾸어야 했고 생활터전을 잃기도 했다.

7. 이 도시의 지도자가 약속을 어긴 것이 있나? 그 내용은 무엇인가?

정치적 공략으로 많은 지도자들의 도시 개발과 시민 생활에 대해 보장하였으나 실천적이지 못하였고 최근 30년 간 타지역과 비견될 만큼 경제가 근대화되지 못하였다.

8. 이 도시가 전쟁의 직접 영향이 있었나? 전투가 벌어진 적 있나? 피흘림이 있었는가?

1) 삼국시대:삼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진출지역
2) 고려시대: 군사적 전략기지로 항전사의 중요지역
① 글안족침입(고려 고종4(1217년)-봉의산 항전
② 몽고족의 침입 - 제4차(야굴군) 고종40(1253년) 몽고침입시

봉의산 항전-주민 전멸하는 혈전 「춘천문화대관」 p.53

3) 1592년 선조25 임진왜란 당시 강원도 조방장 원호장군의 증리 진병산 혈전

4) 1896 년 1월 20일 의병봉기 : 화서학파 중심 이소응, 홍시영 외 9명 5천~6천 명 척양 척왜. 그이전 김평묵, 유중교, 유인속, 홍재학 등의 화서학파 척사위정실천철학

5) 항일투쟁: 1908년 11월2일 지용기의병장과 의병군 13명이 전사. 정미의병의 항전.

약사원 백사장-의병들이 친일인물을 처형한 곳

6) 6.25의 영향으로 잦은 전투 발생. → 자연적 조사의 11번 참조

- 도우미 -

1. 1919년 미온적 3.1운동 → 일제의 민감한 경계(도청소재지), 교통시설취약 (3.1.전파 느림)

3월 12일부터 일제 보병 제79연대의 병력 1개중대 주둔

→ 서울의 3.1운동 참여한 천도교인 유입으로 3.27,3.28일에 발생

2. 을사보호조약후 춘천군 남면 서천리 근방 명퇴산 의병항쟁

3. 1926년 10월 8일 춘천고보 동맹휴업

1929년 12월 19일 20일 춘천고보학생들의 교내 만세운동

4. 남면 가정리는 의병장을 많이 배출함

9. 이 도시에서 가난한 자나 소외를 느끼는 자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아왔는가? 정치, 경제, 종교지도자가 탐욕스럽고 부정을 자행하고 있는가?

1940년대 일제는 춘천군에서 청년 200명을 불러 그중 100명을 군수공장과 전쟁터, 탄광등지로 징발하였던 역사가 있다. (정부의 사욕을 위한 노동력의 착취)

70년대 초 정부의 화전정리 사업 시행으로 사암 3리의 이곳에 주거하던 화전민과 산골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생계수단을 잃었다.

도시화에도 공직자의 부정이나 부패가 없어 공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으며 근간 이 지역의 주요 인사 및 기관장들이 기독교인으로 도시전체의 기초질서와 도덕률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

- 도우미 -

근간 시정의 복지정책 : 재가 호스피스 간호사업 확대, 가정방문 건강 상담재운영,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 개시(저소득층 대상), 농촌 물리 치료 시범사업,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과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등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97년 선정 "살기좋은 도시"(복지,경제등 전반적인 사한 고려) (97년 6월 9일자 각종 일간신문)

10. 이 도시에 영향을 끼친 자연 재해는?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14C부터 평균 만 2년마다 풍재, 수재, 충재, 우박, 지진 등등의 여러 가지 재해로 인가가 표몰되거나 인명피해,마소가 유실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따라 지방행정관이 조세감면이나 구제의 탄원을 조정에 계속적으로 상소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왕조실록」

11. 이 도시의 표어나 모토가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춘천시

시화 : 개나리 (노란색은 평화애호사상/시민의 불굴의 투지와 단결, 전진적 자세상징)

시목 : 은행나무 (순결하고 바르게 사는 시민상)

시조 : 산까치 (소박하고 아름답게 사는 시민상)

시기 : 흰색바탕 (시민의 순수/청순/솔직함과 민족혼상징)

산 (봉의산을 중심으로 시민의 푸른 정기와 자연을 바탕으로 비약하는 시의 발전상과 기상을 상징)

자연과 물 (봉의산을 중심으로 춘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소양강 물줄기 및 호반의 도시임을 상징하며 관광 /문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무궁한 자연의 포용력을 상징)

- 도우미 -

춘천시의 '97 세계화 전략

1. 취약한 산업구조 조정

2. 환경 모범도시 건설

3. 획기적인 도시면모 일신

4. 지역경제 활성화

5. 도,농 통합에 따른 농업구조 개선

6. 수준 높은 문화예술 도시

7. 명소와 이벤트가 어우러진 관광산업 도시

8. 체감복지를 실현하는 도시 〈춘천시 '97 시정보고〉

(주요시정) 21C 관광/통신/교육의 도시

: 춘천 호반텔(컴퓨터 통신) 조성 「강원 정보문화」 3월호

: 89년 청평사 관광지 조성 계획 / 96 현재 관광 현황- 유원지. 공원.비지정관광지(133개소) & 소양호,의암댐등 자연자원 44개소

「월간 춘천」 '96. 6월호 : 96년 전국체전등 행사유치

: 애니메이션타운건립 (민관합작 벤쳐 캐피탈회사 '춘주멀티미디어' 설립 & 멀티미디어 벨리조성) 의암호의 상중도에 40만 평에 달하는 테마파크인 워터랜드와 영화 오픈 세트장 건설,

소양강 주변에 애니타운 건설, 멀티미디어 기술 지원 센터 건립, 멀티미디어 예술 전문대학 건립, 상설 전산교육장 운영, 호반텔등의 통신망과 인터넷 구축 및 만화축제 개장(97년 7월 25일부터 8월 3일)

: 멀티미디어 영상 산업 도시화 (국내 최초 다중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춘천-강릉-원주를 잇는 골든 트라이앵글 정보화 체제 구축)과 정보화 산업계획(강원대학교 공동 통합 물류 정보시스템 연구소 설치 등 산업화의 저해요소를 정보화로 바꾸는 계획) :97년 6월 7일자 조선일보 굿모닝 디지틀 34면 상단)

12. 이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즐겨 듣는가?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3. 오늘날 이 도시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들의 도시의 긍정적인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 도시의 부정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은 무엇인가?

참고) 산이 많아 (살림이) 궁벽하고 산자수명의 으뜸이며 인성이 순후하다

영서의 경우 지리적 요인으로 진취적 기상이 있으나 강원정서를 대표하는 춘천의 경우 소극적이고 보수경향이 짙다.

부정) 경제적 기반 취약(살고 싶으나 살기 힘든 동네)/젊은이의 도약 발판이 없음

애향심결여 / 현실안전주의.

긍정) 문화와 교육의 도시. 뛰어난 자연경관을 소유한 휴양의 도시.

Ⅲ. 도시의 종교 역사와 현재

* 비 기독교적인 종교

1. 이 도시가 건설되기전 이 지역에 살고있던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습이나 견해들은 무엇인가?

고인돌과 같은 조상숭배 사상과 전 한반도에 걸쳐 행해지던 애니미즘, 농경생활지의 특성인 샤머니즘적 요소가 강하다. 특별히 부락적으로 다양한 수호신에게 제를 지냈고 마을과 관련된 산을 숭배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2. 이 도시의 건설에 있어서 종교적인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했는가?

도시형성 전부터 백두산 - 우두산 - 마니산으로 연결된 제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해 왔다.

고인돌 유적의 혈거지에서도 제를 지냈다. 〈역사적 질문 A-1,2,3 참조 〉

3. 비기독교인들이 대단위로 이 도시에 이주한 적이 있는가?

1961년 5.16이후 정부에서는 62년 3월 의암댐 춘천댐 건설을 시

작하였고 이때 많은 노무자들이 춘천으로 유입되었다. 이로인해 춘천 전체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4. 프리메이슨과 같은 비밀 사교집단이 이 도시에 있는가?

5. 이 도시에서 무당들, 사단주의자 집단 또는 그런 유의 다른 이단들이 활동한 적이 있는가?

일제기에 우두산에서의 강압적인 신사 참배의 기록이 있다.

천도교 : 일제시기 민족자주적 정신으로 항일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춘천의 역사와 문화」

여호와 증인 : 현재 한국전역에 1,370개교회 8만여 명의 활동적인 증인이 있다.

1956년 6월 7일에 여호와 증인 춘천회중이 설립된 이래 현재 운교동 172-5에 위치하고 있는 왕국회관을 중심으로 활동중이다. 춘천시에는 5개의 회중이 있고 신북과 창촌에 각각1개소, 전체 약 380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지역장 스펜서 HILL에 의해 1969년 교회가 설립되었다. 강원지역 등록교인은 1395명이고 춘천지역에 등록한 교인은 약 200명에 이른다.

통일교 : 1956년 1월 29일 효자동에서 남궁철이 개척전도를 시작한 이래 현재 약280명의 통일교 신도들이 활동하고 있다.

천도교 : 강원도에 천도교가 전파된 것은 1869년의 일이다. 천도교는 3.1만세운동때 부터 민족운동으로 힘을 발휘하였고 1919년 3월 당시에 만세운동가로 이름이 밝혀진 천도교인만도 수백 명에 이른다. 춘천 교구실은 동면 만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9년 강원도를 총괄하는 춘천교구가 성립되었고, 1995년 이름이 강원교구로

바뀌어짐.

원불교: 원불교 춘천교단에 소속되 있는 신도수는 1987년 12월 31일 현재 남자 158,965명 여자 210,266명 으로 도합 369,231명이다. 1996년 현재 춘천시 원불교 교도수는 출가교역자 23명 신도 13,000여 명이다. 「춘천 백년사」 하편 p. 1752-1755

무속신앙은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현재에도 시내 곳곳에 산재하며 신한국당 중앙당 상무위원으로 송죽법사라는 이가 활동하고 있다.

*. 기독교적인 조사

1. 이 도시의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는가? 또 어떤 상황에 들어왔는가?

1800년대 말에 일찍이 경성교인 나봉식과 정씨라는 이가 춘천지역을 순회하며 전도를 시작하였고 뒤이어 거랑포교인 이덕수, 김진수씨가 전도활동을 벌였다. 경성주재 무야곱(J.R.MOOSE)선교사도 이 지역을 순회전도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1897년 10월 8일 서울개최 제1회 조선남감리교선교회에서 춘천이 선교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1902년에는 순회전도사 김기순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같은 해 이덕수 전도사가 봉의동에 초가 다섯 칸을 매입 사랑채 두 칸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본격적인 전도활동을 개시하였다. 지금의 춘천중앙감리교회의 모태가 바로 이때 태동되었다.

「춘천100년사」 하권 1704-1707

2. 과거의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이단에 빠진 경우가 있는가?

B-3. 기독교공동체가 이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또 이것으로 변화는 있었는가?

일제침략기에 감리교회, 미국선교부와 선교부 부설병원이 향토적 3.1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1909년 리드의료선교사 시료소를 세움으로 의료활동이 전개되었다.

1920년 병동신축/확장으로 강원 중부의 유일한 병원이 1926년 폐관되었다.

1910년 Miss. L.EDWERD가 유치원, 성경반 등 여자관을 개관한 이후에 여러 여선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졌고 이어 총독부 인가 5교학교가 설립되었다.

1920-23년 도마련선교사가 다달이 발행한 세광잡지는 유명한 월간지로 지금도 남아있다. 「춘천 백년사」

4 이 도시에 있는 기독교는 발전하고 있는가? 정체상태인가? 감소상태인가?

인구이동으로 인한 개척교회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270여개 교회 산재) 성시화 운동과 각종 교회의 교육/사회활동 등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 관계

1. 이 도시에서 종교들간에 알력이 있었는가?

2. 기독교인들간에 알력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가?

3. 이 도시에서 교회가 분열된 역사가 있었는가?

▣ 영적인 조사

I. 비기독교적인 조사

1 이 도시의 과거나 현재와 관련된 주요 신들이나 지역 귀신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한국의 토속신앙과 유교문화의 영향 가운데 조상 숭배 정신이 이어오고 있다. 일부 마을에는 각각의 독특한 신주들을 모시고 있다.

2. 주술, 마술, 예언, 사단주의 프리메이슨, 몰몬주의, 동방종교,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것과 관련있는 사당, 제단, 신당, 기념물 또는 건물은 어디 있는가?

1) 서낭당

동산면 조양2리(前치곡리, 음력 3월 3일 아침 7시 대감의 모습을 한 서낭신의 화상에 서낭 대신지위라는 위패를 함께 모심)

덕두리(음력 3월 3일, 9월9일, 두 차례씩 마을 뒷산 입구에서 실타래 소지 종이를 태우며 제를 지냄)

동산면 봉면 2리 (큰 상면암바위의 작은 당에서 음력 3월 4일 오전에 제를 지냄, 이를 통해 마을의 풍년과 질병을 주관하는 신에게 풍년 무병장수 벽사를 기원함)

서면 방동리 (매년 10월 15일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산신에게 산천제를 지냄)

남면 가정리 (현재는 지내지 않지만 삼리인 재골(제궁동)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돼지머리를 제물로 바치고 평화를 기원하는 산제사를 지냄. 제사 후 농악대와 거북이가 어울러 당집부터 마당굿을 함)

2) 기타 이단 종파와 사당, 제단, 신당, 기념물의 위치는 별첨 참조

3. 과거에 이 도시가 건설되기 전부터 우상숭배가 자행되던 지역은 어디인가?

1) 3대 기우제 - 기우제는 보통 신용연지역에서 지내나 효력이 없을 경우 제2, 3의 장소로 옮겨 지냈다.

(1) 신용연지역. 소양강과 자양강의 합류지점 중도 남단 신용연 백사장에서 용신에게 기우제를 지냈다.(춘천지역의 필요에 따른 대부분의 기우제를 지냄) 기우제의 초혼관으로는 도호부사, 아헌관으로는 사대부중의 명망있는 인물, 종헌관으로 지역내의 비중있는 중인이 세워졌다. 두 강의 합류 지점의 소용돌이 방향에 따라 풍,흉을 점치기도하고 깊음의 소용돌이에 용이 산다고 믿었다.

(2) 대룡산 정상에 제2의 기우단이 있다.

(3) 가리산 정상에 제 3의 기우단이 있다.

2) 춘천 기우제 - 1973년 7월 3일 동면 지내3리 앞 현재 소양댐 가운데 있는 미역바위에서 마을 부녀자들이 메와 제주를 진설하고 기우 지성을 올렸다.

3) 봉의산신제 - 제물을 산신에게 올려 평화를 기원했다.

4) 술어니 거리제 - 남면 방아리 술어니마을은 2년마다 1차례, 2월1일에 장승을 새로 세우고 거리제를 지내고 있다. 정월 하순에 제주를 선출하고 2월 1일에 제주와 제일이 결정되면 마을민은 부정을 타지않도록 금기를 지킨다. 이것은 마을의 질병과 재앙을 막는

수호신적인 개념이 크다.

5) 우두산제 - 우두산의 제천단은 단군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역사적 유적으로 이 곳에서 매년 10월 남녀가 좋은 옷으로 입고 하늘과 조상에 제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우두산에는 충렬탑이 있어서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산화한 이들을 기념하고 있으며 일제 시대에는 이곳에 신사를 지었던 적도 있다.

6) 밭치리거리제 - 춘천군 동산면 종양2리 밭치리에서 마을의 안녕과 태평을 위해 매년 3월 삼짓날이나 6월 중고일을 택하여 장승과 수살 혹은 따오기라 부르는 솟대를 세우는 거리제를 지냈다. (솟대제 - 장대 위에 새를 세우고 장승과 함께 세우는 행사)

7) 수리봉제 - 사북면 고성리 신북면 발산리 경계 높이654M의 산을 수리봉이라 하며 머리산, 마니산 이라는 뜻으로 우리민족의 천제가 행해지던 곳이다.

8) 키씻기기우제 - 동면 지내리. 아낙내들이 키를 몽당비로 두드리며 용왕이 비를 내려주기를 기원했다.

9) 지내리의 기우제 - 신북면 지내리. 은행나무의 영력을 숭배하며 임신을 원하는 아낙내의 기원품이다.

10) 발치리 성황제 - 동산면 조양리 발치리에 전하는 승천한 아기장수 전설을 따라 전치곡리를 밭치리라 부른다. 매년 3월에 아기장수를 부락의 수호신으로 모시며 성황제를 지냈고 동산면 봉면 2리, 남산면 방하리드의 장승제와 어우러진다.

11) 돌탑제사 - 거리제/건드래탑/탑고사/탑거리제/탑제라고도 부른다. 음력 정월 초사흘에 가장 많이 드려지며 정월 대보름에 지냈다. 춘천군 동면 월곡리 돌탑, 건드래 마을(물이 항상 부족하다는 뜻)의 물을 수급하기 위해 쌓는 수구막이적 탑제이다.

12) 용수제 - 일년내내 샘이 마르지 않기를 기원하는 부락제로

북산면 추곡리 낙수제가 대표적인 용수제 중의 하나이다(추곡약수). 음력 3월1일과 10월 1일 두 번에 걸쳐 제사를 지낸다.

13) 등선계곡 - 금선사는 금강산 유점사의 수도 이화웅 스님이 창건한 곳으로 감로의 약수와 함께 삼악산 명기가 모인 영험한 기도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14) 기타

(1) 서면의 장군봉 : 정상의 중도쪽 동굴에서 위기시에 나라를 구할 장수가 나온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길 개간과 일제 시대에 자행된 말뚝박기 작업으로 지맥이 끊어졌다고 믿고 있다.

(2) 동면 상걸 1,2리의 대룡산 산신제 / 동내면 거두 1리의 서낭제 / 남면 가정 1리의 대궁동산제 / 남산면 방하리 장승고사 / 서면 덕두원 1리의 산제 / 서면 안보 1리의 산제 / 서면 서상 1리 노제 / 서면 방동 1리의 산천제사 /사북면 오탄 2리 1반 대추나무골 산치성 / 사북면 고성 2리 산천제사 / 서면 덕두원리 주민의 왜가리 신주모시기 풍습과 매년 신주를 위한 제사 / 우두산 솟을뫼에 후손을 원하는 아낙내의 기원 / 영지로 여겨져 치유와 후손을 기원하는 청평사의 연못 / 추천지방의 작두굿 / 서면 금산리의 말무덤 / 웃샘밭의 동북편에 있는 고인돌 혈을 제단으로 사용 / 정승바위에도 기원 /북산면 물로리의 기우제 등이 있다.

(3) 풍수지리의 강한 영향

(예) 증리 금병산, 신숭겸묘와 청풍부원군의 묘자리, 청평사터 등이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4. 우상숭배와 연관된 기예품이나 유물이 있는 문화센터들은 어디에 있는가?

어린이 회관의 전시실에 몇 점의 역사적 유물(불교문화유물포함)이 전시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박람시설은 97년 6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고(古)사찰 터임을 알려주는 당간지주가 근화동에 위치하고 있다.

5. 이 도시의 지도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이방인이나 정사에게 바친 적이 있는가?

도지사급의 지방관이 봉의산제와 3대 기우제의 초헌관의 역할을 계속해왔다.

6. 이 지역에 처음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나 이도시 건설한 사람들이 이 도시를 저주한 적이 있는가?

전설을 살핌 : 여러가지 아기장수의 전설에서 유추할 때 인물이 날 경우 역적이 될까하여 마을 사람 스스로 인맥을 끊어버리려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건설자는 아니나 일제기에 이 지역의 인맥을 끊기 위해 장군봉에 쇠말뚝을 박은 기록이 있다

Ⅱ. 기독교적인 조사

1 이 도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떻게 대접하여 왔는가?

기록에 의하면 신유사옥으로 국가전체의 박해 혹은 일정의 민족운동의 발산지로의 탄압외에 춘천에서 다른 박해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2. 복음전파가 쉬웠는가? 어려웠는가?

춘천지역의 일반적인 유교성향에도 불구하고 처음 복음이 전파될 당시 지역 주민들은 반감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특별히 젊은층에서는 기독교가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일부 어른들은 연애당이라고 하며 좋지 않게 생각하였다. 「춘천의 어제와 오늘」 p.185

3. 교회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올바른 교회는?

근화동/후평동/퇴계동/효자동/석사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북산면 일대는 희소한 편이다. 그 외 지역에는 대부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본 자료는 예수전도단 WSB TEAM의 춘천의 영적상황 조사를 옮겼습니다. 이 자료의 시각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 선언문
Holy City Movement Chunchon Declaration(1997)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모인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일한 주님안에서 서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대 기독교 선교와 기독교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개인 전도를 힘쓴 결과 성령님의 역사로 수 많은 죄인이 회개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과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성화의 열매는 참으로 빈약하여, 우리의 가정과 사회, 도시와 국가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세속화의 도전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복음화 사역은 미약하며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춘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속에 춘천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 것에 대한 꿈을 주셨다. 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려는 시도가 기독교 역사상 전혀 없었

던 것은 아니나, 이것은 오래전에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한 도시에 속한 모든 영역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춘천에 속한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한다. 성시화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도시에 충만한 상태로서 이는 그 도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상태를 말한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초청을 받으며, 춘천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 가정적 · 교회적 · 시민적 · 국가적 삶이 제사장적 삶으로 성화되어서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시화운동은 첫째로 복음전도 운동이다. 복음전도에 있어서 성시화운동은 중세에 일어났던 무력강점식의 십자군적 방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비폭력 · 적극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과 나눔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성숙된다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가정이 변화된다면 사회가, 사회가 변화된다면 국가가, 국가가 변화된다면 이 민족과 세계가 변화될 것이다. 성시화운동은 둘째로 교회갱신 운동이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나라의 대행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현시대의 교회는 그 어느때 보다도 세속주의의 거센 유혹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의 교회갱신은 영원하신 말씀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는 보배

로운 구세주의 피로 하나되고 회복된 모든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 가신다. 성시화운동은 셋째로 사회개혁 운동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 명령과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회적·문화적 책임도 부여하셨다. 따라서 이 세상의 도시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불합리와 문화의 왜곡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주권아래 굴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복음전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성화적 삶의 노력은 교회갱신의 사역으로 이어져야 하며, 교회갱신의 불꽃은 춘천안에 속한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개혁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이 일은 한 개인 혹은 몇몇 교회나 단체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집중하여 다양한 은사를 각 삶의 터전에서 총체적, 입체적 그리고 역동적으로 나타낼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시화운동은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과 단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사역을 존중히 여기며, 이 다양한 힘을 모으자는 운동이다. 다시말하면,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노력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4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를 모으는 일이다. 우리는 기도없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연합중보기도 모임과 작은 기도 모임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둘째, 춘천성시화를 위한 연구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법률·학원·예술·언론·지방정치·지역경제·도시계획·환경 및 선교등의 분야에서 영감있는 연구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훈련의 필요성이다. 훈련없는 군사들이 전투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없듯이 영적전투에 나서는 주님의 일꾼들은 말씀과 교훈에 합당한 삶을 위한 적절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고행이나 금욕 및 율법주의적 방법이 아닌 개인적 경건과 덕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건전한 자기절제의 훈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기꺼이 치루어 나가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연합의 필요성이다. 분리주의적 종파주의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원들이 분산되지 않고 한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될 때, 춘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이 모델과 모여진 힘이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모델과 원동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춘천성시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1996년 9월19일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창립한 춘천지역의 교계 목사와 지도자·기독교기관장·기독단체장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 춘천성시화를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와 헌신의 씨앗을 뿌려오신 많은 분들의 힘과 정신을 이어받아 그 열매로써 춘천성시화선언문을 널리 공포하여 춘천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의 결단과 헌신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선한 뜻과 목적을 따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창1:1, 히1:3). 태초에 큰 권능과 주권, 지혜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마지막 날

에 인류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두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개발하며, 지키고, 가꿀,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할 영광스런 청지기의 직임을 주셨음을 감사한다(창1:26-28, 벧전2:9). 그러므로 천지와 천지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2.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한 일반계시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어느정도의 지식을 갖도록 하셨음을 인정한다.(롬1:19,20) 그러나 우리는 일반계시로 나타난 불충분한 진리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신인(神人)으로 죄인을 위한 유일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딤전2:5,6)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행4:12)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할 것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입이 그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린다.

3. 하나님과 도시

인류와 인류 문화의 결정체인 모든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이며, 그 도시의 모든 소산과 영광은 오직 유일하신 소유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고사하고, 인간의 자의적 부패성과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 속에 극도로 오염되어, 왜곡되어 왔다. 첫 사람 아담은 청지기적 사명을 망각하여 에덴 동산이 사탄에 의해 훼파되도록 방치하였으며, 그후 가인의 문화로 대변되는 도시 문화 또한 죄와 사탄의 권세에 종노릇하였다(창4:16-26). 우리는 성경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시의 멸망 원인이 '죄악이 심히 중할' 뿐 아니라, 그 도시의 죄악을 중보하고 대신 짊어질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임을 알고 있다(창18:1-33). 죄악의 도시는 그 문명의 화려함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 아래 있으며, 그 진노는 결국 예상치 않은 때에, 예상치 않은 모습으로 덫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눅21:34).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아직 낮'(요9:4)일 때, 모든 도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단한다.

4. 성시화운동과 춘천

성시화운동이란 그 도시의 모든 심령마다 그리스도화 되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 되어, 한 도시 전체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지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총체적 복음화 운동이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의 계시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 반항한 모든 세속 도시는 멸망하고, 하늘로부터 준비된 새 예루살렘 시가 내려옴을 보았다(계21:10).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슥14:20-21)이라는 환상을 보았다. 또한 전 유럽이 종교개혁의 불길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존 칼빈은 스위스의 호수의 도시 제네바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고귀

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후 지금까지 현대적 의미에서 한 도시 전체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시키려는 시도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춘천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1972년 가을의 춘천에서 열렸던 성시화운동의 꿈을 이어받아 이 시간 이후부터 '춘천은 하나님의 도시'임을 널리 천명한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도시를 위하여, 우리의 은사를 계발·발휘하고, 춘천의 전 심령뿐만 아니라,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등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되심이 나타나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한다.

5. 성시화운동과 영혼 구원

우리는 영혼 구원의 노력 없이는 어떠한 도시도 참된 의미에서 복음의 도시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한 도시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도시는 사회적 제도나 운영이 기독교적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성시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며, 영혼 구원은 도시 선교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는 종교와 인종, 관념의 차이를 넘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구원은 오직 거짓 신과 우상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과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밝힌다(고전1:30). 또한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야말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임을 믿으며,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신실하고 긴급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힌다.

6. 성시화운동과 비그리스도인 · 공권력

우리는 이 도시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은 어떤 이유로든 강제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자유와 자발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거나 미움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상 종교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또다른 죄악과 만행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한다. 그러므로 성시화운동은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대로 모든 시민이 함께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도시를 만들려는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우리는 공권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받아들이며 감사한다. 공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집행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의 평화, 백성들의 안위에 기여할 때만이 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롬13:1).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제정된 모든 공공의 법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나, 통치권을 장악한 국가 권력이 명백히 반인륜적, 반민족적, 반하나님적으로 나아갈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감당하여야 할 예언자적 사명도 있음을 천명한다. 아울러 개인 시민의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 사회세력을 지지하지 않으며, 단지 종교적 이유만으로 특정 인사를 지지하지 않음도 널리 밝힌다.

7. 성시화운동과 영적전투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도시를 덮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영을 대적하여 싸우고, 도시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와 도시를 전복시키고, 성시화를 향한 모든 사역을 약화시키고,

중지시키려고 애쓸 것이다. 우리는 이를 미리 경계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적 전투는 기도를 통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하고, 진리와 기도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안다. 중보기도와 영적 전투를 통한 춘천에서의 승리는 세계의 성시화운동의 모델이 되고, 출발이 되어 전세계 곳곳의 도시마다 영적 싸움의 승리가 전파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

8. 성시화운동과 교회갱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성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여타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적(Sign)이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나라의 선취임을 믿는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러한 이상을 향하여 갱신되어야 한다. 성시화운동의 원형은 사회로 향하기 전해 이미 교회속에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 교회 및 모임들이 때로 우리의 불충성과 무관심, 상호 비방으로 인해 자주 갈라졌으며,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며 이것을 깊이 슬퍼한다. 이제 한 주님, 한 성령, 한 아버지를 모시고, 성시화의 목적을 위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모든 불일치를 버리고 연합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모든 복음적 교회와 단체, 모임은 성시화란 목표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 모든 교회와 단체, 모임은 주님의 인도와 모본을 따르는 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으며, 평등할 뿐아니라, 상호 종속되지 않으며, 상호 보완, 협력해 나가야 할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9. 성시화운동과 차세대 전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2:17) 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이 운동이 우리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만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 청소년 등 차세대에게 계속하여 체계적으로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 성시화운동의 체계적인 정립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성경적인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고, 선교 단체와 기독교 단체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0. 성시화운동과 민족 · 세계 복음화

성시화운동은 어느 한 도시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우리는 춘천이 모델이 되어 전국 각 도시로 성시화운동이 확장되기를 소원한다. 복음이 우리 한민족에게 전파된 이후부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기도가 멈추어진 적이 없었다. 비록 지상에 복음적 의미의 온전한 기독교 국가가 세워졌던 적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백성이 되게 해 달라는 소원이었다. 이제 우리 민족 전체가 복음화 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지역이 복음 위에 서야 한다. 특히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 도시들이 복음 위에 서지 않고서는 한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은 요원한 것이다. 우리는 총체적 선교의 모델인 성시화운동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나아가 전세계의 모든 나라와 도시로 전파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의 모든 여타의 선교 방법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총체적

선교 모델인 '성시화운동'을 통해 세계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 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되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1. 성시화운동과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성시화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권세를 통해서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이 땅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거부한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날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막14:62)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계21:1-5) 성시화운동은 그 날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신앙을 가지며(벧후3:13), 우리는 이 신앙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그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한다.

12. 성시화운동의 정신과 방법론

성시화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도시에 충만한 상태로서 이는 그 도시에 속해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온전

히 누리는 복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성시화는 전도 운동, 교회 갱신 운동, 그리고 사회 개혁 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되는 기존의 운동, 단체의 활동 등은 계속 격려되어야 하며 이들은 서로 겸손한 자세로 협력 및 동역자적인 관계를 구축 해 가야 한다. 즉 운동에 있어 각 개인과 교회 및 단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유익한 재능과 은사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성시화운동은 성경이 보여주는 바, 말씀, 기도, 성령, 사랑의 방법을 택한다. 세상적 방법과는 분명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따르자는 것이다.

12개항의 고백

1. 우리는 춘천성시화 선언문을 토대로 계속적인 춘천성시화의 사역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관심과 계획을 받들어 청지기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질서를 지키고 가꾸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3. 춘천 성시화는 그 어떤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춘천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일어나는 인격과 삶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개인의 영혼구원을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신실하고 긴급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것을 결의한다.

4. 그리스도의 주권이 춘천전역에 인정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춘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개와 성화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쓴다.

5.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공권력을 순종하되, 불의한 통치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6.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임을 명심하여 이 영적싸움에 승리할 것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7.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적 요소로 인해 소속된 교단과 단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 소망, 한 주님,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을 받았음을 명심하여 모든 분열과 불일치를 회개하고 주안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힘쓴다.

8. 춘천성시화의 과업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되도록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9. 총체적 선교 모델인 춘천성시화운동을 타 지역에 확산시켜 민족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가 되도록 힘쓴다.

10. 춘천성시화운동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결코 완성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1. 춘천성시화운동은 말씀, 기도, 성령과 믿음에서 힘을 공급받아 비폭력적이고, 섬김의 방법으로 실행할 것을 힘쓴다.

12. 춘천성시화운동은 특정인·특정교회·특정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나온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나타나도록 겸손하게 일할 것임을 다짐한다.

1997년 11월
성시본부출범 1주년을 기하여

부 록

〈'94 복음과 춘천 토론회 지상중계〉

예수, 성서,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는 도시(1)

사 회 : 이영길 선교사 (인도선교사)

발 제 : 문선재 박사 (강원대학교 총장)

토 론 : 안동규 교수 (춘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윤태호 목사 (늘푸른교회, 예수제자운동 대표)

장근성 목사 (한국기독학생회IVF 강원지역 대표간사)

조남진 장로 (한국선명회 춘천지부장)

한 균 목사 (평화감리교회)

(토론참여자의 직함은 94년 토론회 당시를 기준으로 실었습니다)

사회자

춘천성시화 운동의 1세대로서 지금까지 22년을 성시화 운동을 위해서 뛴 경험을 가지고 좋은 발제를 해 주신 문선재 강원대학교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성시라는 말에서 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에 가본 일이 있는데 그곳의 기독교 인구는 채 1%가 않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의 페날라 라는 지역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 속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 한 지역이 주님께 드려진 페날라에서는 인도의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특별히 인도선교를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전 인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춘천은 미래에 어떠한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22년 전에는 성시춘천의 꿈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러한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서 가장 구체적인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토론의 특성은 복음전도 선교 단체와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가 같이 동시에 초청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춘천 성시화 운동의 보다 종합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진 장로

이 운동의 처음은 70년대 후반에 당시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표 간사로 부임해 왔던 윤수길 간사를 중심으로 문선재 총장님을 비롯해, 이수님 장로님, 김형무 집사님, 정길현 장로님, 이학규 장로님, 이승호 장로님 등 몇몇 분들의 성경공부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C.C.C에서 주최한 전국민족복음화 운동요원 연구회에 다녀오면서 민족복음화에 대한 꿈을 품었고 기도하던 중 춘천을 복음화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선재 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춘천을 성시화하자는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고 CCC와 춘천에 있는 교역자들이 뜻을 모아서 72년에 전국에서 5천여명이 모이고 춘천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 약 만여명이 집회를 하는 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윤실 안동규 교수님께서 춘천성시화운동과 기독교인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동규 교수

성시화에는 윤리가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윤리란 옳고 그름의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옳고 그름 보다는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하는 선호를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옳고 그르냐는 문제를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옳고 그른 문제를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작된 기윤실은 성경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옳은 일은 하고 그른 일은 하지 말자는 순수한 운동단체입니다. 기윤실 운동은 본인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성시화와 가장 관련된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시가 영어로는 holy city인데 거룩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장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옳은 운동을 하자는 것

입니다. 쉐퍼 박사는 기독교 인구가 10%가 되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를 넘은지 오래됐고 25%, 50%를 향해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대해 별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 의로움, 거룩함, 바로 이런 것이 성시화에 관련된 기독교 실천운동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균 목사

18세기 초 영국사회는 극도의 갈등과 무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왕정과 청교도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치한 왕정과 교리에 빠진 청도교가 가득한 영국사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사회는 유치장으로, 한집 건너 술집이 창궐하고 매춘이 성행한 도시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종교는 영감도 열정도 없고 교회는 다 공동묘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세 유럽의 사조가 그렇듯이 계몽주의, 주지주의, 성경의 말씀인 초월적인 믿음은 퇴색하고 이성주의가 온 영국을 휩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웨슬레는 말씀으로 회심됩니다. "나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변화된 사람으로 그의 복음운동이 시작됩니다. 영국국교를 대항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웨슬레는 개인의 주님과 역사의 주님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주님은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키며 진정한 영적운동은 진정한 사회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레가 규정한 세 가지 복음화 운동이 있습니다.

경건주의, 아시다시피 가슴의 종교입니다. 웨슬레는 머리의 종교는 소용이 없다. 마음의 종교, 가슴의 종교가 필요하다며 의식, 교

리, 신조에 집중하는 그 당시 국교에 대항해서 뜨거운 체험과 변화의 삶을 강조하는 경건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세계를 전도하여 복음화 시키자는 의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활동주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인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적 성결, 사회적 변화를 말합니다. 웨슬레의 회심으로 18세기 영국은 건져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견지한다면 우리도 춘천을 복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피종호 목사

일본 그리스도의 전도협회 순회 강사인 차인순 씨의 '교회성장은 크리스천이 방해한다'.는 재미있는 책 한 권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것이 추해지면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마음이 든다고 말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은 것인데 현재 너무 추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분열과 나쁜 모습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동일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교회를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치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교회와 교단까지의 통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손봉호 교수는 교단과 교파는 필요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로 교단과 교파를 미화할 수 있겠지만 교단과 교파가 갈라진 원인들이 정치적인지 감정적인지 간에 이런 풍토는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교회의 일

치는 말할 필요 없이 이런 것을 연합하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교단과 교파 관계 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교회 비판은 교파분열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라고 거듭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위대하고 유익하며 놀라운 일들, 보다 좋은 성시화를 위해서는 교회의 일치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춘천은 교회의 일치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선 커다란 변화가 없는 도시인 춘천은 참 안정되어 있습니다. 춘천은 유동인구가 적고 애향심이 많고 온순하며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충돌할 소지가 많은데 소극적인 것은 하나 되기에 참 쉽습니다. 지역감정도 크게 없고 푸대접 무대접하는 것만 빼면 춘천사람들은 불평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춘천은 교회의 일치에 있어서 모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대천덕 신부가 말했듯이 기도가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줌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일치와 구조적인 개혁인데 목사님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일부터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래로부터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작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김진홍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연합사업 등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작은 일치 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서울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동네 모임이라 해서 함께 예배하고 청소도 하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몇몇 지역교회의 연합은 교역자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교우들끼리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교우로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십리 밖에 있는 자기교회 교인은 뜨겁게 사랑하고 알아주면서 앞집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은 아는 척 하지도 않으며, 혹 본교회를 못가고 다른 교회를 갔더니 남에 집에 간 것 같더라는 등 하나의 거룩한 공회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식의 전환입니다. 나라고 하는 말의 사용을 절제하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 교인, 내 양, 내 목사님,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나라는 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서 내 교회가 좋으니 네 교회가 좋으니 하는 모습들에서 처럼 교회의 이름이나 자기소개에서도 교단이나 교회 의식을 지나치게 들먹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였으면 이 교회에서도 집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새신자를 함부로 받지 않고 8주 이상 훈련시켜야 등록을 받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일치면에서 본다면 나, 우리, 자기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제 성숙한 한국 교회와 특별히 성시를 주장하는 춘천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말의 사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설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모든 기관과 모든 사상을 통일하고 연합으로 운동하고 조율하는 상설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근성 목사

선교회하면 어린이전도협회, 기윤실, 기학연, 이런 모든 기관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생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이

야기 하겠습니다. 선교회는 대학생 청년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으로 길러내고 이 사회속에 영향력 있고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단체입니다. 선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학생들은 각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선교단체 출신들이 잘 섬길 뿐만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IVF출신 학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태백에 가서 2년 간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그반 학생 50명중 30명을 전도했습니다. 한 교사가 그 반에 세워짐으로 인해 그 반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집니다. 그 교사가 앞으로 삼십 년 간 교사로 산다면 그가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교단체는 기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춘천 속에 한국 속에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선교회의 협력이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뒤받침 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협력은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실체를 인정해 주고 서로 존중해 주고 서로 상호 이해할 때 교회의 필요를 선교단체가, 선교단체의 연약함과 필요는 교회가 채워주게 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선교회의 바른 협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와 선교회의 협력 모델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입니다. 서울에서는 89년 가을에 시작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고 아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1년에 한 번 같이 예배드리고 15개 교회가 협력 단체로 참가하고 있지만 3개 교회 정도가 서로 깊숙히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미비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젊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선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배출하는 단기선교사를 훈련시키는 부분에서만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와 선교단체 사이의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선교단체가 한국에 2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초창기에 선교회가 미성숙하게 들어와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회는 많이 자기 정체성을 찾았고 이미 성숙했습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20년 전에 받았던 상처를 아직도 갖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편견들을 제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상호협력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교회의 실체로 대표가 나와야하고 선교회도 대표가 나와야 합니다. 넷째, 대표들끼리 서로 창조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다섯 번째로 두 기구가 창조적 대화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협의체가 조직되어야 합니다. 성시화 운동을 위한 논의장에서 교회와 선교회 사이의 협력을 논의 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있고 뜻깊은 일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교회와 선교회 사이의 바람직한 협력의 모델을 제시해 준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춘천에서 이 아름다운 협력의 모델을 창조한다면 성시화 운동 자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 나아가 세계 속의 교회와 선교회의 협력에 있어서도 아주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윤태호 목사

올랜도에는 RTS 개혁신학교가 있고 5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

는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고 있는 UM 단체를 비롯하여 지금 속속 많은 선교 단체의 본부들이 올랜도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올랜도는 인구 30만의 도시이고 대개 노인층들이 많이 있는 전원 휴양지입니다. 얼핏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춘천과 흡사합니다. 올랜도는 오늘 춘천이 배워야 할 선교도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춘천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무대접을 받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하나님께 조차 푸대접을 받고 있는가 잠깐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눈이 크질 않아서 넓은 세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예수제자운동과 저희 주위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춘천을 어떻게 쓰시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감격하게 됩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인 춘천에서 시작된 예수제자운동은 이미 전 세계에 27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27명의 선교사 가운데 13명이 춘천 출신입니다. 예수제자운동은 전국에 7개 지부를 두어서 전임사역자를 두고 있습니다. 춘천, 서울, 대구, 부산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모임은 저희 모임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6개 지부의 책임자들이 춘천출신이고 춘천에서 훈련받아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원에 있어 춘천 만큼 풍부한 곳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C.C.C 의 초대 간사와 세 번째 간사가 지금 태국과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여기 IVF 간사님도 계시는데 IVF 는 전국에서 가장 유일한 자체 선교센터를 춘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에 자신들의 많은 인력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있지만 자체선교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IVF 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면 춘천이 세계선교에 대해서 뒤져있는 도시가 아니라 가장 앞서 있는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선교단체들 중 국제적인 선교단체에서

유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춘천 출신들입니다. 뿐만아니라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춘천사람들로 구성된 전도팀이 있습니다. 춘천지역에 200개 교회는 호적에 들어가 있는 교회구요, 호적에 없는 교회까지 하면 2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춘천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 10곳을 뽑으면 그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해외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중앙감리교회는 교회 자체에서 단독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했을 뿐만아니라 이번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목사님 300명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사가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춘천에서 파송된 선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세계 선교로서의 모델 춘천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춘천출신 소설가 모씨가 소설 작업을 할 때 쓴 글이 있습니다. "춘천은 내 영혼의 모태고 내가 태어난 태중이고 내 어미 같은 자궁이고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춘천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글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춘천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선교 비전에 대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은 내적인 욕구와 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욕구는 신앙으로 성숙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욕구는 선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부름은 와서 나를 도와 달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환상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역교회의 본질은 이런 것보다도 먼저 선교입니다. 만약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선교와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할 사업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입니다. 뿐

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확장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사랑과 감격들이 전세계의 모든 민족과 종족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춘천은 세계 선교로서의 모델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춘천에 대한 자부심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도시 춘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시춘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수 없을 것 같네요.

조남진 장로

70년대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를 갓 믿어서 성경을 모를 뿐만아니라 기독교문화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시 문선재 총장께서 우리 춘천이 호수를 접하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 복음화 되면 스위스 제네바 같은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때 우리를 성경적으로 지도했던 윤수길 간사가 C.C.C 본부에 "춘천의 각계 요소에 있는 분들이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시화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C.C.C 의 총재이신 김준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도시가 규모도 적고 잘 협력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모델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춘천 성시화 청사진을 구상하셨습니다. 그후 춘천에 있는 목사님과 협의해서 이런 운동을 C.C.C와 평신도 지도

자와 같이 기독교 모델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논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춘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상설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앙감리교회 김형욱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성복 목사님, 임택창 목사님, 석사교회 김추한, 이영호, 대개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 하셔서 이 일에 협력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후에 '전국민족복음화운동요원 연설회'를 겸해서 춘천성시화 대회를 외부에서 5천여 명이 모여서 치뤘습니다. 하지만 행사후 연속적으로 운동이 전개되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시화는 모든 교회의 기도제목이 되었고 그러한 씨가 떨어져서 오늘날 춘천이 이와 같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72년에 그 대회를 했고 곧이어 73년도에 영적인 전도에 영향을 미쳤던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님이 그당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저희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분을 모셨습니다. 춘천에서 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같이 오셨던 서울공과대학 한희웅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자기는 교회 다닌지는 20년이 되고 장로 된지는 7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는 20일 밖에 되지 않았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이어서 같은 해에, 예수원을 창설하시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큰 영적 지도자이신 대천덕 신부님을 모셔서 각 교회 목사님을 초청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분도 기독교 교회사를 특강으로 해주셨는데 그분 말씀이 성령의 불화로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의 불화로가 옮겨지면 끝난다,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영국에서 성령의 불화로가 옮겨졌을 때 부흥했듯 한국에 불화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옮기실는지 모르기 때

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74년도에는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형집회를 해보자 해서 조용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춘천복음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에피소드로는 얼마전에 돌아가신 유기천 춘천시장에 관한 일입니다. 그 분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회심하여 시청광장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초창기는 성시운동이 평신도와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개가 됐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고인이 된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공부모임도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들이 가시고 하다 보니 모임은 자연 쇠퇴했습니다. 상설기구인 성시화운동위원회는 대회가 끝난 얼마후 사라졌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상설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운동을 하려면 춘천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거기서 상설로 움직일수 있는 유료직원을 쓰고 활동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나가면 반드시 결과가 오리라고 봅니다. 자꾸 1세대라고 합니다만 우습습니다. 그저 발로 뛰고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이 세대에 와서 보니까 규모 있게 이런 자리를 만들고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잘 되어 나갑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춘천성시화는 미래가 밝고, 춘천은 성시화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선교의 기지로써 훌륭한 몫을 담당하는 영적인 지도력을 갖는 거룩한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회자

장로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시화 운동이 시작되고 진행되어 온 얘기를 들으니 감동적입니다. 특별히 성시화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조직화 되고 항구

화 되지 못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근성 목사

성시화운동의 주체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집회 한 번 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직장, 교회,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 믿음과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에서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성도의 몫이 되지만 그것을 좀더 구체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가시화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는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모든 선교회나 기학연이나 기윤실이 연합하는 것은 손쉽게 되어질 부분의 일이라고 봅니다. 이 그룹들이 춘천에서 평신도 운동을 대표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남은 과제는 교회들 간의 협력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역자 연합회 같은 데서 과연 성시화 운동을 평신도가 하고 있는 차원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논의가 되어진다면 좀더 가시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시화 운동에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의식의 확산 꿈의 확산, 꿈을 좀더 확산 시키는 가운데서 연합기구가 생기는 것이 2단계고, 3단계로 춘천 지역의 경제 정치 사회 영역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정말 꿈을 그리고 가시적 열매를 거두는 것이 4단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동규 교수

운동이라는 것은 약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생겨야 하

는데 근육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과 되풀이 되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건데 성시화 운동은 그리스도인의 손발이 잘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실제적인 운동입니다.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야 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샴푸를 쓰지 말자는 운동은 머리로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안쓰고 다음날 안쓰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화 되는것 같아요 작은 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운동이 안됩니다. 최근에 부산지역에서 효과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의장감시단이라는 운동인데 의장감시단이란 시민들이 시의회나 도의회가 열릴 때 방청석에서 참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회에서 욕설이 난무한데 의정지기 한 분만 앉아 있어도 서로 존대말 쓰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면서 의회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의회 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의정지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감시운동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신문가판대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음란도색 작품과 스포츠신문에도 나체 그림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중고등학생 정도면 성적 상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주부들이 신문사에다 전화를 겁니다. 어째서 이런것을 소설로 쓰느냐 한통화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10통- 20통하면 우선 일이 마비되고 아주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전화 걸어서 '나는 당신네 신문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글과 그림을 싣는 신문을 볼 수 없습니다' 하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과로 17개의 신문 잡지가 폐간이 됐습니다. 이 운동은 손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부천 같은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담배 자판기를 없애 버렸습니다. 우리가 담배피지 말자 아무리 외쳐도 안되지만 의회에서 협의해서 담배자판기를 없애 버리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

네에 있는 시의원의 집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 담배 자판기를 없에 버립시다 몇분이 전화를 하면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최근에 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에 경륜(競輪)이라는 것은 성시화에 가장 역행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한림대, 강원대, 한림전문대 86분이 경륜반대에 대한 성명을 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뛰어다니는데 약하지만 반대성명을 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현수막을 걸고 이런 행동하는 것이 별볼일 없는 일 같지만 가장 큰 일입니다. 운동할 만한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시민이,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전화하고 이 운동에 참여할 때 이 시가 변혁됩니다. 경륜 문제도 저희들이 홍분하는 것보다 학부형들이 홍분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홍분해서 시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왜 그런것을 이리로 가지고 왔습니까, 공손하게 항의를 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성시화를 꿈꾸는 춘천에서 해야할 운동입니다.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고 복음을 전해도 동네가 쓰레기 밭이고 냄새나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같은 경륜장을 이 사회에서 몰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운동은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지혜로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춘천성시화 운동에 최초의 결실로써 경륜장 반대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발제를 듣고 토론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청중에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중 강원대 학생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일치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일치운동의 모델로써 피종호 목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교단과 교파의 분리된 부분은 필요악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단과 교파의 통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위로부터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고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필요한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교단과 교파의 교리적인 부분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위치가 되면 저희로써는 교단과 교파의 교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에 있어서 목사님들의 느끼시는 한계성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이루어나갈 때 목사님들의 지원과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종호 목사

제가 위로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교단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성은 잘 알 것입니다. 얼마전에 신문에서 반가운 기사를 대하게 되었는데 장로교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어느측과 어느측이 합동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리라고 하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지금까지 자라온 토양의 문제, 역사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을 개혁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개혁에 대한 비전에 관해

말씀 하셨는데 우리 모두 다 진정한 개혁, 언젠가는 참 하나님의 하나의 거룩한 공회라고 고백하는 교회로 통일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는 이 일들, 특별히 성시화 모임과 같은 이런 창조적인 일들을 통해서 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태호 목사

교단과 교파 문제는 신학적이고 역사와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일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 하나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몸이고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했고 다양한 지체는 다양한 교리와 교파, 다양한 신앙적 칼라를 통해서 주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 예를 들어 한동네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청소를 한다거나,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새벽기도와 주일예배 등을 돌아가면서 교회를 섬긴다거나, 어떤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없이 하나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인격적 교류와 일치를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한 교회일치에 대한 욕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지도자들이 독점이나 교회 부흥에 대해 병만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교회 일치운동이 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교제부터 잘 이루어지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일치가 아니라 복음적 삶의 일치, 교회목적에 대한 일치로서의 운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남진 장로

교단, 교파. 이것이 교회에서는 중요하고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허

물기 어려운 벽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런 정신으로만 나가준다면 더할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평신도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22년만에 이런 모임을 갖습니다만 지난 92년도에 꺼졌던 성시운동의 불씨가 다시 살아 올랐습니다. 시작도 그랬습니다만 다시 평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계기는 특정인의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춘천시내 직장 신우회의 모임이 어느 도시의 모임보다 활발합니다. 직장 신우회에는 교파, 교단이 관계없습니다. 직장을 중심으로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연합적 운동을 하는 이것이 제2차 성시화운동을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이제 운동도 벌이면서 기도를 다시 하고 교파, 교단 문제는 목사님들이 윤목사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의는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성시화 운동이 집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토의는 집회 외에 실제 사회 생활 전체를 포함한 입체적인 신앙운동이 어떠한 것인가, 특별히 도시전체를 그리스도화하고 도시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92년도에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다시 한번 성시화운동이 전파되었고, 2년 후인 오늘 성시화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토론이 있어졌습니다. 이러한 집회가 단지 또한 한 번의 집회로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집회를 했으면 집회를 발전시키고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2년 간격으로 성시화 집회를 개최하고 특별히 성시화 주간을 운영해서 전도집회를 열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전

개함으로서 단순히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과 도시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실제로 성시화가 구체화되는 전략적인 성시화 주간을 선포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봅니다.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교회들을 어떻게 연합하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어떻게 연합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도회의 교환이 필요하며 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6 복음과 춘천 토론회 지상중계〉

예수, 성서,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는 도시(2)

—춘천성시화 운동의 과제와 전망—

사 회 : 이영길 선교사 (인도선교사)

발 제 : 허문영 박사 (기독교학문연구회 대표)

토 론 : 김광국 목사 (성광교회 당회장)

이갑용 간사 (대학생선교회C.C.C 대표간사)

전용태 장로 (춘천지검 검사장)

조남진 장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토론참여자의 직함은 96년 토론회 당시를 기준으로 실었습니다)

사회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72년에 우리 춘천에서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되었고, 지금 한 20-30년동안 진행이 되어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속해 오시고 또 이렇게 열매를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춘천성시화운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들이 시작할 춘천성시화운동을 전망하면서 그 동안 관계하여 왔고 기도해 왔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발제와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문영 박사님께서 '춘천성시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를 마친후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은 허문영 박사의 논문을 참조 p77~p104)

성시화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문건들이 나왔고 자료집도 나오고 했지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성시화운동이 정리가 되고 또 문제가 제기되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토론을 하게 되겠는데 먼저 주제발표논문을 토론자들에게 미리 나눠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발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시화운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발제자와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고 그 후에 객석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 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전용태 장로

아까 발제하셨지만 72년도부터 이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때 제 자신도 잘 모르면서 성시화운동에 김준곤 목사님 일행으로 춘천에 왔었어요. 그 후 20년 지나서 92년에 여기 검찰청에 부책임자로 왔다가 또 다시 96년도에 책임자로 오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씨앗은 결단코 떨어뜨리지 않고 열매를 맺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제게는 더욱 감동스럽고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 때 성시화운동이라는 말은 많이 하고 기도도 했지만 사실은 성시가 뭐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것이 막연했었어요. 막상 본부가 생기고 나니까 저도 나름대로 성서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역사적으로 다 고찰이 됐구요, 다만 성서적으로 제가 잘 떠오르지 않던 중 어제밤 1시 30분에 하나님이 깨워 주셔서 구절 말씀 하나를 생각하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126중보기도회가 최근에 생겼지요. 그런데 이번 성시운동은 에베소서 2장 15절과 창세기 2장 15절이 연관성을 가져서 215성시운동이 되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성시운동 하면 하나는 성시민운동이고 하나는 성시법운동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도도 그리스도적으로 되어야 이것이 상당히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제네바 성시운동도 법을 고치는 운동이 병행되었거든요. 그러나 사람만 복음화되는게 아니고 법도 복음화되는 것이 성시화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법을 고치려면 50% 이상이 돼야 고칠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50%가 돼야 성시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성시민운동인데, 그것은 시

민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한 새 사람이 되는 시민운동이다, 성시운동은 성시민운동이다, 성시민운동은 한 새 사람 운동이다, 교회도 감리교, 순복음교회 등 교파가 많지만 성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 새 교회운동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파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교파운동은 지속되고, 성시화운동본부가 생겼다고 해서 교파를 타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파를 초월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한 새 시민운동이란 뭘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주 안에서 한몸을 이루어 화평케 하려 함이라" 결국 성시화운동의 최고 목표는 평화운동이요 범죄없는 운동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도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별됐다는 점에선 좋지만 그러나 구별되기 때문에 배척해서 춘천에서 불신자는 떠나가라 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성역화운동은 아니고, 성시화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일도 복음으로 통일돼야 진짜 통일이 안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북이 합쳐서 새로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우리 것만 주장한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도 변해야하고 그쪽도 변해야 하는데 다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서 우리도 뭔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마음을 품는 복음이어야 하겠죠. 제가 "성"(聖) 이라는 개념을 "한 새"라고 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또 교회도 새 교회운동, 우리가 교인이 천 명이 되더라도 합치면 한 사람처럼 되야합니다. 교회를 한 몸의 많은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시본부에 어떤 역할을 해야겠느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파적인

개별성시운동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성시본부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 사람은 뭘까요? 새 부부운동입니다. 새 교인운동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님이 새 사람으로 만나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는 뭘까요? 새 상하운동입니다. 상관과 부하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노사운동이다, 그러면 노사분쟁이 없습니다. 새 학생운동. 이렇게 정리해 보는데 그래서 저는 개교회에서 하시기 어려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성시본부가 꼭 기여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시본부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 뿐 아니라 고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일적인 복음운동으로서 교파를 초월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늘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부생활 세미나반입니다. 새 부부. 가정이 먼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가정에서 먼저 성시민이 되지 않고서는 이 성시운동은 실효성이 박약할 겁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생활 세미나반을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강사진을 확보해서 연중모임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시집회도 1년에 한두 번 씩은 꼭 해야지요. 그러나 질적향상과 양적인 향상을 위해서 대전도집회가 되어야겠지만, 우리가 복된 가정 세미나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곳에 오면 가정의 복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거기 오지말라고 해도 오실 것입니다. 개 교회에서도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새 노사관계를 위해서 직장생활세미나반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사실은 1,200만이 직장인이거든요. 그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인데 이분들이 직장에서 주말성도가 아니라 주중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1일 3식하고 교회와서 말씀을 듣는데 주1식 하고서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을 그리스도의

작은 교회로 만들고 또 직장은 중급교회로 만들어서 문화적 혁명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직장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가정생활 세미나, 직장생활 세미나반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면 승진도 잘되고, 그러기 위해서 직장생활이 잘돼야 하는데 신앙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는 바 교회에서 그것까지 통일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생활세미나반. 이것은 교회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생활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저는 그냥 영적생활 세미나반이라고 하겠어요. 사실은 힘이 없어 쓰러지려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도와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생활 세미나반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상설로 만들어 놓는것이 성시화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1-2회정도는 대형 성시집회를 해서 양적으로 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평소에 이 세 파트를 두고 전국에 아주 유명한 강사를 확보해서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실제로 검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부생활 세미나는 이미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파운동을 계속 도와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성시화운동본부 안에서 어떻게 고유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부부생활세미나, 직장생활세미나, 교회생활세미나로 구체적인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조남진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조남진 장로

이런 모임을 춘천의 교회에서는 거의 안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평신도들도 많이 와 계신데, 이 생소한 세미나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아까 발제를 경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성시화운동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문영 박사가 말씀해 주신 것을 아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또 먼저 주제논문을 보내 주셔서 읽어보기도 했고, 세계 다른곳에서 일어났던 성시화운동의 사례라든지 이런 모든것을 총망라해서 정말 학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72년도 성시화운동을 할 때에 저도 같이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현장을 목격하고, 같이 따라다녔고, 성시화운동이라는 것이 여기서 생겨 김준곤 목사님에 의해서 춘천성시화 계획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학적인 바탕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든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난 날을 얘기하자면,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윤수길 목사님이 거기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시는데 70년도에 와서 여기서 C.C.C 대표간사로 계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 선교회가 민족복음화운동이라는 것을 제창하면서 전국에 전도하는 전도요원을 양성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1회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라는 것을 서울대 농대 수원 캠퍼스에서 열었어요. 그때에 윤수길 간사가 평신도들 몇 사람을 천거를 해서 거기 참석을 시켰고 참석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민족복음화라는 것을 이루기위해서는 춘천복음화가 되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것을 위해선 성경도 알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평신도들이 모여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모였던 분들이 여기 뒤에도 몇 분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고 목사님도 되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이 생기다 보니까 C.C.C 에서 그런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춘천을 그런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목사님들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안되니까 목사님들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중앙감리교회 김현우 목사님을 추천해서 72년도에 그런 운동체가 구성됐습니다. 72년 4월에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되고,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6일 동안에 춘천에 체육관을 빌려서 전국에서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겸 춘천성시화운동대회로 대형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5,000명이 모여서 춘천시내의 모든 교회, 교실들을 빌려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김현우 목사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침례교회 허걸 목사님이 총무를 하시고 Y.M.C.A.당시 총무님이 협동총무를 하시고 그렇게 구성해서 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렇게 대회는 거창하게 치루고나서 사실 몇 년도 못되어 그 해 년말을 기해서 운동위원회는 해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뒷받침해서 상설기구를 끌고 갈 만한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몇 번의 집회를 평신도들이 주관을 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성시화운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92년도에 전용태 검사장님께서 춘천으로 오셔서 과거에 72년도에 집회에 참석하셨던 기억을 살려 이 운동을 다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기관장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직장선교회 연합회와 협력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입장으로 봤을 때 감개무량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이 기도만 해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허문영 박사의 논문을 들으니 정말 구구절절이 다 해야 될 일들이고, 또 검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

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제가 맡았는데 이것은 아마 그 당시부터 운동의 성격을 알고 계속 관계를 했었다는 것 때문에 초대본부장을 맡겨 주신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뤄지고 또 구체적인 계획들이, 학문적인 바탕을 둔 이런 논문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귀하게 언급되는 귀한 아이디어들을 다 잘 기록을 해서 성시화운동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나가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허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좋은 말씀이었지만 조금 빠트리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 드린다면 사실 운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예쁜 팜플렛들, 포스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강원대학의 백령회관도 빌려서 쓸려고 하면 200-300만원의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운동을 해 나가려면 돈이 들어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열심있는 분들이 있고 신문사에서 열심히 잘하던 친구가 성시운동본부에서 전임직원으로 하겠다고 사표를 냈지요. 저는 양쪽을 다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상당히 곤란하더라구요, 그러나 역시 하고 싶은 데 가서 일을 해야 하는 법이다 해서 사표를 받고 거기 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렇게 전임직원도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잘 해야겠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런 준비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광고도 나가고 하겠지만 제 생각은 회원을 단체회원, 개인회원제로 해서 개인회원일 경우는 최하 1,000원으로 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매월 자동으로 납부해 주시는 그 회원들의 회비와 또 단체회원, 선교단체라든지 교회에서 기십만원, 기백만원씩을 해주시면 결국 돈이 모여 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시화운동본부에 가 보면 상임직원을 한사람만 쓰고 있고 그외에 자원봉사자들을 써서 전화 2-3대를 놔서 벌써 정신없이 밤새워가면서 일을 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잘 되려면 유급직원들 10여명이 들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고 회원이 많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그 운동본부와 많은 직원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파급이 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운동본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발족하는 단계에 있는 성시화운동본부에 있는 사람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준비과정에서부터 이 운동에 앞장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해 주셨던 이상표 목사님, 차성도 교수님 그밖에 준비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실무적으로 수고를 하셨던 많은 준비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본부장님이 되시니까 아무래도 구체적인 말씀들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이 역사할 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나 증인들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 장로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현장에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오신 분으로서 본부장으로 가장 적당한 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구요 이제 김광국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광국 목사

어떤 기독교 역사가는 표현하기를 사도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

는 배는 유럽의 문명을 태우고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시화를 향하여서 모이는 이 모임은 언젠가는 춘천과 우리나라를 복음화하는데 큰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동참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신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주는 자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시화를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시화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시화라는 표현이 지금에 있다 뿐이지 사실 복음이 이땅에 내려온 때부터 성시화를 꿈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드릴때마다 하나님 우리 춘천을 복음화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곧 성시화입니다. 성시화는 이제 나오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복음이 이 땅 위에 떨어진 때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또 우리 춘천이 성시화된다는 것은 아까 발제자도 말했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 춘천은 복음화하기에 가장 적당한 도시입니다. 이제까지 복음화를 꿈꾸던 도시가 다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춘천의 일례를 들어보면 춘천은 도청소재지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서울 다음으로 Y.W.C.A.가 큽니다. I.V.F.도 제일 큽니다. C.C.C. 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국을 세울 때 같이 일했습니다만, 관계자들을 대할때 불가능하다, 대학은 세울 수 있지만 기독교방송은 못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춘천에다가 복음의 포인트를 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 통일을 앞세운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그램이고,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앞으로 중국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인데 나는 이 놀라운 계획의 지점이 춘천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복음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성시화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좀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선민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성시화란 말은 아주 좋습니다. 성시라는 말은 복음서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지요. 예수님은 어느 지역을 성시화하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화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오히려 복음화가 신약적이고 복음적이고 세계적이고 영적인 현상이 아니겠나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어를 토론하려는 건 아닙니다. 성시화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또 성시화운동 좋습니다. 복음화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성시화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개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성시화는 기독교 정치인들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이 성시로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성시로 만들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성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를 성시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것이 과연 성시인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복음화와 성시화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단절된 것의 event 가 아니라 process 과정이지만 왜 한번 했다가 단절되었나 하는 겁니다. 사실 성시화에 한 획을 그은 분은 우리 전용태 검사장님입니다. 저 분이 안왔으면 이게 어느 역사까지 흘러갈는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제자에게 좀 불만을 가진 것이 있는데,

성시화, 복음화의 모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그 어떤 단체도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교회를 떠난 단체는 일시적인 단체라 결코 존재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시화운동본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C.B.S.가 세워진 것은 교회가 모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장기적인 과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시화예요. 내 교회를 잘되게 하는 것은 춘천지역을 잘되게 하는, 곧 성시화하는 겁니다. 표현을 안했다 뿐이지 목회자의 사명은 성시화에 있어요. 목회계획의 틀림없이 가장 큰 프로젝트 하나는 성시화의 프로젝트를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은 자연히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계획에 다른것보다 성시화운동을 가장 크게 놓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것으로 저희가 성시화주일 했습니다. 이것도 교회와의 조화가 잘 안됐어요. 여기에 우리 교역자와 같이 했더라면 성시화주일을, 예배를 단일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배순서와 설교를 단일화 시켜서 해야지요. 우리 교인들도 성시화 잘 감이 안가요. 그래서 예배순서도 전부 단일화시켜 성시화주일의 주간에 하고 특별헌금 하면서 모든 집회를 가질 때에 목회자의 프로젝트에 성시화의 프로젝트를 놓아야 돼요. 그럴 때에 지속적인 우리 목회자와 온 교인이 함께 이어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김광국 목사님은 이 자리에 목회자로서는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잘 대변해 주신것 같습니다. 춘천이 정말 전략적인 도시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도시가 될 수 있다, 또 성시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

서 감사를 드리구요. 복음화와 성시화의 개념에 대해선 아마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제자께서도 그 부분을 주의해서 다루신 것 같아요. 이갑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발제자께서 전체적으로 종합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 교역자와 교회중심을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발제자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사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이갑용 간사

이런 성시화모임에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전 소박하고 복음화 되지 않은 이 도시를 고찰해 볼 때 예루살렘성이나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는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이고 어떤 issue가 있었던 데에서 출발하였는데 우리는 복음이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성시화를 선포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C.C.C가 산파역할을 하고 진짜 이 아이가 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일을 교회들이 해줬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이건 C.C.C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일반 목회자들에게나 교계에 팽배해서 C.C.C가 하는 일을 수종들고 심부름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성시화라는 단어를 얘기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진통을 제 나름대로 겪어 왔습니다. 저는 이 성시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김광국 목사님의 이 운동의 모체가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에 정말 동감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목회계획을 하면서 우리 성시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면 우린 훨씬 쉽게 이 운동에 대

한 불을 붙이고, 성시화운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에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side 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목사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허한 메아리처럼 20년동안 흘러온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용태 검사장님을 때가 되어서 불러 주어서 이곳에서 다시 불을 붙일수 있도록 하나의 역할을 하고 교회에 속해 있던 처음 성시화를 외쳤던 몇 분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입안하고 만들어가면서 계획을 이루는 것에서 좋은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C.C.C나 김준곤 목사님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전체교인들과 목사님을 비롯한 춘천교역계를 연합하면서 성시화본부를 창립하고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에 춘천을 사랑하시고 만들어가는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발제문을 보면서 참 치밀하게 조직하고 생각을 잘 만들었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허문영 박사팀과 기학연팀, 이영길 형제가 주장해왔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가야 할 나침반이라고 할까 지표라 할까 성시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섭섭했다고 생각되는건 발제문에서 분명히 과거에서부터 배워야 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무엇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어떤 사회현상이 일어났고 입법가나 행정가나 교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춘천에서 생활하고 수용했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메아리처럼 굴러만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문선재 총장님이 춘천성시화안을 발제한 것들을 제가 다시 훑어 보니 김준곤 목사님이 20년 전에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사유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했던 얘기였습니다. 그 분이 자기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준곤 목사님 같은 성시화안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재

정리하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했습니다. 정말 그 좋은 점들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다음세대가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에 대해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성시화가 뭔가, 개념정리는 되는데 방향정리는, 곧 이 도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노하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체적 전인복음화의 5세기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춘천성시화에 대한 비전을 공부하는 도시를 만든다든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든가, 체육의 도시를 만든다든가, 기능의 도시, 거룩한 도시, 소망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꿈을 주고,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선각자들이 해왔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시화를 통해 일어날 역사현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시화 연중무휴로 열리고 세계명물로 등장할것이다. 풍치관광보다 성시관광이 더 유명해질 것이다, 등 이런 것들이 좋은 투시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문선재 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 본래의 총장메세지가 뭐였냐하면 성시화에 대한 미래투시도였습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자기는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예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대학을 유치하고 기능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간증한 것을 들으면서 이 거룩한 도시를 만들 목사님들의 안이 있을거라고 생각되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비록 이뤄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꿈을 꾸면서 가야 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시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시화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여 왔던 전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공감대가 많이 넓어지고 확장되었다는 것에 대해 제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126기도운동이 민족복음화와 통일에 대한 기도인데 춘천에 와서 성시화기도운동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춘천과 접목시키면서 어떻게 확장시킬수 있을 것

인가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11기 도모임이라든가, 1시에 춘천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그리고 24시간 교회단위로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30분 단위로 계속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훈련을 위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춘천 C.C.C회관을 건립하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합숙하면서 훈련을 시키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70-80% 완성단계에 와 있고 각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단체들이 가지는 독특한 영역들을 가지고 훈련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은 토양과 여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춘천이라는 좁은 곳에서 소문이 나게 되면 금방 퍼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수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졌고, 이와같은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겼으며 이 운동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확장되어가는 C.C.C가 아니고 이제는 목사님들과 모든 분들의 공감대 속에 훈련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구요. 그리고 과거에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선교단체 간사님으로서 선교단체를 대표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지적도 해주시고 문제제기도 해주셨는데 이 시간엔 발제자께서 종합적인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문영 박사

귀한 토론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논문인데 굉장히 진지한 토론이 있어서 전문목회지에 발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때는 오늘 토론해주신 내용을 잘 보완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해 주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용태 장로님께서 지적해 주신 215성시운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5절과 창세기 2장 15절을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은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라는 문화명령에서, 그러니까 전 장로님께 어젯밤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나 저희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갖고 있던 생각이나 동일한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부부생활세미나, 직장생활세미나, 영적세미나, 그런데 좀전에 이갑용 간사님께서 이 논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로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남진 장로님께선 재정문제를 애기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젊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저희는 돈없이 해왔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순복음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하지만 이거 어디서 돈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형제들이 돈 털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젊은이들의 아주 결정적인 약점, 오직 열심만 있지 돈 문제는 모르는 그런 결정적인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발제문에 이것을 마치고 나니까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여기 어디다가 재정문제를 써놨어요. 근데 결국은 장로님께서 그것을 딱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젊은이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젊다는게 뭡니까? 뭐든 만들어지고 나서 하는 건 젊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지금 장로님세대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지만 이것이 이 세대에 다시 회복이 돼서 할 수 있는 건 어른 기성세대와 젊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어떤 간사님, 강원일보면 춘천에서 가장 좋은 직장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서 안락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성시화운동본부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해체 될 수 있는 직장이라구요. 이런데도 가겠다고 하는것 이것이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시화운동본부는 나는 바칠게 몸 밖에 없다는 젊은이가 많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해외선교 나가는 사람들 돈갖고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시화에 장로님이 이렇게 사려깊게 해주시는 것과 젊은이들의 열의가 딱 맞물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결정적인 것을 놓쳤는데 장로님께서 본부장직위에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썼냐 하면 모든 교회에 1%예산을 성시화운동본부에 바치는 운동을 벌이자라고 제안을 썼습니다. 그래놓고 계산을 한거예요. 제가 춘천동부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모교회인데요. 지금은 예산이 얼만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있을땐 제 기억에 3억이었던것 같아요. 3억의 1%면 300만원이예요. 3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5%까지는 내자고 하자, 거기까지 해놓았는데 제가 오늘 발표는 못했는데 아까 장로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장로님께서 아까 회원제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웨슬레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의 회개와 행동의 회개가 있지만 결정적인 회개는 돈지갑의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

습니다.

그리고 김광국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전폭적으로 동의하는게 있습니다. 이 춘천이 전략적 도시라는 점에서, 내용에 있어선 저와 조금 다른데요, 저도 목사님의 내용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구요, 제가 보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한반도를 H자로 보거든요.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데서 우리나라 개발축을 만들었습니다. 목포부터 신의주, 부산부터 나진 선봉까지 그리고 가로로 축을 긋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점이 춘천이에요. 대한민국을 H로 만들어 놓으면 그 중간에 우리 춘천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춘천이 전략적 도시라는 것, 우리가 잘 키워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저도 거듭 동의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화와 성시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복음화가 더 좋다고하는 목회자도 있었고 한데 논쟁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화는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 우리가 복음화보다 성시화를 택했냐 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는 복음화라고 할때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복음화의 방법에 있어서. 개인구원이냐 사회구원이냐. 근데 이게 단순히 한국교회문제만이 아니라 세계교회에 복음주의진영과 진보진영의 근본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뭐 없겠는가? 저는 우리가 이런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양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왜 서울로부터 모든게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보잘것 없는 어부, 세리 그 시대에 소외되고 버림받은자 12명을 들어서 주님의 사역을 선택하

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우리도 한번 주님앞에 그런 쓰임을 받는 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복음화가 아름다운 단어이고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뭔가 세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민족 앞에, 한국교회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정말 고민하면서 Holycitization 이라는 단어로 저희가 영어에다 새 단어 하나를 contribution한다는 맘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춘천이 성시화를 아름답게 이뤄가면 Webster 영어사전에 Holycitization 이라는 단어가 실릴 날이 올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원은 1972년 춘천에서 시작이 되고 1996년 9월 30일날 춘천 순복음교회에서 몇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그 역사가 다시 revival 되서 진행이 되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꿈이 큽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단어를 썼던 건데요. 이 성시화는 지역성 측면을 좀 더 강조했다 뿐이지 복음화 하고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복음화 하고 같은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목사님께서 제가 어렸을때 다녔던 교회에도 오셔서 많은 메시지를 주시고 그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성시화라는 것이 결국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같이 해 가면서 특히 목사님은 목회자 입장에서 강한 사명의식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같이 일을 하고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자

토론을 듣고 있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아주 깊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제도 상당히 좋았지만 또 토론을 통해서 발제에서 미흡한 면들이 보완이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훨씬 더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대화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계속 이 토론회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여기서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만큼 진지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고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간을 드릴 순 없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comment 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방청석으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목사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성시화, 꿈에 들어도 환상적이고 꿈에 부푸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광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성시화라는 어휘를 써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성시화본부가 개인이 아니고 춘천지역교회연합의 하나의 산물로서 운동이 전개된다고 할 때는 어휘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시화를 추진하시는 발제자 허문영 박사님께서도 여러가지 춘천지역을 설명하시면서 72년도 성시화운동이 전개되면서부터 직장선교연합회가 태동되었고 기관장기도모임이 태동되었고 126기도모임이 태동되어서 성시화운동이 지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저는 한편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독교방송설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10년간 일해왔고 지금은 기독교 춘천방송 총무국장 김진규 목사입니다. 춘천지역에 기독교방송국이 설립되는 것은 춘천지역의 교회연합의 운동으로서 하나의 산물이라고 보고 또 기독교방송은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순례지를 따라갔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왔어요. 어느 학교

교사이고 집사님이셨습니다. 한때 기독교방송에서 방송된 장신대학의 이수영 교수의 강의인데 개혁교회의 신학과 한국교회 라는 강의 테이프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봐서 얻어줬어요. 그랬더니 몇사람들이 와서 그 테이프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이 성시화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또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회개운동,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화를 하는 것인지 어떤 문제의 길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사로서 몇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번 5년 전인가 선명회에서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성시화 얘기가 나왔을 때 교역자연합회에서는 성시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합시다, 결의한 바는 없지만 잠재적으로 그 단어는 사용않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성시화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아까 김광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시화, 복음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시화를 한다면 교회사명이 성시화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를 교회로 삼습니다. 교회 이외의 것은 선교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학적으론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성시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충분한 토론과 신학적인 해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제 생각으로 이 성시화라는 용어를 한국 춘천에서 처음 사용한다고 하면 우린 교회연합이기때문에 통합측에 장신대학의 조직신학교수라든지, 감리교의 조직신학교수라든지, 충분히 어휘 사용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허문영 박사님과 김준곤 목사님이 신학박사시라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정치학 박사님으로서 신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발표하는 논문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신학박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도성에서 성시화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기도문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땅에 이룬다는 것은 바로 성시화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시화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땅에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바로 성시화인데 그것은 이미 복음화로 되고 복음화의 주체는 교회이고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학생운동이 있는데 C.C.C라든가 I.V.F같은 것들이 춘천에서 활발하고 한국에 활발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하고 약간의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시화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춘천지역교회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교회를 통해서 뭘한다 이런 것은 몰라도, 교회 밖에서 어떤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제 생각은 성시화운동에 대해서 다른 이상한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방송도 분명히 늘 들어보시면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공동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방송국을 춘천에 세울 때에도 왜 사회구원을 강조하는 기독교방송국을 세워야 되느냐, 아니다 극동방송을 세워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회를 엽시다. 총회를 열어서 충분한 논쟁을 한 다음에 춘천지역은 기독교방송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춘천지역 전교회가 앞으로 참여해야 되고 전 성도님들이 동참해야될 이런 일들을 할때에는 충분히 나갈 방향이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부족하지만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룡 목사

저는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되는 오승룡 목사입니다. church와 parachurch 가 있는데 성시 설문조사에도 보면 성시화운동의 중심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 작업같은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 이런 것은 가능하면 설문조사에서 빼는 것이 좋을 듯 하구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는데 사실은 열매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집이나 청소년의 수련원, 양로원 같은 이러한 구체적인 섬김의 장소를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시화, 복음화 언어상의 문제는 저도 헷갈리구요, 그 문제는 전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성시화가 되고 나서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에 대한 아무런 제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시화를 하고 나면 열매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네바시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이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열매는 전도, 교육, 봉사입니다. 지금 여기서 발제하시는 모든 분들의 얘기는 전도 교육까지는 잘되다가 마지막 섬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성시화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기학연에서 이것을 했다 하는데 이러한 아이템이 있으면 아이템을 교회에다 줘서 교회가 주체가 돼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빠져있고 열매가 없는 뿌리하고 줄기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정립이 되야되고 재구성을 해서 추진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성시화의 열매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어져야 할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구요. 한분이 더 계신것 같은데 질문 해주시지요.

이상기 목사

저는 춘천한사랑선교회 지도목사이고 한사랑춘천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상기 목사입니다. 춘천에서 이런 성시화운동이 일어난데 대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 맘인데요. 첫째로 공식명칭을 성시화로 해야될 것인가 복음화로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성시화운동의 발제로서 전체 내용을 들을 때 성시화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보다 살기 좋은 세상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하는 의미가 있구요. 복음화라는 의미는 우리가 새롭게 임할 그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길 원하시고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저는 이 운동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성으로 가꾸는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화라는 의미가 바람직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시화운동 전체내용 가운데 이 춘천이 보다 더 살

기좋고 보다 더 아름답고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춘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시화와 복음화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제기를 하구요. 또 한 가지는 주체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선교단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역사이고 …… 그런데 춘천에서 있어야 되는 그 운동은 바로 모든 교회가 복음화를 위해서 일어난다면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해나간다면 선교단체, 성시운동본부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 경륜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설교를 할때 많은 예화를 드는 것이 있는데 존 웨슬리 그분이 천국에 가셔서 천국에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했고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해서, 그럼 누가 이 천국에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일반교회에서도 많은 예화로써 설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때가 되면 모든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고 성령안에서 하나되어서 다 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의 그 과정속에서는 각각 부르심과 달란트와 은사와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교단과 교파가 생긴 것 같이 지금 선교단체도 이 때에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의 경륜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어느 것이 주체가 돼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물론 교회가

주체가 돼야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러나 모든교회, 모든 선교단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같이 머리를 닷대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할 운동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다 구체적인 회개역사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기도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기도운동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일으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나눴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바탕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기도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회자

더 많은 분들의 질문과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은 이정도로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듣고 토론하는 내용을 생각하니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생각이 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주님 앞에 묻고 이것들을 기도제목으로 갖고 하는 것들이 비성경적인 것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핵심과 성격문제를 놓고 실제 회의를 한 경험이 있기 때

문입니다. 참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들의 질문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몇 가지가 요약이 되는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시화운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성시화운동은 단순한 복음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갱신과 사회개혁까지를 포함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성시화운동의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제기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제기는 성시화운동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돼야 하는가 목회자가 돼야 하는가 혹은 parachurch라고 말하는 선교단체가 되어야 하는가? 평신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성시화운동의 주체문제가 중요하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시화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복음화라는 용어가 더 타당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성시화라는 개념이 우리의 운동을 담기에 더 적당한 것인가? 하는 이런 용어사용의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세 가지 문제가 부각된 것 같은데요. 먼저 발제자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토론자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보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문영 박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시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든 복음화가 강조되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이 춘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터전이 되고 또 이 춘천에 사는 분들이 그보다 선행할 것이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이리 전해도 예수님이 전해지고 저리 전해도 전해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협력해서 그 일만 이뤄질 수 있다면 제일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발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은 역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제문을 읽지 않고 말로 했습니다. 말보다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글인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밖에 안되는 글이지만 거기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실력이 그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글을 꼭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글보다 우리에게 귀중한 게 있습니다. 역시 우리 간에 토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춘천의 복음화도 좋고 성시화도 좋고 이 문제를 여쭈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마땅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이제 시작이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완성된 걸 갖고 이렇게 갑시다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이런 것이 보여지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 갑시다 하는 것이 본부장님이나 아마 성시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같이 이론적으로 검토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지적해 주신 목사님 말씀대로 이 성시신학이라는 것을 저도 못들어봤습니다. 하다가 나온건대요. 한번 우리 춘천에서 성시화운동본부에서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목회자님하고 서울의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 서울신대의 조직신학 교수님들하고 내년에는 한번 그분들끼리 모이셔서 성시신학이라는게 과연 의미가 있고 가능한거냐 그런 세미나도 여기서 열면 좋지요. 그런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귀한 토론회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진 장로

성시화라는 말하고 복음화라는 말은 시초부터 지금과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성시화운동대회를 치루고나서 성시화추진위원장으로 계셨던 김현호 목사님이 그 성시화추진위원회를 92년도에 해체하고 93년도에 목사님들이 다시 모이셔서 춘천복음화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해서 김현호 목사님이 그 복음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5년동안을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춘천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면면히 이어져 나오다가 25년이 지난 오늘날와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사실 학적으로 볼때는 복음화면 어떻고 성시화면 어떻고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믿고 전도해서 우선 개인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고 그 개인이 나가서 활동하는 집단이 변화받고 모든것이 예수믿고 변화받는 그런 도성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성시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복음화보다는 좀 새로운 용어고 또 이것을 김준곤 목사님이 성시화라는 것을, 물론 지금 보니까 학적으로 여러가지 다른데도 예가 있고 했습니다만 춘천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서 시작이 된 것뿐인데 복음화나 성시화나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당시에도 그렇게 복음화, 성시화라는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시화라는 것을 놓고 20여 년동안을 한결같이 기도해왔고 그 열매로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주체가, 사실 주체는 다 교회지요. 단지 중간역할을 해서 관계를 이어주는 것을 성시화운동본부가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표회장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공동대표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만을, 목사님들은 목회에 전념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중간역할을 해나가는 일을 하

기 힘드니까 거기서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서 실질적으로 전문요원이 있어서 일을 해 나간다는 것 뿐이지 어디까지나 주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지도요원이시고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나가자면 고쳐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목사님들이 다 해나가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절대 목사님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이뤄지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승현 목사님께서 지적해주신 설문내용에, 저도 사실 그건 못봤고 실질적으로 엊그제 간판붙이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건 지적해주시면 고치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혹시 설문내용에 오해를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에 고치고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국 목사

목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애기에게 너무 성인의 옷을 입히려고 해서 성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더욱 그런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질문자들이 발제자의 논문을 읽었으면 이미 해답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아주 좋은 논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읽을때에 성시화라는 단어 풀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갖다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성시화냐 복음화냐 이런 카다고리 신학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그러다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저는 어떤거라도 하겠습니다. 해야합니다. 그말이나 그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시화라 하면 좀 보이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 복음화가 영적인 것이라면 성시화는 딱 보이게끔 하는 데서 우리가 추진방향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체가 교

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교회대표들이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임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가는 겁니다. 질책하면서 반성하면서 계속 나가면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목사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막 태어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물론 72년에 이미 있었지만 지금 다시 태어난 아기 같은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공감, 공론의 과정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또 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시의 신학 그것이 단순한 지적인 과정이라기 보다 실제 우리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정으로서 성시신학연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미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구요. 그래서 신학적인 뒷받침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제자, 토론자, 질문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의 개관

(이 자료는 1996년 12월 춘천시에서 발간한 1996년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춘천의 연혁

춘천시는 옛날 맥국의 고도로서 신라 제27대 선덕 여왕 6년 (서기 637) 군주를 두어 통치하였으며 그 이름을 우수주라 불렀다.

신라 제30대 문무왕 13년 (서기 673) 우수주를 수약주 일명 오근내 또는 수차약으로 개칭하고 다시 경덕왕 때 삭주로 개칭하였다가 고려초 태조 23년(서기 940) 봄 춘(春)자가 든 춘주란 이름이 공식명으로 등장한다.

고려성종 14년 (서기 994)에 단련사를 두어 안변부에 속하게 하였으나 안변과의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고려선종 6년 (서기 1202)에 최충헌의 헌책으로 안양 도호부를 두어 안변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춘주는 조선조 건국초기까지 약 450년 간 칭하여졌으며 그 후 이조태종 13년 (서기 1412)에 현재의 이름인 춘천군으로 개칭하고 도호부를 두었다.

이조인조 5년 (서기 1627) 도호부를 없애고 방어사 또는 포토사를 두었다가 영조 23년 (서기 1746)에 방어사가 철원으로 옮겨짐에 따라 부사겸 좌영을 두었으며 고종 27년 (서기 1890) 춘천 유수 민두호로 하여금 왕명에 의하여 현 강원도청 자리에 이궁을 건축케 하여 조정이 위급할 시 피난처로 정하고, 고종 32년 (서기 1895) 종전 8도를 폐지하고 23개부 설치로 강원도에는 춘천부(13개군)와 강릉부(9개군)가 설치 그 후 고종 33년 종전의 23개부를 폐지하고 13개도 설치로 춘천이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이후 서기 1917년 이래 부내면을 춘천면으로 개칭하고 수원, 송도 등 24개 지정면의 하나가 되었으며 서기 1931년 조선지방 제도 개혁에 의하여 정부 지정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여 읍제도를 실시, 서기 1938년 당시 읍 전역과 신남면 칠전리의 일부를 포함한 시가지 계획을 실시하였고 서기 1939년 10월 1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신동면의 석사, 퇴계, 온의, 신북면의 우두, 사농, 후평 등 6리가 춘천읍으로 편입되었다.

서기 1946년 6월 1일 군정 법령 제 84호로 춘천군 춘천읍이 부로 승격, 춘천군을 춘성군으로 개칭한 후 서기 1949년 8월 15일 법률 제32호의 의거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부가 시로 개칭되었다.

서기 1973년 대통령령 제6542호 (서기 1973. 3. 12)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춘성군 신동면의 산천리, 칠전리, 송암리와, 서면의 금산리, 현암리 일부 및 신북면의 신동리가 춘천시로 편입되고 동산면의 북방리, 풍천리가 홍천군으로 편입되고, 북산면의 수산리가 인제군에 편입되었다.

서기 1992년 2월 1일 법률 제4417호에 준하여 춘성군에서 춘천군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법률 제4774호(94. 8. 3)에 의거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로 춘천시, 춘천

군이 춘천시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995. 1. 1)

특히 춘천은 1997년 지역간 지방자치제 평가 결과 내륙지방에서 지방자치 제도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 춘천 일반 현황

춘천시는 지형상으로 볼때 동단의 북산면 대곡리, 서단의 남면 관천리, 남단의 남면 한덕리, 북단의 사북면 오탄리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116,47㎢이다.

춘천시는 행정구역상 34읍면동, 611통리, 2,814개반으로 구획되어 있으며(도시지역:24동 422통 2,227개반, 농촌지역:1읍 9면 169리 587개반), 총 인구는 70,971세대에 233,016명(남:115,760명 여:117,256명)으로 1km2당 209명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각 가구당 평균인구수는 3.2명이다.

춘천시는 시화로는 개나리(노란색은 평화애호사상, 시민의 불굴의 투지와 단결, 전진적 자세 상징), 시조로는 산까치(소박하고 아름답게 사는 시민상), 시목으로는 은행나무(순결하고 바르게 사는 시민상), 시동물로는 호랑이(강인하고 진취적인 기상)를 지정하여 시의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다.

춘천시의 시기는 봉의산을 중심으로한 푸른 기상을 가진 시민의 순수. 솔직함과 민족혼, 소양강 물줄기를 지닌 호반 관광의 도시를 상징한다.

3. 통계로 본 춘천시의 현황

1) 면적, 기후

춘천시의 면적은 1,116,47km2로 북방의 화천군 하남면과 간동면 및 양구군의 양구읍과 남면을, 동방은 인제군의 남면과 홍천군의

두촌면.북방면을, 서방은 화천군 사내면과 가평군 북면. 가평읍을, 남방은 가평군 설악면과 홍천군 서면을 외곽경계로 하고 있다. 춘천은 전면적의 80% 이상이 산악지대에 속하며 평지가 극소한 관계로 도처에 산수가 수려하며 명산인 삼악산, 등선폭포, 구성폭포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분포하고 있다. 춘천시의 중심지를 흐르고 있는 소양강과 북한강에는 춘천댐(6.95km2), 의암댐(3.75km2), 소양강 다목적 댐(46.12km2) 등 풍부한 수력자원이 분포하여 호반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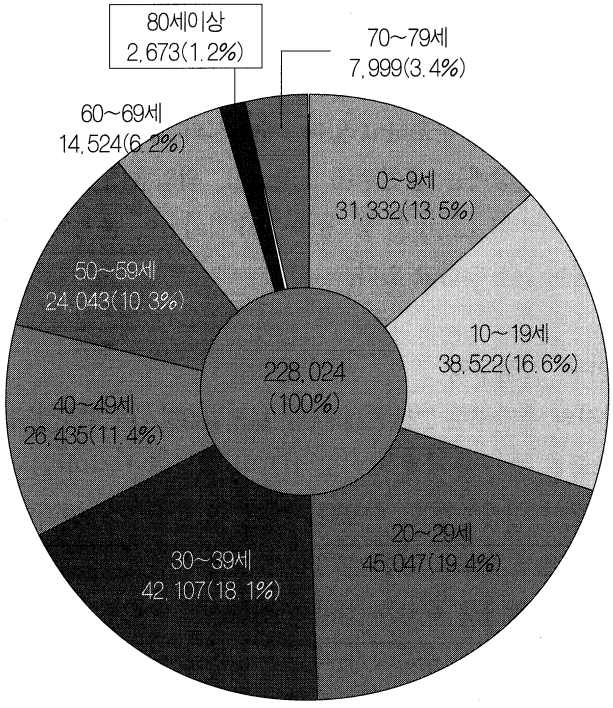
2) 인구, 행정구역

춘천시의 총인구는 228,024명(남 115,760명/ 여 117,256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사이에는 58,792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인구증가에는 출산 등의 자연적인 현상과 지역간의 전,출입으로 인한 인위적인 현상 모두가 작용하는데 춘천시의 경우 지역내로 유입된 인구로 인한 증가보다는 신생아 출산으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증가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별 인구분포로 볼 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층은 20-29세층이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층은 8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 인구증가표

인구증가추이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72,224명	174,035명	179,372명	183,414명	228,328명	233,016명

■ 연령별 인구 분포도



■ 행정구역 /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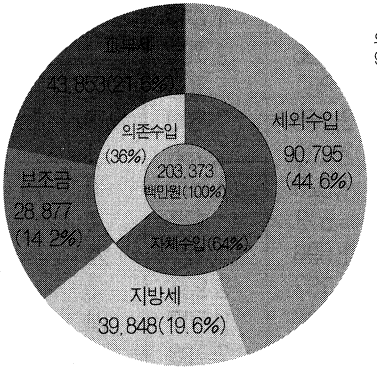
춘천시는 행정구획상 1읍 9면 24동으로 구분된다. 법정 동,리, 통,반의 현황을 살피면 총 29개 동에 442통, 78리, 2814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동별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후평3동, 인구가 가장 작은 지역은 칠송동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각 동,면 지역의 인구분포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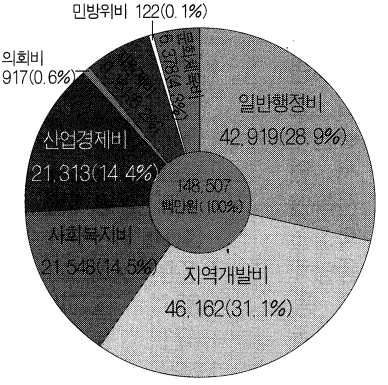
구 역	세 대	인 구			외국인
		계	남	여	
신북읍	2,610	9,108	4,615,	4,493	0
동 면	1,242	4,273	2,257	2,016	0
동산면	639	2,189	1,125	1,064	2
신동면	891	3,287	1,628	1,659	0
동내면	1,589	5,654	2,866	2,788	3
남 면	532	1,631	869	762	2
남산면	1,364	4,388	2,288	2,100	13
서 면	1,693	5,475	2,739	2,736	1
사북면	1,053	3,190	1,620	1,570	0
북산면	381	986	512	474	0
중앙동	1,129	3,321	1,596	1,725	27
교 동	1,871	5,740	2,787	2,935	6
조운동	1,671	4,924	2,407	2,517	24
약사동	1,598	5,338	2,630	2,708	2
죽림동	714	2,214	1,102	1,112	5
소낙동	1,053	2,951	1,445	1,506	3
근화동	2,568	7,961	4,000	3,961	0
소양동	1,095	3,325	1,597	1,728	6
호반동	1,089	3,526	1,792	1,734	1
후평 1동	4,888	15,815	7,763	8,052	57
후평 2동	5,216	16,938	8,267	8,671	36
후평 3동	7,969	26,852	13,121	13,731	49
효자 1동	2,236	7,398	3,720	3,678	12
효자 2동	5,254	16,602	8,298	8,304	26
효자 3동	2,101	6,640	3,337	3,303	9
석사동	4,212	13,593	6,887	7,066	21
퇴계동	6,656	22,941	11,314	11,672	10
온의동	2,780	10,002	4,943	5,059	2
삼천동	485	1,510	778	732	0
칠송동	123	454	238	216	0
사우동	2,175	7,244	3,653	3,591	17
우두동	1,127	4,004	1,979	2,025	0
사농동	443	1,475	735	740	
신 동	488	1,707	852	855	
총 계	**70,971**	**223,016**	**115,760**	**117,256**	**334**

3) 춘천시 재정 규모

■ 세 입



■ 세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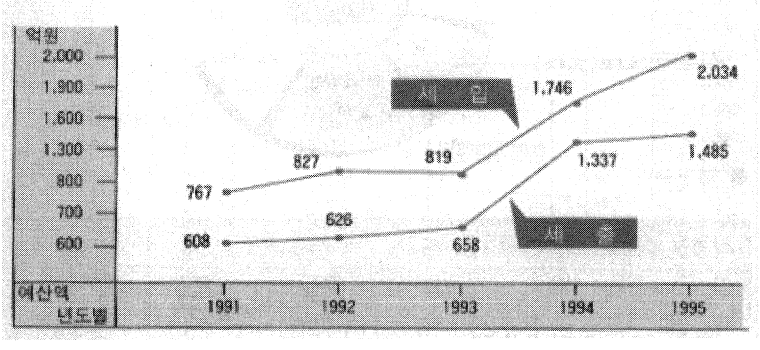


■ 특별회계(세입/세출)

(단위:백만원)

계	상 수 도	공영개발	하 수 도	지역개발	기 타
75,168 /52,112	14,335 /14,089	28,483 /10,758	9,888 /7,111	14,422 /13,745	8,240 /6,409

■ 일반회계결산추의



4) 사회, 복지

사회복지 정책이 잘 실현되는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복지수준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춘천시의 경우 전체 시민 가운데 6,411명(2.8%)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시의 도움을 받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란 개인소득 월 21만원 이하, 근로능력이 없으며 자신을 부양해 줄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를 말하며 자활보호, 거택보호, 시설보호의 3단계로 나뉘어진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6,411명 가운데 자활보호자 3,976명, 거택보호자 1,863명, 시설보호자 581명이 정부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춘천시의 보호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시설보호 시설

구 분	시설수	수용인원	시 설 명
아동복지시설	2	93명	애민보육원, 오순절보육원
노인복지시설	3	256명	시립양로원, 사랑의 집 시립요양원
장애인,부랑인 복 지 시 설	4	444명	강원도정신지체인자 자활원, 강원도 재활원, 시립복지원, 춘천정신요양원
부녀복지시설	2	110명	시립기술학교, 마리아보호소

5) 보건, 위생

▣ 보건기관

춘천 시내 의료기관은 총 256개소에 다다른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약국으로 113개소가 개업중이며 종합병원 3곳, 개인병원 98개소, 한의원 20개소, 25개소의 조산소 및 보건소

가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의 수는 간호사가 774명으로 가장 많으며 의사가 354명, 약사가 151명, 한의사가 23명, 조산사 6명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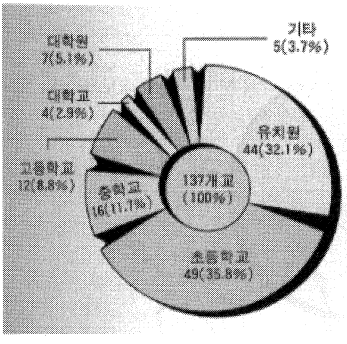
▣ 춘천시내 위생 접객업소 현황

분류	목욕탕	제과점	다방업	유기장	숙박업	유흥 음식점	이, 미용실	대중 음식점
계	43	97	168	116	249	224	563	3,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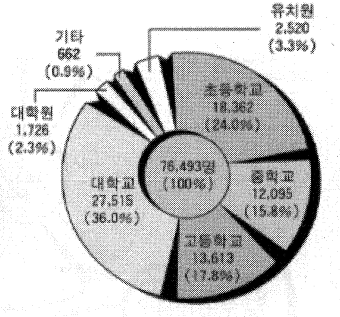
6) 교 육

교육도시라는 명성답게 춘천시내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를 포함하여 총 137개교의 교육기관이 산재하고 있다. 교육기관에는 모두 76,493명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어 배움의 길에 정진하고 있다.

▣ 학교수



▣ 학생수



7) 주택, 건축

춘천시내의 총 70,971 세대중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58,381세대(82.2%)에 이른다. 그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33,348세대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아파트(22,211세대), 연립주택(2,269세대), 기타 주거지에 490세대가 살고 있다.

8) 상, 하수도

춘천은 흔히들 물이 풍부한 도시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물의 보급률은 전체의 81.1%에 불과해 춘천시민의 수요량에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시당국의 효율적인 상수원 관리와 시민들의 물 아껴쓰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상수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율	시설용량	수요량	1인 1일 급수량
233천명	189천명	81.5	153천톤/일	19.252천톤/일	233천명

■ 하수도

구 분	계획총연장	개 설	보 급 률
계	441Km	69Km	15.6Km
오 수	220Km	36Km	16Km
오 수	221Km	33Km	15Km

9) 도로, 교통

춘천시의 계획도로는 모두 1,045,009m로 이중 1,039,509m가 개설되었다. 개설된 도로중에서는 포장도로가 64.4%, 비포장 도로가 35.6%에 이르고 있다.

▣ 도로 개설 및 포장 (단위:m)

계획도로			개설도로				비고
계획	개설	%	포장	%	비포장	%	
1,045,009	1,039,509	98.5	669,573	64.4	369,936	35.6	

▣ 차량

전국의 차량이 100만 대가 넘은 1997년도에는 춘천의 차량 증가율도 그와 걸맞게 상승하였다. 1990년도에 14,658대에 불과하던 차량이 1995년도에는 50,598대로 기하급수적인 차량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량증가율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 전 력

차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력의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사용의 증가세를 보였다. 1990년 연간 181,175천Mwh에 불과하던 전력사용률이 1995년도에는 421,906천Mwh로 증가하였다. 춘천시의 경우 전력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택용전력(135,010천Mwh)과 서비스업(134,588천Mwh)이며, 그외 산업용(81,006천Mwh), 공공용(71,302천Mwh)이 수요를 뒤따랐다.

12) 금융기관

춘천시내에 분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으로 한국은행, 시중은행으로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강원은행이 있으며 특수은행으로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농협, 수협, 축협,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교 회 연 령 표

1997년 8월 30일 현재

창립년도	해 당 교 회
1902년	춘천중앙교회(감)
1915년	천전교회(감)
1917년	남산교회(감)
1922년	남춘천교회(감) 석사교회(감)
1923년	강원한사랑
1931년	우두교회(감)
1933년	춘천교회(성공회)
1934년	춘천중앙교회(기성)
1939년	춘천제일교회(합동) 동부교회(예장통합)
1943년	천전교회(예장통합)
1946년	혈동교회(감)
1947년	영광교회(예장통합) 서상교회(예장통합)
1949년	산천교회(감)
1950년	신성교회(감)
1952년	신남교회(감)
1953년	가산교회(감) 지내리교회(감) 새누리교회(기장) 신북교회(통합) 성광교회(예장통합) 춘천교회(침례)
1954년	금산교회(예장통합) 소양교회(기성) 사북교회(기성) 한빛교회(예장통합) 신포교회(기장) 춘천성동교회(합동)
1955년	교동교회(기장) 춘천영문(구세군)
1958년	동산교회(예장통합) 영락교회(기성)
1959년	효신교회(성장)
1960년	성암교회(감)

창립년도	해 당 교 회
1962년	북산교회(감)
1965년	실로암교회(감)
1966년	경강교회(성장)
1967년	그리스도의교회 남춘천교회(침례) 삼천벧엘교회(기성) 성문교회(예장통합)
1969년	동원교회(감) 춘성교회(침례)
1971년	성문교회
1972년	순복음춘천교회 신매교회(감) 춘천교회(기성) 광장교회(감)
1973년	남부제일교회(감) 강촌교회(감)
1974년	벧엘교회(감)
1975년	원평교회(감)
1976년	춘천삼교회(기성) 중앙교회(침례) 후동교회(감) 춘천제일교회(감)
1977년	춘일교회(감) 충인교회(기성) 평강교회(예장통합)
1978년	지암교회(감) 평화교회(감) 금성중앙교회(감)
1979년	만천교회 거두리교회(감)
1980년	순복음제일교회 방동교회(예장통합)
1981년	성산순복음교회 신구약교회(기성) 후평장로교회(예장합동) 후평중앙교회(감)
1982년	동산교회(기장) 장본교회(예장합동) 의암교회(감)
1983년	벧엘교회 춘천호반교회 근화교회(기장) 후평중부교회(예장합동) 동춘천교회(감) 춘천중부교회(감) 하일교회(감)
1984년	춘천중부교회, 성은교회(예장합동) 일심교회(합개) 춘천영광교회(보수) 한길교회(감)
1985년	사우그리스도의교회 성산교회(예장통합) 상걸리교회(감) 한길교회(감)
1986년	구암교회(기성) 만민순복음교회 한우리교회 화목교회 (예장합동) 광명교회(대신) 동신교회(대신) 발산교회(감) 후령제일교회(감) 창신교회(감)

창립년도	해 당 교 회
1987년	동면교회 섬김교회(기성) 푸른교회 한신교회 하신교회(기장) 갈보리교회(감) 부암교회(감)
1988년	신포제일교회 주찬양교회(침례) 초원교회(감) 춘천제일 교회(침례) 동성교회(대신) 신일교회(대신) 서로사랑교회(예장통합) 팔미교회(감)
1989년	박암교회 사암중앙교회(기성) 산돌교회 열린교회(침례) 수정교회(예장합동) 신망애교회(예장합동) 신망애교회(대신) 제자교회 남부중앙교회(감) 반석교회(감)
1990년	군자교회(감) 대은교회(감) 늘푸른교회(예장합동) 온누리교회(예장합동) 하라교회(대신) 성민교회(개혁) 성은교회(개혁) 신민교회(고신) 춘천평화교회(기성)
1991년	강촌광림교회(감) 시온교회(기성) 안디옥교회(기성) 임마누엘교회(감) 생명수교회(감) 춘천광염교회(감) 충만교회(감) 주동행교회(예장합동) 춘천중앙교회(대신) 고향교회(대신) 중앙장로교회(대신) 신강교회(호헌) 대성침례교회 빌립보순복음교회 충만교회
1992년	백향목교회(감) 서춘천교회(감) 갈릴리교회(감) 나눔교회(기성) 온의교회(기장) 신광교회(예장합동) 단비교회(대신) 제일교회(기성)
1993년	사랑의선교교회9합보) 새문안그리스도의교회 순복음동문교회 순복음사랑교회
1994년	퇴계동교회(감) 은혜교회(감) 은혜교회(정통) 성민중앙교회(정통) 다솜교회(정통) 실로암교회 옥산포교회(침례) 춘천중앙교회 봄내교회(합개)
1995년	강변교회(기성) 남춘천교회(기성) 예강교회(합동) 목양교회(정통) 영안교회(정통) 퇴계제일교회(정통) 반석교회(통합) 베드로순복음교회 성장교회 성지순복음교회 주님의교회 진주문교회

창립년도	해 당 교 회
1996년	소양제일교회(기성) 좋은교회(감) 초대교회(감) 진리교회(감) 충만교회(대신) 사우동교회(개혁) 예성교회(합개) 새로남교회(예장합동) 광영교회(합보) 강남교회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 사랑제일교회 양문순복음교회 춘천예루살렘교회 평강제일교회 효자동교회 남춘천제일교회
1997년	동면교회(성장) 사랑교회

자료정리: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윤명희간사

성시화 관련 도서 목록

도시/나라/국가

그레엄 골즈 /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 (서울:한국성서유니온, 1993년)
문화진흥원 / 교회와 국가 한국교회 / (서울: 엠마오)
서영일 / 교회와 국가 / (서울:기독교문서선교, 1984년)
이장식 / 기독교와 국가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웨인A. 믹스 / 바울의 목회와 도시사회 /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윌리엄바클레이 /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 (서울:기독교문사)
윌리엄 멕코 /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 / (서울:한국기독교문화, 1989년)
자끄엘룰 / 도시의 의미 / (서울:한국기독학생회, 1992년)
정일웅 / 하나님 나라의 신학 / (서울:한국기독학생회)
정일웅 / 우리시대의 하나님 나라 / (서울:한국기독학생회)
정훈택 /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 (서울:생명의말씀사, 1993년)
정항회 / 국가와 자유주의 / (서울:성광문화사, 1981년)
존 도우슨 /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 (서울:예수전도단,)
쟈크라르땡 / 인간과 국가 / (서울:가톨릭출판, 1978년)
최기채 / 하나님 나라의 영광 / (서울:한국기독학생회)
최종고 / 국가와 종교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탐 사인 /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 / (서울:도서출판두란노)
프란시스 / 도시속의 죽음 / (서울:보이스사, 1985년)
하아비콕스 / 세속 도시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1993년)
헤르만리델보 / 하나님 나라의 도래 / (서울:생명의말씀사, 1993년)
홍창표 /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 / (서울:도서출판하나, 1994년)
h.린디쿰 / 하나님의 도시와 사탄의 도시 / (서울:나 단, 1993년)
M. H. 리이퍼 / 도시교회 목회론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R. 롬바르디 / 교회와 하느님 나라 / (서울:성바오로출판사, 1982년)
S. 갈릴래아 / 하느님 나라와 인간해방 / (서울:생활성서사)

세계관/윤리/사회

고재식 / 사회 문제와 기독교 윤리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1984년)
김정오 / 기독교 윤리사상 / (서울:한 글)
김경천 / 기술사회에 대한 반성과 기독교적 / (서울:C. U. P.)
강영안 / 기독교와 사회, 학문, 대학 / (서울:C. U. P.)
곽선희 / 천국의 윤리 / (서울:엠마오, 1987년)
노영상 / 영성과 윤리 / (서울:한국장로교출판)
노재성 / 교회, 민주주의, 윤리 / (서울:나 눔 사)
대천덕 / 신학과 사회 / (서울:C. U. P.)
데이빗 필드 /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 / (서울:한국성서유니온)
로날드 사이더 / 복음전도, 구원, 사회정의 / (서울:한국기독학생회)
로버트 눅슨 / 기독교 세계관 / (서울:라브리)
리처드플랙스 / 청년과 사회 변화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1963-83년)
리온 / 기독교와 사회학 / (서울:기독교문서선교)
리차드퍼킨즈 / 기독교와 사회학, 그 양자의 고찰 / (서울:두란노)
맹용길 / 현대인과 윤리 / (서울:기독교문사,1987년)
맹용길 / 자연, 생명, 윤리 / (서울:도서출판임마누엘)
몰트만 / 본회퍼의 사회 윤리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박봉배 / 기독교 윤리와 한국 문화 / (서울:성광문화사, 1983년)
박상걸 / 삶의 법칙과 신앙윤리 / (서울:말씀과 만나)
브라안왈쉬리 / 기독교 세계관 문화변혁 / (서울:풀빛목회)
심클레어퍼 / 하나님 나라의 윤리 / (서울:목회자료사, 1990년)
손봉호 / 사회 이해를 위한 기독교적 접근 / (서울:C. U. P.)
이상규 / 기독교 세계관에서 본 결혼, 가정관 / (서울:C. U. P.)
이상규 / 현대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 / (서울:C. U. P.)
이상규 / 현대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 / (서울:C. U. P.)
이원규 /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 (서울:성서연구사)
이원설 /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 (서울:혜림출판사, 1990년)

아더홈즈 / 기독교 세계관 / (서울:엠마오)
아루투어 리 / 경제윤리 / (서울:한국복음주의협회)
양승훈 / 기독교적 세계관 / (서울:C. U. P., 1990년)
양승훈 /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 (서울:C. U. P., 1990년)
양참삼 / 기독인의 윤리의식과 성경윤리 / (서울:예찬사)
양참상 / 사회 변동과 기독교 정신 / (서울:생명의말씀사, 1982년)
유의종 /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1년)
원동연 / 기독교 세계관에서 본 현대의 시대 / (서울:C. U. P.)
윌리암 바클레이 / 바클레이의 기독교 윤리 / (서울:보이스사, 1988년)
조주환 / 기독교 세계관에서 본 동양사상 비교 / (서울:C. U. P.)
조성표 / 성경에서 바라본 자본주의와 사회 / (서울:C. U. P.)
제임스 I. 패커 / 율법과 윤리 / (서울:백합출판사, 1985년)
제임스사이어 /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 (서울:한국기독학생회, 1995년)
전경연 / 예수의 교훈과 윤리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정재식 / 종교와 사회 변동 /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1982년)
죤 머리 / 성경과 기독교 윤리 / (서울:엠마오)
죤스타트 /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 (서울:기독교문서선교)
존매쿼리 / 희망의 윤리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존 헌터 / 타락한 사회의 그리스도인 / (서울:기독지혜사)
죤스토트 /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 (서울:도서출판두란노)
크리스토퍼 /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 (서울:한국기독학생회, 1989년)
크라우스 / 복음주의와 사회 윤리 / (서울:엠마오)
콜린 채프만 / 기독교 세계관 / (서울:나침반사, 1987년)
칼 하임 / 기독교 윤리 / (서울:컨콜디아사, 1982년)
칼빈 바이스 / 바른경제윤리 / (서울:나침반출판사, 1993년)
폴 마샬 / 기독교 세계관과 정치 / (서울:한국기독학생회, 1989년)
편집부 / 현대 사회와 기독교 윤리 / (서울:장신대출판부)

한금석 / 현대 사회와 기독교 윤리 / (서울:성광문화사)
D. 본회퍼 / 기독교 윤리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D.J.케네디 / 사회 개혁과 기독인의 사명 / (서울:예찬사)
J.몰트만 / 정치 신학, 정치윤리 / (서울:심 지)
R.C.스프룰 / 그리스도인과 윤리 / (서울:생명의말씀사)
W. 앤드루 /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 사상 / (서울:기독지혜사)

영성/상담/기도

고성가르멜 / 여영성의 대가 / (서울:분도출판사)
게리 콜린스 / 훌륭한 상담자 /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3년)
김상복 /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횃불)
김경재 /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1988년)
김화식 / 성경의 기도와 응답 / (서울:생활신앙사)
노영상 / 영성과 윤리 / (서울:한국장로교출판)
달라스윌라딘 / 영성훈련 / (서울:은성, 1993년)
데이빗 브라 / 기도합주회 / (서울:죠이선교회)
데오도르 / 믿음의 기도와 치유 / (서울:바울서신사, 1991년)
로버트맥가피 / 영성과 해방 / (서울:한국복음주의협, 1990년)
로린스 크랩 / 기독교 상담심리학 / (서울:나침반출판사, 1992년)
로랜스 크랩 / 격려를 통한 상담 / (서울:나침반출판사, 1986년)
루이에블리 /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 (서울:가톨릭출판, 1992년)
로버트다드 / 기도의 위대한 능력 / (서울:도서출판광림, 1989년)
로버트 콜만 / 영적 각성을 위한 작은 기도 모임 / (서울:죠이선교회)
박정열 / 영성 신학 / (서울:새순출판사, 1988년)
박희민 / 생활상담 / (서울:보이스사, 1983년)
베틸렙스 / 용서와 내적치유 / (서울:성요셉출판, 1989년)
서용운 / 어떻게 기도할까? / (서울:바울서신사)
송길원외 / 영성개발과 공동체 훈련 / (서울:한국문서선교회, 1987년)
스티븐 / 기도 걸음마 / (서울:한국기독학생회)

아키발트하트 / 목회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횃불)
이만홍 / 아스피린과 기도 / (서울:도서출판두란노, 1991년)
안재성 / 중고생의 성교육과 상담 / (서울:복지문화사)
안재성 / 비행 청소년과 상담 / (서울:복지문화사, 1983년)
알씨스프로울 / 올바른 기도를 위하여 / (서울:목회자료사, 1990년)
안토니블룸 / 기도의 체험 / (서울:카톨릭출판)
엘시깁슨 / 정직한 기도 / (서울:생명의말씀사)
앤드류 머레이 /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에서 / (서울:생명의말씀사, 1995년)
윌리엄 바클레이 / 바클레이의 기도모범 / (서울:규장문화사)
옥한흠 / 무엇을 기도할까 / (서울:도서출판두란노, 1990년)
앤드류 머레이 /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 (서울:아가페출판사, 1993년)
웨슬리 듀웰 /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 (서울:생명의말씀사, 1988년)
제랄드에간 / 상담의 실제 / (서울:한국장로교출판)
장신대 / 기독교 가족 상담 / (서울:한국장로교출판)
제랄드 에간 / 상담의 실제 / (서울:대한기독교서회)
정태기 / 위기목회상담 / (서울:대한기독교서회)
자크 엘룰 / 기도와 현대인 / (서울:두레시대, 1993년)
죠지뮬러 / 죠지뮬러와 기도의 응답 / (서울:생명의말씀사, 1995년)
죤 맥아더 / 예수님의 기도 / (서울:생명의말씀사, 1984년)
존 번연 / 존 번연의 기도 / (서울:생명의말씀사)
E.M 바운즈 / 끊임없는 기도생활의 비결 / (서울:크리스챤서적)
U. T. 홈즈 / 목회와 영성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1988년)

가정/결혼

겐게커 / 가정생활 세미나 / (서울:새순출판사, 1985년)
데이빗 필드 / 결혼의 일곱가지 얼굴 / (서울:도서출판두란노, 1991년)
데오드르 /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 / (서울:바울서신사)
로렌스J. 크 / 결혼 건축가 / (서울:도서출판두란노, 1990년)
래리 버켓 / 돈 걱정 없는 가정 / (서울:C. U. P., 1993년)

레리크리스텐 / 크리스찬 가정생활 / (서울:보이스사)
스몰 / 그리스도인의 결혼설계 /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이상규 / 기독교 세계관에서 본 결혼, 가정관 / (서울:C. U. P.)
오토A.피퍼 / 성과 결혼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1976년)
월터 트러비쉬 /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 (서울:도서출판카나리, 1973년)
원준자 / 결혼 교과서 / (서울:도서출판두란노, 1993년)
원준자 外 / 2000년대를 향한 성경적 가정과 교회 / (서울:나침반사)
양은순 외 3 / 행복한 가정생활 / (서울:C. U. P.)
양은순 /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 (서울:나침반사)
에디스 쉐퍼 / 가정이란 무엇인가 / (서울:생명의말씀사, 1981년)
에브린 펠리 / 사랑, 성, 그리고 결혼 / (서울:생명의말씀사,1991년)
제임스 돕슨 /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에 관한 문답 / (서울:생명의말씀사)
정동섭 / 당신의 가정도 치유될 수 있다 / (서울:도서출판하나)
주수일 / 아름다운 가정의 비밀 / (서울:국민일보사, 1991년)
죤맥아더 /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 / (서울:나침반출판사)
죤맥아더 / 교회생활과 가정생활의 성경적조화 / (서울:나침반사)
존스토트 / 결혼과 이혼 / (서울:도서출판두란노, 1991년)
죤네이스비트 / 사랑과 결혼을 위한 인생론 / (서울:-예찬사)
진 A. 게츠 / 결혼생활의 지혜 / (서울:보이스사, 1986년)
잭메이홀 / 부부사랑 그 이상의 결혼 / (서울:네비게이토, 1988년)
찰스 R. 스윈돌 / 행복한 가정생활 창조법 / (서울:나침반출판사, 1986년)
찰스 R. 스윈 / 결혼생활의 성공 / (서울:보이스사, 1982년)
파울코르네 / 사랑과 결혼 / (서울:가톨릭출판, 1989년)
패그. 리랜킨 / 결혼학교 / (서울:나침반사, 1987년)
헨리브란트 / 결혼과 가정생활 / (서울:생명의말씀사)
헨리브란트 / 결혼과 가정생활 / (서울:생명의말씀사)
Joen Macarth / 복받는 가정 / (서울:강성, 1992년)

여성/남성

댄벤손 / 완전한 남성 / (서울:보이스사, 1979년)

린 페인 / 남성다움의 위기 / (서울:도서출판바울, 1997년)

메리에반스 / 성경적 여성관 / (서울:한국기독학생회, 1992년)

마라벨몰간 / 완전한 여성 / (서울:보이스사, 미상)

마라벨몰간 / 진정한 여성 / (서울:범우사, 1977년)

박영득 / 구속으로 본 성서의 남성연구 / (서울:소망사)

베벌리라하이 / 성령으로 사는 여성 / (서울:보이스사)

송길원 / 여자, 여성 그리고 여인들 / (서울:한국문서선교원)

이블린크리스 / 여성이 기도할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 (서울:보이스사, 1978년)

유지니아프라 / 성경에 나온 위대한 여성들 / (서울:보이스사)

제임스도브슨 /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남성 / (서울:보이스사)

진 A. 게츠 / 남성의 지혜 / (서울:보이스사, 1981년)

죤칼빈 / 칼빈이 말하는 교회에서의 여성과 남성 / (서울:도서출판솔로몬)

최만자 / 새하늘, 새땅, 새여성 / (서울:생활성서사)

팀라하이 / 남성성격과 체질의 이해 / (서울:보이스사)

허광재 / 기독교 여성학 / (서울:선교신학연구회)

E. 프라이스 / 여성이 여성에게 / (서울:생명의말씀사)

E. 트로비쉬 / 여성이 된 기쁨 / (서울:생명의말씀사, 1980년)

J. 알란페터 / 남성만을 위하여 / (서울:보이스사, 1978년)

K.G.스미드 / 참다운 남성은 / (서울:생명의말씀사, 1980년)

S. 루카리니 / 우리시대의 여성 / (서울:성바오로출판사, 1989년)

경제/돈

김재진 /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경제발전 / (서울:C. U. P.)

김세열 / 기독교 경제학 / (서울:도서출판무실, 1990년)

두란노출판부 / 돈 / (서울:도서출판 두란노)

대천덕 / 성경적 경제의 기초원리 / (서울:C.U.P., 1990년)

래리 버켓 /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 / (서울:C. U. P.)
래리 버켓 / 돈 걱정 없는 가정 / (서울:C. U. P., 1993년)
래리 버켓 / 그리스도인의 바른 경제생활 / (서울:나침반사)
박두헌 / 기독교인의 경제원리 / (서울:교회교육연구원)
앤드류머레이 / 돈 / (서울:생명의말씀사, 1973년)
자끄엘룰 / 사람과 돈 / (서울:청노루, 1987년)
자끄엘룰 / 하나님이냐 돈이냐 / (서울:대장간, 1991년)
조상국 / 성경적 경제 원리와 현실적 가능성 / (서울:C. U. P.)
조상국 / 크리스찬 경제학도를 위하여 / (서울:C. U. P.)
죤 에반지니 / 하나님의 경제원리 / (서울:도서출판 선교문, 1990년)
하워드 L / 돈의 성경적 사용법 / (서울:보이스사, 1988년)
R.C.FORSTE / 돈, 섹스, 권력 / (서울:도서출판두란노)

직업

두란노출판부 / 직업 / (서울:도서출판 두란노, 1990년)
래리 피바디 / 직업과 하나님 / (서울:도서출판 두란노, 1990년)
빌하이벨 / 직장속의 그리스도인 / (서울:도서출판한세, 1993년)
방선기 외 / 크리스챤 직장인의 고뇌와 갈등 / (서울:도서출판두란노)
조성표 /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 / (서울:C. U. P.)
제리화이트 / 당신의 직업 - 생존이냐, 만족이냐? / (서울:네비게이토)
존윌리암제링 / 크리스찬의 직업선택 / (서울:보이스사, 1988년)
E. M. 후츠 / 직장 생활과 그리스도인 / (서울:네비게이토, 1990년)

교육

노르만 / 현대 기독교 교육 / (서울:엠마오, 1984년)
루시언 / 교육하는 교회 / (서울:요단출판사, 1986년)
로이쥬트와 / 교회의 청소년 교육 / (서울:생명의 말씀사)
성 아우구스 / 기독교 교육론 / (서울:크리스챤다이제, 1992년)
수잔쉐퍼 / 라브리의 가정교육 / (서울:한국로고스연구)
제임스 돕슨 /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에 관한 문답 / (서울:생명의말씀사,

1992년)
헤르만 호온 / 예수님의 교육원리 / (서울:요 나)
H.W.버쥐스 / 기독교 교육론 / (서울:정경사)

의료/환경

김정욱 / 환경을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 / (서울:C. U. P.)
니겔 캐더린 / 낙태:위기에 처한 기독의료 윤리 / (서울:횃불)
니겔 캐더린 / 기독교 의료 윤리 / (서울:횃불)
린트 K. 콜드 / 환경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방지형 / 공동사회의 환경관리 / (서울:성광문화사)
슈어만 / 현대 환경문제의 성경적 진단 / (서울:도서출판솔로몬)
일경산업신문 / 환경 비즈니스 / (서울:김영사, 1992년)
양승훈 / 환경문제 / (서울:C. U. P., 1993년)
오딜한네스 / 세계와 환경 / (서울:한국복음주의협, 1990년)
최창섭 / 언어와 환경 / (서울:성바오로출판사, 1986년)
총회환경보전 / 환경보전운동 / (서울:한국장로교출판, 1993년)
H.L.스미스 / 현대의학과 윤리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1983년)

문화

김지철 / 조성복음과 문화 / (서울:혜림출판사)
김득룡외 / 기독교와 문화 /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91년)
도오슨 / 기독교 문화와 현대 문명 / (서울:성광문화사)
로버트E.웨변 / 기독교 문화관 / (서울:엠마오)
리처드니이버 / 그리스도와 문화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1958년)
송준섭 / 현대문화와 텔레비전이라는 굴레 / (서울:선한이웃, 1993년)
신상언 /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 (서울:낮은울타리)
신상언 / 대중문화 최후의 유혹 / (서울:낮은울타리)
이만열 / 한국 기독교 문화 운동사(3) / (서울:대한기독교출판, 1987년)
윌리암포어 / 텔레비전 / (서울:도서출판두란노, 1993년)
윌로우 뱅크 / 복음과 문화 / (서울:한국기독학생회)

최창섭 / 교회와 미디어각론 / (서울:성바오로출판사, 1979년)
최창섭 / 인간과 미디어환경 / (서울:성바오로출판사, 1990년)
켄 마이어스 / 대중문화는 기독교의 적인가 동지인가? / (서울:나침반사)
한승홍 / 문화 종교학 / (서울:성지사)
E.A.니다 / 문화속의 종교 / (서울:한국기독학생회)

공동체

니타잭슨 / 공동체 관계훈련 / (서울:도서출판무실, 1992년)
도날드G블뢰 / 세계의 예수 공동 / (서울:도서출판무실, 1991년)
송길원외 / 영성개발과 공동체 훈련 / (서울:한국문서선교회, 1987년)
오세철 / 더불어 사는 공동체 / (서울:예영커뮤니케이, 1993년)
에딧쉐이퍼 / 작은 공동체 라브리 / (서울:신망애출판사)
장. 바니에 / 공동체와 성장 / (서울:성바오로출판사, 1985년)
정호경 /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 (서울:분도출판사)
죤 드라이버 /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 (서울:도서출판무실)
존스톳트 /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 (서울:아가페출판사)
하워드스나이 / 그리스도의 공동체 / (서울:생명의말씀사, 1987년)
A. 바레이로 / 기초 교회 공동체 / (서울:성바오로출판사, 1990년)
G. 로핑크 /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 (서울:분도출판사, 1985년)

자료정리: 춘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박혜진 간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직표

대표회장 : 임택창
고　　문 : 곽철영 강원하 양인평 전용태 이범찬 윤중국 배계섭
공동대표 : 권오서 김창수 차관식 김광국 임신영 최운택 박상호 윤철중
이원호 김주환 황영찬
지도위원 : 길동휘 신청웅 김영원 한　균 노정관 정상문 이복규 김은일
김종만 사공정 김유식 김창환 최해수 신재원 오승룡 백승호
하기철 정상교 조영호 윤학원
본 부 장 : 조남진
분과위원 : 선교분과 한　균 / 기도분과 조은제 /
교회분과 길동휘 김유식 / 사회분과 김남철 /
문화분과 조충환 / 교육분과 이학규 심인섭 /
가정분과 백명임 / 여성분과 김명숙 /
재정분과 류근창 / 청소년분과 최현섭
사무국장 : 이경준
협동국장 : 오승룡
기획실장 : 차성도
전임간사 : 임성택

책을 만든 사람들

발행인 : 임택창
편집인 : 조남진
편집지도위원 : 권오서 김광국 김주환 김창수 박상호 윤철중 이원호
임신영 차관식 최운택 황영찬
편집위원 : 김기태 김영명 양인평 엄기홍 오승룡 이갑용 이경준 이범찬
이학규 조은제 조충환 허문영
편집실무 : 차성도 이영길 정재호 최상도 임성택 박혜진 전병국 신승일
윤명희 이지아 김효진 손정환 김춘배

편집후기

얼음이 풀리던 새봄부터 시작된 책자발간사업은 무더위와 싸우던 여름을 넘어,
이제 만물이 열매맺는 가을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작업의 시작에서부터 격려와 가르침으로, 때론 따끔한 충고와
애정의 책망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착한 열매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성시화!!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

♦♦♦

초판발행 / 1997년 11월 20일
등록번호 / 제 13-46
엮은이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 조용기
발행처 / (주)신앙계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7
출판부 / 785-3347,8
사업부 / 785-3814

값 10,000원

성시화 운동

Holy City Movement

성시화운동이란 그 도시의 모든 영혼,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되어 한 도시 전체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지도록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총체적 복음화운동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1972년 여름, 춘천지역의 교회와 단체들의 연합과 한국대학생선교회의 후원으로 전개된 한국 최초의 성시화운동이었습니다. '심령마다 그리스도화 되기 위하여', '춘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 되기 위하여' 라는 꿈을 지니고 시작한 춘천성시화운동은 이후 전국 각지에 영향을 주어 지역 복음화 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다음의 개념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복음전도운동입니다.

영혼구원의 노력없이는 어떠한 도시도 참된 의미에서 복음의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며, 영혼구원은 도시 선교의 중심축이 됩니다. 성시화운동은 근본적으로 *복음전도운동*입니다.

교회공동체 회복운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성된 거룩한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적이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성시화를 목적으로 교회와 지역교회들이 온전히 연합하여 전개되는 성시화운동은 근본적으로 *교회공동체 회복운동*입니다.

사회 개혁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명령과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회적, 문화적 책임도 부여하셨습니다. 성시화운동은 타락한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총체적 *사회·문화 변혁운동*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꿈(VISION)이 있습니다.

예수 도시, 복음 도시, 성시의 꿈입니다. 최초의 춘천성시화운동 1972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도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도시를 꿈꾸어봅니다.

사랑과 섬김, 공의가 제일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도시,

주님으로 인하여 예술과 문화, 과학이 꽃피는 도시,

낮은 자, 약한 자가 경시되지 않는 도시,

정처없이 유랑하는 나그네들도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도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얻듯,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함께 복에 참여하는 도시,

성서적 희년(禧年)의 의미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동안 실천된 기독교적 유산의 모든 장점들을 이 한 도시에 쏟아붓고 싶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것도, 빛바랜 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주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책값 10,000원